

MIMESIS



일러두기

● 이 책은 열린책들의 브랜드 미메시스(2005년 설립)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2009년 건축), 미메시스디자인(2010년 설립), 사람의집(2021년 설립)에서 고안하고 발신하는 모든 도서, 전시, 문구, 상품 등을 소개한 것입니다.

● 이 책의 정보들은 2023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책값, 기간 도서, 전시 제목 등은 이후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표시된 발행 연도는 초판 발행 연도입니다.

● 전자책으로도 발행되어 있거나 발행 예정인 도서는 서지 정보에 e 표시를, 오디오북으로 발행되어 있거나 발행 예정인 도서는 a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 이 도서 목록에 사용된 <견장정>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양장> 혹은 <하드커버>의 대응어입니다. 통상적으로 제책 방식을 구분하기 위해 <양장>, <무선>(소프트커버) 등의 말이 쓰이고 있으나, 어휘와 개념이 일치하지 않고 마땅히 용어로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열린책들과 미메시스에서는 <하드커버>와 <소프트커버>에 대하여 각각 <견장정>과 <연장정>이라는 용어를 제안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각 도서의 판형은 원지에 따른 규격 표현 방식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A4(210mm×297mm, 구용어로 국배판, 이하 괄호 속 구용어), A5(148mm×210mm, 국판), B5(188mm×254mm, 4×6배판), B6(128mm×188mm, 4×6판), 크라운판(176mm×248mm) 등으로 표기하였고, 이 치수에서 벗어나는 판형에 대해서는 <변형>이라는 말을 덧붙이거나 <규격외>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 이 책에 실린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사진들은 열린책들에서 포르투갈의 건축 사진작가 페르난두 게하에게 의뢰해 촬영한 작품들입니다.

Photographs: Tanaka Katsu (pp. 8~9)

Photographs: Fernando Guerra (pp. 162~169)

MIMESIS

미메시스
사람의집

MIMESIS BOOKS

OUR HOME BOOKS

MIMESIS ART MUSEUM

MIMESISDESIGN

23



MIMESIS BOOKS



예술

건축

그래픽노블

문학 / 인문 / 기타

OUR HOME BOOKS

자서전 / 평전 / 회고록

의학 / 건강법

126

MIMESIS ART MUSEUM

전시
이용 안내

152

MIMESISDESIGN

에딧 다이어리
북시리즈
디자인스 시리즈
데스크 에디터 시리즈
작가 시리즈
기타
B2B

052









B E R N A R D W E R B E R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고양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원작
프로그 작화 / 나이스 컴 그램 / 김재현 옮김

BIBLIOMON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아이들을 위한
세계의 공간

국제 청소년 글쓰기 센터 연행 지음
김아림 옮김
도서관해재단 씨앗 감수



Unnecessarily Beautiful Spaces for Young Minds on Fire

피요리시스

주식회사 르브론 제임스

억만장자 운동선수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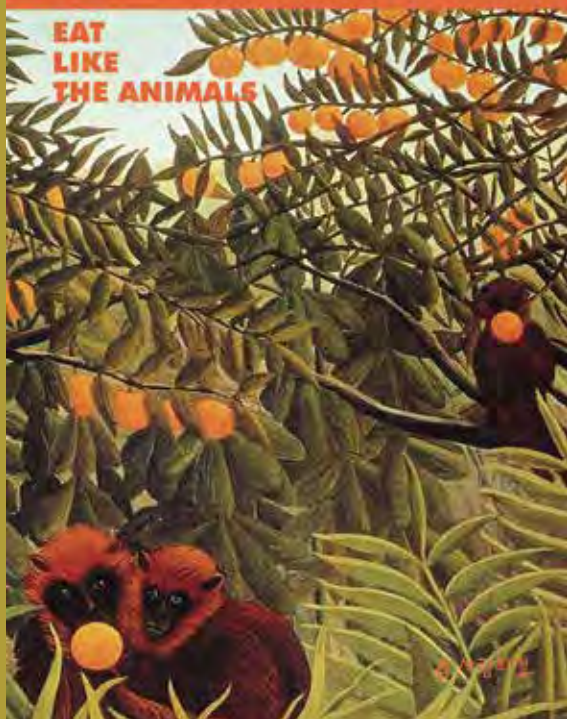
LEBRON, INC.

♣ 사랑의집

식욕의비밀

데이비드 호번(미국), 스티븐 L. 핑크슨(미국) | 이현정 옮김

동물에 관한 가장 궁금한 수수께끼 중 하나













mimesis



MIMESIS BOOKS

미메시스

예술

건축

그래픽노블

문학 / 인문 / 기타

미메시스 2005년 열린책들이 설립한 예술서 출판사로, 미술, 디자인, 건축, 만화, 영화, 사진, 문헌학, 그래픽노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책을 출판하고 있다. 무엇보다 책격에 맞는 아름다운 장정과 디자인을 지향하며, 〈예술적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서적들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미메시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중 하나는 예술가들의 자서전, 창작 노트, 일기, 예술 에세이의 출간이다. 특히 비평가들이 쓴 작가에 관한 〈담론〉보다는, 예술가들의 〈육성〉이 담겨 있어 그들의 삶과 예술혼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책을 우선적으로 출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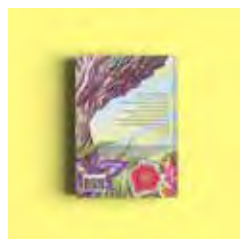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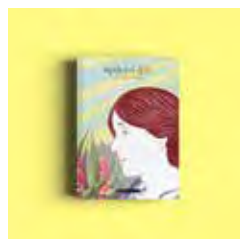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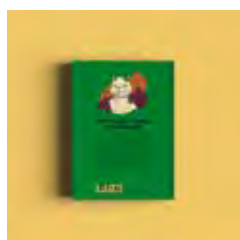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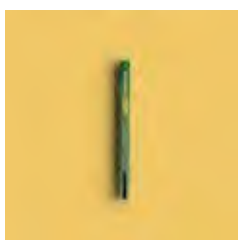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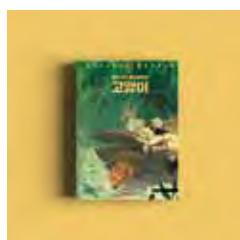
이런 기획으로 그동안 만 레이, 카림 라시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필립 스타크, 앤디 워홀, 아이웨이웨이, 장자크 상페 등 여러 예술가의 책을 꾸준히 출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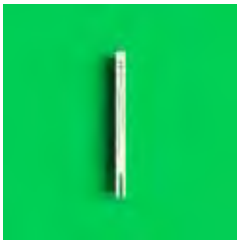
건축 도서 또한 미메시스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에이드리언 포티의 『건축을 말한다』를 비롯하여, 밀드레드 프리드먼이 엮은 『게리』, 브루스 브룩스 파이퍼의 『라이트』 등 건축 작품과 건축가의 생각을 함께 읽을 수 있는 도서들을 출판하고 있다.

독창적 그림과 소설 못지않은 서사 구조를 갖춘 그래픽노블과 만화들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에드워드 고리 시리즈, 레제르 컬렉션 등 이미 가장 반열에 오른 만화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래픽노블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바스티앙 비베스, 크레이그 톰슨, 브레흐트 에번스 등 각국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소설, 에세이, 건강서 등 예술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발을 넓혀 독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 늘 노력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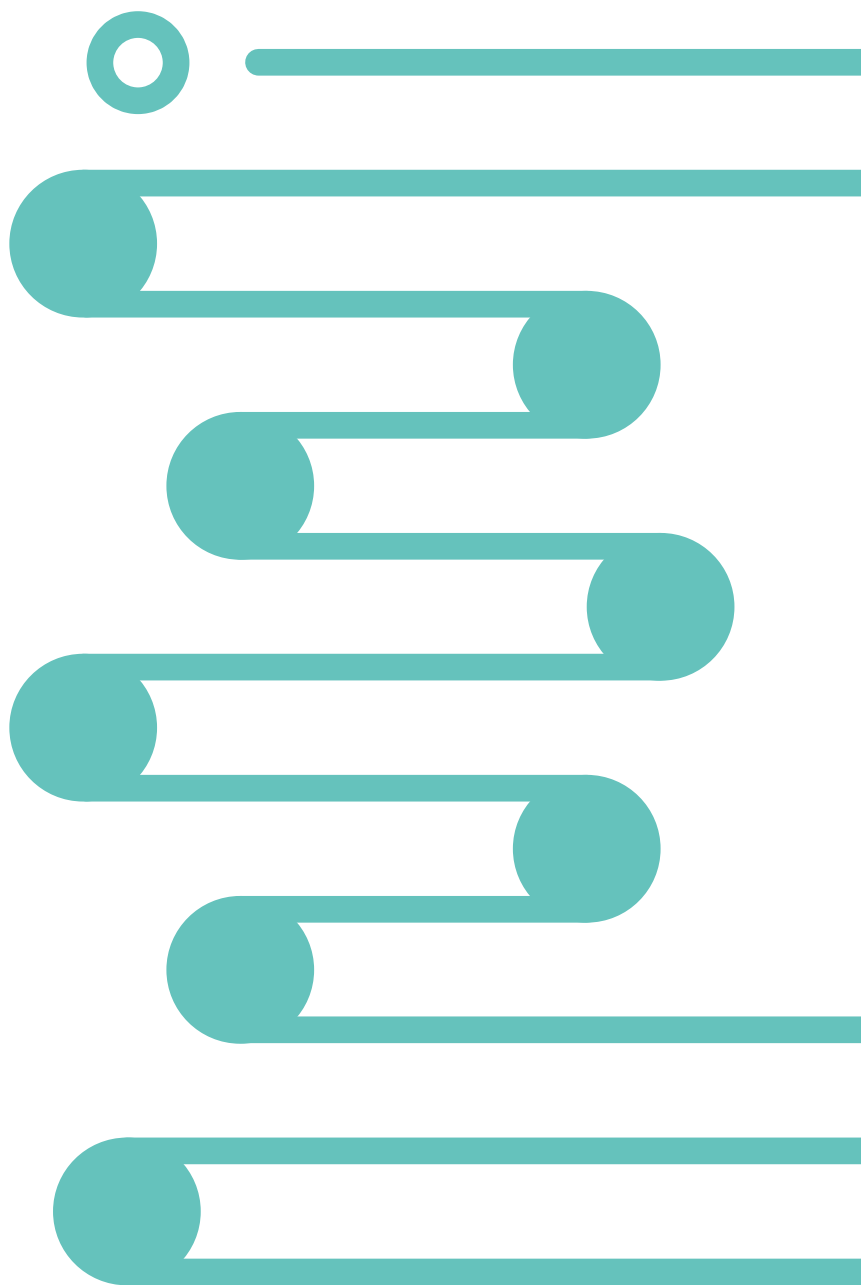
Mimesis started in 2005 as the imprint under which Open Books published its art books. Since then it has been publishing a broad range of publications on fine arts and contemporary art, design, architecture, photography, cinema, performing arts, illustration, cartoons, graphic novels, as well as autobiographies by great artists such as Andy Warhol, Frank Lloyd Wright and Man Ray, Karim Rashid, Philippe Starck, Jean-Jacques Sempé. Mimesis has been praised for the quality and originality of its catalogue and the pioneering role it is playing in art publishing in Korea. Its books have earned recommendations from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in 2006 (*The Book: A History of the Bible*) and 2007 (*Art History: An Introduction*). The translation of the *Andy Warhol Diaries* won the 50th Korean Publishing Culture Award for Best Editing in 2009. Mimesis became a leading publisher of foreign graphic novels and also recently started publishing foreign and Korean fiction, including the *Take Out* series, an original collection of illustrated Korean novellas. There are over 240 Mimesis books so far, and many titles are currently in preparation. Mimesis will continue to explore the world of art and literature and to add more inspiring works to its eclectic and colorful catalogue.





앤디 워홀, 폴 골드버거, 카림 라시드, 안도다다오, 필립 스타크, 프랑
마누엘레 피오르, 데이비드 마추켈리, 바스티앙 비베스, 제프 르미
브르통, 다비드 베, 시릴 페드로사, 브레흐트 에번스, 수신지, 스티븐
폭스, 칠리 마로, 지미 볼리외, 프레데릭 파작, 레아 룬트, 매트 키시,
홍지웅, 마리노 네리, 보두앵, 트루프스, 오연경, 리차드 아피냐네시, 권
로렌 레드니스, 스테펜 크베넬란, 바바라 스톡, 나오미 폴록, 알베르
맷차, 헬레나 슈츠, 에트가르 케레트, 아사프 하누카, 권윤주, 송아름
페르난도 비센테, 클로에 크뤼쇼데, 미셸 팽송, 모니크 팽송샤를로, 스
파스칼 라바테, 알프레드, 조이 서그(조엘라), 리처드 맥과이어, 그
박은영, 이대미, 백수현, 반이정, 로라 베이츠, 스콧 맥클라우드, 카
이상헌, 훗한나, 제여란, 황정하, 피에르 르메트르, 크리스티앙 드 메
노상호, 김학찬, 권신홍, 미셸 시메스, 파트리스 롬덴, 전석순, 강호
임수민, 오한기, 소냐리, 최진영, 변영근, 최은영, 손은경, 박찬용, 손
아방, 김엄지, 람한, 정용준, 무나씨, 최정화, 이빈소연, 김이환, 박혜
전승보, 비탈리 콘스탄티노프, 유세윤, 유민하, 나이스크, 조성민, 리
기야르, 파울로 파리시, 롬 데이비스, 타이팩스, 마르탱 크네엔, 랜
세레넬라 콰렐로, 마우리치오 콰렐로, 조성환, 리우바 가브리엘레, 최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프랭크 게리, 장자크 상페, 루이스 칸, 만 레이,
어, 파울로 코시, 데이비드 스몰, 뱅상 소렐, 아이웨이웨이, 앙드레
홀, 크레이그 톰슨, 체스터 브라운, 올리비에 탈레크, 토마 카덴, 레이
, 유디트 바니스텐달, 보위 스타일, 마르틴 뱅상, 브리지트 뒤리외,
용득, 서경욱, 브루스 파이프, 노엘 랑, 로드리고 가르시아, 폴 커시너,
카뮈, 호세 무뇨스, 존 맥노트, 페드로 리에라, 나초 카사노바, 에밀리
삼, 톰 티라보스코, 크리스티앙 페리생, 이광래, 칼 마르크스, 엥겔스,
티븐 콜린스, 비톨드 리브친스키, 페니 스파크, 더프 백더프, 댄 마셜,
자비에 뤼사, 클레망 우브르리, 질리 비르망, 브라이언 리 오말리,
가타리나 그레베, 로빈 브론크, 제프 베스파, 손현, 강주은, 이선민,
테르, 정장진, 손정민, 김준성, 이토 시오리, 정세랑, 한예를, 배명훈,
가길, 키미앤일이, 최은미, 최지욱, 박민정, 유지현, 황현진, 신모래,
은아람, 성립, 정지돈, 최지수, 한유주, 오혜진, 임현, 김혜리, 은모든,
미, L. S. 힐턴, 반나 빈치, 정재윤, WGNB, 윤형택, 유정민, 김선미,
미, 강수경, 프레드 포드햄, 리아 김, 김기열, 프랑수아 베고도, 세실
민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엘리사 마첼라리, 바스티앙 루키아,
용, 베르나르 베르베르, 포그, 나이스 캥, 국제 청소년 글쓰기 센터 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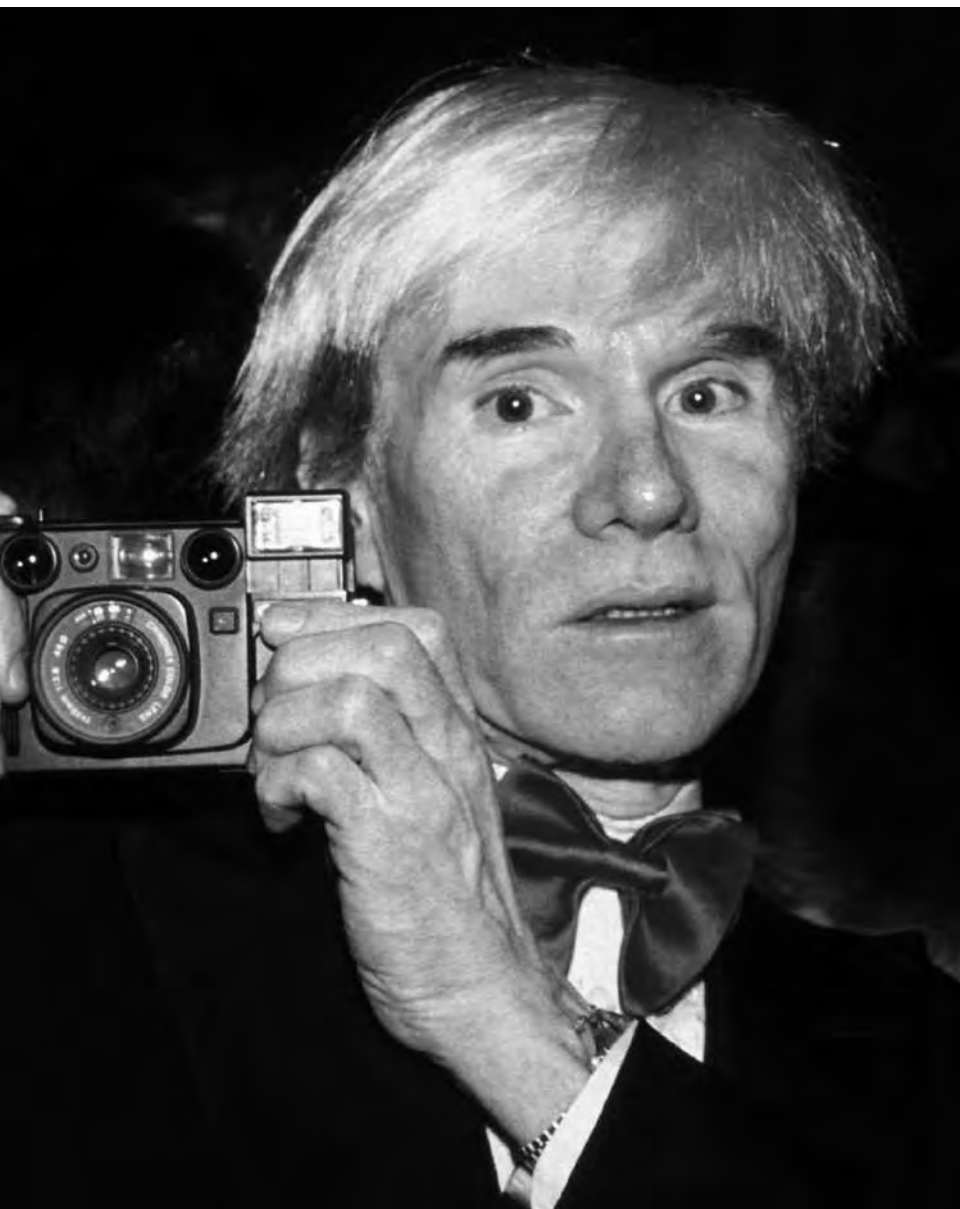




Art

예술





앤디 워홀의 철학 ★12쇄

앤디 워홀 | 김정신 옮김 | 2007년 | 288면 | A5 변형 연장정 | 16,800원

앤디 워홀 일기 ★4쇄

앤디 워홀 | 팻 해켓 엮음 | 홍예빈 옮김 | 2009년 | 980면 | A4 변형 연장정 | 45,000원

mimesis books

Andy Warhol

앤디 워홀

팝 아트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앤디 워홀은 192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슬로바키안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피츠버그 카네기 공과 대학에서 회화와 디자인을 공부한 앤디 워홀은 1949년 뉴욕으로 진출, 『보그』, 『바자』 등 유명 패션지의 삽화와 광고 제작에 참여하며 상업 디자이너로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순수 미술로 전환하여 평단의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는데, 1962년 시드니 재니스 화랑에서 열린 「뉴 리얼리스트」전에 출품한 「캠벨 수프 캔」이 그 대표 작품이다.

워홀은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을 순수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끊임없이 복제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술 자체의 정의를 재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뉴욕에 〈팩토리〉라는 이름의 스튜디오를 열고 〈예술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작품을 찍어 내게 하였다. 대중의 관심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술 작품 자체를 대량 생산하였던 것이다.

일상의 모든 것이 예술 소재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일상적 사물들이 갖는 보편성과 대중성이 미국 문화의 본질이자 미래의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바라고 보았던 그는 자신의 예술을 정당화할 어떤 철학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스스로 작품을, 사랑을, 시간을,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성공시켜 나가는지를 세세한 기록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



아이웨이웨이

한스 올리히 오브리스트 | 윤길순 옮김 | 2011년 | B6 변형 연장정 | 9,800원 **e**

아이웨이웨이 블로그

아이웨이웨이 | 리 엠브로지 엮음 | 오숙은 옮김 | 2014년 | B6 변형 연장정 | 25,000원 **e**

mimesis books

Ai Weiwei

아이웨이웨이

중국 서쪽의 고비 사막 끝에서 1958년에 태어나고 자란 아이웨이웨이는 1970년대 후반에 베이징으로 이주하여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스타즈>로 알려진 그룹에서 활동했다. 1981년 이들의 전시에 보복을 가한 정부의 탄압을 피해 뉴욕으로 거처를 옮겨,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수학하고, 뉴욕에서 14년을 지내다가 1993년 중국으로 돌아온다.

베이징에 자리를 잡은 아이웨이웨이는 당시 태동하고 있던 중국 최초의 전위 미술의 중심점이 되었다. 이후 자신의 예술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놀랍고도 유명한 건축가로서 부상하며, 지금까지 50여 개가 넘는 건축 프로젝트를 실현하였다. 그를 진정한 21세기 예술가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다양한 역할이다. 미술가, 디자이너,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큐레이터, 출판인, 블로거, 또한 베이징의 세대를 초월한 모든 예술가의 나침반이기도 하다. 현재, 아이웨이웨이는 정치 활동가로서도 활동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2013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2013), 제12회 도큐멘타(2007), 제5회 아시아 태평양 트리엔날레(2007), 제15회 시드니 비엔날레(2006) 등 우수한 세계적인 전시회들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내면화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021년 12월, 국내 첫 대규모 전시인 「아이웨이웨이: 인간미래」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개최하여 연일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르코 시리즈

아르코 시리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의 <문화예술총서> 출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아르코 박스는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문화와 예술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진단함으로써 문화 예술 정책 개발을 위한 학술적이고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

아르코 01. 지역 예술 운동

젠 코언-크루즈 | 권영진 옮김 | 2008년 | 328면 | A5신판 견장정 | 12,000원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 중심 퍼포먼스를 소개하는 책이다. 공동체 중심 퍼포먼스의 시작 배경부터 발전 과정까지를 집대성했다. 미국 흑인들의 준벅 프로덕션, 애플래치아의 로드사이드 극단, 푸에르토리코인들의 프레고네스 극단 등 아홉 가지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아르코 02. 공공성 ★2쇄

현진권 외 | 2008년 | 300면 | A5신판 견장정 | 12,000원

최근 공공 미술, 공공 예술이 부각되는 데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예술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학제 간 연구의 결과이다. 사회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정치학, 미학 등 여러 학문 영역에서 쓰이는 공공성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문화 예술의 공공성과 그 정책적 의미를 탐구한 연구 보고서이다.

아르코 03.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영범 | 2009년 | 376면 | A5신판 견장정 | 18,000원

이 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인 서울이라는 구체적 삶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도시의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과정을 건축학자의 입장에서 성찰하며 도시 <재생(renovation)>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르코 04. 한국의 예술 지원사

류주희 외 | 2009년 | 392면 | A5신판 견장정 | 15,000원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예술에 대한 지원과 후원에 관한 연구서. 예술 후원 제도와 관청의 설치 과정을 포함하여 예술가 및 장인들의 신분과 각 분야의 활동 양상, 기술의 전수 과정 및 생활상을 검토하며 예술 후원이 일방적 시혜가 아닌 <교환과 분배>라는 방식으로 예술 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밝혀낸다.



나는 Dada다 만 레이 자서전

만 레이 | 김우룡 옮김 | 2005년 | 512면 | B5 변형 건장정 | 25,000원

만 레이는 전설적 사진가이자, 화가, 오브제 제작자, 영화감독으로 활약했다. 20세기의 가장 독창적이고 다재다능한 예술가 중의 한 사람인 만 레이는 이 책을 통해 그의 예술적 다재다능함에 글쓰기를 추가시켰다. 예술가 자서전의 걸작이라 평가받는 이 책은, 한 저명한 예술가의 삶과 그가 활동했던 20세기 전반에 걸친 시대상을 재기 넘치는 문장을 통해 들려준다. 컬러 도판 35점을 비롯한 250장의 화보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싹을 틔운 현대 예술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전한다.

뮤지컬 기획, 제작, 공연의 모든 것 ★7쇄

스티븐 시트론 | 정재왕, 정영주 옮김 | 2007년 | 416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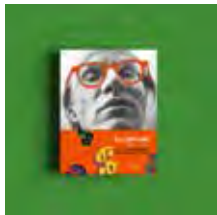
뮤지컬 제작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로 가득한 이 책은 오랫동안 작곡가와 작사가로 활동해 온 저자가 숨겨진 무대 뒤로 직접 찾아가 작품의 첫 아이디어 발상에서부터 막이 오르는 순간의 흥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공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자세하고 생생하게 보여 준다. 재미있는 일화와 실용적인 길잡이, 초대형 브로드웨이 공연 관련자들의 번뜩이는 코멘트로 가득한 뮤지컬, 하나의 주요 연극 양식으로서의 뮤지컬 등 그 숨겨진 세계를 제작자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



앤디 워홀의 철학 ★12쇄

앤디 워홀 | 김정신 옮김 | 2007년 | 288면 | A5 변형 연장정 | 16,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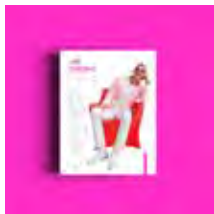
앤디 워홀의 자전적 에세이. <나는 테이프 리코더와 결혼했다>고 말하는 워홀은 평생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지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곤 했는데, 이 책은 그 기록들을 사랑과 섹스, 음식, 아름다움, 명성, 일, 돈, 성공 등의 주제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일인칭 화자이자 앤디 워홀인 A가 편안한 어조로, 끊임없이 교체되는 지인들(B)과 나누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 이 독특한 책을 통해 독자는 그의 삶을 이해하고, 나아가 예술과 우리 모두의 삶을 구성하는 보편적인 요소들에 대해 되돌아보게 된다. 그 일상의 단면들은 20세기의 예술과 문화를 주도했던 이 놀라운 인물이 남긴 예술과 사상의 진면목을 보여 주는 최고의 자료 역할을 하고 있다.



나를 디자인하라 ★10쇄

카림 라시드 | 이종인 옮김 | 2008년 | 312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16,800원

카림 라시드는 휴지통을 디자인하는 원칙과 인생을 디자인하는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가 디자인한 쓰레기통 <가르보>는 전 세계 수백만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쓰레기통이 되었다. 무엇이 이 전설적인 사건을 가능케 했는가. 만약 이 쓰레기통이 우리 인생이자 일, 사랑의 표상이라면? 카림 라시드가 <가르보>를 디자인했듯이 우리도 평범한 인생을 <가르보>처럼 잘 디자인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카림 라시드는 말한다. <가능하다, 지금 당장 당신을 새롭게 디자인하라!> 그의 디자인 지침은 독창적이고 섬세하며, 무엇보다 매우 단순하다. 현 상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발견되는 문제점을 창조적 발상으로 해결하는 것. 조금이라도 짜증나게 하는 일, 시간을 잡아먹는 일들은 없애고, 그 시간에 생각, 창조, 사랑, 꿈의 실현에 힘 쏟도록 하는 것이 <잘 디자인된 인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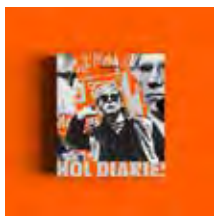


앤디 워홀 일기 ★4쇄

앤디 워홀 | 팻 해켓 엮음 | 홍예빈 옮김 | 2009년 | 980면 | A4 변형 연장정 | 45,500원

팝 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이 11년 동안 쓴 일기. 1976년 11월 24일부터 그가 담낭 수술 직후 사망하기 5일 전인 1987년 2월 17일까지 매일 아침 편집자 팻 해켓에게 전화로 마구 토해 낸 전날의 일기 2만 매 가운데 가장 재미있을 법한 이야기만 모은 책. 그의 작업실 <팩토리>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에피소드들과 3,000여 명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워홀의 삶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와 예술 현장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 2009년 『한국일보』 선정 제50회 한국출판문화상 편집상



논쟁이 있는 사진의 역사 ★4쇄

다니엘 지라르데, 크리스티앙 피르케르 | 정진국 옮김 | 2011년 | 320면 | A3 견장정 | 39,000원

사진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작품 73장의 사진을 선정해 엮었다. 오늘날의 잣대로 보아도 전시나 출간이 불투명할 정도로 난감한 사진들이 있는가 하면, 익히 보아온, 그래서 논쟁이 될 만한 어떤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품도 있다. 사진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정면에서 포착해 사진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성격까지 그 안에 담고 있음을 알려 준다. 사진에 대한 판단은 때와 장소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과거든 현재든 예술과 포르노그래피의 불확실한 경계는 항상 논쟁을 부른다. 이런 논쟁에서 다양한 수준의 예술적 자유가 각 시대마다 충돌하는 경계를 보여 준다.

● 2008년 아르퀴알 현대 예술서상



파스타의 기하학 ★8쇄

제이콥 케네디 | 카즈 힐드브란드 디자인 | 차유진 옮김 | 2011년 | 288면 | B5 변형
견장정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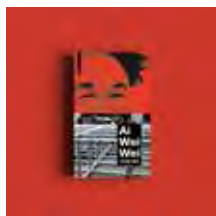
독특한 발상, 아름답고, 기발하고, 완벽하고, 맛있는 파스타 요리책!
300개의 파스타와 100개의 레시피가 총망라된 친절한 파스타
백과사전이자, 맛과 예술이 어우러진 파스타 종합 앤솔러지이다.
음식 평론가들로부터 격찬을 받고 있는 셰프 제이콥 케네디가 엄선한
레시피와 풍부한 수상 경력의 디자이너 카즈 힐드브란드의 멋진
흑백 디자인이 어우러져 이탈리아 전역의 파스타 모양에 숨겨진
과학과 역사, 철학을 보여 준다.



아이웨이웨이

한스 올리히 오브리스트 | 윤길순 옮김 | 2011년 | 288면 | B6 연장정 | 9,800원 e

세계적인 큐레이터 오브리스트가 진행한 아이웨이웨이의
인터뷰집이다.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은 옛것과 새것, 서양과 동양,
진지함과 불경함의 대담한 혼합이다. 레디메이드 제품으로
새로운 예술 언어를 만드는가 하면, 신석기 시대 도기, 14세기의 문,
17세기의 절 기둥을 이용해 놀랍고도 충격적인 조각품을 만들기도
한다. 권위와 권력에 대한 자신의 조롱을 드러내기 위해 베이징의 문,
텐안먼, 베를린의 독일 의회, 워싱턴의 백악관을 겨냥한 손가락질을
찍기도 했다. 예술의 개념을 확장시켰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적인 문화인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책은 그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미술가로서의 삶과 작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초현실주의 선언 ★6쇄

앙드레 브르통 | 황현산 옮김 | 2012년 | 296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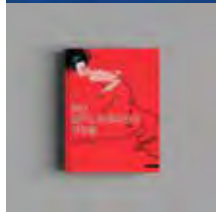
『초현실주의 선언』이 첫 발표된 1924년 이후 국내 최초로 완역
소개되는 본격 비평판이다. 문학 평론가이자 현대 불문학자인
황현산 교수가 정교한 번역과 함께 초현실주의 선언의 역사적 의미,
브르통의 문학 사상에 관한 풍요로운 해설을 달았다. 20세기 문학의
혁명적 촉매였던 초현실주의 운동에 관한 필독서이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거장들

데이비드 다운턴 | 안진이 옮김 | 2012년 | 224면 | A4 변형 견장정 | 28,000원

20세기에 활약한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삶과 작품을 통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역사를 조망하는 책. 현재 세계 정상급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데이비드 다운턴이 거장 16인을 직접 선정했다.
쉽게 접하기 힘든 그들의 이야기와 풍부한 도판은 대단한 인기를
구가했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예술 양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사진이 담지 못하는 방식으로 패션을 해석한



거장들의 숨씨는 느끼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것들이 사라져 가는 현재에 귀중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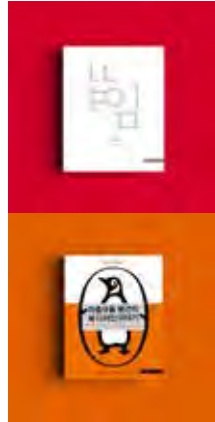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 대학원 | 2012년 | 548면 | B5 변형 연장정 | 19,800원

〈VERSUS〉라는 대조의 개념을 가지고 진행한 이화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대학원 수업의 결과물 모음집.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서도 항상 반대의 속성들을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을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잘 포착하고 표현해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어 내고 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톡톡 튀는 발랄함과 진지함을 함께 엿볼 수 있으며 한국 대학 디자인의 현재를 짚어 볼 수 있다.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재미있는 개념 대결 놀이를 독자들도 즐길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좌충우돌 펭귄의 북 디자인 이야기 ★3쇄

폴 버클리 | 박종서 옮김 | 2012년 | 376면 | B5 변형 연장정 | 24,000원

펭귄북스의 아트 디렉터 폴 버클리와 그가 이끄는 팀의 애환이 담긴 리얼한 이야기를 책으로 담았다. 펭귄의 폴 버클리는 여러 유능한 디자이너 및 아티스트들과 함께 팀을 이루면서 펭귄의 여러 임프린트의 디자인 업무를 도맡고 있다. 서로에게 늘 불만을 품고 있는 저자와 북 디자이너 사이에 끼여, 늘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작업자를 통해 북 디자인 프로젝트 속에 얹혀 있는,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를,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점잔 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들, 책을 사랑하는 독자라면 아주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프린트 & 패턴

보위 스타일 | 안진이 옮김 | 2013년 | 624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35,000원

패턴은 어디에나 있다. 미니멀리즘의 시대가 가고 벽, 식물, 의류, 간판에서 색채와 형태의 폭동이 일어났다. 한국도 몇 해 전부터 장르를 가리지 않고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열풍으로 패션, 가구, 소품 등 다양하고 과감한 패턴과 프린트가 도처에 깔려 있다. 세련된 패턴 디자인에 대한 욕망을 채워 줄 현대의 멋진 평면 디자인들을 한데 모아 보여 준다. 〈프린트 & 패턴〉이라는 동명의 인기 블로그 운영자가 편집한 이 책에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유능한 평면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총망라되어 있다. 다양한 색깔의 감쪽하고 현대적인 식물, 카드, 포장용품, 문구, 벽지, 식기 등 거의 모든 물건의 디자인을 포괄하는 이 책은 프린트와 패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독서라 할 수 있다.



그래픽 모비 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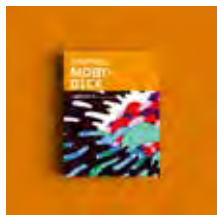
맷 키시 | 강수정 옮김 | 2013년 | 608면 | 크라운판 연장정 | 32,000원

『모비 딕』은 주인공 에이해브 선장과 그를 불구로 만든 흰 고래에 대한 대하소설이다. 150년도 훨씬 지난 『모비 딕』에 영감을 받은 예술가 맷 키시는 2009년 8월의 어느 날, 그만의 서사시를 시작했다. 그는 552페이지의 시그닛 클래식페이퍼백 판본에서 한 페이지당 한 구절을 발췌해 18개월 동안 하루에 한 이미지씩 꾸준히 그려 나갔다. 키시는 오래되고 버려진 책들에서 나온 페이지와 볼펜, 마커, 페인트, 크레용, 잉크, 수채화 물감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했다. 이미 인쇄된 글과 이미지 위에 그림을 덧입힘으로써 키시는 멜빌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겹겹의 의미를 드러내는 시각적 걸작을 만들었다.

● 2012년 오프라 윈프리의 <당신이 읽을 줄 몰랐던, 하지만

읽자마자 바로 사랑에 빠질 11권의 책> 중 1위 선정

● 2012년 TED 전자책 리스트 선정



왜 책을 만드는가 맥스위니스 사람들의 출판 이야기

맥스위니스 편집부 | 박중서, 곽재은 옮김 | 2014년 | 408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6,800원

문학 계간지가 갖는 지루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도로 문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 주는 『맥스위니스』. 1998년 출판에 대한 경험이 전문한 사람들이 만든 이 계간지가 현재 미국 문학계에서 인정받고 자리 잡은 비결은 무엇일까? 이 책에는 그 계간지와 이름을 같이 하는 미국의 출판사 <맥스위니스>의 책 만드는 과정이 작업자들의 육성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맥스위니스의 아이디어와 기획력, 추진력, 작업 시스템 그리고 제작에 대한 고민의 과정을 볼 수 있다.



에펠 스타일

마르틴 뱅상 | 브리짓 뒤리외 구성 | 배영란 옮김 | 2014년 | 280면 | B5 변형 연장정 | 26,000원

이 책은 <고철 덩어리> 에펠탑이 <예술의 원천>이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담았다. 에펠탑 요소들은 건축, 미술, 사진, 패션 등 예술계 전반에서 엄청난 영향을 주며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에펠 스타일은 에펠이 만든 많은 외적 요소들의 총체이자, 과감하고 진보적인 도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법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이런 <에펠 스타일>에 경의를 표하고 에펠에게 오마주를 보내며 스스로 에펠 스타일의 후예라고 자처했다. 우리가 이미 흔하게 접하고 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자주 모방되는 디자인 중 많은 것들의 원형이 에펠탑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다.



아이웨이웨이 블로그

아이웨이웨이 | 리 엠브로지 엮음 | 오숙은 옮김 | 2014년 | 520면 | B6 변형 연장정 | 25,000원 **e**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아이웨이웨이가 블로그에 올렸던 포스트 3,000여 개 중 110여 개를 간추려 묶은 것이다. <나는 내 에너지의 90퍼센트를 블로그에 쓴다> 2009년, 그의 블로그가 폐쇄되기 직전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티베트의 민족 분쟁, 7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원찬의 지진과 부실 공사, 싼루그룹의 멜라민 분유 파동, 당국의 사스 은폐 의혹, 중국 중앙 텔레비전 화재 등 역사적 사건뿐 아니라 크고 작은 사회적 사건들과 관련해 주류 매체들과는 색다른, 비판적이고도 매우 직설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의 폐쇄된 블로그를 옮겨 놓은 이 책은 민감한 주제를 담고 있으므로 중국에서는 발행될 수 없었다. 아이웨이웨이의 독설과 함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뒤섞인 이 책을 출판할 용기 있는 출판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예술 작업과 사회 운동의 경계에 있는 아이웨이웨이의 블로그는 중국의 현재의 삶과 문화가 낯설 그대로 담겨 있다. 외부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중국이 아닌, 중국인의 관점으로 서로에게 말을 거는 이야기가 말이다. 그에게는 수많은 팬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그의 이름 자체를 논쟁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자유를 위한 그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진정한 삶과 예술의 토대에는 자유로운 발언이 있어야 함을 그는 아는 것이다.



일러스트레이터의 물건 ★5쇄

오연경 | 2014년 | 496면 | B5 변형 연장정 | 20,000원 **e**

<더 예쁜 그림 없나? 내가 한번 그려 보자.> 잡지사 에디터였던 오연경이 일러스트레이터의 인생을 시작한 건 그렇게였다. 그녀는 어시스턴트로 잡지 일을 배우기 시작해 7년간 『키키』와 『씨씨』의 에디터로 지냈다. 에디터 시절, 기사를 쓰다가 원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없으면 본인이 그려 넣기도 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하지만 곧 한계를 느꼈고, <도전해 보자>는 마음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오차노미즈 미술전문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예쁜 것, 예쁜 물건, 예쁜 그림에 빠져 지내길 이제 15년이 넘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물건』은, 15년간, 아마 그 이상을 수집광으로 사는 동안 수집하고 그렸던 그녀의 <물건>들을 담고 있다. 독자들은 49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만큼 섬세하고 집요한 그의 컬렉션을 『일러스트레이터의 물건』을 통해 맛볼 수 있다.



일본의 제품 디자인 ★4쇄

나오미 풀록 | 박재은 옮김 | 2014년 | 304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8,000원

일본의 생활 속 디자인 중 뛰어난 디자인 제품 100개를 선별하여 디자이너와 함께 그 제품을 소개했다. 이 책의 저자 나오미 풀록은

미국 태생의 건축가이며, 현재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의 건축은 물론 디자인에 관련하여 일본 내외의 매체에 활발하게 기고하고 있다. 건축가가 지은 제품 디자인에 관한 글이라니, 바로 그 연관성을 찾기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에 소개된 100개의 제품 디자이너 중 거의 대부분이 건축가라는 사실을 보면, 건축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흥미로운 방법이다. 소개된 제품은 자판기, 체온계, 스카치테이프 디스펜서, 계량스푼, 도시락통, 멀티탭, 탁상용 가스레인지, 파쇄기, 실내용 사다리 등등 실용성이 곧 디자인이 되어 버린,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조명, 의자, 시계, 컵, 식탁, 손목시계, 자전거 등 세계의 많은 디자이너가 꾸준히 디자인을 하고 있는 생활용품들 역시 젊은 일본 디자이너들의 색다른 디자인을 입고 이 책에 소개되어 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컬러링북 ★9쇄

오연경 | 2015년 | 112면 | B6 연장정 | 7,500원

일러스트레이터 오연경의 『일러스트레이터의 물건』에서 드로잉을 선별해 난이도별로 엮은 컬러링북.

프린트 & 패턴 키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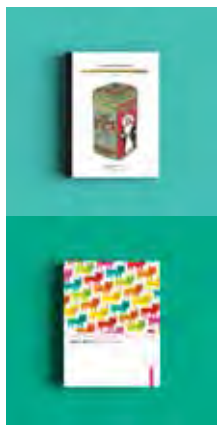
보위 스타일 | 안진이 옮김 | 2015년 | 304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19,800원

프린트와 패턴을 사랑하는 수많은 마니아를 위해 특별히 예쁘고 귀여운 아동용만 따로 묶어 소개하는 디자인 서적이다. 저자 보위 스타일(영국의 식물 디자이너 마리 퍼킨스의 필명)은 식물과 프린트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파워 블로그 <프린트 & 패턴>의 운영자이자, 블로그와 같은 이름으로 책도 출판하여 디자인업계뿐 아니라 프린트 애호가들에게도 큰 호평을 얻었다. 그 호응에 힘입어 새롭게 기획하고 펴낸 『프린트 & 패턴 키즈』는 아동용품의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참신하고 재기발랄한 디자인을 만든 100여명의 디자이너(또는 디자인 기업)와 그들의 작품을 선정하여 보여 주는 책이다.

세계 영화 대사전 ★4쇄

제프리 노웰스미스 | 이순호 외 옮김 | 2015년 | 1,000면 | A4 변형 연장정 | 40,000원

세계 영화의 역사를 백과사전 형식으로 기록한 책으로, 1895년 무성영화 시절부터 1995년 현대 영화까지 100년의 방대한 영화사를 기록하였다. 각 장마다 그 시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작품, 감독, 배우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필름, 사운드, 스크린, 렌즈, 카메라 등 기술적 요소들의 발전 과정도 함께 짚고 있다. 영화와 인접 장르, 산업, 사회심리적 환경 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양차 세계 대전 이후 권력의 율가미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음울한 시대상과 함께



영화가 지나온 시간의 흔적을 정리하였다. <서커스 무대 같은 곳에서 초라하게 시작된 영화가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자 가장 스펙터클하고 창의적인 현대 예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포괄적인 시각으로 놀랍도록 생생하게 보여 준다.

데일리 픽션 ★2쇄

노상호 | 2015년 | 248면 | A5 변형 권장정 | 17,000원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젊은 모색, 전에 이름을 올렸고,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도 선정된 바 있는 노상호 작가가 매일매일 한 장씩 그리고 한 편씩 써낸 그림과 글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노상호의 작품 세계는 현실과 허구의 틈에서 탄생했다. 환상적이면서 현실적이고, 밝으면서도 우울하고, 독특하면서도 보편적인 그림과 이야기, 그게 노상호 작품의 매력이다. 그는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이미지를 수집하고 일상의 모습을 촬영해 보관해 두고, 시간이 지난 후 현실의 사건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이미지를 허구의 이야기와 엮는 작업을 한다. 이미지를 종이에 먹지로 대고 베껴 그리고, <재가공된 이미지>를 토대로 자신의 일상의 경험, 혹은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새로운 상상의 세계로 재해석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매일의 허구 이야기가 바로 <데일리 픽션>이다.



미술 철학사 ★3쇄

이광래 | 2016년 | 전3권 | 각 900면 | A5신판 변형 권장정 | 각 권 28,000원

르네상스 회화의 선구자 조토에서부터 예술의 종말까지 미술사를 욕망의 계보학으로 정리한 책이다. 철학 박사인 저자는 시대마다 미술가들이 시도한 욕망의 <가로지르기>가 성공한 까닭에 대하여 철학과 역사, 문학과 예술 등과 연관된 의미들을 통섭적으로 탐색하였다. 각각의 미술가들이 어떠한 철학에 영감을 받았는지, 그것을 개인적이고도 심리적인, 역사적이고도 사회적인 고뇌들과 함께 어떻게 소화하여 작품으로 탄생시켰는지 살피고, 시대와 공간을 가로질러 존재했던 수많은 미술가가 미술의 본질을 어떻게 새롭게 다양하게 정의해 왔는지,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시대와 사회에 어떻게 합류하여 커다란 역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규명하고자 했다.

● 2015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



예술 판독기 ★2쇄

반이정 | 2016년 | 360면 | A5신판 변형 권장정 | 22,000원

예술 문외한들에게 미술 작품을 보지 않고도 예술을 즐기는 유익을 안겨 주는 책이다. 미술 평론가인 저자는 예술의 근본이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철학을 문자가 아닌 다른 형태를 빌려 전달하는 방법이었을

뿐이라고 말하며 예술과 예술 아닌 것 모두를 판독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판독 대상의 예술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판독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전모이다. 특히 문화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정치적 소재와 주제를 문화의 범주로 끌어들이며 예술을 비평하고 있다.

광고로 읽는 미술사 ★6쇄

정장진 | 2016년 | 340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16,800원

정통 미술사와 달리 현대 광고를 내세워 그 속에 함축된 미술과 역사를 풀어낸 책이다. 글을 쓴 미술 평론가 정장진은 고대 이집트 문명부터 시작해 오늘날의 제프 쿤스로 마무리되는 각 장마다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미술사를 다뤘다. 또한 이 책은 광범위한 회화사를 종합적으로 편집한 미술사 입문서로도 손색없다. 이제 막 미술사를 읽어 볼까 싶은 독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교양 도서가 될 것이다.

피카소의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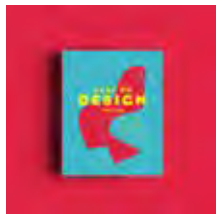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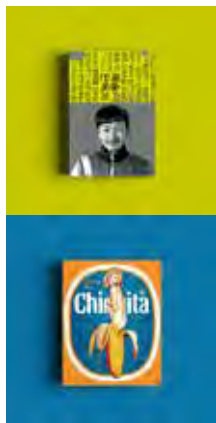
철리 비르망, 클레망 우브리리, 네빌 로울리 | 임명주 옮김 | 2016년 | 144면 | B5 변형 건장정 | 14,800원 e

피카소가 파리에서 화가 생활을 시작했던 1900년 전후의 거리, 장소, 인물 등을 따라가며 그 배경이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1900년 가을 파리가 만국 박람회로 빛나고 있을 때 청년 피카소는 친구 카사헤마스와 함께 이곳에 도착한다. 고향 스페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파리에 눈이 휘둥그레진 피카소의 시선으로 독자는 당시의 미술관, 센 강변의 모습, 각각의 대로와 광장들을 둘러볼 수 있다. 또한 피카소를 비롯한 당시 보헤미안 미술가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화랑, 극장, 카바레, 카페, 레스토랑 들에서도 시선을 멈추게 된다. 역사적, 사회적 장소에 간단명료한 설명을 덧붙이며 그래픽노블 『피카소』의 에피소드들과 함께 배치해 재미를 더한다.

디자인의 예술 ★2쇄

도미니크 포레스트 외 6인 | 문경자, 이원경, 임명주 옮김 | 2016년 | 928면 | 크라운판 변형 건장정 | 58,000원

파리 장식 미술 박물관의 학예 책임자인 도미니크 포레스트가 책임 편집을 맡아서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글을 부탁한 이 책은 디자인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부터 현재까지를 각 나라별로 다룬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저자로 참여하여 주요 산업 국가의 디자인을 소개하고 전시회, 실내 장식, 광고 등 디자인에서 영향을 받은 다양한 분야를 시대적 맥락에 비추어 다루었다. 이 방대한 작업은 650여 장의 사진 자료로 더욱 풍부해졌다.



한국의 촬영 감독들 21인과의 인터뷰 ★4쇄

(사)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 2016년 | 496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8,000원

한국 영화 촬영을 대표하는 21인의 촬영 감독과 28편의 영화에 대해 상세히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다. 영화 제작의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영화 촬영의 개념, 여러 현장 경험, 타 분야(연출, 배우, 미술, 조명 등)와의 협력, 시나리오와 감독에 대한 탐구 그리고 촬영 기술에 대한 촬영 감독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다. 영화 촬영 감독은 영화의 줄거리와 캐릭터, 메시지, 분위기를 다양한 시각 요소로 구현하는, 영화 속 모든 화면의 총 책임자이다. 배우의 연기 및 그 배경을 담는 것부터 연기와 대사(시나리오)가 표현하지 못하는 영화 속의 여러 요소들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캐치하여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끝없는 선택의 과정, 즉 시나리오에서부터 로케이션, 카메라와 렌즈·필터, 카메라 위치와 움직임, 조명, 구도, 색상, 특수 효과를 선택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제여란 그리기에 관하여

제여란 | 2017 | 216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0,000원

〈미메시스 아티스트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2016년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열렸던 화가 제여란의 14번째 개인전 「그리기에 관하여」에 관한 자료집이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프랑스와 중국의 미술 평론가의 평론과 함께 작품과 전시 이미지를 수록하였다. 제여란은 30년 동안의 시대의 유행을 뒤쫓기보다 자신의 미감을 열정적으로 완성시켜 왔다. 추상 회화와 구상 회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형태가 없는 형태를 자아내는 그의 회화들은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에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심상에 있는 각기 다른 이미지들을 만나게 한다.



미술과 문학의 파타피지컬리즘

이광래 | 2017년 | 624면 | A5신판 변형 연장정 | 29,800원

이 책은 미술과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작가들의 통섭에 주목한다. 그들의 영향력이 현시대에까지 이어지고 회자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통섭 능력에 있다는 것이다. 파타피지크(pataphysique)는 프랑스 소설가 알프레드 자리가 만들어 낸 조어로 〈전통적 세계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생각해 낸 이상적 세계관〉으로 통한다. 저자 이광래는 거기에 경계나 장르를 넘나들며 모든 것을 융합하려는 욕망의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을 덧붙이고, 그것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정신 현상이었다며 〈상호 통섭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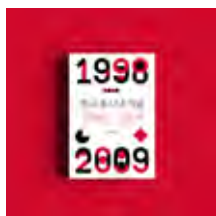


죽〈파타피지컬리즘〉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작가들이 현실에 없는 시공간에로까지 그 사유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데, 그것은 유행이나 새로 생긴 흐름이 아님을 시대의 아이콘이자 모멘텀이 되었던 작가들의 미술, 문학, 철학적 융합과 컬래버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며 증명한다.

한국 동시대 미술 1998-2009 ★3쇄

반이정 | 2018년 | 224면 | B6 변형 연장정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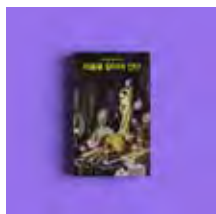
한국 동시대 미술을 다루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12년(1998~2009)의 한국 미술에 집중한다. 반이정은 이 12년간을 동양화, 전시장(대안 공간), 미술 비평, 관객, 미디어 아트, 팝 아트, 미술 시장/미술계 스캔들, 여성 미술 등 각각 독립된 12개의 주제를 연결시켰고, 이때 각각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시대상과도 연관지음으로써 미술과 현실의 유기적 관계를 설득하고 있다.



미술을 알아야 산다 4차 산업 혁명의 전제 ★2쇄

정장진 | 2018년 | 432면 | B6 변형 연장정 | 22,000원

미술과 4차 산업 혁명이 만나는 접점들을 다루는 책이다. 저자가 말하는 〈미술〉이란 그림 그리고 조각하는 창작 작업을 뜻하지 않는다. 이 책은 디지털이 21세기 들어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이미 100년 전인 20세기 초, 구상에서 추상으로 미술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몬드리안과 칸딘스키에서 시작한 문화사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식물 그리고 사람 ★3쇄

손정민 | 2018년 | 176면 | A5 견장정 | 15,800원

특유의 아름다운 선과 색상으로 유명한 손정민은 국내외 인기 브랜드와 패션 잡지와와의 협업으로 이름을 알렸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또 뉴욕에서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경력답게 손정민의 그림은 세련되고 우아하다.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지금까지의 작업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식물 그리고 사람』은 작가가 아끼는 주변 사람들과 평소 만나고 싶었던 궁금한 사람들에 대한 책이다. 그리고 그들과 닮았거나 혹은 연상이 되는 식물들을 같이 그린 인터뷰 책이자 식물 화집이기도 하다.



박찬용 조각가로 산다는 것

박찬용 | 2018년 | 200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0,000원

〈미메시스 아티스트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작가와의 인터뷰와 평론, 그리고 작가 노트와 그의 모든 작품 목록이 실려 있다. 인터뷰는 한국 조각에 조예가 깊은 최태만 비평가가 진행했으며 작가의 어린 시절, 초기 작업, 주요 작품 시리즈, 작가로서의 삶에 대한 질문과 답을 통해 〈작가 박찬용〉을 입체적으로 담아내고자 했다. 그리고 주요 작품 시리즈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술 평론가 김영호와 고충환 비평가의 평론 글도 포함되어 있다. 작가의 생각이 오롯이 담긴 작가 노트 역시 작품을 독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박찬용 작가가 작업을 시작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요 작품의 이미지도 함께 수록하였다.



청춘발산마을 이야기

현대자동차그룹, 공공미술프리즘 | 2018년 | 240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18,800원

현대자동차그룹과 공공미술프리즘이 정부 기관과 함께 만들어 성공시킨 광주 〈청춘발산마을〉의 시작과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도시 재생 프로젝트인 〈청춘발산마을〉은 지난 2015년부터 만 4년간 국내 최대 규모로 시행된 민간 협력 사업으로, 다양한 실험적 프로젝트를 통해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많이 공유되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청춘발산마을〉 사업단이 지난 4년간 겪었던 소회를 담백하게 밝히면서, 도시 재생 사업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경험과 사례들을 독자와 공유하고자 한다.



큐레이팅을 말하다 ★4쇄

송마숙 외 28인 | 2019년 | 448면 | B6 변형 연장정 | 22,000원

국내 큐레이터 제1세대 선배부터 최근 활약이 돋보이는 신진 독립 큐레이터뿐 아니라 미술 비평가, 미술관 관장, 큐레이터 학과 교수 등 미술 전문가 29인이 〈큐레이팅〉에 대해 애정과 비판을 저마다의 목소리로 들려준다. 사실 미술 전시회를 찾아가는 우리 같은 관람객은 작품만 보게 되지만 큐레이터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것들을 찾아 눈을 돌려야만 한다. 이 책을 기획하고 전문가들을 한곳에 모은 광주 시립 미술관의 전승보 관장은 이 책을 출간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젊은 큐레이터 지망생들에게 큐레이터가 알아야 할 업무 전반에 걸쳐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고 밝힌다.



삶이 예술이 되는 공간 ★2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은영 | 2019년 | 432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2,000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미메시스가 서울, 춘천, 영주, 청주, 광주, 전주, 제주 등 전국의 곳곳에서 문화예술과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공간 15곳을 소개한다. 이 책은 그 공간들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적, 공간적 차원에서 고유의 특색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곳에서 활동 중인 열정적인 사람들을 만나 그 공간과 문화예술교육이 어떠한 시너지를 일으키는 지 확인한다. 동시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교육을 살펴보고 어떤 공간이 문화예술교육에 적합한지를 같이 고민한다.

문래 금속가공 공장들의 문장 디자인

강수경 | 2020년 | 406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16,800원

서울 영등포 문래동의 기계금속가공 공장들이 수십 년간 다져 온 자신들의 흔적과 삶의 방식을 한 권으로 엮었다. 또한 문래동으로 들어가 새 동지를 틀게 된 시각 예술가들이 디자인으로 해석한 기계와 금속가공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이들은 문래동이라는 공간이 지닌 <고유>를 연구하여 삶의 이야기부터 그 속에 품은 말 그리고 그림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각화하여 <문장(紋章)> 즉, 심벌마크로 만들어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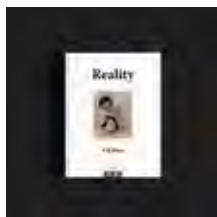
● 2018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연구서적발간지원사업 선정작



Reality, No Reality

리아 김 | 2020년 | 460면 | A5 변형 건장정 | 25,000원 a

세계적 안무가 리아 김의 첫 포토북이다. <Reality>와 <No Reality>로 나뉘어 마치 두 권의 포토북을 보는 듯이 서로 다른 표지로 구성되었고, 각 표지에 따라 책을 따로 펼칠 수 있어 앞뒤 어디부터 먼저 열어 보아도 무방하다. 리아 김의 감각적인 영상을 일찍 접한 팬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녀는 늘 비주얼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 왔으며 또 스스로 비주얼 작업에 대한 욕심이 있다. 이번 포토북 역시 그녀의 아이디어에서 뿜어 나온 두 가지 콘셉트로 나누었고, 또 그 안에서 다시 주제에 따라 세세하게 안무들을 나누었다. 그야말로 대중적 아이콘 리아 김의 댄스 아카이브를 한자리에 모은 책이다.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카림 라시드 | 김승욱 옮김 | 2005년 | 252면 | A4 건장정 | 절판

가구의 책 ★2쇄

우치다 시게루 | 고현진 옮김 | 2005년 | 280면 | B5 변형 연장정 | 절판

스택 ★3쇄

콘웨이 로이드 모건 | 오숙은 옮김 | 2006년 | 240면 | B5 변형 연장정 | 절판

조르조 바사리

롤랑 르 몰레 | 임호경 옮김 | 2006년 | 688면 | A5 변형 건장정 | 절판

제로

마쓰다 유키마사 | 고현진 옮김 | 2006년 | 288면 | A5 변형 건장정 | 절판

성서의 역사

크리스토퍼 드 하멜 | 이종인 옮김 | 2006년 | 352면 | A5 변형 건장정 | 절판

섹슈얼리 이노센트

김중만 | 2006년 | 112면 | B4 변형 건장정 | 절판

말의 색채 마르그리트 뒤라스가 말하는 나의 영화들

마르그리트 뒤라스 | 유지나 옮김 | 2006년 | 264면 | B5 변형 연장정 | 절판

예술사란 무엇인가

다니엘 라구트 | 정장진 옮김 | 2007년 | 288면 | B5 변형 연장정 | 절판

미술과 페미니즘

헬레나 레킷, 페기 펠런 | 오숙은 옮김 | 2007년 | 304면 | 규격외 건장정 | 절판

예술가의 몸

아멜리아 존스 | 심철웅 옮김 | 2007년 | 304면 | 규격외 건장정 | 절판

누드 사진 예술과 기법

파스칼 바텐스 | 김문호 옮김 | 2010년 | 256면 | A4 건장정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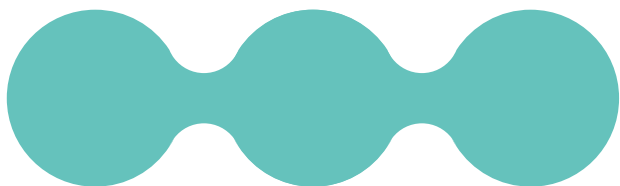
위대한 전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폴라 마린콜라 역음 | 조주현 옮김 | 2011년 | 256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절판

글로벌 아트마켓 크리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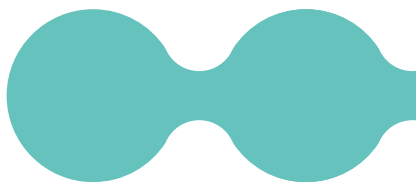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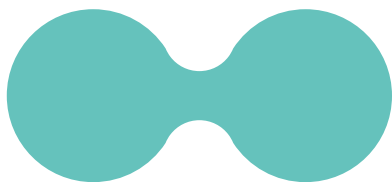
정연심 외 8인 | 호경윤 기획 | 탁영준 편집 | 2016년 | 240면 | A5 연장정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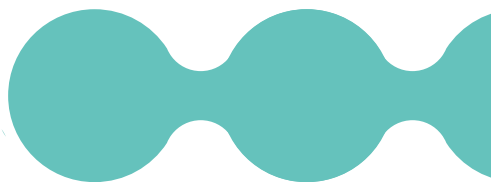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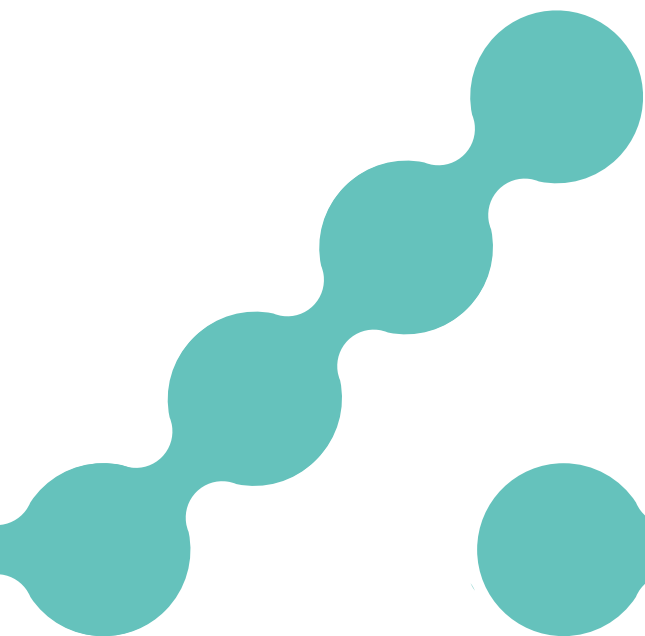
Archite

건축





ecture





건축가 시리즈

게리 프랭크 게리가 털어 놓는 자신의 건축 세계 ★6쇄

밀드레드 프리드먼 | 이종인 옮김 | 2010년 | 240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5,000원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의 설계자이자 세계적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가 털어놓는 자신의 건축 이야기. 정사각형 건물에서 탈피해 파격적인 곡선을 구사하는 한편, 상상을 초월하는 외장재를 사용해 건축계에 늘 파란을 일으키는 프랭크 게리가 건축에 관련된 일화를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 2010년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선정 <3월의 읽을 만한 책>
- 2010년 청년 의사 선정 <책 읽는 의사, 의사들의 책> 22기 도서



라이트 미국 건축의 아버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브루스 브룩스 파이퍼 | 이종인 옮김 | 2010년 | 256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18,000원

미국 건축의 아버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 세계를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는 책. 라이트의 방대한 건축물 중 특히 건축사에 길이 남을 건축 프로젝트 스물다섯 개를 엄선하여 소개한다. 라이트의 도제였던 브루스 브룩스 파이퍼가 각 작품의 건축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 주며, 라이트가 직접 쓴 글과 편지, 강연문도 함께 수록했다. 라이트 초기 건축물부터 생애 마지막 시기 건축물까지 연대순으로 배치되어 있어, 라이트 건축 사상의 흐름과 변모를 일람할 수 있다.



칸 침묵과 빛의 건축가 루이스 칸 ★3쇄

데이비드 B. 브라운리, 데이비드 G. 드 롱 | 김희진 옮김 | 2010년 | 288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5,000원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가 루이스 칸.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대표작부터 사소한 작품들까지, 그의 건축 사상의 기저를 이루는 모든 것을 망라하여 소개한다. 칸의 드로잉, 설계 도면, 건축 사진 등의 도판 자료가 총 217점 수록되었고, 이 중에는 책을 출간하면서 새로 촬영한 컬러 사진들도 풍부하게 포함되었다. <루이스 칸 컬렉션>의 방대한 기록을 전부 검토하는 데만 5년 동안 50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안도 다다오 안도 다다오가 말하는 집의 의미와 설계 ★5쇄

안도 다다오 | 송태욱 옮김 | 2011년 | 400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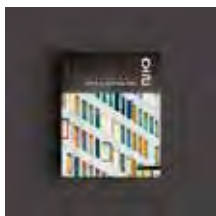
프리츠커상, 칼스베르크 건축상, 교토상, 프리미엄 임페리알레상을 모두 수상한 유일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 그의 건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놓고 절정기의 작업들을 정리한 책이다. 이례적으로 각각의 주택과 건축물의 사진, 도면과 평면도, 시공 관련 기록을 자세히 수록하였고, 발상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스케치까지 그대로 실었다. 까다로운 의뢰인의 요구와 자신의 건축 철학 둘 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들, 그리고 절묘하게 해결점을 포착한 순간들이 가감 없이 공개되고 있어 그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날것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



홀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3쇄

스티븐 홀 | 이원경 옮김 | 2012년 | 416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5,000원

미국 건축가 협회와 『타임』이 선정한 미국 최고의 건축가 스티븐 홀이 직접 들려주는 건축 이야기. 그의 건축 철학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건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친환경, 콘셉트의 중요성, 다공성, 도시의 확장과 건축의 역할 등의 4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그가 행했던 24개의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한다.



개념에서 건축으로 김준성의 건축 강의 ★2쇄

김준성 | 2018년 | 432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6,000원

브라질에서 건축 공부를 시작해 포르투갈과 미국 등 여러 대륙에서 건축 활동을 한 건축가 김준성이 한국에 돌아온 지 25년이 넘었다. 이 책은 그가 학생 때부터 현재까지 직접 작업한 프로젝트 중 47개를 네 가지 주제로 추려 소개한 책으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건축 강의인 <우리 시대의 건축가: 김준성>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김준성이 직접 소개하는 그의 프로젝트 속에는 건축주를 만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 시공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이야기들, 그리고 완성 후의 감회 등이 담겨 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자서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 이종인 옮김 | 2005년 | 632면 | 규격외 견장정 | 28,000원

이 책은 위대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자신의 삶과 사랑, 그리고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적어 나간 기록이다. 건축이 자연과 소통하고 융합해야 한다는 그의 <유기적 건축 이론>과 혁신적인 양식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라이트 자신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술관이 된 시자의 고양이 ★4쇄

홍지웅 | 2013년 | 640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18,000원

건축가나 건축 평론가의 그것이 아닌, 예술과 건축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시선을 바탕으로 서술되어 있어 건축계에 종사하거나 건축을 공부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하나의 건축물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 본 이라면 부담 없이 그 과정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한 건물의 탄생부터 어떻게 사회 속으로 스며드는지를 보여 주는 이 기록은 시자의 건축물 답사부터 시작하여 계약, 설계 스케치와 도면 검토, 건물 배치, 자재 선택 등등 세세한 건축 과정을 사진과 함께 재현하고 있다.



건축적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5쇄

서경옥 외 24인 | 2014년 | 512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8,000원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건축 대학원인 <바틀렛> 출신의 젊은 국내 건축가 25인의 새로운 건축을 소개했다. 이 책에 소개된 작업들은 고전적인 건축의 개념에서 벗어나 예술 및 기타 학문으로 그 영역이 확대된 진보된 개념을 갖는다. 한국의 젊은 건축가 세대인 이들의 건축은 상상의 유희를 넘어 치밀한 구축 과정을 통한 현실화를 보여 준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의 <이야기>로서 충분히 완성된다. 이 책 속의 <이야기>는 모든 감각이 살아 있는 소설이기도 하고, 세련된 구도와 영상을 갖는 영화의 시놉시스이기도 하다.



토레 다비드

알프레도 브릴렘버그, 후베르트 클롬프너, 어반 싱크 탱크 | 이반 반 사친
김마림 옮김 | 2015년 | 480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8,000원

남미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중심부에는 45층짜리 초고층 건물 <토레 다비드>가 있다. 1997년 금융 위기와 함께 건설이 중단되면서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는 이 건물은 집 잃은 빈민들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되었고, 그들에 의해 끊임없이 개조되면서 현재는 7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변모하였다. 저자들은 이 속에서 지역 사회를 위한 실험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한 도시의 새로운 촉매제가 되는 과정을 한 편의 르포르다큐멘터리로 보여 준다.

● 2012년 베니스 비엔날레 제13회 국제 건축전 황금사자상



건축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비톨트 립친스키 | 서경욱 옮김 | 2016년 | 416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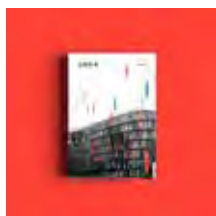
미국 건축 평론가 비톨트 립친스키가 우리의 건축 경험을 좀 더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건축 개념 10개를 정리했다. 그 개념은 가장 먼저 건축가가 의식하고 고민하는 것들이지만, 일반인들에게도 주변에 존재하는 건축물들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저자는 각 개념들을 설명하며 그에 해당하는 주요 건축물들을 직접 경험한 것들에 한하여 언급하고 소개했다. 건축가마다 건축 개념을 어떻게 소화하여 차별성을 두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게 적절했는지 아니었는지 건축가로서, 평론가로서 통찰력 있는 의견들을 전한다.



건축의 색 ★2쇄

이선민 | 2017년 | 256면 | A5신판 연장정 | 19,800원

현대 건축에서의 색채 사용 방식과 그 변화들을 소개하는 동시에, 디자인과 연계된 모든 분야에 색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현대 건축을 대상으로 공간 색채의 체계를 수립하고 건축가의 의도와 함께 색채의 다양한 사용 방식과 관점들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대 건축 색채의 대표적 예시로 제시한 세계 유수의 건축물 120여 곳을 중심으로, 각 건물을 지은 건축가의 의도뿐 아니라 색채 활용 방식,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연계성까지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한국 건축의 정체성 ★3쇄

이상현 | 2017년 | 512면 | A5 변형 연장정 | 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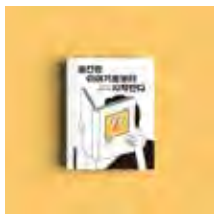
한국 건축의 고유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인식 체계와 경험의 방식, 구축의 원리에서 한국과 서양의 근본적인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차이가말로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공간을 열어준다. 즉, 서양 건축과 한국 건축의 패러다임의 차이를 통해 전통 건축이 담고 있는 원리와 지혜를 현대 건축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일상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이상현이 주장하는 <전통의 현대적 번역>이다.



공간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9쇄

WGNB, 윤형택 | 2019년 | 280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16,800원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 WGNB가 기획하고 그곳에서 공간 스토리텔링과 일러스트레이션을 맡고 있는 윤형택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WGNB는 공간 디자이너 백중환이 이끄는 디자인 회사로 <같은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다>라는 모토로 브랜드와 사람을 담은 좋은 공기가 머무는 공간을 지향하고 만들어 온 곳이다. WGNB가 만든 주요 공간으로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현빈집>을 비롯하여, 교보문고, 엔드피스, 텍스터 스튜디오, 카카오프렌즈 스토어, 씨잇 갤러리 등이 있다. 평소 창의적 사고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백중환은 새로운 것 역시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연결시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새롭다고 강조한다.



뮤지엄 건축 기행 ★2쇄

최우용 | 2022년 | 304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4,000원 e

건축 설계 일을 하며 그와 관련된 글을 쓰는 최우용은 이 땅 위의 뮤지엄을 찾아다니는 일이 스스로 배워 알게 되는 <자기 교육>과도 같다고 말한다. 그는 <알고 싶어서> 뮤지엄/박물관에 간다. 무엇보다 뮤지엄이 품고 있는 의미와 더불어 그것이 공간과 어떻게 어우러지고, 혹은 어우러지지 못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힌다. 이 책에서 저자는 발로 걷고, 손을 놀리며, 냄새 맡고, 귀로 들으며, 눈으로 볼 수 있는 스물여섯 곳의 뮤지엄을 소개한다. 그리고 명상 단계처럼 뮤지엄을 주제별로 나눠서 각 공간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아이들을 위한 세계의 공간

국제 청소년 글쓰기 센터 연맹 | 김마림 옮김 | 2023년 | 480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35,000원

826 내셔널은 대담한 아이디어와 재치 있는 테마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비영리 단체이다. 그들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창의적이고 멋진 환경에서 자신만의 글을 써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유쾌한 글쓰기 센터를 설립하는 데 힘쓰고 있다. 여러 비영리 단체가 이러한 826 내셔널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 전 세계 곳곳에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 센터를 선보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이 공간들은 아이들을 건디기 위해 만들어진 여타의 평범한 글쓰기 센터나 도서관과는 달리 진심을 다해 아이들을 환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자유로우면서도 안락한 분위기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 나아가 아이들은 감각적인 장소에 깃든 어른들의 애정과 존중을 고스란히 느끼고, 꿈을 키워 나갈 용기를 얻는다.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시리즈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1: 위상학 ★5쇄

장용순 | 2010년 | 288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절판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2: 은유와 생성 ★3쇄

장용순 | 2010년 | 280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절판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3: 용해와 내재성 ★2쇄

장용순 | 2011년 | 264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절판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4: 생기론

장용순 | 2013년 | 256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절판

건축을 말한다

에이드리언 포트 | 이종인 옮김 | 2009년 | 552면 | B5 변형 견장정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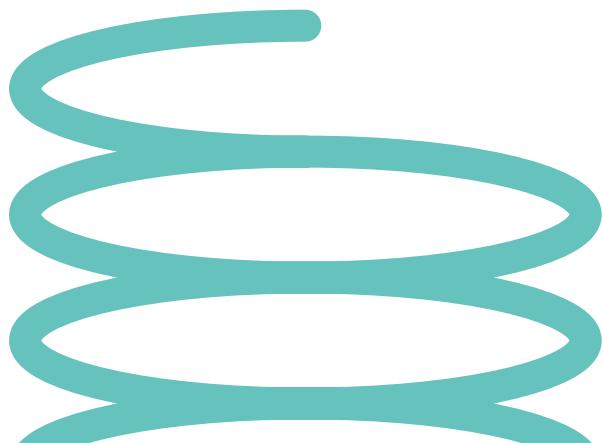
건축은 왜 중요한가

폴 골드버거 | 윤길순 옮김 | 2011년 | 304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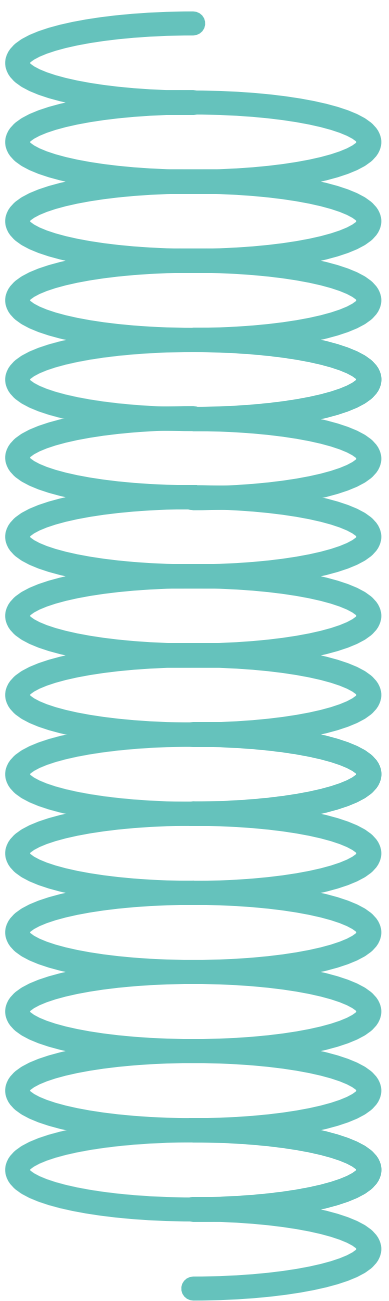


그래픽노블

Graphic Novels



c





염소의 맛 ★17쇄

바스티앙 비베스 | 그레고리 림펜스, 이해정 옮김 | 2010년 | 144면 | B5 견장정 | 17,800원 **e**

사랑은 혈투 ★9쇄

바스티앙 비베스 | 그레고리 림펜스, 이해정 옮김 | 2011년 | 96면 | A5 변형 연장정 | 9,800원

폴리나 ★13쇄

바스티앙 비베스 | 임순정 옮김 | 2011년 | 208면 | A4 변형 견장정 | 18,000원 **e**

내 눈 안의 너 ★6쇄

바스티앙 비베스 | 그레고리 림펜스 옮김 | 2013년 | 136면 | B5 변형 견장정 | 14,800원 **e**

바스티앙 비베스 블로그 ★5쇄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 2013년 | 592면 | B5 변형 연장정 | 18,000원

라스트 맨

발락, 상라빌, 비베스 | 김희진 옮김 | 2015년 | 전2권 | 각 216면 | A5 연장정 | 각 권 9,800원

바스티앙 비베스 블로그 2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 2017년 | 592면 | B5 변형 연장정 | 18,000원

누나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 2018년 | 216면 | B5 변형 견장정 | 19,800원

7월 14일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 2021년 | 256면 | B5 변형 견장정 | 20,000원 **e**

Bastien Vivès

바스티앙 비베스

유럽을 대표하는 만화가 중 한 명인 바스티앙 비베스는 1984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화가이자 사진작가, 그리고 영화 세트 디자이너로 일했던 아버지 덕분에 자연스럽게 예술적 환경에 둘러싸여 자랐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남다른 두각을 보인 비베스는 고등학교 졸업 후 파리 페닝겐 대학교에서 그래픽 아트를 공부했고, 고블랭 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 스물두 살 때 친구들과 〈아틀리에 망자리〉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바스티앙 상막스라는 필명을 사용해 웹 카툰니스트로도 활동했다. 2007년 『그녀(들)』를 발표해 만화가로 정식 데뷔했고, 2008년 『할리우드 잔』과 『사랑은 혈투』를 각각 발표했다. 같은 해 발표한 『염소의 맛』으로 2009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에서 〈올해의 발견 작가상〉을 받으며 만화가로서 이름을 알렸다. 그 이후 『내 눈 안의 너』, 『제국을 위하여』, 『폴리나』 등의 작품을 발표했으며 2012년 초부터 자신의 블로그를 『비디오 게임』, 『가족』, 『사랑』 등의 주제로 엮어 책으로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2013년 『바스티앙 비베스 블로그』와 2017년 『바스티앙 비베스 블로그 2』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2015년 스튜디오 동료이자 오랜 친구 사이인 스토리보드 작가 〈발락〉과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 작가인 〈상라빌〉과 함께 『라스트맨』 시리즈를 발표했고, 이 작품으로 같은 해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시리즈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 중 『폴리나』는 세계적 발래 안무가 앙줄랭 프렐조카주가 연출하고 쥘리에트 비노슈가 주연을 맡아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2017년 발표한 『누나』는 소녀와 소년의 섬세한 감정을 비베스 특유의 아름다운 선으로 그려 냈다는 평을 받았다. 2020년 시나리오 작가 마르틴 크네옌이 글을 쓴 『7월 14일』은 비베스가 그린 첫 스릴러 작품으로, 프랑스의 연쇄 테러로 인해 위축된 개인의 심리를 섬뜩하게 묘사하고 있다.



담요 ★12쇄

크레이그 톰슨 | 박여영 옮김 | 2012년 | 592면 | B5 변형 견장정 | 24,800원

하비비 ★6쇄

크레이그 톰슨 | 박중서 옮김 | 2013년 | 672면 | 크라운판 변형 견장정 | 24,800원

만화가의 여행 ★5쇄

크레이그 톰슨 | 박중서 옮김 | 2013년 | 228면 | A5신판 변형 연장정 | 12,800원

안녕, 청키 라이스

크레이그 톰슨 | 박중서 옮김 | 2014년 | 128면 | A5신판 변형 연장정 | 9,800원

우주 만두 바이올렛의 신나는 우주 모험담

크레이그 톰슨 | 박중서 옮김 | 2020년 | 320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2,000원

mimesis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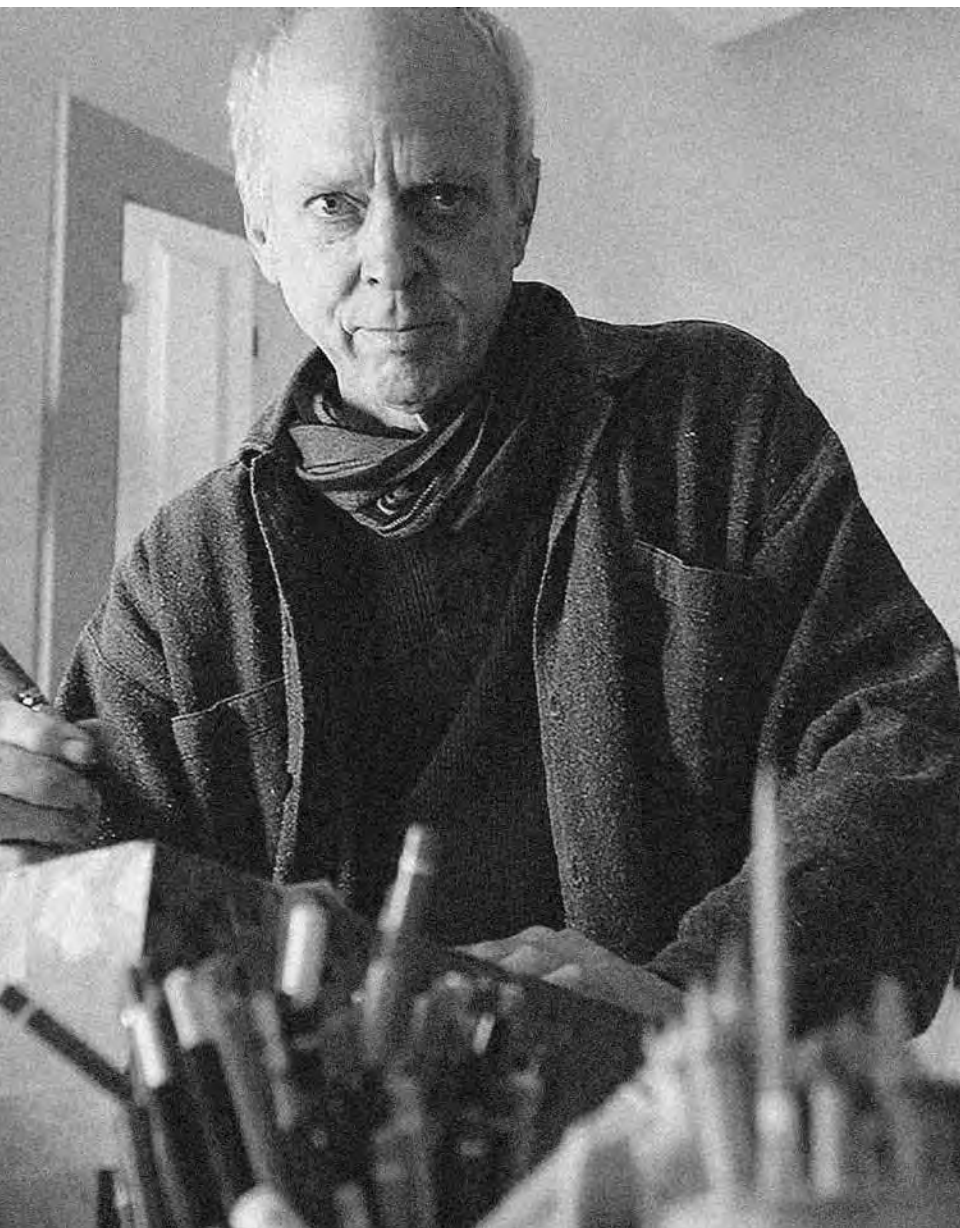
Craig Thompson

크레이그 톰슨

『담요』의 배경인 위스콘신의 시골에서 1975년에 태어나 자랐다.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늘 성경을 읽어야 했고, TV 시청도 음악을 듣는 것도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다. 유일하게 예술적 충족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만화 월간지뿐. 애니메이션 감독을 꿈꾸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으며, 대학교 때부터 대학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는 등 본격적인 만화가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1999년 『안녕, 청키 라이스』로 데뷔했고, 그 이듬해에 하비상 <재능 있는 신인상>을 수상하며 그래픽노블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자전적 작품 『담요』로 2004년 각종 만화상을 휩쓸며 미국의 그래픽노블 작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 외에 프랑스, 바르셀로나, 알프스 그리고 모로코를 방랑하면서 각지의 모습을 즉흥적이고도 열정적으로 기록한 여행 일기인 『만화가의 여행』과 사막, 하렘 그리고 현대 산업화의 흔적 속에서 살아가는 두 노예의 사랑 이야기 『하비비』, 진정한 가치를 찾아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귀여운 거북이를 그린 『안녕, 청키 라이스』 등의 작품이 있다.

2015년 8월, 몇 년간의 공백을 깨고 어린 독자를 위해 내놓은 『우주 만두』는 지금까지와 달리 총천연색으로 책을 꾸며 아기자기한 매력을 풍긴다. 아빠를 구하러 우주를 탐험하는 용감한 여자아이를 주인공으로 했으며, <사랑스러운 서사시>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을 얻었다.

2017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초대되어 처음 내한하였으며, 드로잉 콘서트와 독자와의 만남 등으로 국내 팬들과 직접 대면하였다. 최근 크레이그 톰슨은 <인삼>을 주제로 새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관련 자료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의 금산을 비롯해 중국의 베이징과 홍콩, 그리고 타이완을 방문하였다.



바늘땀 ★7쇄

데이비드 스물 | 이예원 옮김 | 2012년 | 328면 | 크라운판 변형 견장정 | 16,800원 e

나 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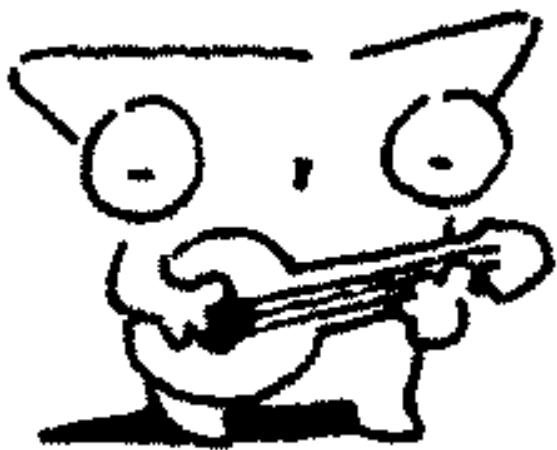
데이비드 스물 | 김승일 옮김 | 2021년 | 416면 | 크라운판 변형 견장정 | 22,000원 e

mimesis books

David Small

데이비드 스몰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1945년에 태어나 자랐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는 예일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며, 같은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미시간 대학교와 뉴욕 주립 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에스콰이어』, 『플레이보이』 등의 간행물에 삽화를 그리며 활동을 시작했다. 좋은 책을 알아보는 안목도 뛰어나 『뉴욕 타임스』의 서평 전문 기자로도 활동했다. 그는 마흔이 가까워져야 비로소 어린이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예술가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1998년 『리디아의 정원』과 2013년 『엘리엇에게 영동한 친구가 생겼어요』로 두 번의 칼데콧 명예상을, 2001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로 칼데콧상을 수상했다. 아내이자 작가인 세라 스튜어트와는 『리디아의 정원』을 비롯해 『도서관』, 『돈이 열리는 나무』, 『한나의 여행』, 『이사벨의 방』 등 여러 그림책을 함께 만들었다. 2009년 자전적 작품 『바늘땀』으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와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 그리고 미국 도서관 협회의 알렉스상을 수상하며 그래픽노블 분야에서도 대성공을 거두었다. 『바늘땀』 이후 9년 만에 내놓은 『나 혼자』는 작가 줄스 파이프의 표현처럼 <그림으로 그린 시>와 같다. 주변 사람들의 상실을 차례대로 겪으며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춘기 소년의 이야기는 스몰의 단순하지만 섬세한 그림과 만나 더욱더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스산한 심리적 통찰로 가득한 『나 혼자』는 한 편의 현대 소설처럼 우리 기억에 남은 성장통을 되살린다. 그는 현재 아내와 함께 미시간주 세인트 조지프강 근처의 188년 된 고택에서 살고 있다.



스노우캣의 혼자 놀기 ★2쇄

스노우캣 | 2015년 | 112면 | A5 견장정 | 12,800원

파리의 스노우캣 ★2쇄

스노우캣 | 2015년 | 176면 | A5 견장정 | 13,800원 e

뉴욕의 스노우캣 ★4쇄

스노우캣 | 2015년 | 204면 | A5 견장정 | 13,800원 e

스노우캣의 지우개 ★2쇄

스노우캣 | 2015년 | 164면 | A5 견장정 | 13,800원

스노우캣의 내가 운전을 한다 ★3쇄

스노우캣 | 2017년 | 256면 | B6 변형 연장정 | 13,800원

Snowcat

스노우캣

혼자 놀기의 달인으로 탄탄한 마니아층을 지닌 스노우캣. 권윤주 작가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일상의 소소함과 관계에 대한 생각, 삶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소심하지만 사랑스러운 고양이 스노우캣을 통해 표현한다. 작가의 분신인 스노우캣은 도넛과 낮잠을 좋아하고 카페 감식가이기도 하다. 작가는 스노우캣 시리즈를 통해 귀차니즘을 퍼뜨렸으며 혼자 놀기와 카페 놀이 등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스노우캣은 다소 우울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튀지 않고 소소한 일상을 중계해 온 탓에 한국에서 가장 장수하며 사랑받는 캐릭터이자 웹툰이라는 사실이 종종 망각되기도 한다. 또한 작품과 작가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는 일상툰/공감툰의 최초 발명가다. 귀차니즘, 혼자 놀기, 카페 놀이 등등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특정 플랫폼 안에서의 활동과 독자적인 블로그 운영을 병행하고 있으며, 여전히 자신의 미적 스타일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있는 작가다. 팬덤 역시 소소하면서도 길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강력하다고 평가받는다. 작품집으로 『옹동스』, 『고양이가 왔다』(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문학부분 선정), 『TO CATS』(프랑스에서 제24회 프랑스 3천만 동물 친구들을 위한 재단 문학상 수상), 『지우개』, 『뉴욕의 스노우캣』, 『파리의 스노우캣』, 『스노우캣의 혼자 놀기』 등이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대만 등에서도 출간되었다. 최근 문화 평론가 오영진이 스노우캣 탄생 20주년을 기념하여 그림과 글뿐 아니라 작가의 삶에 대한 태도와 독자 반응까지 포함한 만화 웹툰 작가 평론선 『스노우캣』을 통해 문화적 전위로서의 스노우캣을 다루고 있다.

Artist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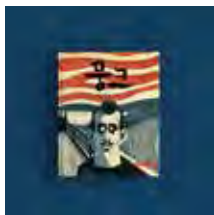
아티스트 시리즈

미메시스는 한 예술가의 인생 전반을 역동적인 그래픽노블로 선보이는 <아티스트 시리즈>를 꾸준히 펴내고 있다. 예술가의 인생과 작품 활동,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투영한 작품에 대한 열정 등 전설이 된 예술가들의 삶을 아름답고 강렬하게 그린 작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대중 예술의 아이콘이 된 한 화가의 특별한 이야기이자 자서전으로도 읽을 수 있다.

몽크 ★2쇄

스테펜 크베넬란 | 권세훈 옮김 | 2014년 | 288면 | A4 변형 견장정 | 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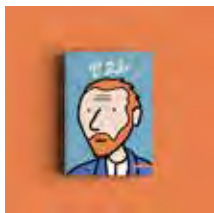
스테펜은 몽크의 인생을 만화로 옮기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말한다. 몽크의 작품들이 곧 그의 전기이고 몽크는 한스 예거의 영향으로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그의 일기는 말풍선이나 판넬만 없을 뿐 현대 만화 못지않다. 스테펜은 예술가의 인생을 만화로 조명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그의 예술 인생을 그림체로 혹은 컬러로 확연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스테펜은 작품 안에서 몽크의 <현재>, 1892년부터 1895년까지의 베를린 시절을 밝은 바탕에 풀 컬러로 그렸으며 <과거>의 회상 장면은 누런 종이에 그렸다. 그리고 작품의 화자인 노년의 몽크는 흑백 톤의 사실적인 그림으로 그렸다. 스테펜은 좀 더 풍부한 그래픽을 위해 몽크의 모티프를 이용한 그림을 응용해 <몽크스러운> 시각 세계를 구현하려 했다. 몽크의 부드러운 선들은 스테펜의 굵고 거친 그림들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300쪽 가까이 되는 분량 내내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반 고흐 ★13쇄

바바라 스톡 | 이예원 옮김 | 2014년 | 144면 | 크라운판 변형 견장정 | 13,800원 

츨흙 우울한 파리에서 벗어난 반 고흐는 프로방스의 따뜻한 아를에서 자신과 친구 화가들을 위한 <예술가의 집>을 마련하는 꿈을 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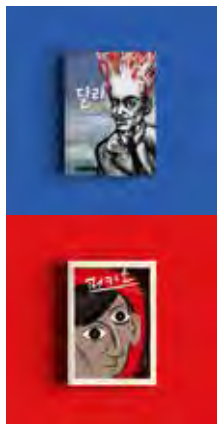


하지만 끝내 벗어날 수 없는 생활고와 〈예술가의 집〉을 이끌어 줄 수장이라 여겼던 〈고갱〉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예술가로서의 꿈과 인생 모두가 혼란에 빠진다. 점점 더 심해지는 정신 질환의 악화로 불안감에 사로잡혔던 그는, 끝내 귀 한 끝을 제 손으로 베어버린다. 이 악명 높은 사건으로 인해 반 고흐의 오랜 꿈은 산산조각이 나지만, 그럼에도 동생 테오는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키며 무조건적인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반 고흐는 아를과 오베르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걸작들을 만들었고 오로지 그림에만 매달렸다. 고흐의 마지막 시기로 우리를 안내한 바바라 스톡은 자신의 작품을 향해 넘치는 열정을 지닌 한 화가의 위대한 삶을 개성 넘치는 그림으로 선보인다.

달리

보두앵 | 윤진 옮김 | 2014년 | 168면 | A4 변형 건장정 | 16,800원

천재, 화가, 광대, 편집광, 장사치, 나르시스, 디자이너, 왕이자 왕자, 소심한 남자, 사기꾼, 초현실주의의 아버지, 살바도르 달리를 지칭하는 단어는 수없이 많다. 달리는 스스로 천재라 생각했고 또한 모두가 자신을 천재라 부르게끔 만든 위대한 예술가이자 시대의 우상이었다. 그 살바도르 달리를 프랑스 만화계의 살아 있는 전설 보두앵이 다시 한 번 되살려 냈다. 작가 보두앵은 달리의 나약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천재로 추앙받던 청년 시절을 지나 초현실주의 세계에서 정점을 찍은 기나긴 여정을 그림과 글로 옮겼다. 복잡하고 기괴한 달리의 세계는 실제 달리 작품에 등장한 개미의 입을 통하거나 보두앵 자신이 직접 책 속으로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색다른 그래픽노블로 완성되었다. 때로는 강한 묵탄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유화로, 각 페이지마다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 그야말로 가장 초현실스러운 『달리』를 창조한 것이다.



피카소 ★3쇄

첼리 비르망 | 클레망 우브르리 그림 | 임명주 옮김 | 2016년 | 364면 | B5 변형 건장정 | 25,000원 e

열아홉에 처음으로 파리에 도착한 피카소의 모습부터 「아비농의 처녀들」을 완성한 시기까지 7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그래픽노블이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 페르낭드의 화상으로 펼쳐지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혹은 상상했던 천재 화가의 이미지는 없다.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틀리에를 차리고 생활비 걱정 없이 그림만 그린 것도 아니다. 거울에 딸 석탄을 사기 위해 음화를 그려 팔고 그려두었던 작품들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모습과 더불어 성공가도를 달리던 화가 마티스에게 강렬한 승부욕을 표출하고, 고전주의 당시에 하렘을 그려 금기를 깬 화가 앙그르에게 강한 경외감과 질투심을 품는 피카소는 어찌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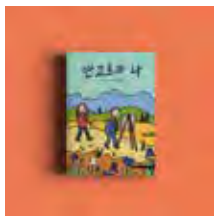
너무나 순수하고 평범하다. 화가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가난한 삶 속에서도 끈끈한 우정으로 이어졌던 두 시인 기욤 폴리네르와 막스 자코브와의 일상이 코믹하게 나타났고, 화자인 페르낭드의 시선 때문에 더 알 수 있는 사랑과 예술 사이에서 뜨거운 〈한 남자〉로서의 매력까지 더해진다.

● 2017년 부천국제만화축제 해외 작품상

반 고흐와 나

바바라 스톡 | 유동익 옮김 | 2019년 | 160면 | B5 변형 건장정 | 14,800원 [e](#)

국내에서 그래픽노블로는 이례적으로 1만 부를 돌파한 『반 고흐』의 뒷이야기와 이 책을 만든 바바라 스톡의 일상이 교차하며 그려진 작품이다. 반 고흐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큰 만족감을 얻었던 작가가 무기력해지는 이야기뿐 아니라 네덜란드의 한적한 동네에서 남자 친구와 자잘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솔직하고 다정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 역시 크게 공감하는 환경 문제와 주변의 무례한 사람들 그리고 1인 자영업자이자 프리랜서의 삶에 대해서도 수십 편의 코믹 스트립으로 다룬다. 단편처럼 이어진 이야기들을 통해 독자는 반 고흐와 바바라 스톡, 두 예술가의 삶을 동시에 지켜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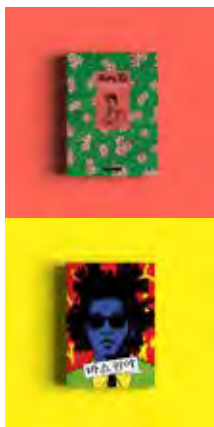


프리다 칼로 전설이 된 예술가의 인생과 사랑 ★3쇄

반나 빈치 | 이현경 옮김 | 2019년 | 160면 | B5 변형 건장정 | 15,800원 [e](#)

이탈리아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가인 반나 빈치는 『프리다 칼로』를 통해 멕시코를 대표하는 화가 프리다 칼로의 예술과 인생, 그리고 사랑을 재구성하였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버린 버스 사고부터 디에고 리베라와의 화려한 결혼 생활, 자신의 고통을 투영한 작품에 대한 열정 등 전설이 된 예술가 프리다 칼로의 삶을 아름답고 강렬하게 그린 책이다. 또한 카리스마 있는 한 여인, 대중 예술의 아이콘이 된 한 화가의 특별한 이야기이자 자서전으로도 읽을 수 있다.

● 2019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선정 〈2019 우수 만화 도서〉



바스키아

파울로 파리시 | 김마림 옮김 | 2020년 | 136면 | B5 변형 건장정 | 17,800원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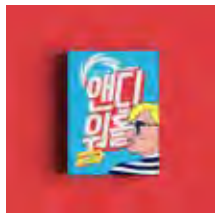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그래픽노블 작가 파울로 파리시가 불러낸 바스키아의 삶은 그가 만든 작품만큼이나 흥미진진하다. 파울로 파리시는 1980년대 뉴욕을 철저히 조사하여 생생한 색상으로 재현하였으며, 우리를 바스키아의 강렬한 인생의 여정으로 데려다준다. 이

책에서 파울로 파리시는 몇 가지 특정 색을 골라 사용했는데, 이 색들은 대부분 힘과 도전 그리고 우아함을 담고 있는 바스키아의 초기작에서 두드러지는 색들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그래픽노블이 아닌 것에서 그래픽노블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에서 파생된 <오마주>라고 할 수 있다.

앤디 워홀

타이팩스 | 김마림 옮김 | 2021년 | 564면 | B5 변형 건장정 | 35,000원 

앤디 워홀의 삶과 예술 세계를 10개의 챕터로 나눠서 소개하는 그래픽노블. 다양한 면을 가진 복잡한 인물이자 1980년대 슈퍼스타인 앤디 워홀의 삶이 화려하게 컬러별로 등장한다. 1930년대 피츠버그의 가난한 이민자 집안의 아들로 살아가던 시절부터 1980년대 뉴욕의 유명인사가 되어 인기와 부를 향유하던 시절까지, 앤디의 삶을 그 시절의 환경과 분위기에 맞춰 그림 톤을 달리한 책은 마치 워홀의 내면만큼이나 다채롭고 화려하다.



쿠사마 야요이 강박과 사랑 그리고 예술

엘리사 마첼라리 | 김희진 옮김 | 2021년 | 136면 | A5 변형 건장정 | 16,800원 

동시대 최고의 전위 예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일대기를 다룬 그래픽노블이다. 이탈리아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래픽노블 작가인 엘리사 마첼라리는 지난 2011년 마드리드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열린 쿠사마 야요이의 대규모 회고전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작품을 보게 되었다. 마치 도로 한복판에 놓인 돌과 같았던 쿠사마의 작품은 마첼라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돌이 되었고, 그녀는 자유로운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쿠사마 야요이를 그래픽노블로 재현하였다.



Literary Graphic Novels Series

문학 그래픽노블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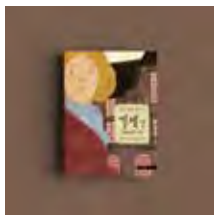
위대한 작가들의 삶과 소설 작품을 그래픽노블로
재현한 시리즈로, 대사와 그림의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원작에 담긴 심리학과 사회학을 섬세하게 그려 내고
있다. 강렬한 색채와 생생한 선으로 이뤄진 장면들은
우리를 새롭고 감각적인 문학 세계로 안내한다.

엘제 양 ★2쇄

아르투어 슈니츨러 원작 | 마누엘레 피오르 | 김희진 옮김 | 2011년 | 88면 | B5 변형
견장정 | 12,500원

오스트리아 작가 아르투어 슈니츨러의 단편을 유려하고 섬세한
수채화로 재현한 작품. 엘제는 휴가를 즐기러 이모 엠마, 사촌 파울과
함께 호텔에 머물고 있다. 이때 엘제에게 예상 밖의 전갈이 날아온다.
파산 직전에 면한 집안을 위해 엘제와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는 거부
화상 폰 도르스데이 자작에게 거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 사흘
안에 거금 3만 굴덴을 마련하기 위해 자작에게 찾아간 엘제는 15분간
알몸을 보여 줄 것을 요구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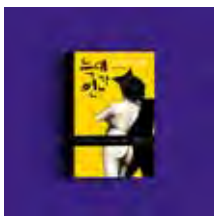
● 2009년 제네바 만화상



늑대 인간 그래픽 프로이트

리처드 아피나네시 | 스와바 하라시모비치 그림 | 이예원 옮김 | 2014년 | 176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15,000원

빈, 1910년. 젊은 러시아 귀족 세르게이 판케예프가 절박감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베르크스트라세 사택을 찾는다. 이어지는 분석 치료
과정에서 프로이트는 환자가 어린 시절 꿈 꾸며 주목한다. 흰 늑대
한 때가 창밖 나무에 위협적으로 걸터앉아 있던 꿈 장면의 획기적인
분석으로 인해 세르게이 판케예프는 영원히 <늑대 인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고, 프로이트 본인은 근대 사상사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이 책은 판케예프의 파란만장한 삶의 굴곡을 따라가면서, 프로이트와 그 뒤를 이은 분석가들이 어떻게 극심한 신경증의 근원을 해명하고자 시도했는지 짚어 본다.

자살 특공대 피자 가게

에트가르 케레트 | 야사프 하누카 그림 | 이원경 옮김 | 2015년 | 104면 | A8판 변형 | 건강정 | 1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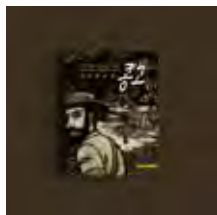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인기 작가 에트가르 케레트의 소설을 그래픽노블로 재탄생시킨 『자살 특공대 피자 가게』는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독특한 소재를 현실감 있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야기는 주인공 〈모르디〉가 자살한 날부터 시작한다. 땅에 묻힌 다음 날, 그는 자살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후 세계에서 새로운 인생을 맞는다. 이들이 사는 사후 세계는 이승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자살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 특징. 머리에 총알을 박았거나 물에 빠져 죽어 피부가 허물허물하거나 건물에서 뛰어내려 몸이 삐딱해져 있는 상태다. 우연히 모르디는 옛 여자 친구가 이곳에 온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를 찾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활을 시작한다.



콩고 조지프 콘래드의 암흑 같은 여행기

크리스티앙 페리생 | 톰 티라보스코 그림 | 양영란 옮김 | 2016년 | 184면 | B5 변형 건강정 | 16,800원 e

조지프 콘래드의 『어둠의 심연』을 바탕으로 한 프랑스의 그래픽노블로 암흑의 핵심을 파헤치는 주인공 〈말로〉, 즉 조지프 콘래드의 눈으로 콩고를 바라본다. 역사적 인물을 주로 다루는 만화 시나리오 작가인 크리스티앙 페리생이 글을 쓰고, 만화가인 톰 티라보스코가 목탄을 이용해 아프리카를 더욱 강렬하게 표현하였다. 『콩고』는 거대하며 길고 긴 매혹적인 뱀 같은 콩고로 떠나는 콘래드의 뒷모습부터 시작해 그가 마음과 몸에 커다란 상처를 안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이때는 소설을 발표하기 전인 1890년이며 콘래드는 그의 실제 이름인 콘라트 코르제니오프스키로 등장한다. 일거리를 찾아, 그리고 어린 시절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콩고에 간 콘래드는 탐욕스럽고 살기등등한 식민주의자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충격을 안고 돌아온다.



이비쿠스

알렉세이 N. 톨스토이 원작 | 파스칼 라바테 | 이상해 옮김 | 2017년 | 536면 | 크라운판 변형 건강정 | 25,000원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출간한 『이비쿠스』는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한 톨스토이의 소설이 원작이다. 그런데



라바테가 작가의 글에서 밝혔듯, 『전쟁과 평화』의 레프 톨스토이가 아니라 알렉세이 톨스토이의 글을 각색한 책이다. 하지만 라바테는 잘못 집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던 책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 원작과는 또 다른 인물을 창조하였다. 죽음과 증오가 일상적으로 퍼져 있던 한 시대의 혼란 속에서 마치 돈키호테를 뒤집어 놓은 듯한 기회주의자 시메온 네프조로프의 삶을 그렸다.

● 2000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상>

오르부아르

피에르 르메트르 | 크리스티앙 드 메테르 | 임호경 옮김 | 2018년 | 176면 | B5 변형 건장정 | 16,800원

프랑스에서만 6만 부가 팔린 그래픽노블 『오르부아르』는 원작 소설과 시작이 같다. 전투 중에 충격 사건의 가공할 진상을 우연히 알게 된 병사 알베르는 포탄 구덩이에 파묻히고, 그를 구하려던 에두아르는 포탄 파편에 맞아 얼굴 반쪽을 잃는다. 참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두 친구는 사회에 복귀하지만, 다시 살아남기 위해 분투를 벌여야 한다. 전사자들은 추모하는 반면 골치 아픈 생존자들은 떨쳐 버리려 하는 국가의 위선 속에서 사회의 언저리로 내몰린 두 전우는 전후의 혼란상을 틈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사기극을 꾸미기로 마음먹는다.



도스토옙스키 대문호의 삶과 작품

비탈리 콘스탄티노프 | 박종대 옮김 | 2019년 | 72면 | 크라운판 변형 건장정 | 12,800원 e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픽노블.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는 동안 열정적으로 불타올랐던 삶의 굴곡들을 만화 콜라주 기법으로 구성했다. 그의 59년 생애 동안 함께했던 가족, 동료나 라이벌이었던 당대 유명인의 평가를 비롯해 그의 문학과 정치 활동 및 수감 생활 이야기들이 각 페이지마다 펼쳐진다. 그의 대표작 『죄와 벌』,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악령』, 『도박꾼』을 비롯한 18개의 작품과 작품을 쓸 당시의 도스토옙스키의 심리적 배경이 그가 직접 남긴 기록과 편지들을 통해 만화적 상상력으로 뽐어나간다.



앵무새 죽이기 ★5쇄

하퍼 리 원작 | 프레드 포드햄 | 이상원 옮김 | 2020년 | 288면 | B5 변형 건장정 | 25,000원 e

1930년대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 메이콴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앵무새 죽이기』는 그 시대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주인공 스카웃과 항상 붙어 다니는 오파젼,

여름마다 메이콤을 찾는 괴짜 친구 딜, 변호사인 아빠 애티커스 핀치, 이웃에 사는 은둔자 부 래들리 등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펼쳐진다. 화자 역할을 맡은 스카웃이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전개되는 『앵무새 죽이기』는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파폐해진 미국의 모습과 사회 계층 간, 인종 간의 첨예한 대립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앵무새 죽이기』를 그래픽노블로 각색한 프레드 포드햄은 최대한 원작을 살리면서 핵심적 사건들을 감동적으로 그려 냈다.

돈키호테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 원작 | 례 데이비스 | 김마림 옮김 | 2021년 | 296면 | B5 변형 건장정 | 22,000원 [e](#)

성서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돈키호테』를 매우 감각적으로 바꾼 그래픽노블이다. 원작에 대한 철저하고 충실한 각색과 화려한 색감의 삽화는 소설 속에 내재된 전율과 비극 그리고 유머를 완벽하게 그려 낸다. 무려 1천 7백 여 쪽이 넘는 원작을 손에 들기 망설이는 독자라면, 그래픽노블 『돈키호테』의 이해하기 쉬운 대사를 통해 미리 그 엄청난 모험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 『돈키호테』는 기사 소설에 탐닉하다가 정신을 잃어 기사가 되겠다고 나선 한 엄숙한 미치광이와 순박하고 단순한 그의 종자가 만들어 낸 인간 최대의 희극이자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원작 | 바스티앙 루키아 | 김희진 옮김 | 2021년 | 176면 | A4 변형 건장정 | 18,800원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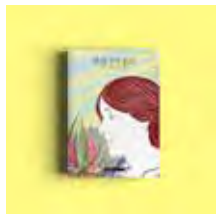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죄와 벌』을 그래픽노블로 처음 각색한 작품. 바스티앙 루키아는 1866년 출간된 도스토옙스키의 걸작에서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를 화자로 삼아 『죄와 벌』을 탁월하게 각색했다. 강렬한 색채와 생생한 선으로 이뤄진 장면들은 우리를 도스토옙스키적인 어둠의 심장부, 인간 영혼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버지니아 울프

리우바 가브리엘레 | 천치은 옮김 | 2022년 | 128면 | A5 변형 건장정 | 16,800원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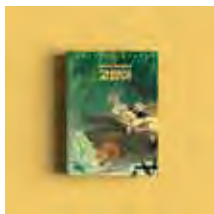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가인 리우바 가브리엘레가 그래픽노블로 펼쳐 낸 버지니아 울프의 평전. 20세기 최고의 모더니즘 작가 중 한 명으로 칭송받는 그녀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80년이 넘었다. 그 세월 동안 우리 눈에 비친 버지니아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지닌 존재다. 페미니스트 아이콘에서부터 미친 여자,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문학 작가라는 타이틀에 이르기까지. 한편으로는 비타 섹빌웨스트와 격정적인 관계를 즐기던 과감한 버지니아도 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고양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원작 | 포그 | 나이스 캣 그림 | 김희진 옮김 | 2022년 | 144면 | B5 변형 건장정 | 22,000원 **e**

프랑스와 한국에서 각각 30만 부 이상을 판매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고양이』를 그래픽노블로 옮긴 작품으로 주인공인 고양이의 시각에서 인간의 문명을 바라보는 이야기다. 집사인 나탈리와 함께 파리에 사는 암고양이 바스테트는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천재 삼고양이 피타고라스를 만난다. 한때 실험동물이었던 피타고라스는 머리에 USB 단자가 꽂혀 있어 인터넷을 통해 방대한 지식을 갖춘 지적인 고양이. 피타고라스에게서 인류와 고양이의 역사를 배우며 두 고양이가 점차 가까워지는 사이, 파리 시내는 테러가 빈발하는 불안한 상황이 되고 결국 내전이 일어난다. 내전으로 황폐해진 도시에서 고양이와 인간은 서로 소통에 성공하여 쥐 떼들의 공격과 페스트, 그리고 전쟁의 틈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브레흐트 에번스

1986년생. 벨기에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가로 겐트의 신티-뤼카스 미술 대학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했다. 2005년 『우주에서 온 메시지』로 데뷔했고, 이어서 2006년 『빈센트』와 2007년 『야행성』을 각각 펴냈다. 특유의 색채 감각과 독창성을 인정받은 그는 2009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에 신예 만화가로 초대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같은 해, 졸업 프로젝트로 시작한 작품 『디스코 하렘』이 벨기에에서 큰 인기를 끌며 2010년 월리 반더르스테인상을 수상하였고 이듬해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에서 〈대담한 만화상〉도 거머쥐었다. 브레흐트 에번스는 2011년 발표한 『예술 애호가들』로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명실상부 유럽을 대표하는 그래픽노블 작가로 자리 잡았다. 2013년 아이스너상의 〈해외 그래픽노블 중 가장 좋은 미국 에디션〉과 〈베스트 예술가〉 두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다. 이후 2014년 발표한 『표범』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 폴란드 등 7개국에서 번역 출판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디스코 하렘 ★2쇄

브레흐트 에번스 | 최현아 옮김 | 2012년 | 192면 | A4 변형 건장정 | 19,800원

만화 강국 벨기에의 천재 아티스트 브레흐트 에번스. 색다른 감각을 자랑하는 이 젊은 작가는 스물여섯 살에 천재라는 찬사를 받으며 유럽 만화계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의 작품들은 선이 없는 수채화, 과감한 색감, 제약을 두지 않는 자유로운 칸 나누기 등으로 기성 만화의 전형적



문법을 거스른다.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에서 <대담한 만화상>을 받은 『디스코 하렘』은 에번스의 역량을 가장 폭넓게 감상할 수 있는 그의 대표작이다.

- 2011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대담한 만화상>
- 2010년 벨기에 윌리 반더르스테인상
- 폴 그레빗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권의 만화책>
- 그라픽노블 리포터 선정 <최고의 그라픽노블 CORE LIST>

예술 애호가들 ★2쇄

브레흐트 에번스 | 박중서 옮김 | 2014년 | 224면 | A4 변형 건장정 | 22,000원

작가는 모든 만화 문법을 뒤집는 유희를 화려하게 펼쳐 보인다. 강렬한 색채, 말풍선과 선을 배제한 수채화 기법, 자유분방한 칸의 구성, 과감한 붓의 터치 등은 브레흐트 에번스만의 독창적 스타일을 완성시켰다. 그중에서도 작가의 독특한 색채 감각은 각각의 캐릭터에게 고유의 색깔을 부여하는 데에 한몫했다. 인물들의 그림은 물론, 그들의 대사까지 모두 각자의 색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의욕만 앞서는 크리스토프는 빨간색, 정신병을 앓고 있는 데니스는 검은색에 어떤 문장 부호도 들어가지지 않다. 덕분에 모든 장면에서 다채로운 색채의 향연이 펼쳐진다. <두 눈의 축제 같은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는 비비드한 색깔들은 여러 겹으로 중첩되며 무궁무진한 색의 세계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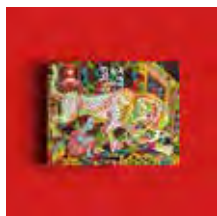
- 2012년 AV 클럽 선정 <최고의 그라픽노블과 예술 만화 25권>
- 2012년 시우다다노 팝 선정 <최고의 만화책 10권>
- 2012년 『페이스트 매거진』 <올해 최고의 만화책>
- 2011년 『텔레라마』 선정 <올해 놓치면 안 되는 만화책 15권>



표범

브레흐트 에번스 | 임명주 옮김 | 2018년 | 132면 | A4 변형 건장정 | 22,000원

주인공인 어린 소녀 크리스틴은 아빠와 고양이 루시, 그리고 강아지 인형 본조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는 크리스틴이 어릴 적 집을 나가 버렸고, 사랑하는 고양이 루시는 어딘가 아프다. 루시가 동물 병원에서 돌아오지 못한 어느 날, 크리스틴의 옷장 맨 아래 서랍이 열리고 미술처럼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난다. 나비넥타이와 턱시도 차림을 한 표범은 자신이 팬더랜드에서 온 왕자라고 밝힌다. 매일 밤마다 표범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크리스틴은 점점 더 표범 왕자에게 빠지게 되지만 동시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체스터 브라운

1960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났다. 1986년 『탐스러운 털』이라는 잡지를 자비 출판하며 본격적으로 만화가의 길에 들어섰다. 1989년 발표한 『행복한 광대 에드』로 이듬해에 하비상(최고의 그림책)상을, 『탐스러운 털』로 하비상(최고의 만화가)상을 받았다. 2003년 캐나다 역사상 가장 복잡한 평가를 받은 지도자 루이 리엘의 생애를 다룬 그래픽노블 『루이 리엘』로 대중적 성공을 얻었다. 2011년 발표한 『유료 서비스』는 5년간 자신이 경험한 성매매를 솔직하고 사려 깊게 기록해 전 세계 만화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외에도 자신의 단편을 엄선해 모은 『똑똑, 리틀 맨』을 비롯해 『플레이보이』와 『너 좋아한 적 없어』 등 지금까지 총 10권의 책을 펴냈다. 주로 자전적 내용을 냉소적이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지만, 그 이면에는 등장인물에 대한 세세한 감정과 애정이 숨겨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드론 앤 쿼터리 출판사를 통해서만 자신의 책을 발행하고 있고, 2016년 발표한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눈물을 흘린다』 역시 이곳에서 출판하였다.

너 좋아한 적 없어 ★2쇄

체스터 브라운 | 김영준 옮김 | 2012년 | 196면 | A5신판 견장정 | 13,000원

어린 시절 어설프게 성가 있던 감정의 끈들이 어떤 고리에서부터 나왔고 훗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 주는, 작가의 세밀하고도 아름다운 고백. 캐나다의 작은 마을 사토게이에서 살고 있는 한 소년은 엄마의 잔소리에는 절대 지지 않는 강한 심지를 가진 듯하나, 밖에 나오기만 하면 아이들의 놀림과 괴롭힘에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만만한 동네 꼬마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는 극도의 소심남이다. 소년은 마음의 교감은커녕 일상적 소통에까지 답답함을 느끼며, 그것이 본인의 탓인지 외부의 탓인지 알쏭달쏭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나름의 노력에도 자꾸만 엇나가는 주변의 관계들이 괴롭기만 하다. 10대 시절 사랑을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서툴고 어렵던 시절의 담담한 회고록이다.

● 폴 그레빗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만화책>



똑똑, 리틀 맨 ★2쇄

체스터 브라운 | 김희진 옮김 | 2012년 | 192면 | A5신판 견장정 | 13,000원

27편의 SF와 고어,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의 만화로 구성된 만화 단편집. 미래의 어느 날 최후의 인간을 쓰러뜨리고 인간 세계를 점령한 그것의 실체가 두루마리 화장지였다는 황당한 설정. 호통을 치는 교장 선생에게 충을 거누고 온 학교를 누비며 느와르 영화를 찍는



초등학생 이야기. 귀여운 동물 캐릭터가 벌이는 섬뜩한 한밤중의 호러 미스터리 등등. 꿈에서조차도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의 소재들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물론 만화 매체의 매력까지도 상기시켜 준다. 우스꽝스럽고도, 황당한 소재들로 엮이는 이야기는 인간의 무의미한 관계, 지역 이기주의, 주류 문화의 권력 남용, 언론에 잠식당하는 인간의 모습 등 강한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품고 있기도 하다.

● 2013년 스페인 만화 평론가 협회 선정 <최고의 만화책>

유료 서비스

체스터 브라운 | 이원경 옮김 | 2015년 | 304면 | A5 변형 건장정 | 19,800원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작가가 직접 돈을 내고 여자를 산 과정을 그린 <성매매 일기>이다. 책은 1996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자 친구인 숙인(캐나다의 배우이자 가수)과 성관계 없이 단지 동거인으로만 살던 체스터 브라운은 그녀가 자신의 옆방에서 다른 남자와 섹스하는 걸 듣게 된다. 질투는 커녕 아무 감정조차 느끼지 못한 체스터는 여자 친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느낀다. 그 얼마 뒤, 체스터는 어느 만화 행사에서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과 부동커안은 사진 한 컷에 50달러를 낸 후 성매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 고작 사진 한 컷에 50달러를 쓰느니 여자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 돈 내고 섹스하는 일은 3년 후에야 이뤄졌다. 호기심에 시작했던 매춘은 의외로 쉽고 단순했으며 무엇보다 짜릿하고 쾌락적이었다. 그렇게 체스터 브라운은 한 명 한 명 몸을 파는 여성들을 만나게 되고 그 수는 23명에 달한다. 그리고 작가는 자신이 만났던 수많은 여성들을 기록하고자 마음을 먹는다. 그 결과물이 바로 <유료 섹스> 일기인 『유료 서비스』인 셈이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눈물을 떨구다

체스터 브라운 | 이원경 옮김 | 2018년 | 320면 | B6 변형 건장정 | 16,800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등장한 매춘과 종교적 순종 이야기를 다루고 해석하며 여러 질문을 던지고 저자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체스터 브라운은 2011년 출간한 『유료 서비스』에서 5년간 자신이 경험한 성매매를 솔직하고 세밀하게 다룬 적이 있다. 이후 2016년 발표한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눈물을 떨구다』 역시 『유료 서비스』의 성경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재와 구성이 비슷하다. 작가는 우리 문화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취급해 온 영성과 섹슈얼리티가 실제로는 깊숙이 얽혀 있음을 보여 준다.





타인들의 드라마 시리즈

타인들의 드라마 #01: 로또 맞은 여대생

토마 카덴 | 바스티앙 비베스 외 15명 그림 | 김희진 옮김 | 2013년 | 224면 | B5 변형
연장정 | 16,800원

표지를 장식한 주인공 마틸드는 우연히 만난 남자 때문에 3천만 유로를 받게 돼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책은 그녀의 이야기로부터 그녀의 가족, 친구, 학교, 연애, 이웃 등 수많은 타인들의 생활 면면으로 그 이야기의 연결고리를 확장해 나간다. 독자들은 마틸드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가족과 친구들의 캐릭터를 보면서 주변의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투영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타인들의 드라마 #02: 수상한 친구들

토마 카덴 | 마누엘레 피오르 외 17명 그림 | 김희진 옮김 | 2013년 | 224면 | B5 변형
연장정 | 16,800원

『수상한 친구들』은 로또를 맞은 여대생 마틸드에게서 그 주변 인물들로 시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커다란 이야기의 도움닫기 단계이다. 18명의 만화가의 붓이 각 캐릭터의 이야기 속으로 디테일하게 파고들며, 주변 인물들이 개성 넘치는 주인공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 낸다.

타인들의 드라마 #03: 들통 날 거짓말

토마 카덴 | 뱅상 소렐 외 20명 그림 | 김희진 옮김 | 2013년 | 224면 | B5 변형 연장정 | 16,800원

로또 맞은 여대생으로부터 뺀어 나가는 행복하고 불행한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인간에 대한 감정들 즉, 시기와 질투, 미움, 사랑, 증오와 동경 등이 이 드라마의 사건들 곳곳에 숨어 있으며, 때로는 풍자로, 때로는 유머로 온갖 군상을 조명하고 있다.

● 2011년 프랑스 만화비평가협회 ACBD 선정 <올해 최고의 만화들>



타인들의 드라마 #04: 삶이 좀 엉켰어

토마 카덴 | 토마 고슬랭 외 20명 그림 | 김희진 옮김 | 2014년 | 224면 | B5 변형 연장정 | 16,800원

로또에 당첨되고 난 뒤 공부 따위 필요 없다며 학교를 그만두고, 부자들의 행동 방식들을 스스로 터득해 가는 말괄량이 마틸드, 그녀의 주변엔 늘 가족들에게 다정함을 요구하는 교사인 엄마와 하급 공무원인 고지식한 아빠가 있다. 또 남자 친구와 살고 있는 동성애자 오빠가 있고, 마틸드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자처하는 질투심 여왕 카미유, 늘 친절하기만 하여 아무 매력 없어 보이는 순진남 에마뉘엘, 시험 전날에는 머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 아랫도리를 비워야 한다는 마초맨 아르노가 있다.

레제르

레제르 | 최영선, 이재형 옮김 | 2007년 | 전2권 | 각 248면, 308면 | A4 건장정 | 각18,000원, 22,000원

〈가장 천재적으로 만화의 풍자 정신을 잘 구현해 낸 작가〉라는 평가를 받는 레제르의 만화모음. 레제르는 터무니없고 기상천외하고 반어적인 시선과 바람같이 빠른 필치와 다이내믹한 선으로 일체의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인간이라는 동물이자 괴물을 표현해 내고 있다.



염소의 맛 ★17쇄

바스티앙 비베스 | 그레고리 림펜스, 이해정 옮김 | 2010년 | 144면 | B5 건장정 | 17,800원 e

수영장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유의 느낌(냄새, 소리, 감촉, 맛), 물의 흐름이 만들어 내는 리듬을 효과적으로 끌어낸 이야기로 소녀에게 수영을 배우면서 점차 〈소녀와 수영〉 둘 다에 빠져들게 되는 소년의 감정을 아름답면서도 고독하게 표현했다. 온통 서투르기만 했던 순수한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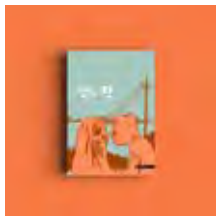


- 2014년 『파노라마』 선정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그래픽노블〉
- 2013년 일본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만화 부문 〈신인상〉
- 2010년 나폴리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 해외 만화상〉
- 2009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올해의 발견 작가상〉
- 2008년 제네바 만화상
- 2008년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 ACBD 선정 〈올해 최고의 만화들〉
- 폴 그레빗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권의 만화책〉

강의 왕

마리노 네리 | 이현경 옮김 | 2010년 | 80면 | B5 연장정 | 6,800원

2006년 루체는 만화 페스티벌과 아레나 국제 만화 페스티벌, 2007년 코미카첸 국제 만화 페스티벌 등에서 수상한 신예 마리노 네리의 데뷔작. 1970년대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일어난 강의 범람을 배경으로, 이를 바라본 소년의 시선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그려 냈다.



- 2007년 코미카첸 국제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상

아스테리오스 폴립 ★11쇄

데이비드 마추켈리 | 박중서 옮김 | 2010년 | 344면 | A4 건장정 | 26,800원

2009년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특별심사위원상, 만화계 최고상인 아이스너상, 만화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하비상 등 만화계 주요 상을 석권한 화제의 작품. 성공한 건축가 아스테리오스 폴립에게 갑작스럽게 닥쳐 온 인생의 위기, 그리고 이를 계기로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여정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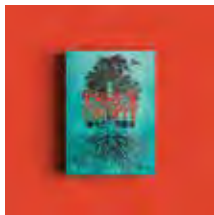
- 2013년 『스코틀랜드 헤럴드』 선정 〈올해의 그래픽노블 50권〉
- 2012년 나폴리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 해외 만화상〉

- 2011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특별심사위원상>
- 2011년 『dBD』 선정 <최고의 해외 만화상>
- 2011년 루카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 그래픽노블상>
- 2011년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 ACBD 대상
- 2011년 『크낙 포커스』 선정 <최고의 만화책 10권>
- 2010년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 ACBD 대상
- 2010년 『LA 타임스』 문학상 <최고의 그래픽노블>
- 2010년 『앵로퀴틀』 선정 <최고의 만화>
- 2010년 아이스너상 <최고의 작품>, <최고의 작가>, <최고의 레터링>
- 2010년 하비상 <최고의 작품>, <최고의 스토리>, <최고의 레터링>
- 2010년 그래픽노블 리포터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10권>
- 2009년 아마존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10권>
- 2009년 반스앤노블 선정 <최고의 소설 10권>, <최고의 그래픽노블 5권>
- 2009년 NPR 선정 <최고의 책 5권>, <최고의 그래픽노블 15권>
- 2009년 AV 클럽 선정 <2000년대 최고의 그래픽노블 25권>
- 2009년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 2009년 『글로벌 메일』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3권>
- 2009년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최고의 책 10권>
- 2009년 코믹 북 리소스 선정 1위 <최고의 만화책>
- 폴 그레빗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권의 만화책>

에식스 카운티 ★3쇄

제프 르미어 | 박중서 옮김 | 2011년 | 512면 | B5 변형 견장정 | 26,800원 

천재적인 이야기꾼, 제프 르미어의 대표작. 캐나다 시골 마을인 에식스 카운티 사람들의 고독한 일상과 내면을 흑백 그림으로 그려 낸 이 작품은 제프 르미어를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캐나다를 대표하는 만화가로 우뚝 세워 주었다. 고독하면서도 인간적인 이야기, 특유의 강렬하고 거친 흑백 그림은 평론가와 대중의 찬사를 받았고, 영화적인 연출 방식이 돋보인다는 평도 들었다.



- 2014년 나폴리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 해외 만화상>
- 2010년 캐나다 리즈 선정 <2000년대 최고의 소설 5권>
- 2008년 미국 도서관 협회 앨릭스상
- 2008년 조 슈스터상 <최고의 캐나다 만화가상>
- 2008년 더그라이트상 <최고의 신인>
- 폴 그레빗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권의 만화책>
- 그래픽노블 리포터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core list>
- 콤플렉스 선정 <죽기 전에 읽어야 할 25권의 그래픽노블>

메즈 예게른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1915-1916 ★3쇄

파울로 코시 | 이현경 옮김 | 2011년 | 144면 | B5 변형 연장정 | 9,800원

여전히 터키에서는 철저히 금기시되고 있는 주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에 관한 실상을 그린 만화. 이탈리아 작가 파울로 코시의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그의 단순한 흑백 그림과 담담한 문체는 그 어떤 역사책보다 비극의 참상을 절절하게 전달한다. 파울로 코시는 1915년 당시의 학살 공간에서 벌어진 역사의 단면들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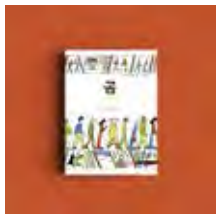
● 2009년 콩도르세 아롱상 출판부문상



곰 ★3쇄

뱅상 소렐 | 김희진 옮김 | 2011년 | 128면 | B5 변형 연장정 |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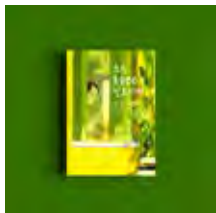
산에 나무를 하러 온 나무꾼을 무심코 습격한 곰이 나무꾼의 웃과 얼굴까지 뒤집어쓰고 마을로 내려온다는 다소 엽기적인 설정이다. 너무나 뻔뻔한 곰이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마을 부녀자들은 왠지 달라진 나무꾼에게 매력을 느낀다. 그러던 중 곰은 스스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고 마을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인다. 신예 만화가 뱅상 소렐은 허를 찌르는 상상력으로 만화만이 보여 줄 수 있는 독특한 위트를 선사하며 우리를 놀라게 한다.



초속 5000킬로미터 ★6쇄

마누엘레 피오르 | 김희진 옮김 | 2011년 | 148면 | B5 변형 연장정 | 12,500원

아스라한 사랑의 노마디즘, 지극히 섬세한 사랑의 궤적을 놀라운 수채화 터치로 완성한 작품. <초속 5000킬로미터>는 두 연인 피에로와 루치아가 각각 이집트 아스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5000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휴대폰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시차 1초를 말한다. 초속 5000킬로미터로 달리는 젊은 날의 사랑, 추억과 아픔을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수작이다.



- 2011년 앙트르 코믹스 선정 <올해 최고의 만화>
- 2011년 나폴리 만화 페스티벌 대상
- 2011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대상
- 2011년 『크낙 포커스』 선정 <최고의 만화책 10권>
- 2010년 루카 만화 페스티벌 대상, <최우수 작가상>

사랑은 혈투 ★9쇄

바스티앙 비베스 | 그레고리 림펜스, 이해정 옮김 | 2011년 | 96면 | A5 변형 연장정 | 9,800원 e

한 커플의 일상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기쁨과 슬픔, 기대와 반목, 희망과 좌절, 만남과 이별의 순간을 절묘한 스케치로 경쾌하게 표현했다. 사랑에 울고 웃는 청춘 남녀의 생채기와 속살을 크레용과 파스텔, 펜화 스케치로 탁월하게 재현했다.



이탈리아 일기 1

다비드 베 | 임미경 옮김 | 2011년 | 160면 | B5 변형 건장정 | 13,000원

다비드 베는 프랑스의 <새로운 만화> 운동의 대표 주자이다. 이 작품은 <일기>라는 말이 보여 주듯 저자가 발걸음 닿는 대로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느낀 상념과 사색, 인상과 관찰을 자유롭게 쓰고 그린 경쾌한 그래픽노블이다. 북부 트리에스테에서 중부 볼로냐까지 저자가 여행과 체류를 통해 얻은 이탈리아의 풍속, 사회, 삶의 풍경들을 하등의 장르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풀어낸 인상주의 체험기이자 에세이라고 할 수 있다.



폴리나 ★13쇄

바스티앙 비베스 | 임순정 옮김 | 2011년 | 208면 | A4 변형 건장정 | 18,000원 e

소녀에서 성인으로, 예술과 삶의 의미를 깨우쳐 나가는 발레리나의 성장기. 엄마 손에 이끌려 발레를 배우기 시작한 여섯 살 꼬마 폴리나가 엄격한 선생 보진스키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프로 발레리나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아냈다. 성공한 예술가의 길에 들어선 그녀가 보진스키를 단순히 엄한 스승이 아닌 자신을 지극히 아낀 한 위대한 스승임을 새삼 깨닫는 과정이 진한 감동을 준다.



- 2014년 『가디언』 선정 <올해의 최고의 만화책>
- 2012년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 ACBD 대상
- 2012년 『dBD』 선정 <최고의 그림상>
- 2011년 프랑스 만화 전문 서점상
- 2011년 『르 푸앵』 선정 <최고의 책 20권>
- 2011년 『크낙 포커스』 선정 <최고의 만화책 10권>
- 2011년 『텔레라마』 선정 <올해 놓치면 안 되는 만화책 15권>
- 2011년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 ACBD 선정 <올해 최고의 만화들>
- 2011년 앙트르코믹스 선정 <올해 최고의 만화>

바늘땀 ★7쇄

데이비드 스몰 | 이예원 옮김 | 2012년 | 328면 | 크라운판 변형 건장정 | 16,800원 e

폐쇄적인 가정 환경에서 어두운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던 작가 데이비드 스몰의 자전적 그래픽노블. 아들에게 조금의 애정도 주지 않았던 매정한 부모는 어린 데이비드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작가는 그 상처를 회고하며 다소 충격적인 자신의 성장기를 과감한 흑백 드로잉으로 풀어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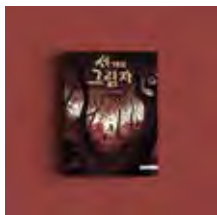
- 2012년 『타임』 선정 <최고의 자전적 그래픽노블 10권>
- 2010년 미국 서점 연합 성인 비소설 부문 수상
- 2009년 펍매터스 선정 <최고의 책>
- 2009년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최고의 책 10권>
- 2009년 NPR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 2009년 『캘리포니아 리터러리 리뷰』 선정 <최고의 책 10권>
- 2009년 아마존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1위>
- 2009년 아마존 선정 <최고의 책 9위>
- 2009년 전미 도서관상 최종 후보
- 2009년 코믹 북 리소스 선정 <최고의 만화 25권>
- 폴 그레빗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권의 만화책>
- 그래픽노블 리포터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CORE LIST>

세 개의 그림자 ★4쇄

시릴 페드로사 | 배영란 옮김 | 2012년 | 280면 | B5 변형 견장정 | 15,000원

사이좋은 부부 루이와 리즈, 그리고 어린 아들 조아킴. 세 가족은 소박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단란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집 건너편 언덕에서 조아킴을 조종히 지켜보는 세 개의 그림자가 등장하면서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위태로워진다. 페드로사는 인물의 움직임이나 흑백의 과감한 대비를 이용해 두려움, 용기, 고통, 사랑 등의 휘몰아치는 감정을 격정적으로 표현한다. 가족의 파란만장한 모험담은 페드로사 특유의 생동감 있는 화풍과 어울려 마치 애니메이션 한 편을 보는 듯한 흡인력을 발휘한다.



- 2009년 『레쟁로컬티블』 선정 <놓치면 안 되는 만화 100권>
- 2008년 앙굴렘 국제 만화페스티벌 <예상시열상>
- 2008년 코믹 북 리소스 선정 <최고의 만화 100권>
- 2007년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 ACBD 선정 <올해 최고의 만화들>
- 폴 그레빗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권의 만화책>

3그램 ★7쇄

수신지 | 2012년 | 184면 | B6 변형 견장정 | 14,800원

젊은 나이에 암 투병을 했던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긴 그래픽노블. 2010년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창작만화 지원작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프랑스에서도 출간되는 등 주목을 받았다. 작가는 신체의 이상한 변화를 느낀 날부터 수술 후 병원 문을 나선 날까지의 이야기를 평범한 20대 여성의 시선으로 가감 없이 담아낸다. 병원에 머무는 동안 겪은 크고 작은 에피소드는 입원 생활을 해본 사람, 혹은 간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로 웃음과 감동을 안겨 준다.



그해 여름

다비데 레비아티 | 임순정 옮김 | 2012년 | 352면 | B5 변형 견장정 | 19,800원

석유 시장 세대 교체, 그 중심의 이탈리아. 나라는 점점 부유해지고, 모든 산업시설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이곳저곳에 많은 공장이 들어섰다. 그때 공장들이 작은 마을의 주민들에게 보장했던 이익들은 정말로 풍요로운 미래였을까? 이 작품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급성장을 한 이탈리아,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그래픽노블이다. 주인공 소년 코페르의 마을은 공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실업 걱정 없이 부유함과 안락함이 채워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불시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집으로 숨어야만 했고,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폭발음 때문에 마을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러다 친한 친구 에토레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고,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에토레는 이사를 가버리고 만다. 어른들이 숨기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속에서 코페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 2012년 『dBD』 <최고의 해외 만화상>
- 2011년 벨기에 디아고날 <최고의 해외 만화상>
- 2010년 나폴리 만화 페스티벌 대상
- 2009년 로마 로믹스 페스티벌 <최고의 이탈리아 만화상>

답요 ★12쇄

크레이그 톰슨 | 박여영 옮김 | 2012년 | 592면 | B5 변형 건장정 | 24,800원

『답요』는 2003년 미국에서 출간된 뒤 그 이듬해 만화계 최고상인 아이스너상, 만화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하비상을 비롯해 이그나츠상,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 ACBD 대상 등 만화계 주요 상을 석권한 작품이다. 미국의 유명인사 오프라 윈프리는 역대 최고의 러브 스토리 중 하나로 이 작품을 꼽았고, 수많은 만화 평론 잡지들도 <최고의 그래픽노블>로 선정하며 작품의 작품성을 인정했다.

『타임』, 『가디언』, 『쥐트도이체 차이퉁』 등의 주요 매체들도 <미국 그래픽노블의 대표>라며 크레이그 톰슨의 작품을 평가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노르웨이, 브라질 등 15개 나라에 번역된 이 작품은 세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수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답요』는 크레이그 톰슨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학교 아이들의 심한 따돌림과 부모의 무관심으로 불행한 한 소년의 성장통을 그린 작품이다. 소심하고 외로운 소년이 느끼는 인간에 대한 회의감, 현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 그리고 불행 중에 찾아오는 첫사랑의 환희는 작가의 표현력과 감수성이 더해져 깊어진다. 한때 외로웠고, 두려움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 고민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현재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청춘 이야기이다.

- 2013년 『스코틀랜드 헤럴드』 선정 <올해의 그래픽노블 50권>
- 2012년 『타임』 선정 <자전적 그래픽노블 10권>
- 2012년 오프라닷컴 선정 <역대 최고의 러브 스토리 8권>
- 2011년 『가디언』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10권>
- 2010년 코믹 북 리소스 선정 <2000년대 가장 중요한 만화책 30권>
- 2010년 그래픽노블 리포터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10권>
- 2010년 하이파이브! 코믹스 선정 <2000년대 최고의 만화 20권>



- 2010년 알트 데일리 선정 <2000년대 최고의 그래픽노블>
- 2009년 AV 클럽 선정 <2000년대 최고의 그래픽노블 25권>
- 2005년 『타임』 선정 <『타임』 역대 최고의 그래픽노블 10권>
- 2005년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 ACBD 대상
-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 <최고의 만화책>
- 2005년 나폴리 만화 페스티벌 대상
- 2004년 『쥘트도이체 차이퉁』 선정 <2004 최고의 만화책 5권>
- 2004년 하비상 <최고의 작품>, <최고의 작가>, <최고의 만화가>
- 2004년 아이스너상 <최고의 작품>, <최고의 스토리>

만화가의 여행 ★5쇄

크레이그 톰슨 | 박종서 옮김 | 2013년 | 228면 | A5신판 변형 연장정 | 12,800원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모로코의 낯선 풍경을 배경으로, 낯선 사람들에게 낯익은 사람이 되어 가는 자신의 하루하루의 이야기를 담은 크레이그 톰슨의 여행기. 거침없는 선에서부터 세밀한 붓 터치로 매일의 그림 일기를 기록한 크레이그 톰슨의 성실함이 이 여행기의 매력이다. 2004년 3월 3일부터 시작하여 5월 14일에 마친 그의 여행기는 총 224페이지로, 하루에 1컷 이상의 그림을 그려 냈다. 그의 그림 속에는 무심코 스쳐갈 수도 있었던 사람들, 물건들, 길, 풍경, 감정들이 꼬박꼬박 아름다운 스케치로 재탄생되었다. 그리고 솔직 담백한 그의 글솜씨에 그림들과 하나가 되어 어우러져 있다. 여행의 끝에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들을 지나쳐 보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카메라에 사진으로 그 순간들을 남기지 않는다. 크레이그 톰슨은 카메라 대신, 성실히 붓과 그의 손으로 그 순간들을 기록하였다. 소박하면서도 재밌고, 영동한 기록들은 아쉬움으로 이어지는 여행의 서운함을 달래 준다.



한 사람

레이 폭스 | 이원경 옮김 | 2013년 | 280면 | A4 변형 건장정 | 14,800원

출생과 죽음을 하루 동안 겪은 아들에게 바치는 헌사로 시작되는 이 책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상상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삶이 시대와 지역과 인종을 초월한 거대한 한 영혼의 다양한 옷 갈아입기라면, 아들의 몸에 잠시 동안 머물렀던 그 영혼은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모두의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닐까?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영혼에 대한 재해석은 자신의 영혼과 아들의 영혼이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 2012년 YALSA 선정 <위대한 그래픽노블>
- 2012년 『북리스트』 <최고의 그래픽노블 10권>
- 2011년 『USA 투데이』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10권>
- 2011년 코믹 북 리소스 선정 <최고의 만화 20권>

하비비

크레이그 톰슨 | 박중서 옮김 | 2013년 | 672면 | B5 변형 건장정 | 24,800원

크레이그 톰슨이 『담요』 이후 7년 만에 발표한 작품. 무지한 아버지 때문에 중년의 필경사에게 팔려간 12세 소녀 〈도돌라〉와 도돌라가 노예 시장에서 만난 세 살배기 남자아이 〈잠〉이 겪는 15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하비비〉는 아랍어로 〈내 사랑〉, 〈달링〉이라는 뜻이다. 남편의 죽음 이후 노예 시장에 끌려간 도돌라는 잠과 함께 탈출을 감행한다.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배에 거처를 정하고 남매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생존해 나간다. 어린 잠에 대한 책임감으로 도돌라는 〈사막의 유령 창녀〉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그 소문은 술탄의 귀에까지 들어간다. 어느 날 도돌라는 납치를 당하고, 영문을 모르는 소년 잠은 도돌라를 직접 찾아 나선다.

● 2019년 프랑스 문화 웹진 Benzine 선정 〈2010년대 최고의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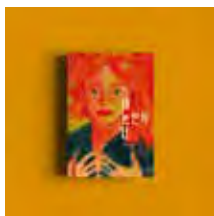


내 눈 안의 너 ★6쇄

바스티앙 비베스 | 그레고리 림펜스 옮김 | 2013년 | 136면 | B5 변형 건장정 | 14,800원 e

첫 만남의 설렘이 느껴지는 바스티앙 비베스의 실험작. 모든 매체에 수천 번, 수만 번 사용되어 온 〈사랑〉이라는 주제! 『내 눈 안의 너』는 막 새로 사랑을 시작하는 커플의 설렘과 청춘의 풋풋한 단면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바스티앙 비베스의 2009년 작품으로 젊은 작가의 대범함과 에너지, 그리고 실험 정신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제목에서처럼 이 작품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주관적인 시선을 따라간다. 독자는 그저 남자의 시선 속에 담긴 매력적이고 풋풋한 붉은 머리의 주인공 여대생의 모습을 통해 두 사람의 대화며 분위기를 짐작할 뿐이다. 작가는 객관적인 시선 대신 사랑에 빠진 남자의 시선을 빌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만을 집중적으로 담았고, 이는 독자가 주인공의 감정에 더 쉽게 이입할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

● 2009년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 ACBD 선정 〈올해 최고의 만화들〉



바스티앙 비베스 블로그 ★5쇄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 2013년 | 592면 | B5 연장정 | 18,000원

거칠고 다이나믹한 선으로 우리를 도발하는 만화의 등장. 캐릭터들 간의 대화에 중점을 둔 만화로 바스티앙 비베스가 휴식 시간에 틈틈이 블로그에 올렸던 작업물을 주제별로 추려 모은 만화집이다. 원래는 재미로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만화였다. 또한, 블로그에 공개되지 않은 에피소드들을 덧붙여 『비디오 게임』, 『가족』, 『사랑』, 『전쟁』, 『블로그』, 『만화』 등을 각 테마별로 엮은 것이다. 국내에서는 앞서 출간된 『사랑』, 『가족』, 『비디오 게임』을 한 권으로 엮었다.



파란색은 따뜻하다 ★6쇄

철리 마로 | 정혜용 옮김 | 2013년 | 160면 | A5 권장정 | 14,800원

그래픽노블로서는 이례적으로 프랑스 시장에서 5만 부 이상 팔린 『파란색은 따뜻하다』는 2010년부터 여러 만화제에서 다양한 상을 받은 것은 물론, 유럽에서 가장 큰 만화제인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에서 <독자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에는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어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작가 특유의 작가의 부드러운 그림체와 자연스러운 이야기 전개,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색의 표현력으로 동성애를 보편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했다.

● 2013년 영화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 2012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독자상>



센티멘털 포르노그래피 ★2쇄

지미 볼리외 | 이상해 옮김 | 2013년 | 292면 | A5 변형 연장정 | 16,800원

사랑과 인생, 그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낸, 조금은 낯설고 수줍지만 유쾌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래픽노블. 보편적인 윤리관이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남녀 주인공들은 가벼움과 진중함의 사이를 오가며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젊음과 성숙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워털루와 트라팔가르

올리비에 탈레크 | 2013년 | 64면 | B5 권장정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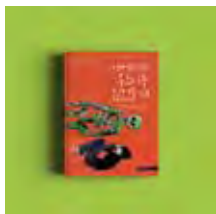
프랑스와 유럽 국가의 유명한 전투의 이름을 딴 두 병사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시간이 지나 밤낮이 바뀌고 계절이 지나는 동안 두 병사는 왜 대립하고 있는지 모른 채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같은 듯 다른, 다른 듯 같은 둘 간의 긴 침묵과 난센스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황 달팽이와 파란 새가 차례차례 찾아오고, 이 둘의 관계는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이념과 이익, 정치, 폭력, 혼란, 역사, 인간 등 모든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들어간 이 그림책의 책장을 넘기다 보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느 순간 뜨끔해진다.



아버지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

유디트 바니스텐달 | 이원경 옮김 | 2013년 | 280면 | 크라운판 변형 권장정 | 16,800원

어느 날 후두암 진단을 받게 되는 다비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자신의 아홉 살 된 딸 타마리다. 두 번째 부인 파울라와의 사이에서 나온 어린 딸이 아버지 없이 살아갈 생각을 하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그 어린 딸이 아버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그의 삶을 이루는 나머지 두 여자인 만딸 미리암과 부인 파울라 역시 슬슬 다비드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다비드 역시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에서 천천히 물러나며 죽음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한 인간으로 스스로를 다독여 간다.

- 2012년 『보도이』 선정 <올해 최고의 만화>
- 2012년 그래픽노블 리포터 선정 <올해 최고의 그래픽노블>

늑대의 꼬리

마리노 네리 | 천지는 옮김 | 2014년 | 144면 | A5 변형 연장정 | 9,800원

우화적 전통기법과 상징성을 담은 밤의 이야기. 늑대 여인, 광부들의 마을, 자연, 소녀. 숲 속의 모호한 분위기와 부드러운 붓으로 그린 듯한 검정색 바탕의 그림이 감동과 신비감을 더해 준다.

- 2012년 나폴리 만화 페스티벌 <신인상>

봄꽃도 한때 ★2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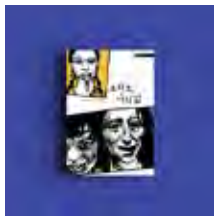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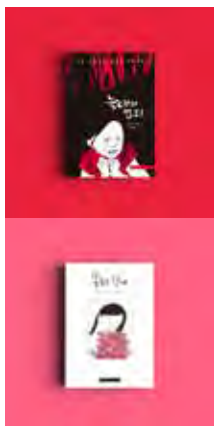
노영미, 서윤아, 박문영, 이지나, 심홍아 | 2014년 | 240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9,800원

청춘의 면면들은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반복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자는 것이 이 작품집의 최초 아이디어이다. 손창섭의 「비오는 날」,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동인의 「배따라기」, 박태원의 「피로」 그리고 윤동주의 「병원」. 현대 문학의 기점이 되었던 이 작품들의 심상을 다섯 명의 만화가들이 현재의 시점으로 재해석하여 단편 만화로 엮었다. 그 시대의 문학 작품에서 느끼는 바야 모두가 다르겠지만, 이 작품집은 봄꽃이 한순간에 확 폼다가 기척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찰나의 청춘에 집중했다. 해방 전후 시대의 문학과 만화의 결합은 만화라는 매체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한 매우 새로운 시도이다.

브라보, 나의 삶

보두앵, 트루스 | 정혜웅 옮김 | 2014년 | 136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12,800원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의 사람들을 만난 두 만화가의 두 달 동안의 이야기를 만화로 담았다. 10여 년 동안 400여 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실종된 그 도시, 국민의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범죄로 들끓는 도시인 시우다드후아레스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프랑스의 만화가 보두앵은 동료 작가이자 오랜 친구인 트루스에게 제안을 한다. 같이 가서 그곳 사람들을 만나 보자고. 이렇게 시작된 두 만화가의 멕시코 여행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었으므로 범죄 도시로 악명 높은 그 도시에 대해 좀 더 색다르고 넓은 시선을 보여 줄 수 있었다. 모든 여행을 마치고 난 후 보두앵은 말한다. 그 도시 속으로 들어가 보니 뜻밖에도 두렵지 않았다고, 따뜻했다고, 그리고 금방 정이 들어 버렸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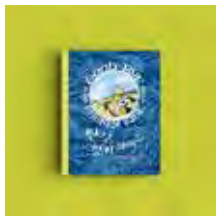


안녕, 청키 라이스

크레이그 톰슨 | 박중서 옮김 | 2014년 | 128면 | A5신판 변형 연장정 | 9,800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간다. 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을까? 나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이,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이런 고민과 성찰은 너무나 무겁고 심오하다. 질문은 끝이 없고 정답은 없다. 반면 이런 질문들은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런 고민이 없다면 인생은 참으로 무료할 것이다. 또, 이런 삶의 무게를 나누고 나를 지지해 줄 이가 없다면 더 이상 그 삶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안녕, 청키 라이스』는 청키 라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거북이를 통해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고민, 주제를 전개한다.

● 2000년 하비상 <재능 있는 신인상>



예쁜 여자 ★3쇄

권용득 | 2014년 | 192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12,800원

소설 같은 밀도와 집중력을 보여주는 일상 만화의 고수, 권용득의 단편 만화 8편을 묶었다. 2005년 첫 장편 『영순이 내 사랑』 이후 꾸준히 여러 매체에 발표해 왔던 작품들을 한데 모은 단편 모음집이다. 결핍에서 오는 인간의 고뇌와 그 쓸쓸한 뒷모습을 예리하게 포착해 경쾌하고 유머러스하게 그려 낸 수작들이다. 생생한 캐릭터와 주변 묘사는 물론 인간에 대한 작가의 탁월한 이해, 그리고 공감을 엿볼 수 있다. 원고료를 5만 원만 올려 달라며 출판사에 전화를 거는 만화가, 느닷없이 떠난 뉴질랜드 여행 중 외톨이 중년의 술주정을 듣는 용득, 술집에서 만난 여자가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 며칠 밤을 뒤척이는 나 등 하찮아만 보이는 일상에서 허우적거리는 각 캐릭터들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뻔뻔함으로, 때로는 아쉬움으로, 때로는 허탈감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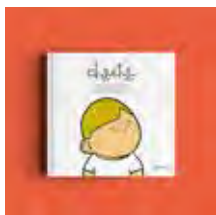


다운타운

노엘 랑 | 로드리고 가르시아 그림 | 엄지영 옮김 | 2014년 | 136면 | AB판 변형 견장정 | 12,800원

친구 사귀기, 수다 떨기, 공상하기, 음악 듣기, 수업 듣기, 운동하기 등 다운 중후군 아이들의 일상을 순수한 언어와 그림 그리고 유머로 그려 낸 스페인 만화. 다운 중후군인 삼촌을 보고 영감을 받은 노엘 랑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준비했다.

로맨티스트 블로, 천상 여자 비비, 수다쟁이 룯, 엉뚱남 벤하인, 느림보 미겔로테 등 각기 다른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상대를 보살피고 도와주려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것과 <특별한 다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특별한 다운>에 주목하기보다 그들의 배려와 우정, 그리고 천진난만한 시각에 초점을 맞춘다. 사랑스러운 다섯 캐릭터들의 소박한 행복과 엉뚱한 유머는 읽는 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미소를 떠올리게 할 뿐 아니라, 남들과 <다른 것>을
이해시키는 힘을 보여 준다.

버스

폴 커시너 | 이예원 옮김 | 2014년 | 96면 | A4 변형 건장정 | 10,800원

『버스』의 유머 코드는 워너 브라더스에서 나오는 카툰들이 지닌
황당무계한 논리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TV 프로그램 『환상 특급』의
편집증과 히에로니무스 보스, 마그리트, 달리, 에셔의 초현실적 예술
세계에서 주된 영감을 얻었다. 사실 『버스』 이야기의 기본 골조가
되는 상황적 배경은 다양하지도 많지도 않다.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에 승차하고, 운임을 지불하고, 다른 탑승객들과 나란히
앉았다가, 버스에서 하차하기. 평이한 시나리오의 기본
틀 안에 작가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묘한 반전을 넣고자 애썼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버스 자체에 초현실적 색깔을
덧입히기 시작했고, 탈바꿈하는 버스라든가 버스의 비밀 인생과
비사를 줄거리 요소로 적극 도입하게 됐다. 『버스』의 특징은 별
대사 없이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것이다.



방사성

로렌 레드니스 | 이경아 옮김 | 2014년 | 208면 | A4 변형 건장정 | 17,800원

레드니스는 마리 퀴리의 일생과 그녀가 발견하고 이름을 붙인
<방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때로는
지그재그로 교차시키며 풀어낸다. 과학 예술서인 『방사성』은 마리와
피에르 부부의 사랑 이야기로도 읽힌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과학자
피에르 퀴리의 연구소에 들어가게 되는 역시나 뛰어난 재능의 마리.
그 둘의 운명적이고 역사적인 만남은 라듐과 폴로늄의 극적인
발견으로까지 이어진다. 피에르 퀴리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마리
퀴리는 역청 우라늄에서 당시엔 아무도 몰랐던 방사성 원소들을
발견한다. 하나는 조국 폴란드를 기리기 위해 <폴로늄>이라 이름 짓고
두 번째 미지의 물질은 광선을 의미하는 라틴어 <레이>에서 이름을
따 <라듐>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마리와 피에르 퀴리를 사로잡은
방사성 물질은 인간이 이제껏 상상도 못한 경이로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무시무시한 폭발물의
수단이 되었다. 2020년 『방사성』을 영화화한 작품 『마리 퀴리』가
로자먼드 파이크 주연으로 공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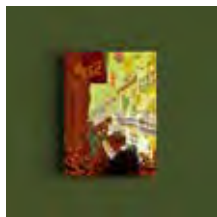
● 2011년 미국 내셔널 북 어워드 <논픽션 부문> 후보작

포르투갈 ★2쇄

시릴 페드로사 | 배영란 옮김 | 2014년 | 264면 | A4 변형 건장정 | 22,800원

척척한 일상의 연속이었다. 만화가인 시몽 뮌사는 이렇다 할
영감도 떠오르지 않았고, 삶의 의미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만화제에 초청되어 며칠간 이 나라에 머무르게 된 시몽은 의도치 않게 우연히 여러 가지를 재발견한다. 어린 시절의 향기, 휴가지에서 노래처럼 들려오던 사람들의 웃음소리, 잊혀진,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잊고 있던 한 가족의 화사한 온기를 다시금 새롭게 지각한 것이다. 뭐사 집안에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지우개로 지워진 자신의 과거 속으로 파고들던 시몽은 결국 그 자신이 그려온 길을 다시금 그려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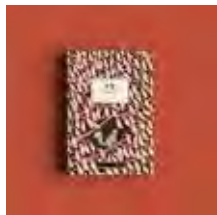


- 2012년 앙굴렘 국제 만화페스티벌 <독자상>
- 2012년 루카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 만화가상>
- 2012년 프랑스 만화 전문 서점상
- 2012년 앙트르 코믹스 선정 <올해 최고의 만화>
- 2012년 『파노라마』 선정 <올해 최고의 만화>
- 2011년 『르 푸앵』 만화상
- 2011년 BD Gest'Arts 선정 <최고의 만화책>
- 2011년 『텔레라마』 선정 <놓치면 안 되는 만화책 15권>
- 2011년 퀘벡 베델리스상 <올해의 해외 만화상>
- 2011년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 ACBD 선정 <올해 최고의 만화들>

가을

존 맥노트 | 홍유진 옮김 | 2014년 | 64면 | A4 변형 건장정 | 12,800원

닥우드는 인구가 26,000명에 지나지 않는 영국의 동남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10월의 어느 구름 낀 화요일, 마을 사람들은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 엠뷰 요양원에서 일하는 주방 보조원은 의무적으로 요양원의 입주자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한다. 다른 곳에서는 환경 미화원이 떨어진 낙엽을 쓸고 있다. 신문 배달원은 네틀필드 거리에서 그의 일상적인 배달 순서에 따라 신문을 배달한다. 그리고 나무에서는 새 떼가 매년 있는 그들의 대이동을 시끄럽게 준비하고 있다. 존 맥노트는 가을이 보여 주는 활기찬 자연의 움직임을 마을의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과 대조적으로 표현하였다. 『가을』은 인생의 작은 것들이 갖는 소중한 의미와 그것들이 전달하는 이야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달콤 씹쌀하며 사색적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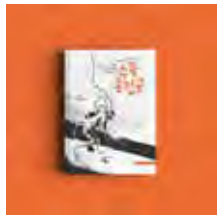


- 2013년 『스코틀랜드 헤럴드』 선정 <올해의 그래픽노블 50권>

수중 용접공

제프 린미어 | 박중서 옮김 | 2015년 | 224면 | 크라운판 변형 건장정 | 15,800원

노바스코샤 연안의 시추선에서 일하던 수중 용접공 잭 조지프는 막대한 수입을 건디며 깊은 바다 속에서 일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이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부담감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위축되곤 한다. 물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잭은 젊은 아내와 곧 태어날 아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얼음처럼 차가운 해저의 고독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이에 그에게 뭔가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생긴다.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 놓을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만남이 책을 찾아온 것이다. 육체노동자의 성격 탐구와 흥미진진한 수수께끼라는 두 가지 소재를 결합시킨 『수중 용접공』은 아버지와 아들, 탄생과 죽음, 기억과 현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수면 아래 깊은 곳에 남몰래 묻어 두고 있는 보물에 관해 이야기하는 그래픽노블이다.

- 2013년 조 슈스터상 <최고의 캐나다 만화가>
- 2012년 IGN <최고의 그래픽노블>
- 2012년 아마존 캐나다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1위>
- 2012년 아마존닷컴 <최고의 만화 그래픽노블 10권>
- 2012년 『USA 투데이』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15권>
- 2012년 AV 클럽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과 예술 만화 25권>
- 2012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인티사르의 자동차

페드로 리에라 | 나초 카사노바 그림 | 엄지영 옮김 | 2015년 | 208면 | 크라운판 변형 견장정 | 16,800원

우리는 예멘의 현실에 대해, 이슬람 문화에 대해, 무슬림 여성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을까. 단지 남자들에게 억압받고, 온 몸을 검은 천으로 가린 채 마호메트만 숭배하며 폐쇄적인 인생을 살 거라고 단정한 건 아닐까. 이 그래픽노블이 강조하는 건, 저자가 실제 예멘에서 겪은 일과 자신이 만났던 여성들의 세세한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예멘의 속살을 주관적인 개입 없이 고스란히 보여 준다는 점이다. TV 뉴스에서 전혀 알리지 않는 실제의 예멘에 대해 그래픽노블이라는 참신한 장르를 통하여, 아랍 사회에 관한 오해를 한 눈에 해소시키는 진정한 다큐멘터리라는 걸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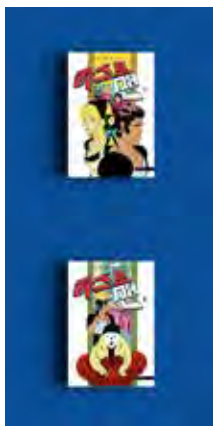
- 2013년 프랑스 옹포 <시사 및 르포 만화 부문> 최우수상
- 2013년 산타 콜로마 <사회 만화 살롱전> 최우수 만화상



라스트 맨

발락, 상라빌, 비베스 | 김희진 옮김 | 2015년 | 전2권 | 각 216면 | A5 연장정 | 각 권 9,800원

새로운 액션 만화인 『라스트 맨』은 격투 대회의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해 각지에서 모여든 격투가들에 관한 얘기이다. 싸움꾼들은 모두 각양각색, 여덟 살 어린 소년부터 무술 학교 학생들, 연인 팀, 쌍둥이 형제 등 챔피언이 되기 위해 제각각 기량을 뽐낸다. 가장 주목할 인물은 리샤르 알다나. 어디에서, 왜, 무엇을 목적으로 왔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남자는 오로지 우승컵을 위해 달리고, 대회가 점점 열기를 띠면서 그의 정체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마치 임무를 완수하듯 하나씩 상대를 해치우는 모습은 『나루토』나 『원피스』, 『쥔쥔의 기묘한 모험』의 주인공들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라스트 맨』은 중세를 배경으로 인간애를 다루는 점에서 고전적이며, 미래에서 온 주인공을 내세워 판타지적인 면을 강조한 점에서 일본 만가와의 차별성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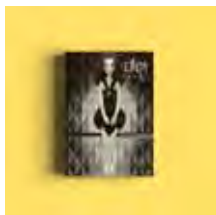


- 2015년 앙굴렘 국제 만화페스티벌 <최고의 시리즈상>
- 2015년 루카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 시리즈상>

대면

마누엘레 피오르 | 김희진 옮김 | 2015년 | 176면 | 크라운판 변형 견장정 | 14,800원

작품의 시대 배경은 2048년. 심리학 박사인 라니에로는 어느 날 들판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한다. 빛으로 이뤄진 삼각형 모양이 밤하늘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그 현상은 라니에로의 여성 환자인 도라가 자신의 눈에 보인다고 설명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러던 중 라니에로는 무장 강도의 자택 침입과 폭행을 겪게 되고, 아내인 나디아는 그를 버리겠다고 위협한다. 친구인 외과의사 발테르는 라니에로가 겪은 미스터리가 라니에로 스스로 만든 무의식적 관념이라고 치부하지만, 라니에로와 도라는 외계가 보낸 메시지며 텔레파시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상황은 갑자기 급변하고 미확인 존재들은 인류를 위협하기 시작했으며 라니에로는 갑자기 사라진 도라를 찾아야만 한다.



- 2014년 퀘벡 베델리스상 <올해의 해외 만화상>
- 2014년 나폴리 만화 페스티벌 대상
- 2013년 『보도아』 선정 <최고의 만화>
- 2013년 Canal BD 만화 서적상 후보작

스노우캣의 혼자 놀기 ★2쇄

스노우캣 | 2015년 | 112면 | A5 견장정 | 12,800원

이 작품집에는 스노우캣이 혼자 노는 여러 가지 독특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신문지 고깔을 접어 TV를 보는 방법, 혼자서 영화를 보는 방법,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가면을 찾는 방법, 탁자 아래에서 혼자 노는 방법, 오렌지를 가지고 노는 방법, 혼자 놀기에 성공할 확률 테스트, 따돌림 당한 친구들을 돕는 방법 등등. 스노우캣은 무료한 일상생활을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극복하고자, 더 나아가서는 즐기고자 노력한다.



파리의 스노우캣 ★2쇄

스노우캣 | 2015년 | 176면 | A5 견장정 | 13,800원 e

파리에서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특유의 화법과 감각적인 터치로 풀어낸 일러스트 에세이집이다. 스노우캣이 유유자적하며 즐긴 파리 곳곳의 독특한 분위기, 인상적인 순간이 부드럽게 스케치되어 있다. 센 강과 생루이 섬, 노트르담과 에펠탑, 오르세와 루브르, 몽마르트르, 몽파르스 센터, 피카소, 달리, 고흐 등. 그리고 팬임을 자처하는 팻 메스니와 키스 자렛의 공연 관람 에피소드... 파리를 상징하는 아이콘에 스노우캣의 색채가 어우러져 독특한 느낌을 준다.



뉴욕의 스노우캣 ★4쇄

스노우캣 | 2015년 | 204면 | A5 견장정 | 13,800원 e

스노우캣이 본 뉴욕은 한마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시>이다. 무슨 일이트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찾아낼 수 있는 이 도시에서 스노우캣 역시 조금씩 변화했다.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스노우캣은 집 밖으로 나와 뉴욕, 특히 맨해튼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거리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재즈 클럽, 서점, 카페, 공원, 미술관, 구석구석 숨어 있는 보석 같은 가게들... 그 속에서 스노우캣이 <얼굴이 두 배가 된다는> 베이글의 세계에 빠져들고, 좋아하는 작가 폴 오스터의 낭독회에 가서 사인도 받고, <말하는 기둥>에 지인과 함께 가서 소리를 내보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웃음이 난다. 마치 뉴욕이든 한국이든 행복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듯하다.



스노우캣의 지우개 ★2쇄

스노우캣 | 2015년 | 164면 | A5 견장정 | 13,800원

스노우캣의 개인적 관심사를 짙막하게 스케치했던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계에 관한 깊은 사색과 심화된 자아 고찰이 눈에 띄는 작품이다.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괴로움, 좋아하는 것들, 관계에 대한 회의, 삶에서 느끼는 절망과 희망 등, 소재의 측면에서 본다면 『스노우캣의 혼자놀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스노우캣의 지우개』에서는 페이지에 얼마이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표현력을 구사한다.



자꾸 생각나 ★4쇄

송아람 | 2015년 | 620면 | B6 변형 영장정 | 15,800원

만화 작가를 꿈꾸는 미래는 어느 날 만화가 도일과 그의 후배 만화가 승태와 만나게 된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들의 술자리는 도일을 동경하고 호감을 느낀 미래에게는 특별한 일이었다. 둘은 각자 애인이 있었지만, 자극 없는 긴 연애와 불투명한 앞날에 지쳐있던 상황. 서로 교감이 오고 가는 사이 승태 역시 미래를 마음에 두고 호감을 얻으려 한다. 그러다 승태가 소개해 준 <자유창작>의 사장은 미래가 며칠 밤을 새워서 완성한 작품에 대해 좋은 평을 내주지 않는다. 기대만큼이나 크게 낙심한 미래는 어쩌다 도일과 술자리를 마주하게 되고, 결국 교감을 넘어 마음과 몸 모두 선을 넘고 만다. 집요할 정도로 현실적인 『자꾸 생각나』는 미래와 도일을 비롯한 인물들의 확연한 개성 및 사랑이라는 감정을 놓고 오가는 미묘한 심리, 더하여 애정과 자부심으로 가득하지만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만화인들의 일상이라는 다양한 색깔의 실들을 리얼리티라는 바늘에 꿰어, 교묘하고 촌촌하게 짠 뒤 사람 냄새로 진하게 염색한 한 장의 직물 같은 작품이다.



거대한 수염을 가진 남자 ★2쇄

스티븐 콜린스 | 이경아 옮김 | 2015년 | 240면 | 크라운판 변형 권장정 | 16,800원

주인공 데이브는 혼자 사는 평범한 남자다. 그가 살고 있는 〈여기〉의 다른 사람들처럼 데이브 역시 여기가 아닌 곳, 〈저기〉를 두려워한다. 그곳은 소문만 무성하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건너갔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밤이면 밤마다 으스스한 소리가 들려온다. 〈저기〉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 회사원 데이브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한다. 오로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와 저녁 식사, 그리고 뱅글스의 히트 곡 「꺼지지 않는 불꽃」만 있으면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나는 수염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수염은 마치 포효하듯 불길이 얼굴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여기〉답지 않은 방식으로 튀어나왔다. 그런 이상한 일이 여기에서 일어날 리 없다고 굳게 믿었기에 수염은 엄청난 사건이 된다. 데이브는 회사에서 쫓겨나고 멸시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전문가가 〈그 수염〉이 분출된 무질서이자 지옥문이 열린 것이라고 단정하자 데이브는 사회악으로 대두되고 사람들은 그를 〈그것〉으로 부른다.

- 2015년 아이스너상 〈최고의 작품상〉, 〈최고의 작가상〉 후보작
- 2014년 루카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 그래픽노블상〉
- 2013년 영국 9번째 예술상 선정 〈최고의 그래픽노블〉
- 2013년 『스코틀랜드 헤럴드』 선정 〈올해의 그래픽노블 50권〉



리얼리스트

아사프 하누카 | 이예원 옮김 | 2015년 | 128면 | 크라운판 변형 권장정 | 13,800원

이스라엘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언제나 전쟁 중인 나라, 그 정당성이 누누이 반박되는 땅, 지구상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이며 9시 뉴스에 단골로 소개되는 곳에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선입견과 모순이 자리다툼하는 도시 텔아비브가 아사프 하누카의 글과 그림을 통해 활력과 쾌락이 넘치는 수도이자 빛으로 충만하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트 신을 자랑하는 도시, 신성한 예루살렘을 비웃는 싼 시티로서 여기 제 진면모를 드러낸다. 그는 예술가로서, 배우자로서, 아버지로서, 혹은 일개 이스라엘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유머러스하면서도 엉뚱하고 때때로 초현실적인 그림 속에 담아 보인다. 비단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풍경들을 그려 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시대의 아이콘들, 「판타스틱 4」부터 잡지 「뉴요커」, 루빅스 큐브, 그리고 홀로코스트부터 페이스북과 아이폰까지 한데 아우르는 당대의 흐름을 포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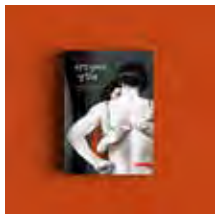
- 2016년 아이스너상 〈최고의 외국 만화상〉
- 2015년 루카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 작가상〉



여장 남자와 살인자

클로에 크뤼소테 | 김희진 옮김 | 2015년 | 168면 | 크라운판 변형 견장정 | 18,000원

전쟁에서 벗어나고자 자해를 하고, 성 정체성까지 바꾸며 살아야 했던 한 남자와 경제적 어려움, 전쟁 트라우마로 변해 가는 남편과의 불화 속에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평범한 한 여자의 이야기가 어둡고, 관능적이고, 매력적으로 묘사된 그래픽 노블이다. 주인공인 폴과 루이즈는 사랑하고 곧 둘은 결혼한다.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제1차 세계 대전 발발로 인해 헤어지게 된다. 총알받이에 불과한 폴은 동료들의 죽음과 참담한 전쟁을 겪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옥 같은 참호에서 벗어나려 한다. 자해를 하면서까지 전쟁에서 벗어난 폴은 탈영병이 되어 파리로 도망친다. 루이즈를 다시 만났지만 폴은 호텔 방에 갇혀 숨어 살아야 할 처지이다. 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폴이 생각해 낸 수는 <정체를 바꾸는 것>이다. 그는 쉬잔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 2014년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 ACBD 대상
- 2014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독자상>
- 2014년 베데 뫼그 선정 <최고의 만화책 20권>
- 2013년 랑데르노 만화상
- 2013년 『텔레라마』 선정 <최고의 만화책 5권>
- 2013년 BDfugue 선정 <올해 최고의 만화책 13권>
- 2013년 『보도이』 선정 <올해 최고의 만화>

내 친구 다머

더프 백더프 | 강수정 옮김 | 2015년 | 224면 | 크라운판 변형 견장정 | 16,800원

17명을 살해한 악명 높은 미국의 연쇄 살인범 제프리 다머에 관한 그래픽노블. 주인공 다머와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이었던 만화가 더프 백더프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머는 잔인한 악마였지만, 작가에게는 도서관에서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밴드 연습실에서 함께 어울린 소년이었다. 단지 어딘가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는 커녕 학교에서도 다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교실, 복도, 심지어 집에서도 늘 혼자였다. 더프는 동물의 시체를 모으는 이 괴상망측한 다머의 뒤를 따라다니며 소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덤덤히 밝힌다. 이 작품은 최근 미국에서 영화화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 2014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올해의 발견 작가상>
- 2014년 프랑스 국영 철도SNCF <올해의 추리 만화상>
- 2012년 『타임』 선정 <최고의 만화책>
- 2012년 미국 도서관 협회 <알렉스상>
- 2012년 『USA 투데이』 선정 <올해 읽은 최고의 그래픽노블>
- 2019년 프랑스 문화 웹진 Benzine 선정 <2010년대 최고의 만화>

스트리트 페인터 ★2쇄

수신지 | 2016년 | 592면 | B5 연장정 | 1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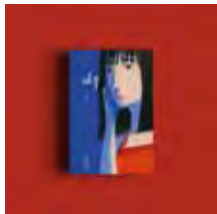
만화가 수신지가 2015년 올레 마켓에서 6개월간 연재했던 동명의 웹툰을 책으로 엮었다. 모두 25화에 걸쳐 〈거리 이야기〉를 풀어낸 이 작품은 4만 5천여 명이 감상하며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었다. 작가의 시대 시절이 고스란히 반영된 작품인 『스트리트 페인터』는 회화와 4학년인 〈아랑〉이 거리의 화가로 나선 생활 밀착형 그래픽노블이다. 졸업을 앞둔 아랑은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돈도 벌고 싶다는 현실적인 고민에 빠진다. 4년 내내 했던 미술학원 아르바이트는 지겹고, 벽화 일은 생각만 해도 몸이 떨릴 정도로 힘들다. 〈전공을 살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 활기차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을까? 그러던 중 학교 게시판 앞에 붙은 〈거리의 화가〉 모집 공고를 보게 된다. 구청이 공고한 이 행사는 주민이나 관광객이 자주 모이는 문화 거리에서 캐리커처나 초상화를 그리는 일로, 아랑은 호기심 삼아 지원을 하고 드디어 거리로 나서게 된다.



비우

이대미 | 2016년 | 220면 | 크라운판 변형 건장정 | 14,800원

책 속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고 각자가 가진 여러 아픔이 나온다. 비우의 맞은편에서 책을 이끌어 가는 소설가 김지은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어린 시절부터 환시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유명 소설가이고 자신의 환시를 작품 속에도 드러내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소설가뿐만 아니라 해린 엄마, 비우의 아빠, 이모, 김 편집장 등 스스로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나름의 아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작가는 아픔의 경중보다는 아픔이라는 게 숙명처럼 삶 속에 들어와 어떤 문제를 던진다고 여긴다. 아픔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타인의 아픔도 돌아보게 된다고 강조한다.



바스티앙 비베스 블로그 2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 2017년 | 592면 | B5 연장정 | 18,000원

모두 68편의 스트립으로 구성된 이 책은 〈블로그 세상〉, 〈전쟁〉, 〈만화〉로 각 장이 나뉘어 있다. 〈블로그 세상〉과 〈만화〉 편에서는 만화가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뿐 아니라 최근 만화계 풍토에 대한 비베스만의 재치가 돋보이며, 〈전쟁〉에서는 주로 전쟁을 일으키는 남성들의 명칭함을 전면으로 내세운다. 또한 작품 곳곳에서 비베스가 실제로 등장해 자신의 초기 작품에 대한 자괴감뿐 아니라 만화 작가로 사는 즐거움과 어려움도 자연스럽게 토로한다. 『염소의 맛』을 왜 그리게 되었는지 비베스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 모두는 이 능청스러운 남자에게 완전히 속았다고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또 평소 비베스가 존경하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에 대한 존경도 작품 곳곳에 숨어 있어 마치 보물 게임을 하는 듯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스노우캣의 내가 운전을 한다 ★3쇄

스노우캣 | 2017년 | 256면 | B6 변형 연장정 | 13,800원

〈본격! 운전툐〉이라는 이 책은 스노우캣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블로그 형식으로 기록한 초보 운전 일기이다. 오랜만에 장롱 면허를 꺼내고 새 차를 사면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총 25화를 엮었다. 『스노우캣의 내가 운전을 한다』는 귀염둥이로 불리는 작은 차를 운전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집콕목 밖을 나가게 되고, 처음 함께 장을 보고 주차를 하는 등 다양한 일들을 소소하게 기록하였다.



조각가 ★2쇄

스콧 맥클라우드 | 김마림 옮김 | 2017년 | 496면 | 크라운판 변형 건강정 | 25,000원 e

자신의 이름 앞에 늘 〈또 다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하는 인생이 있다. 데이비드 스미스, 스물여섯 살, 뉴욕에 사는 빈털터리 예술가,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조각가 〈데이비드 스미스〉와 같은 이름, 심지어 그 데이비드 스미스처럼 〈또 다른 데이비드〉도 조각가이다. 가족이 모두 일찍 세상을 뜨고 혼자 남겨진 데이비드는 수중에 남은 몇 달러와 위스키로 자신의 생일을 보낸다. 돈도 의욕도 작품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한 데이비드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 나지막이 묻는다. 〈데이비드, 예술을 위해서라면 뭘 걸겠니?〉 오래전에 사망한 큰할아버지 〈해리〉의 모습으로 등장한 죽음의 신은 데이비드에게 거래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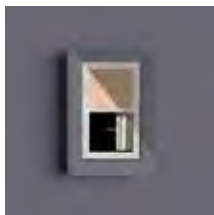


● 2015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여기서 ★3쇄

리처드 맥클리어 | 홍유진 옮김 | 2017년 | 304면 | B5 변형 건강정 | 16,800원

표지를 열면, 거기에 방이 하나 있다. 창문과 벽난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방이다. 〈여기〉는 어디일까? 첫 페이지를 펼치자, 앞과 같은 방 안에 소파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왼쪽 위에는 〈2014〉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다음 페이지에도 〈2014〉. 다만, 소파는 흔적을 감추고 벽에는 새로운 책장과 이제 막 꽃힌 듯한 책들, 그 근처에는 책을 담아 두었던 종이 박스가 열려 있다. 누군가가 이제 막 이사를 왔는지도 모른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니 이번엔 〈1942〉년이다. 벽지가 다르다. 창문이 열린 방 안에는 사다리 하나뿐. 또 페이지를 넘기면 〈1623〉년이고, 400년 전인 〈여기〉에서는 아직 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957년의 방 일부분과 1999년 방 한구석이 역시 시간을 넘어서 공존한다. 『여기서』는 같은 각도에서 본 똑같은 공간(여기)을 두 면에 펼쳐서 보여 주는 방식이다. 아마 책을 펼치고 여러동절해진 독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여기〉의 이런 방식과 매력에 빠져들게 될지 모른다. 읽는 방법은 자유다. 일어난 일들을 연대순으로 확인하거나, 역사를 재구축하여 읽거나, 그 시대를 반영한 패션이나 가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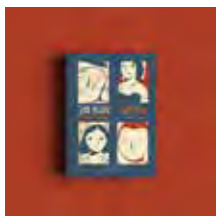
가전제품들의 변화에 주목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아무렇게나 배열된 이미지를 따라가다 보면, 시간 여행의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다.

● 2016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상>

코메 프리마: 예전처럼

알프레드 | 이상해 옮김 | 2017년 | 232면 | B5 변형 건장정 | 19,800원

10년간 연락이 끊겼던 파비오와 조반니 형제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다시 재회하게 된다. 집안과 의절했던 파비오는 아버지의 유골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동생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하지만 파비오는 일과 여자 문제 등으로 골치거리가 생긴 데다가 아버지의 유산까지 챙겨 주겠다는 조반니의 제안에 마음을 바꾼다. 둘은 낡고 오래된 피아노 500을 몰고 먼 길을 나서지만,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서로에게 쌓였던 원망들은 견잡을 수 없이 우수수 쏟아진다. 그러나 형제가 함께 나눴던 추억과 우연히 길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겹치면서 여정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단편적으로 그려지는 아버지의 초상을 통해 파란만장했던 형제의 관계도 서서히 드러난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칸초네 가수 토니 달라라의 명곡 「코메 프리마」의 뜻처럼, 두 형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 2014년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한 레스토랑 세컨즈

브라이언 리 오말리 | 박중서 옮김 | 2017년 | 328면 | A5 변형 건장정 | 25,000원

젊은 여성이자 잘나가는 셰프인 케이티의 삶은 남부럽지 않지만 온전하고 완벽한 자신만의 것들을 주변에 두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산다. 그러나 어느 순간의 열도당도않은 실수들로 좌절감에 빠진다. 하지만 한밤중에 묘연한 소녀가 나타나고, 소녀가 사라지자 케이티는 버섯과 쪽지 하나를 발견한다. 쪽지엔 버섯을 하나씩 먹을 때마다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실수 하나씩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케이티는 완벽해지려는 욕심 때문에 버섯을 과용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간과 기억이 자꾸만 다시 만들어진다.



오늘 내 기분은요 ★2쇄

황정하 | 2018년 | 520면 | B6 연장정 | 12,800원

어린이 그림책 작가로 알려진 황정하는 평소 작업하는 방식과 정반대로 책을 엮었다. 그림책에서 굵고 귀여운 아이들을 따뜻하게 그렸다면, 자신의 일기에서는 모든 감정을 마음껏 쏟아부었다. 무려 520쪽에 걸쳐 고단한 일러스트레이터의 삶을 짚아보기로 결심한 '오늘 내 기분은요'는 작가가 2015년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연초부터 2018년 일본 여행을 다녀오기까지 총 4년간을 담고 있다.



누나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 2018년 | 216면 | B5 변형 건장정 | 19,800원

열여섯살 소녀와 열세 살 소년의 두근거리는 한여름을 그린 비베스의 새로운 장편 그래픽노블. 여름휴가를 위해 바닷가 별장을 찾은 앙투안 가족에게 엄마 친구인 실비 아줌마와 그녀의 딸 엘렌이 방문한다. 두 가족이 함께 머무르는 동안, 사춘기 소년 앙투안의 시선은 온통 엘렌에게로 향한다. 엘렌은 앙투안이 보든 말든 거리낌 없이 옷을 갈아입거나 속옷 차림으로 앙투안을 당혹시킨다. 그런 앙투안의 마음을 안다는 듯이 엘렌은 점점 더 대범해지고 한창 이성의 몸에 호기심을 가질 나이인 앙투안은 엘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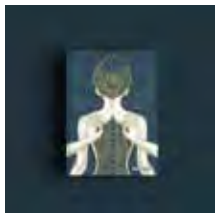
- 2018년 캐나다 퀘벡 서적상 <해외 만화상>
- 2017년 『보도이』 선정 <올해의 만화>
- 2017년 프랑스 만화 비평가 협회ACBD 선정 <올여름 놓치면 안 되는 만화>



살갓 지독한 연애의 흔적

그자비에 뤼사 | 윤진 옮김 | 2019년 | 256면 | B5 변형 건장정 | 25,000원

국내에서는 낯선 이름인 그자비에 뤼사는 그래픽 자서전이라는 장르에 천착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처음으로 그래픽노블에서 <나>와 <개인>의 영역을 단호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탐험한 작가 중 하나다. 『살갓』은 작가의 두 번째 그래픽노블 작품으로 작가가 데뷔작 『성가족』에서 자신과 가족 간의 관계를 풀어냈다면, 이번에는 더 나아가 가족과 떨어져 나온 이후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나서 지독한 연애를 하고 끝을 본 이야기를 상세하게 보여 준다.



파더 판다

훗한나 | 2019년 | 200면 | B5 변형 건장정 | 14,800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훗한나의 첫 그래픽노블 작품인 『파더 판다』는 미래 사회에서 개인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자신만의 이야기가 삭제된 개인의 삶이 얼마나 얇고 가벼워지는지에 대한 비극을 다룬다. 작품은 가까운 미래 어느 시점이 배경이다. <임신 가능>으로 판정된 여성들은 정부가 정해 놓은 일정한 나이까지 출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남성의 정자 확보가 어려워 민간에서는 다양한 대체 아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이용하고 안정적 출산율을 보여 주는 곳이 <판다는 좋은 아빠>다. 선택된 판다는 자신의 정자를 기증받은 여성의 집에서 유사 가정을 이루며 생활한다. 어느덧 판다 아빠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도 꽤 시간이 흐르고, 곳곳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판다는 사회 문제로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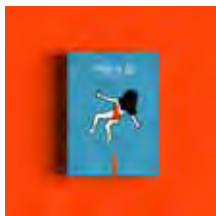


재운의 삶 ★3쇄

정재운 | 2019년 | 144면 | A5 변형 권장정 | 13,800원 e

SNS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만화가 정재운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재운의 삶』은 제목 그대로 자신의 현재를 고스란히 담은 작품집이다. 작가는 페이스북에 <재운의 삶>이라는 주제로 9컷 만화를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일기처럼 혹은 메모처럼 자신이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릴 때마다 많은 이에게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그가 다루는 주제는 흥미롭고 폭이 넓다. 어릴 때부터 강요받았던 여성성과 남성성, 원초적 본능, 롤 모델에 대한 부담감, 브래지어에 대한 단상, 월급쟁이 인생, 반짝 유행 아이템들, 자신 안의 편견 등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봤을 이야기들을 말한다.

● 2019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선정 <2019 우수 만화 도서>



호텔 하데스 어서 오세요, 죽은 자들의 세계

카타리나 그레베 | 박종대 옮김 | 2019년 | 136면 | B5 변형 권장정 | 1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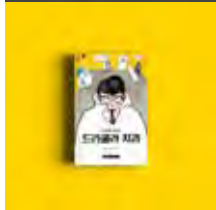
독일의 만화가 카타리나 그레베의 중편 작품인 『호텔 하데스』는 사후 세계를 유머러스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다룬다. 주인공인 소설가 마르타와 그의 젊은 반려자 플로리안 그리고 요리사 페터는 어느 스낵바 앞에서 난데없이 총에 맞고 사망한다. 세 사람은 이제부터 자신들이 죽은 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후 세계에서 내려온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데스로 향한다.



드라쿨라 치과 내 치아를 지켜 줘!

조성민 | 2019년 | 400면 | A5 변형 연장정 | 13,800원 e

일명 <닥터 드라>로 활동하는 치과 의사이자 구강외과 전문의 조성민은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치아 관리법을 알려 준다. <드라쿨라 치과>는 실제로 닥터 드라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1번 출구로 나와 대로변을 걷다 보면, 작가의 표현대로 쓰러져 가는 건물 2층에 자리한 알록달록한 드라쿨라 치과를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그는 주인을 잘못 만난 치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치아를 잘못 관리한 주인을 꾸짖고 야단친다.



은돌아, 산책 갈까?

라미 | 2019년 | 224면 | A5 권장정 | 14,800원 e

만화가 라미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은돌아, 산책 갈까?』는 17년을 함께한 <은돌이>라는 작은 몰티즈의 죽음 이후를 판타지로 풀어낸 중편 <사라지는 세계>와 은돌이가 처음 집으로 왔을 때부터 세상을 떠나기까지를 현실적으로 그린 <너와 함께한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의 스무 살부터 서른여섯 살까지 17년을 한없는 사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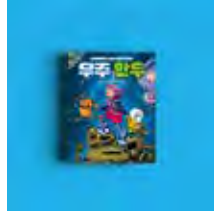
채워준 은돌이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한때 머물렀고 또 지금도 함께하는
<내 사랑>을 떠올리게 한다.

● 2019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다양성만화 제작 자원사업 선정작>

우주 만두 바이올렛의 신나는 우주 모험담

크레이그 톨슨 | 박종서 옮김 | 2020년 | 320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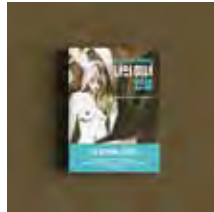
주인공 바이올렛의 아빠는 우주 고래의 똥을 귀중한 연료로 가공하는
제재소에서 일한다. 힘들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지만, 바이올렛의
엄마가 패션 공장에서 하급 디자이너로 일하기 때문에 아들 가족은
근근이 생계를 이어 나간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돈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아들 가족에게 발생한다. 제재소의 극비 임무 수행 중에 아빠가
행방불명되고, 끈적끈적한 고래 설사가 이들의 거주 구역 전체를
휩쓸자, 바이올렛과 엄마는 아빠의 무사 여부를 알 수 없어 불안해한다.
바이올렛은 친구들과 함께 아빠를 우주 고래로부터 구하기 위한,
그리고 은하계를 뒤덮은 고래 설사의 홍수를 중단시키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나의 미녀 인생

프랑수아 베고도, 세실 기야르 | 김희진 옮김 | 2020년 | 200면 | B5 변형 견장정 | 18,000원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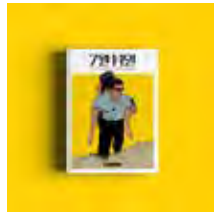
소설가 프랑수아 베고도가 글을 쓰고 신예 만화가 세실 기예르가
그림을 그린 페미니즘 그래픽노블. 어릴 적부터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린 한 독신 여성의 인생을 1인칭 시점으로 세심하게 풀어낸 『나의
미녀 인생』은 프랑스에서 출간되었을 당시 <과감한 페미니스트적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평범한 보통의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길렌은 엄마 아빠의 사랑과 함께 이웃집 남자아이 <질>과 오누이처럼
지낼 정도로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의 다른
남자아이들이 길렌을 배척하며 <똥난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 순간, 길렌은 추락을 경험한다.



7월 14일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 2021년 | 256면 | B5 변형 견장정 | 20,000원 e

바스티앙 비베스의 첫 스릴러 그래픽노블. 프랑스의 가장 큰
국경일이자 혁명 기념일인 <7월 14일>은 프랑스인들에게는 축제이자
애도의 날이기도 하다.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니스에서 벌어진,
기념일을 경축하려 모인 시민들에게 대형 트럭이 돌진하고 충격까지
가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충격적 사건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7월 14일』은 바로 이 국가 기념일에 벌어지는 한 사건의
전후와 그 주인공을 관찰하고 있다.



● 2021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1 우수만화 도서>

나 혼자

데이비드 스몰 | 김승일 옮김 | 2021년 | 416면 | 크라운판 변형 견장정 | 22,000원 e

엄마가 지역 풋볼 스타와 집을 나가 버리고, 열세 살 러셀 프루이트에게는
안절부절못하는 아빠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혼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아빠는 러셀을 데리고 쓸 만한 직업을 얻어 보고자
오하이오를 떠나 햇볕 뽕뽕한 캘리포니아를 향한다. 우리는 러셀을
통해 미국 소도시의 팍팍한 삶을 따라가면서, 이미지와 꿈의 시퀀스가
최면적으로 펼쳐지는 카프카적 성장담을 목격하게 된다. 데이비드
스몰은 상실을 겪은 한 소년의 이야기를 사춘기의 롤러코스터 같은 삶에
대한 보편적 우화로 바꾸어 놓는다. 스산한 심리적 통찰이 가득한 『나
혼자』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매혹적인 묘사로 현대 소설과도 같이
기억에 남는 성장통을 되살린다.



재생력

조성환 | 2022년 | 264면 | B5 변형 견장정 | 24,000원 e

영화와 드라마 시리즈의 스토리보드 작가로 일하고 있는 조성환은
그의 첫 작품 『재생력』을 통해 그래픽노블이라는 장르의 매력을 마음껏
펼쳐 보인다. 영화감독 봉준호의 추천사처럼, 이 작품은 <예측 불허의
유머와 처절한 폭력>이 함께 공존한다. 주인공은 어른의 몸이지만 어딘지
모자라 보이는 <머리>. 머리는 위기에 처한 검은 고양이 의 목숨을 구해
주다가 다리를 잃고 만다. 머리의 보호자이자, 과거 생명 공학계에 큰
업적을 이뤘던 오명준 박사는 독특한 의료 기술로 머리의 망가진 몸을
재생시킨다. 그러나 머리와 동물의 언어로 짧은 교감을 나눈 직후 죽음을
맞는 검은 고양이. 머리는 이 죽음을 목격한 시점부터 조금씩 인간적인
모습을 얻게 된다.



에드워드 고리 시리즈

불운한 아이 에드워드 고리 | 이형식 옮김 | 2006년 | 64면 | A5 변형 견장정 | 절판

쓸모 있는 조연 에드워드 고리 | 이형식 옮김 | 2006년 | 64면 | A5 변형 견장정 | 절판

월로데일 핸드카 에드워드 고리 | 이예원 옮김 | 2006년 | 64면 | A5 변형 견장정 | 절판

이상한 소파 에드워드 고리 | 윤희기 옮김 | 2006년 | 64면 | A5 변형 견장정 | 절판

독이 든 사랑 에드워드 고리 | 이예원 옮김 | 2007년 | 56면 | A5 변형 견장정 | 절판

미치광이 사촌들 에드워드 고리 | 박수진 옮김 | 2007년 | 32면 | A5 변형 견장정 | 절판

비밀 다락방 에드워드 고리 | 이예원 옮김 | 2007년 | 124면 | A5 변형 견장정 | 절판

오래전의 방문 에드워드 고리 | 이예원 옮김 | 2007년 | 64면 | A5 변형 견장정 | 절판

유리의 도시

폴 오스터 원작 | 폴 카라식 | 데이비드 마추켈리 그림 | 황보석 옮김 | 2011년 | 152면 |
B5 변형 견장정 | 절판

최악의 동반자 1 (1780-1953)

장피에르 필리유 | 다비드 베 그림 | 임순정 옮김 | 2013년 | 128면 | B5 변형 견장정 | 절판





문학 / 인문 / 기타

Literature Social Sc Misc.





e/
ciences/





뉴욕의 상폐 ★8쇄

장자크 상페 | 허지은 옮김 | 2012년 | 344면 | B5 변형 연장정 | 24,000원 e

상페의 어린 시절 ★6쇄

장자크 상페 | 양영란 옮김 | 2014년 | 288면 | B5 변형 연장정 | 22,000원 e

상페의 음악 ★3쇄

장자크 상페 | 양영란 옮김 | 2020년 | 232면 | B5 변형 연장정 | 22,000원 e

Jean-Jacques Sempé

장자크 상페

첫 번째 작품집이 나왔을 때 이미 프랑스에서 데생의 일인자로 꼽힌 전 세계적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 장자크 상페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푸근함을 느껴 쉽사리 눈을 뗄 수 없는 흡입력 높은 그림을 그려 낸다. 가냘픈 선과 담담한 채색으로 인간 내면의 고독함을 표현하며, 때로는 유머러스한 드로잉으로 일상을 유쾌하게 펼쳐 보인다. 1932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태어난 상페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악단 연주자를 꿈꾸면서부터다. 소년 시절, 자신이 존경하는 재즈 뮤지션들을 한 장 한 장 그리며 음악뿐 아니라 그림에 대한 열정도 함께 키워 낸 것이다. 1960년 유머 작가 르네 고시니와 함께 『꼬마 니콜라』를 만들었고, 이 작품이 대성공을 거두며 삽화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1991년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좀머 씨 이야기』의 삽화를 그렸으며, 같은 해에 발표한 『속 깊은 이성 친구』와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는 영화나 희곡을 단 한 편의 데생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명작들이다.

1991년 상페가 1960년부터 30년간 그려 온 데생과 수채화가 〈파피용 데 자르〉에서 전시되었을 때, 현대 사회에 대해 사회학 논문 1천 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준다는 평을 받았다. 프랑스 그래픽 미술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상페의 작품집으로는 『어설픈 경쟁』, 『파리 스케치』, 『뉴욕 스케치』, 『얼굴 빨개지는 아이』, 『각별한 마음』, 『인생은 단순한 균형의 문제』, 『프랑스 스케치』 등이 있다. 지금까지 30여 권이 넘는 작품집을 발표했으며 이 책들은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또한 그는 『뉴욕』의 표지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가장 중요한 기고 작가이기도 하다. 2017년 발표한 『상페의 음악』은 『뉴욕의 상페』와 『상페의 어린 시절』에서 함께 대담을 나눈 저널리스트 마르크 르카르팡티에와 〈음악〉에 대해 인터뷰한 것을 엮은 책이다.



테이크아웃 시리즈

2030세대를 대표하는 소설가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함께 만든 단편 소설 시리즈. 이야기의 순수한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독특한 발상과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이야기 세계를 구축해 가는 젊은 소설가 20명을 선정했고, 이들의 단편 소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지로서 대중과 성실히 소통하는 일러스트레이터 20명을 연결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탄생시켰다. 누구나 부담 없이 공평하게 즐길 수 있는 매체인 <이야기>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신만의 것을 지어 갈 수도 있다. 또한 이야기의 훌륭한 습성을 작고 간편한 꼴 안에 담아 일상의 특이 생기는 곳이면 어디든 <테이크아웃>하여 즐길 수 있도록 했다.

01 섬의 애슬리 ★5쇄

정세랑, 한예를 | 2018년 | 96면 | A6 변형 연장정 | 7,800원 **e a**

가슴에 조각한 코코넛 껍질을 단 채 관광을 온 본토 사람들 앞에서 전통춤을 추며 생계를 유지하던 단조로운 애슬리의 삶이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 오리엔탈리즘을 대변하고 비극과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버린다.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02 춤추는 사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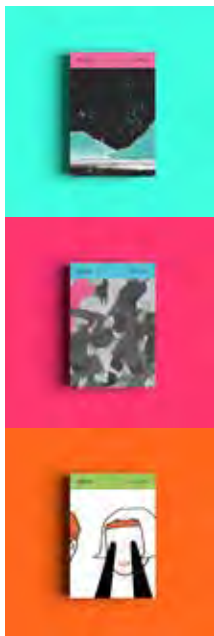
배명훈, 노상호 | 2018년 | 80면 | A6 변형 연장정 | 7,800원

소설가 배명훈은 우주 속 어느 멸망하는 작은 나라의 처절한 울부짖음 가운데 사신使臣을 등장시킨다. 알 수 없는 차원의 인물로 나타난 사신이 구사하는 언어는 말도, 문자도 아닌 침묵 속의 기묘한 몸짓이었다.

03 우리집 강아지

김학찬, 권선홍 | 2018년 | 80면 | A6 변형 연장정 | 7,800원 **e a**

동생 괴롭히는 맛에 사는 형, 그리고 형과 절대 엮이고 싶지 않은 소심한 동생인 <나>. 집 나간 지 꽤 되어 영 안 볼 줄 알았던 형이 어느 날 내 침대에 누워서 나를 부른다. <야, 형 안 반가워?> 이 형제의 억울한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04 밤이 아홉이라도

전석순, 훗한나 | 2018년 | 148면 | A6 변형 연장정 | 9,800원 **e**

표준 감정에서 벗어나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근근이 삶은 이어 가는 보호 관찰 대상자인 <나>는 불안함 감정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도 가질 수 없고, 삶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나는 방이 빼곡한 빌라를 철거하는 일을 맡게 된다.



05 우리는 사랑했다

강화길, 키미앤일미 | 2018년 | 88면 | A6 변형 연장정 | 7,800원 **e**

길었던 죽음의 과정 이후 우리의 영혼은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 꿈같은 이야기 속 슬픔을 간직한 차가운 영혼인 <나>는 키미앤일미의 무심한 듯 자상한 이미지들과 함께 형광 그린의 컬러로 표현되었다.



06 정선

최은미, 최자옥 | 2018년 | 72면 | A6 변형 연장정 | 6,800원 **e**

<정선을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본 <나>는 운명처럼 이끌리듯 엄마의 이름과 같은 고향 도시 정선으로 간다. 비극 속으로 처연하게 걸어들어 가는 <나>의 모습은 태연한 주변의 상황과 대비를 이루며 더욱 날카롭고 선명해진다.



07 뷰티-폴

박민정, 유지현 | 2018년 | 76면 | A6 변형 연장정 | 6,800원 **e**

<나>는 20년 전의 첫사랑의 기억을 술집 <뷰티-폴>에서 얼떨결에 마주하게 된다. 그때부터 나는 선명하게 떠오르며 이어지는 기억의 조각조각을 천천히 주워섬기게 된다. 그리고 비밀이 하나씩 벗겨지듯 이야기는 겹겹이 쌓인다.



08 부산 이후부터

황현진, 신모래 | 2018년 | 80면 | A6 변형 연장정 | 7,800원 **e a**

장남인 태식의 사선을 따라 구태식네 애달픈 가족사가 이어진다. 어떤 것이 결핍인지도 모른 채 각자 성실히 살아온 가족들 각각의 이야기는 부산 수영구청 근처 고갯마루의 바다가 보이는 풍경에서 하나로 모인다.



09 사랑하는 토끼 머리에게

오한기, 이소나 | 2018년 | 80면 | A6 변형 연장정 | 7,800원

완전한 토끼가 되기 위해 온갖 견제를 물리치고 토끼 몸을 찾아다니는 주인공 <토끼 머리>는 잔혹함과 귀여움이 마블링처럼 공존하는 소나리의 그림과 어우러져 이상아릇한 세계로 독자를 부른다.



10 비상문 ★6쇄

최진영, 변영근 | 2018년 | 88면 | A6 변형 연장정 | 7,800원 **e**

타인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는 작가 최진영은 동생을 잃은 형을 화자로 내세웠다. 자살해 버린 동생이 살아야 했던 이유를 찾아보지만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형의 삶과 애석한 한숨은 변영근의 풍경화 속에서 퍼져 나간다.



11 뭉 ★6쇄

최은영, 손은경 | 2018년 | 80면 | A6 변형 연장정 | 7,800원 **e a**

학교 신문 편집부에서 만난 희영과 나, 그리고 정윤. 글 쓰는 일에 마음을 쏟는 그녀들의 성장 과정이 각자 지어가는 삶의 단편적인 모습과 함께 배치된다. 쓰인 것보다 쓰이지 않은 이야기가 더 소중한 그녀들의 이야기가 초록으로 형상화된다.



12 문학의 새로운 세대

손아람, 성립 | 2018년 | 88면 | A6 변형 연장정 | 7,800원 **e a**

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문을 고민하고 글로 써내는 작가 손아람이 이번에는 한 신문사의 신춘문에 수상작을 고르는 과정 속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담았다. 사람들의 어긋난 틈 사이에서 솟아나는 미묘한 갈등과 욕망이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13 팬텀 이미지

정지돈, 최지수 | 2018년 | 80면 | A6 변형 연장정 | 7,800원 **e**

서울의 주재원이었던 실제 인물인 다나카의 배경에서 출발된 이 소설은 그 인물과 이어진 또 다른 인물에게서 끊임없이 파생되고 중첩되고 솟아나는 이야기로 가득 찬다. 20세기 경주의 한 호텔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갑자기 시점이 바뀌어 현재 경주로 이어진다.



14 풀인 콩의 도시에서

한유주, 오혜진 | 2018년 | 80면 | A6 변형 연장정 | 7,800원 **e**

소설가인 <나>가 벵갈루루 공항에도착 후 그 공항을 떠날 때까지 며칠간의 풍경을 담으며 그곳에서 새로운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바깥 소설 속 풍경이 안쪽 소설로 스며들고 그 반대로 안쪽 소설의 단어 하나가 바깥 소설의 일부가 된다.



15 목견

임현, 김혜리 | 2018년 | 72면 | A6 변형 연장정 | 6,800원 **e a**

인간의 관성, 습관, 상식에 질문을 던지는 작가 임현은 이번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를 둔 한 남자의 목소리를 창조해 고정 관념을 지닌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는지를 보여 준다.



16 꿈은, 미니멀리즘

은모든, 아방 | 2018년 | 88면 | A6 변형 연장정 | 7,800원 e a

현대인의 일상적인 모습을 리듬감 있는 인물 표현과 재치 있는 묘사로 독자에게 기대감을 선사하는 은모든은 이번엔 미니멀리즘을 꿈꾸며 자신의 집을 하나씩 정리해 가는 회사원 소명의 이야기를 꺼냈다.

17 목격

김엄지, 람한 | 2018년 | 80면 | A6 변형 연장정 | 7,800원 e

작가는 모두의 앞에서 사라져 버린 Y를 만나는 〈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Y를 만나러 가는 길부터 헤어진 뒤 방에 도착하는 동안의 나의 시간과 시선, 그리고 Y의 알 수 없는 독백을 되새김하는 감각이 담겨 있다.

18 이코

정용준, 무나씨 | 2018년 | 96면 | A6 변형 연장정 | 8,800원 e a

인간의 몸과 병 그리고 한계에 질문을 던지는 작가 정용준은 틱 장애를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신뢰하지 못한 채 숨어 말의 문을 닫아 버린 청년의 가난한 사랑의 노래를 그리고 있다.

19 부케를 발견했다

최정화, 이빈소연 | 2018년 | 80면 | A6 변형 연장정 | 7,800원 e

생물학자 동료의 별장에 머무르며 〈부케이〉라는 벌레에 흠뻑 빠져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스스로도 자각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선보였다. 남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하지만 금방이라도 한순간에 폭발해 버릴 것 같은 긴장감이 드러난다.

20 아무도 없는 숲

김이환, 박해미 | 2018년 | 96면 | A6 변형 연장정 | 8,800원 e

사고로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에 죽음을 찾아 자발적으로 다가가는 여자가 주인공인 이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 맞닥뜨리는 예기치 않은 복잡한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결심한 인간의 양면성을 사실적인 시공간 안에서 조명했다.





문학

뉴욕의 상페 ★8쇄

장자크 상페 | 허지은 옮김 | 2012년 | 344면 | B5 변형 연장정 | 24,000원 e

정과 유머가 넘치는 따뜻한 화풍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 작가 장자크 상페의 작품집. 그림 작가들에게는 명예의 전당이나 다름없는 『뉴요커』의 표지를 1978년부터 2009년까지 30년 이상 장식해온 상페의 그림 150여 점이 수록됐다. 좀처럼 듣기 어려운 상페의 내면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상페가 꿈꾸어 온 것, 그림에 대한 그의 생각, 『뉴요커』를 움직이던 걸물들과의 만남, 표지화 작업을 둘러싼 일화 등을 읽을 수 있다. 거장 상페의 의외로 연약한 일면, 재즈광으로서의 영동한 면모, 재능 있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한없이 겸손한 모습 등은 그의 그림과 너무도 닮았다.



짝 이룬 남녀는 서로 사랑한다. 당연하다.
짝 이룬 남녀는 서로 미워하게 된다. 그럴 법하다.
짝 이룬 남녀는 서로를 파괴할 수 있다.
이는 아주 드물고 우발적이다.
또 짝 이룬 남녀는 영원히 서로에게 토라질 수 있다.
개 한 마리나 심리 분석가가 이들의 고약한 성격을
누그러뜨려 준다 해도 말이다.

프레데릭 파작 | 레아 룬트 그림 | 정혜용 옮김 | 2013년 | 388면 | A5 변형 연장정 | 13,800원

프랑스의 작가이자 화가인 프레데릭 파작과 스위스의 아티스트이자 파작의 부인인 레아 룬트의 드로잉 에세이집이다. 이 30년차 부부의 공통된 직업은 화가. 하지만 남편 파작은 출판과 글쓰기에, 룬트는 회화와 사진에 더 비중을 둔다. 이들은 사진과 영화, 출판 등 여러 방식으로 다양하게 같이 또는 따로 작업을 해왔다. 부부의 사소한 감정과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며, 그들이 관심을 갖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한다. 또 같이 간 여행과 거기서 만난 사람들, 같이 겪은 가족의 죽음, 젊었을 때 겪었던 에피소드 등이 맥락 없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상페의 어린 시절 ★6쇄

장자크 상페 | 양영란 옮김 | 2014년 | 288면 | B5 변형 연장정 | 22,000원 e

따뜻한 화풍과 재치 있는 유머로 인간의 삶을 경쾌하게 그려 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삽화가 장자크 상페. 이 책은 그가 회상하는 유년기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어 볼 수 있는 인터뷰집이다. 따뜻한

화풍으로 유명한 그이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따뜻한 적이 없었다. 그림 속 인물들에게서 얼핏 느낄 수 있는 외로움과 고단함은 그의 가난했던 가정 환경과 힘들게 독립하여 스스로 성장해야 했던 어린 시절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팬들의 상상과 달리 그의 유년기는 비참한 기억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던 그의 삶과 인간에 대한 꾸밈없는 천진난만함이 그의 유년기 시절의 시간들을 더 값지고 빛나게 해준 게 아닐까. 순수한 기쁨과 행복을 잃은 채 살아가는 우리의 정형화된 생활 속에서 장자크 상페의 이야기들과 그의 그림들을 통해 잠깐만이라도 휴식을 취하며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최초의 인간 ★2쇄

알베르 카뮈 | 호세 무뇨스 그림 | 김화영 옮김 | 2014년 | 400면 | 크라운판 변형 연장정 | 1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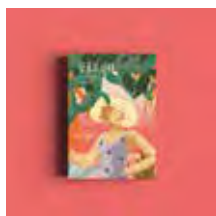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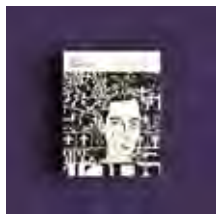
카뮈가 죽은 지 30여 년 만에 출간되어 폭발적인 판매를 기록한 『최초의 인간』, 출간 20주년을 기념하며 흑백 일러스트의 거장 호세 무뇨스의 묵직한 명암과 예술적인 선으로 다시 태어났다. 『최초의 인간』 일러스트판은 『최초의 인간』 출간 2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기획한 특별판이다. 카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묻혀져 있던 『최초의 인간』은 출간 후, 그의 대표작 『이방인』보다도 큰 환영을 받으며 경이로운 판매를 기록했다. 이 기록적인 책의 일러스트판을 맡은 이는 거장 호세 무뇨스다. 날카로운 선, 묵직한 명암, 과장과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등이 적절히 안배된 얼굴과 골격 표현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그의 독특한 그림체는 『최초의 인간』 일러스트판에서도 카뮈의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고 날 것의 글과 만나 환상적인 조화를 자랑한다.

● 2015년 한국출판문화진흥 재단 선정 <올해의 청소년 교양 도서>

싱글로 산다

리즈 투칠로 | 김마림 옮김 | 2016년 | 630면 | A6 변형 연장정 | 14,800원

『섹스 앤 더 시티』,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의 작가 리즈 투칠로의 첫 장편 소설로 저자가 8개국을 다니며 직접 인터뷰한 싱글 남녀의 심리를 솔직하고 유머러스하고 섬세하게 담아낸 칙칙 여행 소설이다. 뉴욕의 꽤 큰 출판사의 홍보 담당자인 줄리(나). 줄리는 늘 취향이 비슷하고 모이면 수다가 끊이지 않는 환상의 여자 친구 패거리리를 꿈꿔 왔지만 주변의 친구들은 생김새, 취향, 성격까지 모두 다른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상극이다. 어느 정도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아내이자 엄마에서 자살을 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두 아이가 있는 이혼녀가 된 조지아. 전남친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별을 통보한 이후 정부 보조 변호사를 그만두고 소개팅녀를 새로운 직업으로 삼기로 한 30대 후반의 앨리스. 유명 연예인 가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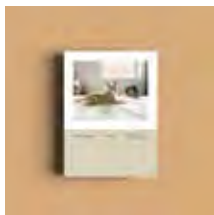


셰프, 세리나. 헤드 헌터로 일하고 있는 루비. 잘 사는 줄 알았던 조지아의 이혼 소식에 위로 차 뭉친 이들은 제대로 싱글들의 밤을 즐겨 보겠다며 들떴지만 소위 연애 감이 떨어진 이들의 하룻밤은 응급실에서 끝이 났다. 그 후 이대로 뉴욕에 남는 건 미친 짓이란 걸 깨달은 줄리는 더 많은 싱글 여성들과 얘기를 나눠 보고 싶어졌고, 〈싱글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파리에서 리오, 시드니, 발리, 베이징, 뭄바이 등으로 여행을 떠나 다양한 삶과 인생관, 가치관을 통해 세상을 보고 기대 이상의 것들을 배우게 된다.

시호와 러스티 ★3쇄

백수현 | 2016년 | 240면 | B6 변형 연장정 | 13,800원

7년차 직장인이었던 평범하고 발랄했던 한 여성이 결혼을 한 후 남편과 반려견 러스티와 함께 갓 태어난 아기 시호를 키우는 2년여 동안의 일기를 일상 사진들과 함께 엮었다. 저자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밖으로 다니는 것을 좋아하던 자신이 어느새 엄마가 된 것이 신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무엇 하나 익숙해지지 않는 데다 서툰고 낯선 감정에 늘 맞닥뜨리면서 자괴감에 빠졌다고 고백한다. 특히 끝까지 육아와 사회생활 사이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하는 모습에서 현시대 여성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남편과 부모님, 반려견과 아이에게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으며 차차 스스로 좋은 엄마가 되고자 하는 일상 속 작은 노력들이 일기 곳곳에 나타나는데, 아마 저자보다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먼저 알아챌 것이다. 그리고 반려견 러스티가 아기 시호의 자매, 친구의 역할을 하며 가족들과 함께 든든한 육아의 동반자가 되어 주는데 저자가 찍은 시호와 러스티의 귀엽고도 코믹한 사진 속에서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



모터사이클로 유라시아 ★2쇄

손현 | 2016년 | 496면 | B6 변형 연장정 | 15,800원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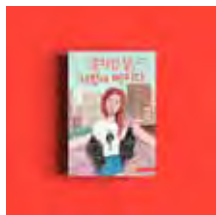
30세를 갓 넘긴 한 청년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간 모터사이클 여행을 시작한다. 이 책은 그 여정 중에 기록한 길고 짧은 글들과 사진을 담은 여행기이다. 동해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러시아 대륙의 끝없는 지평선과 길 위의 사람들을 만나고, 북유럽의 풍광으로 몸과 마음을 환기하고, 사람들을 찾아 유럽 곳곳의 나라로 유랑하던 날들의 기록이 꾸밈없이 담겨 있다. 물론 그의 여행에는 다른 여행들처럼 현지인과의 교류와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낯선 문화의 풍경과 생각들이 교차한다. 하지만 여행자는 그것들을 강조하기 전에 자신의 여행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다. 〈유라시아 횡단이라는 거창한 단어보다는 내면 깊숙한 곳을 돌고 돌아 결국 나의 원점으로 오는 길이었다.〉 그리고 여행을 무사히 끝낼 수 있게 해준 길 위의 친구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는 말을 덧붙였다.



온라인 걸, 사랑에 빠지다

조이 서그 | 허원 옮김 | 2017년 | 492면 | B6 변형 연장정 | 13,800원

출간 한 달 만에 18만 부 판매! 영국 베스트셀러 집계 사상 가장 빠른 판매 기록! 1천만 명의 채널 구독자를 보유한 걸어 다니는 1인 기업! 세계적인 유튜브 슈퍼스타인 조이 서그(조엘라)의 첫 소설 『온라인 걸, 사랑에 빠지다』는 영국 브라이턴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열여섯 살 페니의 이야기이다. 그녀 곁에는 걸어 다니는 위키라고 불릴 정도로 모르는 게 없으며 패션 센스는 죽여주는 게이 절친 엘리엇이 있다.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걸〉으로 알려진 페니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우정과 학교생활, 그리고 교통사고 후 생긴 공황 장애에 대해 솔직하게 글을 쓴다. 페니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또래 소녀들의 공감을 사게 되고, 〈온라인 걸〉은 서로 위로를 나누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란다. 무엇보다 페니의 블로그에서는 10대 소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에 대해 아무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온라인 걸〉은 1년 넘는 기간 동안 페니의 창의적인 면모와 감정의 분출구가 되어 왔었고,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워진 온라인상의 독자들 역시 그녀를 지켜 주었다. 하지만 페니의 삶이 곤두박질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은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모든 SNS 채널에 퍼지게 된다. 평범한 소녀에서 일순간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페니를 구원한 것은 뉴욕으로의 여행. 그곳에서 페니는 또 다른 운명과 만난다.



온라인 걸, 투어를 떠나다

조이 서그 | 허원 옮김 | 2017년 | 480면 | B6 변형 연장정 | 13,800원

조이 서그의 두 번째 소설이자 첫 소설의 연작과 같은 『온라인 걸, 투어를 떠나다』는 『온라인 걸, 사랑에 빠지다』의 후속 작품이지만 별도의 연애 소설로 읽기에 충분하다. 주인공 페니가 떠오르는 록스타이자 남자 친구인 노아의 콘서트 투어에 따라나서면서 일어나는 해프닝과 인간관계, 또 전편에서 보여 준 온라인상의 인신공격뿐 아니라 동성애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여전히 경쾌하게 다루고 있다. 첫 소설에서 두 주인공의 사랑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했던 독자에게는 뜻밖의 반전도 선사한다. 더불어 아직 어리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찾아가려는 페니는 페미니스트의 면모까지 보인다. 동화 속 주인공은 절대 왕자가 아니라 바로 〈나〉이자 〈당신〉이라고 주장하는 페니, 그녀가 만드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

내가 말해 줄게요 ★11쇄

강주은 | 2017년 | 416면 | A5 변형 연장정 | 15,800원 e a

명배우의 아내이자 사랑스러운 엄마로 강한 인상을 남긴 방송인 강주은의 인생과 결혼,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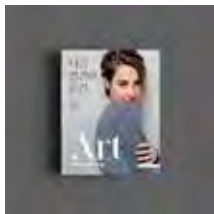


인터뷰집이다. 그녀의 남다른 소통 능력에 초점을 맞춘 이 인터뷰는 남편, 부모, 아이들과 나눴던 소통의 순간들을 공유하며, 그녀가 터득한 비법을 그대로 전한다.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놀랍게도 결혼 생활 23년 동안 누군가의 부인이나 엄마로 대체되지 않은 강주은만의 색깔을 느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타고난 경청자이자 이야기꾼의 면모가 또렷이 드러난다. 소통의 관점으로 〈어린 시절〉, 〈문화 차이〉, 〈부부 소통〉, 〈자녀 교육〉의 주제를 관통하며 자신의 인생사를 되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어떠한 일인지, 진정한 소통의 실질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짚어 낸다.

나를 발견한 순간

제프 베스파, 로빈 브론크 | 김마림 옮김 | 2017년 | 224면 | A5 변형 연장정 | 22,000원

현재 할리우드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 100명의 인물 사진과 그들의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를 담은 포토 에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배우로서, 부모로서, 인간으로서 삶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기억하고 서술한다. 모두에게는 내면의 영혼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 있다. 진정으로 그 소리에 오감을 집중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은 더욱 확장이 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알아가게 된다. 세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영감을 얻는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예술 작품에서 얻고, 어떤 이들은 주변인들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깊은 세계에 대한 경외감에서 얻는다. 또 여기에 소개된 몇몇 배우들처럼 음악을 만들고 선배들의 연기를 보고, 또 스스로 예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느낀다.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적인 순간 사이에서 영원히 아티스트로 살 운명으로 정해진 이들도 있다. 여기에 소개된 배우들은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마음 깊이 간직하며 예술적인 삶의 원천으로 쓰고 있다.



무심한 바다가 좋아서 ★3쇄

임수민 | 2018년 | 424면 | B6 변형 연장정 | 14,800원 e

스트리트 포토그래퍼 임수민이 5개월 동안 작은 요트로 태평양을 건너며 상상 생활과 순간순간 떠오른 생각을 글, 그림, 사진으로 기록한 책이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찍던 사진작가가 태평양을 찍기로 결심한 과정부터 무작정 파나마에서 출발하여 10여 개의 섬을 거쳐 부산항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다양한 에피소드, 단상과 함께 일기 형식으로 담겨 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삶에 대한 에너지와 호기심, 세련된 감수성, 주변을 관찰하는 디테일한 감각, 예술과 인간에 대한 독특한 시선을 유감없이 표현했다.



지금, 여기, 프랑스

김선미 | 2019년 | 368면 | A5 변형 연장정 | 14,800원

20여 년이 넘는 저널리스트 경험으로 프랑스를 지켜본 김선미의 시선은 그 누구와도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마크롱의 개혁, 노란 조끼 시위, 여성을 위한 창업, 문화유산을 지키는 습관, 휴대 전화를 금지하는 학교, 자유로운 동거 제도 등 진정한 파리저민들의 삶뿐 아니라 창조적 유산을 혁신하며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프랑스인들의 철학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무엇보다 지금 프랑스의 모습은 한국 사회에 대입해 볼 만한 게 많다. 프랑스의 현재를 살펴 보면서 우리의 미래 역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꿈라벨 지금을 고민하는 나에게 ★2쇄

유정민 | 2019년 | 304면 | B6 견장정 | 14,800원 e

대한민국의 30대이자 각각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갈고 닦아 나가는 여성 6명을 만나 들은 이야기를 풀은 에세이이다. 매일 두 번 맛있게 타르트를 굽는 미소가 매력 있는 미림당 대표 윤선혜, 혼자만의 여행에서 생기와 예리함을 찾는 거침없는 마케터 이홍안, 더 많은 이들에게 달콤한 케이크를 선보이려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글래머러스 펡컨 대표 유민주,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찾아서 그리고 만드는 일러스트레이터 박인아,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닌 주얼리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더 고보 대표 고보람, 그리고 주변의 사물에서 영감을 받아 행복하게 양말을 만드는 삭스어필 공동 대표 유정민이 그들이다.

오늘의 퀴즈 아들, 너랑 노니까 너무 좋다. 진짜! ★3쇄

유세윤, 유민하 | 2019년 | 320면 | B6 변형 연장정 | 12,000원 e

개그맨이자 한 아이의 아빠인 유세윤이 아들과 함께 책 한 권을 만들었다. 『오늘의 퀴즈』는 아빠가 질문을 하고 아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유세윤 부자만의 즐거운 <사적> 놀이를 엮은 책이다. 첫 시작은 일기 쓰기를 좋아하지 않는 아들에게 <색다른 일기이자 재미난 놀이를 같이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였다. 그렇게 하나씩 만든 퀴즈들이 아들과 교환 일기처럼 자리를 잡았다. 무엇보다 아빠와 아들 둘이서 만든 가장 즐겁고 신나는 놀이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찮은 취향

김기열 | 2020년 | 200면 | B6 변형 견장정 | 16,800원

그래픽 디자이너가 자신이 모은 물건을 사진과 글로 기록한 아카이브 북이자 에세이 책이다. 『GQ』의 아트 디렉터인 김기열은 잡지 만드는 일로 회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지금도 매달 잡지 한 권을 만들고 있다. 그는 잡지를 만드는 사람만이 풀어낼 수 있는 다른



인쇄물에 관한 감탄과 아쉬움, 언젠가 문구점을 꼭 열게끔 부추기는 문구 브랜드의 장인 정신, 가족과 함께해서 더 소중한 한때의 순간 등 각 물건에 얹힌 소박한 감정들을 담백하게 펼쳐 보인다.

상페의 음악 ★3쇄

장자크 상페 | 양영란 옮김 | 2020년 | 232면 | B5 변형 연장정 | 22,000원 e

『상페의 음악』은 그의 에세이 시리즈인 『뉴욕의 상페』와 『상페의 어린 시절』에 이어 저널리스트 마르크 르카르팡티에와 함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엮은 책이다. 널리 알려졌듯이 상페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소년 시절 악단 연주자를 꿈꾸면서부터였다. 언젠가 파리에 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레이 벤틀라〉 악단에 합류하여 꼭 연주를 하리라 꿈을 꾸었던 어린 소년은, 그 뮤지션들을 그림으로 한 장 한 장 그리며 음악뿐 아니라 삽화가로서의 열정도 함께 키워 낸 것이다. 그런 그가 여든을 훌쩍 넘은 지금, 돌연 고백을 해버린다. 사실 자신은 늘 뮤지션이 되고 싶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렌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 김수현 옮김 | 2021년 | 256면 | B6 변형 연장정 | 13,800원 e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한 전대미문의 대여 서비스를 다룬 책. 이 책은 SNS에 올린 짧은 글로 시작해 일본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다큐멘터리로, 책으로, 만화로, TV 드라마로 만들어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빌려주는 신종 대여 이야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사는 세상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 짓는 법을 보여 준다. 구체적인 평가도 반응도 없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빌려주는 것. 이 익명의 관계에서 〈의뢰인〉들은 커다란 위안을 받는다.

유령 이야기

기드 모파상, 오스카 와일드 외 | 세레넬라 콰엘로 역음 | 마우리치오 콰엘로 그림 | 2022년 | 136면 | B6 변형 건강정 | 12,800원 e

『캐터빌의 유령』 같이 잘 알려진 작품부터 「신비로운 상자」처럼 쉽게 접할 수 없는 작품까지 총 여덟 편의 단편을 각색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림책이다. 유령과 귀신, 기괴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괴담이라는 것 외에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적 주제는 없지만 죽은 자의 영혼을 통해 진실을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으스스한 분위기의 전형적인 호러물 사이에 코믹한 느낌의 독특한 단편들이 섞여 있어 공포 이야기의 다양한 면면을 맛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인문

하우스와이프 2.0 ★2쇄

에밀리 맷차 | 허원 옮김 | 2015년 | 432면 | B5 변형 연장정 | 16,800원

도메스틱 포르노, 로커보어, 홈스테더, 엄마블로거, 홈스쿨링 등 이 단어들은 모두 <새로운 가정의 시대>를 대표하는 개념들이다. 새로운 가정의 시대는 기성세대의 가정주부와는 180도 다르게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자연적이고, 본능에 충실하며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사일을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하우스와이프 2.0>을 양산해 냈다. 그들은 기성의 가정주부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하우스와이프 2.0』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이 책은 어떤 연유로 뜨개질과 손바느질과 같은 옛날 수공예가 돌아왔는지, 신종 DIY푸디 문화가 여성들을 주방으로 불러와 빵을 굽고 텃마당에 닭을 키우게 만들었는지 알아본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낸다. 저자는 새로운 가정의 시대와 DIY 정신을 먹거리와 자녀 양육에 관한 공공 정책의 실패와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정의 시대는 안전한 식품, 그림의 떡이 아닌 공공 건강보험, 적정 수준의 환경보호, 일하는 부모를 위한 권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즉, 제구실을 못하는 사회를 향한 외침이라고 전한다.



일러스트 공산당 선언·공산주의 원리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 페르난도 비센테 그림 | 박종대 옮김 | 2015년 | 184면 | B6 변형 연장정 | 11,800원

이 책은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한 혁명가의 사상의 정수이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존재해 왔는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문화가 산업혁명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산업혁명의 폐해는 무엇인지, 평화롭게 사적 재산을 폐지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공산주의로 변모했을 때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등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정리했다.



출판사를 만들다 열린책들을 만들다 ★2쇄

홍지웅, 열린책들 편집부 | 2017년 | 576면 | B6 변형 연장정 | 12,500원

1986년 열린책들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구어 온 홍지웅 대표와 편집부가 함께 엮은 책이다. 다양한 매체에 홍 대표가 직접 쓴 기고문을 비롯해 시인과 소설가 등 여러 저자가 열린책들을 지켜보고 글로 풀어낸 칼럼들, 그리고 출판사를 만든 후 지금까지 30년간 한국의 출판 현실에 대해 기자들과 솔직하게 나눈 인터뷰 등으로 구성하였다. <열린책들 아카이브> 시리즈(홍지웅 대표가 쓴 다양한 글들을 여러



주제로 묶어 차례차례 선보일 예정)의 첫 번째로 내놓은 이 책은
열린책들 편집부가 창립 30주년을 맞으며 그동안 꼼꼼하게 보관한
회사의 역사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 2018년 한국 출판 평론상 학술상 대상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2쇄

박은영 | 2018년 | 384면 | B6 변형 연장정 | 16,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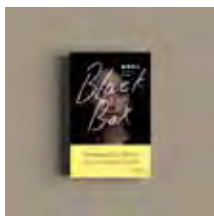
현재를 살아가는 <남다른> 청춘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만들게 된 이 책은 모두 15팀의 크리에이터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기록한 인터뷰를 담았다. 프리랜서 에디터인 저자 박은영은
자신처럼 회사를 다니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거나 직접 회사를
차려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저자는 잡지사
에디터로 살던 시절, 당연하듯 밤을 새고 매달 돌아오는 마감에
허덕이면서 의문을 품게 되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일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 있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듯, 저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답을
얻기로 하고 <삶의 기준이 명확해 남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또래들>을 만난다.



블랙박스

이토 시오리 | 김수현 옮김 | 2018년 | 252면 | A5 변형 연장정 | 13,800원

일본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이토 시오리가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과 그 이후 일본 사회의 반응을 가감 없이 기록한 논픽션이다.
이토 시오리는 2017년 5월, 일본의 <사법 기자클럽>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성폭력 문제에 폐쇄적인 일본에서 피해자가 얼굴을 보이고
실명으로 기자 회견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



실용

유혹하는 자전거

미하엘 엠바허 | 남명성 옮김 | 2012년 | 224면 | A4 변형 견장정 | 28,000원 |
재정가 11,200원

미하엘 엠바허가 수집한 이 시대 최고의 자전거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주려 소개했다. 자전거 디자인의 트렌드와 역사를 풍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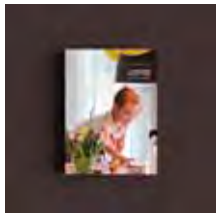


사진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자전거의 특징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한다.

스칸디매 ★2쇄

헬레나 슈츠 | 홍유진 옮김 | 2015년 | 400면 | B5 변형 연장정 | 16,800원

스웨덴 출신 그래픽 디자이너인 헬레나 슈츠의 블로그를 토대로 미메시스에서 직접 기획하여 구성한 책이다. 헬레나 슈츠의 블로그 <더 주니어>는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된 타향의 삶을 살고 있는 부부의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블로그가 6년간 지속되면서 그녀의 감각 있는 사진과 쇼핑 노하우, 육아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블로그를 보고 있다면 그녀가 오랜 기간 쌓아 온 안목, 센스, 노하우가 사진 한 장, 사진 속 소품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기존의 스칸디나비안 라이프스타일의 책들과는 다르게 한국인의 시각으로 엮었다는 것이 큰 매력이다.



요령 있게 삽시다 ★2쇄

덴 마셜 | 안진이 옮김 | 2015년 | 304면 | B6 변형 견장정 | 12,000원

130여 가지의 요령을 그림과 함께 친절하게 알려 주는 요령 가이드북이다. 직장 생활, 건강, 요리, 집안 관리, 청소, 스마트폰 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갖가지 요령을 소개하고 있는 『요령 있게 삽시다』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품을 응용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요령을 담고 있다. 주변이 늘 정리가 안 되는 사람, 처음 독립해 사는 사람,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적극 권하는 바이다.



우리의 미니멀 생활 일기 ★5쇄

SE 편집부 | 오연경 옮김 | 2017년 | 280면 | B6 변형 연장정 | 13,800원 e

좋아하는 물건만 지니는 나름의 방식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인기인스타그램과 블로거 24인의 기록을 담았다. 집을 말쑥하게 유지하는 자신만의 규칙, 옷을 시작으로 집 안의 물건과 식생활의 미니멀화, 미니멀 라이프를 자신답게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소개된 미니멀리스트들은 직장 생활과 살림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복잡하고 귀찮은 집안일을 간편하게 줄이는 노하우를 공개해 팔로워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OUR HOME

사람의집

자서전 / 평전 / 회고록

의학 / 건강법

사람의집은 열린책들이 2021년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브랜드이다. 시대의 가치는 변해도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테마로 하나의 삶을 중점적으로 파헤치는 평전과 자서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강과 의학 분야를 다룬다. 국내에서는 유명인의 회고록이나 자서전, 평전의 출간이 미흡하였고 또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사람의집은 역사적 내용이 충실한 전기뿐 아니라 한 시대를 기념할 수 있는 생존 인물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다룬 책들을 선보인다. 또한 한 개인의 삶이지만 동시대의 아픔을 통감할 수 있는 회고록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의학 분야에서는 수년간의 과학 연구와 임상 실험을 통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몸의 작용 원리와 자기 치유 능력, 그리고 그 원리를 돕는 책들을 출간하고 있다. 질병을 지닌 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 의사들에게도 의미 있는 가이드가 되고자 한다. 무엇보다 사람의집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람과 삶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담는다.

Philip K. Dick 필립 K. 딕
Emmanuel Carrère 에마뉘엘 카레르
Tara Westover 타라 웨스트오버
Jack Ma 마윈
Song Hae 송해
Ueli Oswald 윌리 오스발트
Brunhilde Pomsel 브룬힐데 폼젤
Andreas Michalsen 안드레아스 미할젠
Michel Cymes 미셸 시메스
Matthew Walker 매슈 워커
Judith Lewis Herman 주디스 루이스 허먼
Bruce Fife 브루스 파이프
Eula Biss 올라 비스
Catherine L'Ecuyer 카트린 레퀴예
Nina Brochmann 니나 브로크만
Ellen Støkken Dahl 엘렌 스토켄 달
Andrea Petersen 앤드리아 피터슨
Takikawa Kazuhiro 다키카와 가즈히로
Lindsey Fitzharris 린즈 피츠해리스
Kim Kyungchul 김경철
Kim Haeyoung 김해영
Ivor Cummins 아이버 커민스

Jeffry Gerber 제프리 거버

David Raubenheimer 데이비드 로벤하이머

Stephen J. Simpson 스티븐 J. 심프슨

Brian Windhorst 브라이언 윈드호르스트

Benny Hinn 베니 힌

Ursula Weidenfeld 우르줄라 바이덴펠트

필립 K. 딕

나는 살아 있고, 너희는 죽었다
1928-1982

EYE IN THE SKY 1977
 ME OUT OF JOINT 1959
 THEM AND THE HIGH
 CAME 1962
 NAKED 1964
 SOFT HEAL PHA WEM
 OON 1964
 SIGMA TATA PHA ME
 HELD 1964
 WAT FOR 1964
 1966
 MINN 1966
 OCEAN 1966
 DOCE 1966
 VAL 1966
 INV 1966
 ANS 1966
 MOTH 1966

● 2017 年 10 月 1 日起

다른 면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실기에서 세이 없든 저인의 저를 저를
수용하는 까닭도, 어떤 가정의 세, 일반민족 차를 말하는 게 아닌
세상에 일반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별적인
자물문이며,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만나는 자물문으로도 충분하다,
나머지는 모두 귀한 자물이다, 우리는 왜 이상하게 느껴지는 민족
문화에 주목하고, 그것을 타의 타의에서는 언젠가 깨닫게 살았나, 금기는
모든 것을 근공하는 어떤 전체적 의도를 일기 시작해 그것을 알아내려
하는데, 인디언도 편견을 받다가 된다, 그러나 젊은이들이며, 조지워
어의 전통의 뒤에 칼리도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이것은 나 자신의
1997년 1월 10일에 내가 읽었다.



자서전 / 평전 / 회고록

Autobiogr Critical Bi Memoirs



raphy /
ography





필립 K. 딕 나는 살아 있고, 너희는 죽었다 1928-1982

에마뉘엘 카레르 | 임호경 옮김 | 2022년 | 520면 | A5 변형 권장정 | 25,000원 

our home books

Philip K. Dick

필립 K. 딕

20세기 SF 역사의 손꼽히는 거장이자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 필립 K. 딕이 쓴 소설의 대부분이 SF 장르이지만 그의 유산은 SF 문단 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화와 철학, 그리고 종료를 포괄한 후세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28년 시카고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직후, 쌍둥이 누이를 잃는 등 불안한 유년 시절을 보낸 필립 K. 딕은 성인이 된 후에도 안전 강박증에 시달렸고 마약에 중독되었으며, 다섯 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등 불안한 삶을 살았다. 1952년 전업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하여 36편의 장편소설과 100편 이상의 단편소설을 발표하였지만, 딕은 평생 생활고에 시달렸고 죽기 몇 년 전해야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가 「블레이드 러너」로 처음 영화화되었지만 완성을 보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결국 1982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사후에 원작 소설들이 「토탈 리콜」, 「페이체」, 「마이너리티 리포트」, 「임포스터」, 「컨트롤러」 등의 영화로 재탄생하면서, 오늘날 딕은 할리우드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초능력과 로봇, 우주여행, 외계인과 같은 기존의 SF 소재와는 차별된 암울한 미래상과 인간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그리며 끊임없이 인간성의 본질을 추구해 왔다. 1962년 『높은 성의 사내』로 <휴고상>을, 1974년 『홀러라 내 눈물, 경관은 말했다』로 <존 캠벨 기념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드디어 1983년 그의 이름을 딴 <필립 K. 딕상>이 제정되었다. 생전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출판사들에 외면당했던 그의 삶을 기린 이 상은 문고판 단행본으로 처음 출간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름은 없지만 가능성 있는 작가의 작품을 선정한다.



자서전/평전/회고록

안녕하세요, 성령님! ★22쇄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 2006년 | 304면 | A5 변형 건장정 | 18,000원 e

세계적인 복음주의 부흥사인 베니 힌 목사의 『안녕하세요, 성령님!』은 여러 해 동안 베니 힌 목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통찰을 보여 준다. 하나님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연락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지 알려 주고 있다. 이 책에는 이스라엘 아파에서 캐나다로, 또 미국으로 이민 온 베니 힌 목사의 엄청난 개인적 체험이 담겨 있다.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 ★12쇄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 2006년 | 288면 | A5 변형 건장정 | 18,000원 e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시는지를 알려 주는 책.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분의 능력이 넘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안녕하세요, 성령님!』의 후편인 이 책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기본 원리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 준다.

죽음을 어떻게 말할까 ★2쇄

월리 오스발트 | 김희상 옮김 | 2014년 | 176면 | B6 건장정 | 11,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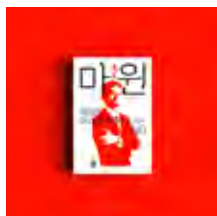
스위스 사회에 죽음의 자유로운 결정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을 촉발시킨 책. 이 책에서 저자 월리 오스발트는 아버지의 자유죽음에 직면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맞닥뜨린다. 늙고 병들어 품위를 모두 잃더라도 끝내 죽지 않고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살아 내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까? 인간에게 스스로 죽을 권리 같은 것은 없을까? 월리 오스발트는 그 어떤 금기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솔직한 자세로 아버지가 자유죽음을 생각한 순간부터 이를 결정하고 마침내 실행으로 옮기는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감동적으로 기록한다.



마윈 ★4쇄

류스잉, 평정 | 양성희 옮김 | 2015년 | 616면 | A5신 건장정 | 25,000원 e

마윈의 유년부터 최근 근황까지 반평생을 담아낸 전기. 주경야독으로 보낸 대입 실패 후 2년, 리더로서의 재능을 꽃피운 대학 시절, 첫 창업인 번억 회사에서의 고생담, 시애틀에서 처음 본 인터넷 등 알리바바 창업 이전 마윈의 행적을 더듬는 한편, 항저우 자택에서 시작한 창업 선포부터, 글로벌 기업 이베이와의 한판 승부, 유수의 기업들과의 인수합병 등 십여 년간의 알리바바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마윈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완성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유다.



경이감을 느끼는 아이로 키우기 ★3쇄

카트린 레퀴에 | 김유경 옮김 | 2016년 | 192면 | A5 변형 연장정 | 15,800원 e

모든 부모는 자식이 성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해져 성공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너무나 많은 아이가 세상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모든 일을 지루해한다. 당연히 배움에 대한 욕구 또한 없다. 왜 그런가? 그 답을 알 수만 있다면, 부모들은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 저자 카트린 레퀴에는 이 책에서 부모들의 이 절망감으로 가득 찬 질문에 답한다.



어느 독일인의 삶 ★12쇄

브룬힐데 품젤, 토레 D. 한젠 | 박종대 옮김 | 2018년 | 328면 | B6 건장정 | 18,000원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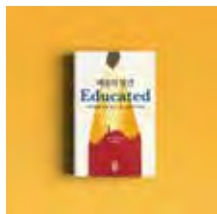
독일 나치 선전부장 요제프 괴벨스를 위해 일했던 브룬힐데 품젤의 증언을 정치학자 토레 D. 한젠이 정리한 책이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괴벨스의 비서로 일했던 품젤은 이 책에서 자신은 그 당시 나치의 만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괴벨스의 지근거리에서 일했던 그녀의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치적 소용돌이 속 한 개인의 책임과 비극적 삶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지 살핀다.



배움의 발견 ★19쇄

타라 웨스트오버 | 김희정 옮김 | 2020년 | 520면 | A5 변형 연장정 | 22,000원 e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오른 타라 웨스트오버의 회고록이다. 열여섯 살까지 학교에 가본 적 없던 저자가 케임브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얻기까지 남다른 배움의 여정을 다룬다. 2018년 2월 출간되자마자 미국 출판계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54개국에 판권이 팔렸고, 영미권에서만 300만 부 이상 판매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 인사들의 찬사 속에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올해의 책으로 꼽혔다.

- 2020 세종 도서 교양 부문 선정
- 2020 교보 문고 올해의 책
- 2020 『매일경제』 올해의 책
- 2018 빌 게이츠 올해의 책
- 2018 버락 오바마 올해의 책

송해 1927

송해, 이기남 | 2021년 | 312면 | A5 변형 건장정 | 15,800원 

다큐멘터리 영화 「송해 1927」을 촬영하면서 송해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를 꾸밈없이 담은 책이다. 여러 번으로 나눠서 진행된 송해와의 인터뷰를 비롯하여 그의 가족과 희극인 후배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의 악단장이 말하는 송해에 관한 숨은 이야기도 기록하였다. 속 깊은 인터뷰에는 송해가 평생 안으로 삼켜 온 슬픔과 응어리도 함께 들어가 있어 읽는 사람을 애타게 만들고 또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한다.



필립 K. 딕 나는 살아 있고, 너희는 죽었다 1928~1982

에마누엘 카레르 | 임호경 옮김 | 2022년 | 520면 | A5 변형 건장정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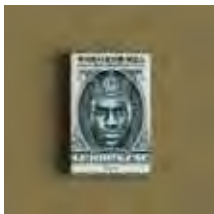
SF 팬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작가, 작가들의 작가인 필립 K. 딕에 관한 평전. 36편의 장편소설과 100편 이상의 단편소설을 발표하였지만 딕은 평생 생활고에 시달렸고, 죽기 몇 년 전에야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딕의 소설을 읽고 자라며 영향을 받은 카레르는 그의 주변 인물들을 모두 찾아가 필립 K. 딕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고 눈을 감고 무덤에 묻히는 순간까지를 소설처럼 재현해 낸다.



주식회사 르브론 제임스 역만장자 운동선수의 탄생 ★2쇄

브라이언 원드호르스트 | 대니얼 김 옮김 | 2022년 | 264면 | A5 변형 건장정 | 20,000원 

8번 연속 NBA 파이널 진출, 4번의 NBA 우승……. 하지만 이 시대의 아이콘 르브론 제임스가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역만장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놀라운 것은 지난 20년간 그가 NBA에서 뛰며 받은 연봉은 그의 자산의 일부분일 뿐이며, 그의 자산 대부분이 그가 일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쌓였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는 지구 최고의 재능이 모여 있는 NBA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동시에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을까? 르브론의 비즈니스 제국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진화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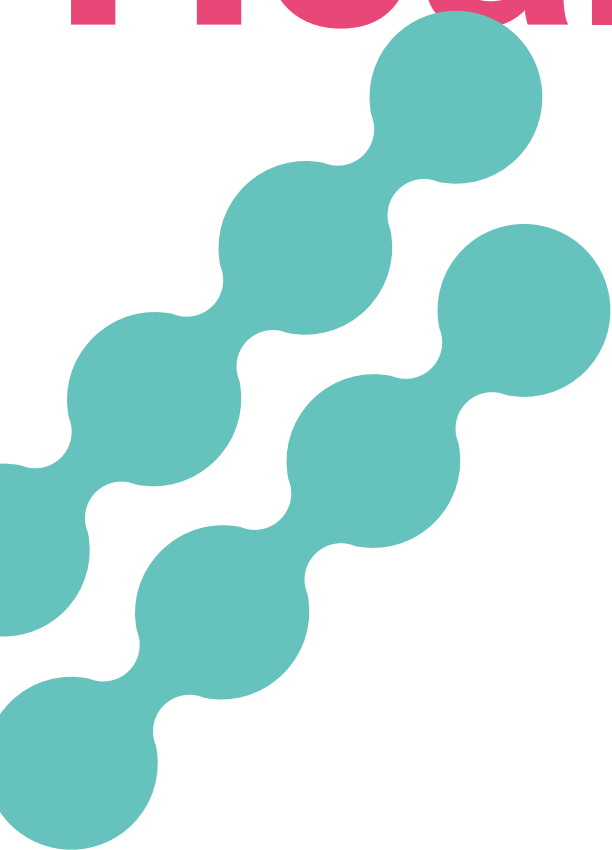
앙겔라 메르켈 독일을 바꾼 16년의 기록

우르줄라 바이덴펠트 | 박종대 옮김 | 2022년 | 376면 | A5 변형 건장정 | 25,000원 

2021년 9월, 독일을 16년 동안 이끈 앙겔라 메르켈이 퇴임했다. 이로써 메르켈은 독일 정계에서 가장 막강한 자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유일한 정치인으로 기록되었다. 메르켈이 남긴 정치적 유산은 독일 사회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저널리스트 우르줄라 바이덴펠트는 메르켈의 어린 시절부터 정치 초년병을 거쳐 네 번의 총리 재임 기간까지를 아우르며, 한 정치인의 초상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풀어낸다. 이는 메르켈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메르켈리즘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Medical Health



al /
care

의학 / 건강법





의학 박사 미할젠의 자연으로 치료하기

안드레아스 미할젠 | 박종대 옮김 | 2020년 | 440면 | A5신 건강정 | 22,000원 **e**

1일無식

안드레아스 미할젠, 주잔 키르슈너 브로운스 | 2021년 | 480면 | A5 변형 연장정 | 22,000원 **e**

our home books

Andreas Michalsen

안드레아스 미할젠

자연 요법에 최신 과학을 혁신적으로 결합한 융합 의학의 선구자이자 독일 최고의 자연 요법 의사이다. 1961년 독일 바트 발트제에서 태어나 자랐다. 독일 최초로 전통 의학과 현대 의학을 병행했던 의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식물 치료, 삼림욕, 단식, 물 치료 등의 자연 요법과 그 효과에 익숙했다. 경제학, 철학, 생물학 등을 공부하다가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베를린 자유 대학교와 보훔 루르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그 이후 1994년 심장학 박사 학위를 취득, 1996년부터 내과 전문의로 활동했다. 2000년 에센 미테 병원의 자연 요법 및 통합 의학 센터로 부임해 과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자연 요법을 시행하는 진정한 개척의 시기를 보냈다. 이후 2009년 유럽 최대의 대학 병원인 샤리테 베를린 대학 병원의 자연 요법과 교수직에 임명되었다. 동시에 베를린 이마누엘 병원의 자연 요법과 과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임상 실험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암, 다발성 경화증 등을 앓는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실험하고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사소하지만 쓸모 있는 건강법 ★7쇄

미셸 시메스, 파트리스 롬덴 | 이세진 옮김 | 2018년 | 296면 | B6 변형 견장정 | 17,000원 **e**

사소하지만 쓸모 있는 뇌 사용법 ★2쇄

미셸 시메스, 파트리스 롬덴 | 이세진 옮김 | 2018년 | 344면 | B6 변형 견장정 | 17,000원 **e**

our home books

Michel Cymes

미셸 시메스

프랑스의 국민 의사로 불리는 미셸 시메스는 외과의 출신이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랫폼인 베테라이즈Betterise의 공동 창업자이다. 1957년 파리에서 태어난 그는 아우슈비츠 희생자 3세로도 알려졌다. 라디오와 TV 방송의 진행자로 활동하며 의학 정보의 대중화에 힘쓰는 그는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으로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인기투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2015년 아우슈비츠 해방 70주년에 출간된 『나쁜 의사들』은 의사들이 사형 집행인으로 변신한 순간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치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과 의사로서의 책임감으로 쓴 책이다. 이 책은 출간된 후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 종합 6위에까지 올랐으며 역사와 에세이 분야에서 각각 1위에 오를 정도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15년 미셸 시메스만의 유쾌하고 통찰한 필력을 바탕으로 건강의 가장 기본적 요소들을 핵심적으로 알려 주는 『사소하지만 쓸모 있는 건강법』은 다시 한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2017년 프랑스에서 출간한 『사소하지만 쓸모 있는 뇌 사용법』에서는 작은 습관들로 두뇌를 움직여 뇌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기억력을 증진하는 두뇌 건강법을 소개한다. 지금까지 미셸 시메스가 프랑스에서 판매한 책은 33만 권이 넘었다.



의학/건강법

트라우마 가정 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16쇄

주디스 루이스 허먼 | 최현정 옮김 | 2007년 | 544면 | A5 변형 연장정 | 24,000원 e

1997년 『뉴욕 타임스』로부터 〈프로이트 이후 출간된 가장 중요한 정신 의학서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으며 등장한 이 책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전문 용어로 불리는 한 정신 증상에 관한 이야기를 인간 해방의 역사라는 도덕적, 정치적 차원의 이야기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 책은 인간이 폭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사악할 수 있는지를 고통스럽게 보여준다. 고통의 심연을 드러내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인간 심리에 대한 허먼의 깊은 통찰력은 인간 조건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 보인다.



코코넛 오일의 기적 ★8쇄

브루스 파이프 | 이원경 옮김 | 2014년 | 368면 | A5 변형 연장정 | 18,000원 e

코코넛 오일은 단순히 한때의 유행이 아니다. 이 독특한 신비의 묘약은 그 셀 수 없이 많은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더 이상 굶으며 빼는 다이어트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제 다이어트의 판도가 바뀐다. 먹으면서 빼는 다이어트, 그게 답이다! 『코코넛 오일의 기적』은 남녀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탁월한 건강 지침서이자, 코코넛 오일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코넛 오일 박사〉 브루스 파이프 박사가 전하는 최신 건강 정보와 충격적인 진실! 체중 감량을 촉진하고 심장병과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며, 체내에 쌓인 독을 빼주는 등 우리 몸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코코넛 오일의 놀라운 비밀이 이제 밝혀진다.



면역에 관하여 ★17쇄

올라 비스 | 김명남 옮김 | 2016년 | 312면 | B6 변형 건장정 | 17,000원 e a

미국의 촉망받는 논픽션 작가 올라 비스의 세 번째 책으로, 면역학이라는 난해한 과학을, 시적 은유를 동원해 아름답게, 동시에 냉철하게 서술한다. 비스는 아이를 출산하고 맞닥뜨린 두려움(백신)이 아이를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맞서면서, 백신과 예방 접종이 실제로 아이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고 있는지 규명한다. 또 신화와 역사, 문학을 두루 살핌으로써 우리 내면에 자리한 두려움의 실체를 밝히고, 강력한 은유를 통해 우리가 질병과 면역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시킨다.



- 2014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 2014년 전미 비평가 협회상 파이널리스트
- 2015년 빌 게이츠 여름휴가 추천 도서
- 2015년 마크 저커버그 책의 해 추천 도서

불안은 날마다 나를 찾아온다 ★2쇄

앤드리아 피터슨 | 박다솜 옮김 | 2018년 | 408면 | A5 변형 연장정 | 18,000원 **e**

이 책은 불안 장애란 무엇인지, 불안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모습인지를 조감한다. 불안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상쾌하고 솔직한 저자의 고백은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이 실제 없는 대상으로부터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도 보여 준다.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한 인간의 처절한 노력과 탐구의 기록이자 불안을 정면으로 대면하는 용감한 삶의 고백이다.



사소하지만 쓸모 있는 건강법 ★7쇄

미셸 시메스, 파트리스 롬덴 | 이세진 옮김 | 2018년 | 296면 | B6 변형 견장정 | 17,000원 **e**

프랑스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의사이자 지금까지 33만여 권의 판매 기록을 가진 베스트셀러 작가 미셸 시메스가 오랜 세월 축적한 결실이다. 비교적 짧은 글로 구성했지만 때로는 단 몇 줄로도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후딱 다 읽을 수 있지만 즉각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이 풍부하므로 두고두고 다시 들춰보게 될 것이다. 건강에 이로운 식품들의 구체적 효능부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확한 생활 습관과 운동법 등을 알려 준다.



사소하지만 쓸모 있는 뇌 사용법 ★2쇄

미셸 시메스, 파트리스 롬덴 | 이세진 옮김 | 2018년 | 344면 | B6 변형 견장정 | 17,000원 **e**

아인슈타인도 뇌의 15퍼센트만 사용했다? 타고난 뇌 신경 세포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속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와 뇌에 관한 무관심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엄청난 우리 머릿속의 뇌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하다. 뇌에 관한 소문을 바로 잡고, 생활 속에서 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비법이 가득하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21쇄

매슈 워커 | 이한음 옮김 | 2019년 | 512면 | A5 변형 견장정 | 23,000원 **ea**

세계적인 신경 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 매슈 워커가 들려 주는 수면과 꿈의 과학. 워커는 100편이 넘는 과학 논문을 발표하며 정력적인 연구 활동을 벌이는 수면 의학 분야의 석학이자,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대중과 활발하게 교감하는 자타 공인 〈수면 외교관〉이다. 저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잠의 이모저모를 과학적 근거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잠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방법을 통찰력 있게 제시한다.

질의 응답 ★6쇄

니나 브로크만, 엘렌 스토크엔 달 | 김영남 옮김 | 2019년 | 448면 | A5 변형 연장정 | 14,800원 **e a**

첫 번째 장은 책 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식기를 다룬다. 외음부, 내부 생식기, 질, 음핵, 그리고 성별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말한다. 두 번째 장은 여성이 평생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생리와 분비물을 다룬다. 세 번째 장은 섹스이다. 이 장을 통해 자신의 성생활을 나름대로 진단할 수 있으며, 온갖 걱정과 의문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장은 피임이다. 가장 중요한 만큼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앞의 장들을 잘 이해했다면 어렵게지 않게 읽을 수 있고 디테일한 정보들로 인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 장은 생식기에 생기는 문제로 관한 크고 작은 질병을 다룬다.



의학 박사 미할젠의 자연으로 치료하기

안드레아스 미할젠 | 박종대 옮김 | 2020년 | 440면 | A5신 견장정 | 22,000원 **e**

만성 질환의 증가에 대한 유일한 해답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연 요법>을 소개한다. 유럽 최대의 대학 병원인 샤리테 베를린 대학 병원 자연 요법과 교수이자 수석 내과 의사인 안드레아스 미할젠의 자연 의학 실용 가이드로, 대표적인 8가지 만성 질환인 고혈압, 관절증, 동맥 경화, 우울 증후군, 요통과 목 통증, 당뇨, 류머티즘, 위장 질환을 소개하고, 자연 요법으로 치료하는 10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아이를 위한 정신의학

다카카와 가즈히로 | 김경원 옮김 | 2020년 | 680면 | A5 변형 연장정 | 30,000원

정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되어 줄 도서. 발달 장애부터 아동 학대, 트라우마, 등교 거부나 집단 괴롭힘의 문제까지 폭넓은 분야를 다룸으로써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 가는 정신 장애의 양상을 차근히 짚어 본다. 부모는 물론 교사, 보육사, 간호사, 심리 상담사 등 일상에서 아이들과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아이의 정신 장애의 근원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 2018년 세종도서(하반기) 우수 교양 도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과 음식 ★4쇄

가정의학 전문의 김경철과 김해영의 근거 중심 영양학

김경철, 김해영 | 2020년 | 400면 | A5 변형 연장정 | 18,000원 **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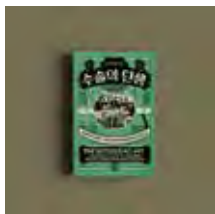
근거 중심의 영양 치료에 앞서는 가정의학 전문의 김경철과 김해영이 전하는 영양과 인간 몸의 면역 시스템에 관한 친절한 가이드. 특히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영양소를 중심으로 최신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련한 다양한 항바이러스 임상 시험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영양소와 영양제의 섭취 방법 및 주의할 점을 독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제시한다.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양제 비즈니스 속에서 개인이 알아야 할 영양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더불어 각자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인간의 면역 시스템과 항바이러스 작동 방식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 알차게 구성했다.



수술의 탄생 ★5쇄

린지 피츠해리스 | 이한음 옮김 | 2020년 | 344면 | A5 변형 건강정 | 18,000원 **e**

도살장이나 다름없었던 수술실을 위생적인 의료 공간으로 바꾸고 소독법을 정착시킨 의사 조지프 리스터를 중심으로 흥미진진한 19세기 의학의 역사를 살펴본다.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수술은 죽음으로 가는 관문과 마찬가지로 결과는 거의 운에 달려 있었다. 수술 후 감염 때문에 사망률이 매우 높았으며 진통제와 마취제가 개발되지 않아 환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조지프 리스터는 유럽의 최신 이론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직접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며 의료 체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피가 뚝뚝 흐르고 톱으로 뼈를 자르는 당시의 공포스러운 수술 풍경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풍부한 에피소드 덕분에 의학서나 역사서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페이지가 빨리 넘어간다.



1일無식

안드레아스 미할젠, 주잔 키르슈너 브라운스 | 2021년 | 480면 | A5 변형 연장정 | 22,000원 **e**

유럽 최대의 대학 병원인 샤리테 베를린 대학 병원 자연 요법과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안드레아스 미할젠이 <영양과 단식>을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정리한 책이다. 간헐적 단식, 키토 다이어트 등 우리 사회에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각종 다이어트와 단식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수년간의 과학 연구와 임상 실험, 그리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몸의 작용 원리와 자기 치유 능력과 그 원리를 돕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각종 단식법에 의한 질병 치유의 과정을 알기 쉽게 밝힌다.



저탄고지 바이블 탄수화물1:단백질2:지방7 ★3쇄

아이버 커민스, 제프리 거버 | 이문영 옮김 | 2022년 | 656면 | A5 변형 연장정 | 28,000원 

책의 제목이 괜히 <바이블>이 아니다. 지금까지 체중 감량의 비밀과 건강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파헤친 책은 없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에 관하여 이렇게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다룬 책은 없었다. 단순히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저탄고지 가이드북을 원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원하는 상관없이 모두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침서다.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인과 건강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제목은 <저탄고지 바이블>이지만 내용은 <건강 바이블>이다.



식욕의 비밀 동물에 관한 가장 궁금한 수수께끼 중 하나

★2쇄

데이비드 로벤하이머, 스티븐 J. 심프슨 | 이한음 지음 | 2022년 | 312면 | A5 변형 연장정 | 18,000원 

영양 생태학의 선두적 전문가인 데이비드 로벤하이머와 시드니 대학교 찰스 퍼킨스 센터를 이끄는 생명환경과학 교수 스티븐 J. 심프슨이 오랜 연구를 통해 발견한 <식욕의 비밀>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곤충학자인 두 사람이 인간의 식단, 영양, 건강이라는 이미 많은 전문가가 다루어 온 주제에 관한 책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 책을 쓰고자 할 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들은 과학자로서 사는 내내, 특히 32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공동 연구를 시작한 뒤로 처음 20년 동안, 자연의 가장 영구한 수수께끼 중 하나를 풀기 위해 <곤충>을 연구했다. 수수께끼는 바로 <생물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아는 것일까?>이다.



트라우마

0004-3995/98/0000-0000\$05.00/0

가정 폭력에서 정치력 테러까지

6. 서론

이 책은 우리 삶을 구해 준다!

[illegible]

0000-0000-0000-0000



MIMESIS ART MUSEUM

전시

이용 안내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열린책들이 파주출판도시에 세운 미술관으로, 열린책들의 예술 서적 전문 브랜드 〈미메시스〉에서 이름을 따왔다. 2009년 완공된 이 미술관은 〈건축의 시인〉이라 불리는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루 시자가 설계를 맡아 아시아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미술관〉 프로젝트이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대지 1,450평에 연면적 1,100평으로, 지상 3층과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여러 전시 공간이 하나의 덩어리에 담긴 설계로 유명하다.

다양한 곡면으로 이루어진 백색의 전시 공간은 가급적 인조광을 배제하고 자연광을 끌어들여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빛의 향연을 볼 수 있는 이 건축물은 건축 자체만으로도 전시 이상의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개관 전부터 이탈리아의 『카사벨라』, 영국의 『월페이퍼』, 일본의 『GA 도큐먼트』 등 각종 해외 잡지에 크게 보도되었다.

〈알바루 시자가 설계한 브라질의 이베리 카르마구 재단 미술관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을 것〉이라는 포르투갈의 유명한 건축 사진작가 페르난두 게하의 말처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세계의 건축학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금도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말에 개관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을 계속하여 적극 소개하고 있다.

The Mimesis Art Museum, located in Paju Book City near Seoul, was built by Open Books between 2006 and 2009 and named after its art publishing branch, Mimesis. It is a truly amazing building, designed by Portuguese architect Álvaro Siza, and built jointly by Carlos Castanheira and Korean architect Kim Junsung. With a total area of 3,663 square meters and a beautiful garden, the museum offers an expansive space adapted to both large and small scale exhibitions, as well as administrative and office areas. On the inside, white and wooded surfaces are lit by indirect, natural lighting. On the outside, light grey, exposed cast concrete emphasizes the feline curves and sharp angles of the building.

The Mimesis Art Museum has started to host contemporary art exhibitions, offering a unique experience for each one of the many visitors who now come to see it every day. The sheer beauty and purity of its design and its cultural function in the heart of Paju Book City make it an outstanding landmark among the many fine piece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that can be seen around here.









By June 2009 all interior finishing work had been completed, but we had to wait another six months for Siza's final inspection. On December 12th, 2009, four years, a month, and a day after the signing of the contract, the architect set foot for the first time inside the Mimesis Art Museum. And remarked, "I am very happy with the design... The Mimesis Art Museum is my best work."

2009년 6월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친 채 시자가 최종 점검을 위해
방문할 때까지 6개월을
그냥 기다렸다. 시자는 2005년 11월 11일
설계 계약을 하고 만 4년 1개월
1일이 지난, 2009년 12월 12일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으로 걸어 들어왔다.
시자는 말했다.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내 작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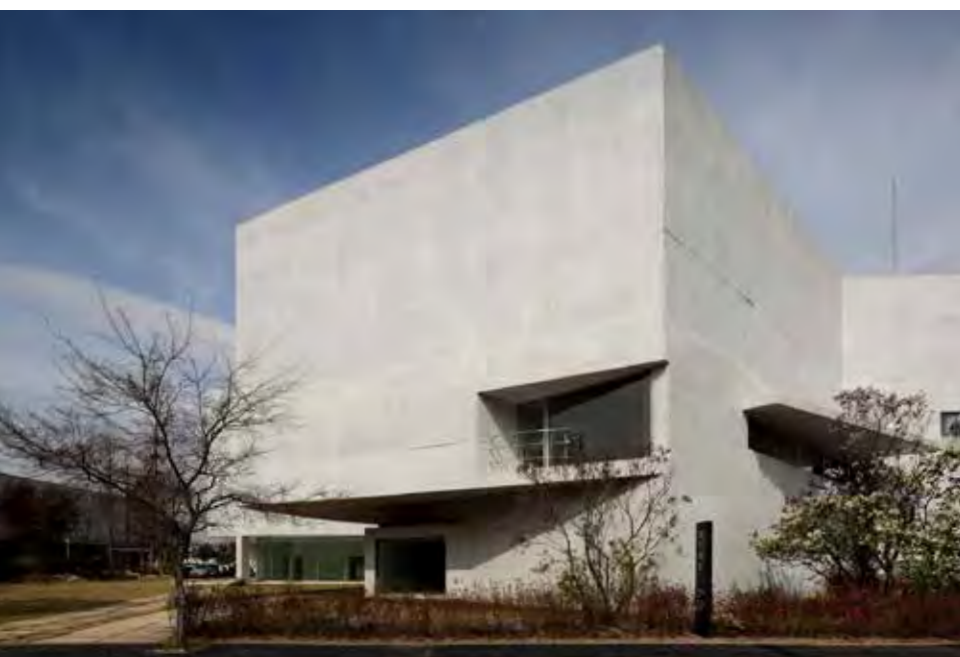
홍지웅, 『미술관이 된 시자의 고양이』 중에서







mimesis art museum





mimesis art museum





mimesis art museum





Álvaro Siza

알바루 시자

모더니즘 건축의 마지막 거장. 외형적 화려함보다는 사용자를 배려하는 건축가.

알바루 시자는 1933년 포르투갈 포르투 근처의 작은 마을 마토지뉴스에서 태어났다.

1949년부터 1955년까지 포르투 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고, 1954년,

졸업도 하기 전에 첫 번째 건축 작품(마토지뉴스 네 개의 주택)을 완성하였다. 그 후

1955년부터 1958년까지 페르난두 타보라 교수와 함께 일했다. 스위스의 로잔

폴리테크닉 대학교,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콜롬비아 보고타의 로스 안데스

대학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 대학원에서 방문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대표작으로 포르투 세할베스 현대 미술관, 아베이루 대학교 도서관, 리스본 엑스포

파빌리온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비롯해, 안양 파빌리온,

아모레퍼시픽 용인기술연구원, 경북 사유원의 소요원과 내심낙원 등을 설계하였다.

1992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았고, 1988년 미스

반데어로에 유럽 현대 건축상, 2001년 울프 예술상, 2002년, 2012년 두번에 걸쳐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014년 첫 번째 중국

프로젝트로 실레인 에너지 기업의 건물을 장수성 화이하강의 인공섬 중앙에

지었으며, 2019년 미국 첫 진출로 뉴욕 맨해튼에 37층 높이의 아파트 <웨스트 56번가

611번지>를 설계하였다. 2020년 10월, 포르투의 호세 마르케스 다 실바 재단

연구소FIMS에서 스케치와 드로잉 작품 100점을 모은 「SIZA-Unseen &

Unknown」전을 개최하였다. 2021년 크로아티아 밀라나에 초기 기독교 교회 스타일의

<밀라나 예배당>을 12년 만에 완성하였다.

1982 포르투갈 국제예술비평협회 건축상 1987 포르투갈 스페인 <콜레지오도 아키텍터> 금메달 1988 알바루
알토 금메달 1988 스페인 건축가 협회 금메달 1988 하버드 대학 도시계획과 프린스 오브 웨일스상 1988 EEC/
바르셀로나 미스 반데어로에 재단 유럽 건축상 1992 프리츠커상 1993 포르투갈 건축가 협회 국내 건축상
1994 구비오상 1995 나라 국제 건축 전시회 금메달 1996 세실 건축가상 1997 메넨데스 페라요 대학교
마누엘 데라 에사상 1998 알바루 알토 금메달 2000 세실 건축가상 2001 울프 예술상 2002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2005 프랑스 어바니즘 스페셜 최고상 2006 세실 건축가상 2008 영국 왕립건축가협회RIBA 골드
메달 2009 영국 왕립건축가협회RIBA 골드 메달 2011 국제 건축가협회IAU 골드 메달 2012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2015 <아키텍데일리> 선정 올해의 건축상 2017 포르투갈 공공교육령명 대십자 훈장

반복적인 문과 창, 조명이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곳은 마치 하나의 공허한 세계와 같았다. 재미있는 것은 가장 단순한

방법의 점, 선, 면이 모여 입체적 <장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종의 고요하고 깨끗한 의미의 선이 함축적으로

녹아 있었다. 비어 있는 듯하지만 가득 차 있다.

뤼징런 / 중국 북 디자이너

열린 공간 없이 서 있는 이 거대한

건물은 무질서하고 화려하게만

디자인된 사무용 빌딩들 속에서 단연

돌보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즉각적인

흥미와 호기심을 자아낸다.

타데이 글라슈프 / 슬로베니아 건축가

가슴 두근거리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주요한 건축물이 될 운명이다.

이언 태버너 / 미국 건축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영감을 주는 공간임에 틀림없다.

배리 클라크 / 영국 출판인



Exhibi

전시



The image features two teal geometric shapes, each containing a white circle, positioned diagonally in the top right and bottom right corners. The word "tions" is written in a bold, pink, sans-serif font in the center of the image.

tions

BOOK+IMAGE 1

고낙범: 지그문트 프로이트 전집 표지화전 2011.10.1-2012.4.29

1896년 <정신분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써서 정신분석학의 단초를 마련하고, 1996년 정신분석학 정립 10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인간 정신의 탐구자. 현대 사상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상가. 마르크스와 더불어 20세기 사상사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무의식 세계의 개척자. 처음에는 단순하게 신경증 환자들의 정신을 탐구함으로써 그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정신분석학은 건강한 병들었건 관계없이 정신 전반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는 매개 학문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주로 꿈의 해석에 근거를 두어 인간의 일상적인 생각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인 힘들을 발견해 냈다. 프로이트. 그는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구를 최초로 찾아낸 사람이며 어렵게만 느껴지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지만, 실제로는 편안하고 뛰어난 문장으로 이름을 날린 문학자이기도 하며 그의 글은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저술되어 있다. 프로이트의 저술로는 널리 알려진 『정신분석 강의』, 『히스테리 연구』, 『꿈의 해석』 외에도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쾌락 원칙을 넘어서』 등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신분석은 물론 문학 작품을 분석한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예술가들의 정신세계를 분석한 『예술과 정신분석』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고낙범 1960년에 태어나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동대학원 졸업 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전업작가로 활동 중이다. 작가의 회화 작업은 인물이나 피부 조직, 과일을 단색의 기하학적 표상 색으로 새로운 체계 안에서 해석한다. 색채와 이미지의 관계를 고찰하는 극사실주의적 모노크롬 회화 작업을 선보여 온 고낙범은 프로이트 초상 연작에서 프로이트의 정신 세계를 색채의 프리즘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리안 갤러리(2007)와 스페이스 C(2010)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2014년 개인전 「순수를 드립니다」를 통해 새로운 신작인 「체리 레드」를 발표하였다. 후쿠오카 시립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쌈지 스페이스, S-AIR(삿포르), 부산 시립 미술관, 송원 아트센터, 대림 미술관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BOOK+IMAGE 2

석윤이: 움베르토 에코 마니아 컬렉션 원화전 2012.5.4-11.25

움베르토 에코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는 없다. 베스트셀러 소설가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이 중의 한 사람. 저명한 기호학자인 동시에 철학자, 역사학자, 미학자. 아퀴나스의 철학에서부터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그의 지적 축수가 닿지 않는 분야는 없다. 이 지독한 <공부 벌레>는 <언어의 천재>이기도 하다. 모국어인 이탈리아어는 물론 영어, 프랑스어에 능통하고,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라틴어, 그리스어, 러시아어까지 해독한다. 『장미의 이름』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추리 소설이라는 장르에 바치는 하나의 찬사이자, 그 자체로 본격 추리 소설이다. 에코의 저서는 스펙트럼이 넓다. 장편소설 『장미의 이름』, 『푸코의 진자』, 『전날의 섬』, 『바우돌리노』, 『프라하의 묘지』, 동화 『폭탄과 장군』, 『세 우주 비행사』, 학술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의 문제』, 『일반 기호학 이론』, 『논문 잘 쓰는 방법』,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거짓말의 전략』, 『신문이 살아남는 방법』, 『책으로 천 년을 사는 방법』, 『미의 역사』, 『추의 역사』 등 이론서와 비평 에세이가 있다. 2015년 그의 마지막 소설 『제0호』를 출간하고, 에코는 2016년 2월 19일 췌장암으로 별세하였다.

석윤이 1981년에 태어났다. 열린책들과 미메시스의 디자인 총괄 팀장으로 일했고 현재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디자인한 대표 작품으로는 <에코 마니아 컬렉션>, <열린책들 세계문학>, <매그레 시리즈> 등이 있으며, 2010년 열린책들 홈페이지로 웹어워드를, 2011년 <매그레 시리즈> 디자인으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11 디자인이 좋은 책> 우수상을, 2016년 한국출판인회의 <올해의 출판인상> 디자인상과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 그래픽 부문상을 수상하였다. <에코 마니아 컬렉션>(전25권)을 위해 석윤이는 움베르토 에코의 인물 사진을 변주한 팝 아트 연작을 만들었다.



Park Jin-Hwa

박진화전: 시야Horizon

2013.4.9-6.30

나는 무엇을 봤는가? 화가의 눈은 특별하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런 면에서 화가는 편견주의자다. 그림을 시작했을 때 나는 빛보다 어둠이 먼저 보였다. 박정희, 전두환뿐 아니라 광주 항쟁, 6월 항쟁 등등. 이 땅의 암울한 처지에 주로 눈이 갔지만, 물론 그것만을 본 것은 아니다. 선배들의 결기, 동료들의 땀, 후배들의 웃음도 보고 들었다. 그런데 왜 나는 붓을 잡자마자 어둠으로 향했을까? 시대 탓도 있지만 체질이었다. 생리와 습성이었으며, 의식과 의지였다. 어둠은 빛을 일으키는 싹이다. 밤은 빛을 끄는 에너지다. 초기 10년간 내 눈은 그만큼 어두운 데를 향했다. 울음과 어둠도 때가 있다. 시효가 있고 시기가 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싶었는가?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 처지와 현실을 녹여내는 그림이었다. 멋진 형상이 아니라,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더 절박했다. 답답함을 누를 어떤 의미에 천착했고 거기에 몰두했다. 시기에 따라 관심이 변했겠지만 늘 위보다는 아래였다. <A급>보다는 <B급> 이하의 광경이었다. 발밑이 늘 중심이었다. 그렇다고 하늘을 멀리했다는 건 아니다. 요즘은 시간과 소리에 빠져 있지만 그것에만 집착하지는 않는다. 자연의 변화에서 붓의 폭을 넓힐 궁리를 해보고 있다는 뜻이다. 내 그림의 적(敵)은 균음이다. 굳어진 미학은 도그마인 것이다. 도그마는 강제다. 결국 내 관심은 일관되게 그 균음을 깨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자존심과 연계된다. 나는 지난 30여 년을 그렇게 보고 그리며 보냈다. 어제의 나를 오늘 부정하며 달래면서 왔다. 그사이 시간이 흘렀다. 주변도 변했다. 나도 변했을 것이다.

글: 박진화



박진화 1957년 장흥에서 태어나 1981년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20여 년간 총 22회에 걸친 개인전을 가지며 작업을 이어 왔다. 2011년 인천광역시 문화상(미술 부문)을 수상한 바 있으며, 서울민족미술인협회 대표, 민족미술인협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사)민족미술인협회의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1989년, 첫 개인전(한강 미술관, 서울)을 시작으로 공평아트센터(서울, 1992), 금호 갤러리(서울, 1996), 대안공간 풀(서울, 1998), 부산 민주공원 전시관(부산, 2006), 강화 미술 전시관(강화, 2006), 의정부 예술의전당 전시관(의정부, 2007), 박진화 미술관(강화, 2009), 아리오소 갤러리(울산, 2011),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파주, 2013), 성곡 미술관(서울, 2014)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다.

BOOK+IMAGE 3

이혜승: 니코스 카잔차키스 전집 원화전 2013.4.9-6.9

「BOOK+IMAGE 3 이혜승: 니코스 카잔차키스 전집 원화전」은 열린책들 니코스 카잔차키스 전집의 표지에 쓰인 이혜승의 그림을 선보인다. 이혜승의 오랜 관심은 공간이다. 문자 그대로 비어 있는 안-밖, 그 사이에 주목한다. 그림 속 공간은 대부분 그의 체험과 결부된 것이다. 지하철역, 갤러리, 강의실, 여행지의 숙소 등이 작품의 소재이다. 그러나 시간이 기억을 생략하듯 이혜승도 대상을 간략화한다. 각각의 작품은 기억의 체로 걸러낸 이미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만 보아서는 그의 공간이 실재인지 상상인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그린 것인지 알 수 없다. 그의 작품은 환영적인 재현 공간이 아니라 작가 자신만의 인상으로 새롭게 구현된 감각 공간인 것이다. 깔끔하게 비워진 채로 재배치된 구성에 고립감을 더하는 것은 차가운 색조다. 그가 주로 선택하는 색상은 무채색이며, 채도나 명도를 낮춘 청색과 녹색, 갈색이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옅은 채색은 미완의 느낌을 준다. 하지만 차치 밋밋해 보일 수도 있는 정적인 구도나 색조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붓 터치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방향으로 칠해진 가벼운 붓 자국이 드러나고 물감이 자연스럽게 흐른 흔적이 그대로 보인다. 뚜렷한 윤곽선과 분명하게 떨어지는 직선보다는, 유연하게 흐르는 곡선으로 내밀한 유동성의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글: 김보라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강사

이혜승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나 2000년 홍익대학교 회화와 졸업 후, 파리 에콜데 보자르에서 수학했다. 프랑스 한국 문화원(파리, 2005)에서의 개인전에 이어 「Metropolis in sub-way-world」(덕원갤러리, 서울, 2008), 「김잔디 이혜승 2인전」(갤러리 킹, 서울, 2009), 「대구 영아트 프로젝트」(KT&G, 대구, 2009), 「원손전」(Kring갤러리, 서울, 2010), 「유람기전」(곳간 켜, 제주, 2011), 「플로베르의 침묵」(갤러리 스키프, 서울, 2015)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진 바 있다.



Jeong Zik-Seong

정직성전

2013.10.5 -11.17

정직성의 연립주택 시리즈는 망원동, 성내동, 신림동 등지의 영세민을 위한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주거 공간을 담는다. 작가는 창, 지붕, 계단의 크기와 개수, 면적에 따라 연립주택의 유형을 단순화시킨다. 다세대주택은 철거에서 살아남은 단독주택이 스스로 진화를 시작한 결과이기 때문에 골목길 속 단독주택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개발과 재개발을 반복하며 형성된 연립주택과 사람의 혈관처럼 복잡하게 이어져 있는 골목길에서 작가는 일종의 역동성과 활력을 발견한다. 그 과정에서 추출한 구조들의 반복과 집적을 통해 서울의 풍경을 보여 준다.

작가의 추상은 우리 앞에 놓인 가시성의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형의 과정을 통해 이를 추출, 개념화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가시적 세계 너머의 구조들을 드러내는 과정을 신작에서 담아낸다. 작가의 신작들은 삶의 구체적 관점들이 집적되는 지점을 시각화하고 있으며, 이 또한 자신의 삶을 누르는 어떤 중력이자 현실의 감각 작용 결과물이기도 하다. 20세기 초 페르낭 레제는 자연과 인간 생활의 큰 구도를 즐겨 다루면서 단순한 명암이나 명쾌한 색채로 대상을 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레제가 그 과정에서 원통형 등의 기하학적 형태를 선호하여 기계 문명의 다이나미즘과 명확성을 회화에 담아내었듯이, 정직성의 회화들 또한 작가 자신의 표현 양식과 현대 사회의 집합적 인식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보여 준다.

글: 양지윤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정직성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서양화 전공 석사 학위를 받았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무정형 구축」(신한 갤러리, 2006), 「가로지르고, 멈춘다」(조현 화랑, 2010), 「정직성」(현대 원도우 갤러리, 2012), 「추상작동」(영은 미술관, 2012), 「김중영 미술관 2012 오늘의 작가-정직성」(김중영 미술관, 2012), 「어떤 조건」(유진 갤러리, 2013), 「공사장 추상」(갤러리 비케이, 2014) 등 12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2013),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2012), 에트로 미술대상(2012), 김중영 미술관 오늘의 작가(2012) 등에 선정되었다. 제주 도립 미술관, 서울 시립 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국립현대 미술관, 미술은행, 현대자동차, 신세계 백화점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Disquiet: Portuguese Modes of Expression

불안: 포르투갈적 표현 양식들
2013.11.26-2014.2.9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한국과 포르투갈이 지금껏 조우해 빚어낸 물리적 결과물 중 가장 이상적 경우에 해당한다. 뮤지엄 건물은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루 시자가 설계를 맡았다. 알바루 시자는 건물이 세워질 장소를 둘러보기 전에는 절대로 설계를 시작하지 않는다. 시자의 이 원칙에서 다시 한번 장소성과 표현 욕구가 결합하여 출발 지점을 마련해 주는 예와 맞닥뜨리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알바루 시자가 설계한 건축물 중에서도 가히 대표작으로 꼽을 만한 건물 — 전시될 작품에 온전한 빛을 부여해 줄 기회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흰색의 정결하고도 섬세한 걸작 — 을 탄생시켰다. 매체와 형태는 다를지라도 비슷한 지점에서 — 비슷한 욕망과 우발적 요인들로부터 — 출발하는 이 포르투갈적 특성을 보여 주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공간도 없을 듯하다.

주최: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후원: KDB대우증권, 카몽이스-포르투갈 문화원

전통은 혁신이다: 포르투갈 현대 건축

참여 건축가 주앙 뵈쥬하 트린다드 João Ventura Trindade / 히카르두 카르발류와 주아나 빌레나 Ricardo Carvalho and Joana Vilhena / 히카르두 바크 고르돈 Ricardo Bak Gordon / 주앙 루이스 카릴류 다 그라샤 João Luís Carrilho da Graça / 마누엘 아이리스 마테우스 Manuel Aires Mateus / 이네스 비에이라 다 실바와 미겔 비에이라 Inês Vieira da Silva and Miguel Vieira / 누누 브란당 코스타 Nuno Brandão Costa / 에두아르두 소투 드 모라 Eduardo Souto de Mo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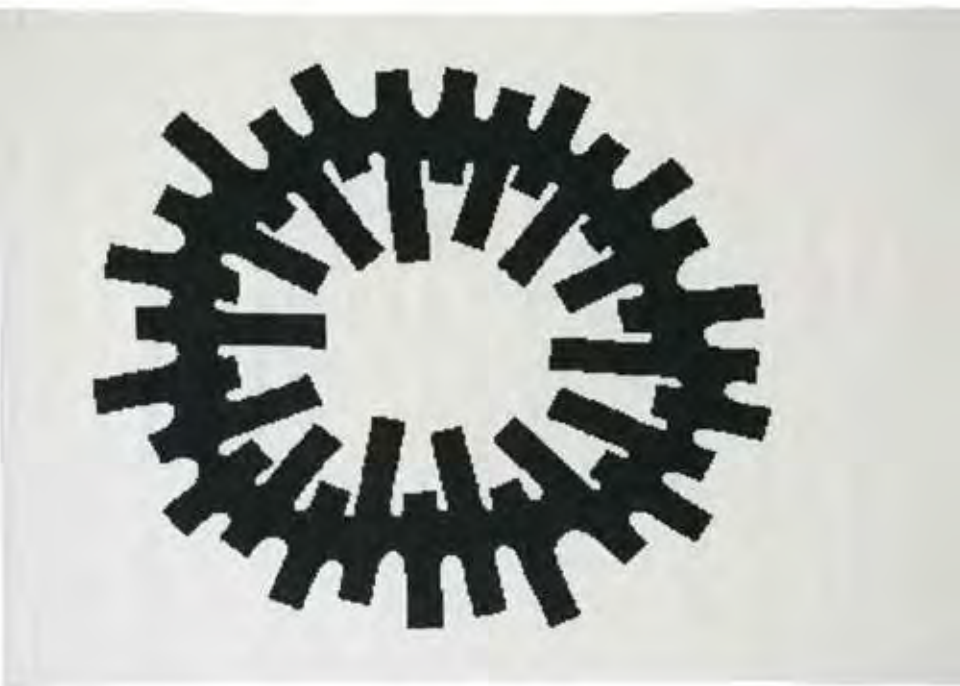
성 안토니오

비디오 설치 - 주앙 페드루 호드리게스 João Pedro Rodrigues

드로잉 - 주앙 후이 게하다 마타 João Rui Guerra da Mata

결합하는 미학

조각 · 회화 - 마리오 로페즈 Mário Lopes



Park Chan-Yong

박찬용 조각전

2014.3.1-5.11

조각상이란 애초부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영원불멸의 신상(神像)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나 동굴 벽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술적 목적을 시각화하는 행위는, 대리석 덩어리로부터 형태를 해방시키고자 한 미켈란젤로나 흙덩어리에서 생명을 창출한 로댕의 조각 작품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조각사의 흐름은 오늘 파주에서 작업하는 박찬용의 예술 세계로 이어진다. 그가 천착하고 있는 구상 조각들은 한국 현대 사회를 집어삼킨 폭력을 영원불멸한 박제물로 변이시킨다. 그의 작품들은 오늘의 한국 사회가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여전히 동물의 왕국임을 암시하고 있다. 박찬용의 전시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이라는 모더니즘적 미학을 간직한 전시 공간을 대형 동물의 박제와 투견 조각으로 가득 찬 <박물관>으로 변안한다. 고대 그리스 사원이나 인도의 신전이 주술적 대상이라면, 박찬용의 조각들은 폭력성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폭로다.

글: 양지윤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박찬용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여 년간 총 12회에 걸친 개인전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본성을 탐구하는 조각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의 조각 작품 특유의 거친 물성은 흙으로 주조한 후 알루미늄 주물로 캐스팅하여 만들어 내는 재료적 특성을 보여주며, 야생 동물의 강인하고 잔혹한 생명력을 생동감 있게 표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투쟁, 그 영원함」(가나 아트스페이스, 2000)에 이어 「가까운 자들의 관계」(송은 갤러리, 2003), 「가까운 자들의 관계 III」(SPIN GALLERY, 토론토, 2004), 「적대적 애정」(ZONE:chelsea, 뉴욕, 2005), 「짐승들의 느와르」(인사 아트센터, 2007), 「취중천국 II」(아람누리 미술관 누리 갤러리, 2013) 등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2002년 송은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송은 문화재단, 분당 율동공원, 연천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BOOK+IMAGE 4

알베르토 아후벨 그림전 전시실 C

오연경: 『일러스트레이터의 물건』 원화전 전시실 A

2014.5.17-6.15

● 알베르토 아후벨 그림전

프로젝트 로베르토 볼라노

볼라노의 작품에는 평온함이 없다. 당장이라도 현실이 될 수 있을 법한 불안한 꿈들만 등장한다. 그의 작품에 나오는 이미지, 상징, 사건, 등장인물들은 충격적이다. 이것들은 같은 책 혹은 볼라노의 다른 저작에 거듭 등장해 강한 인상을 주고, 주장을 한다. 나는 표지 이미지나 질감, 컬러에서 이러한 볼라노의 분위기를 재현하고 싶었다. 볼라노의 독자가 느끼는, 그리고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볼라노 작품의 공기를 그대로 담아 내고자 했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부러 피했다. 표지들에 볼라노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면서도, 각 권마다 해당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이미지나 상징들을 배치했다.

아후벨의 작가 노트에서 발췌

아후벨의 『로빈슨 크루소』

대니얼 디포의 대표작인 『로빈슨 크루소』는 최초의 근대 소설이며, 셰익스피어 이후 이렇다 할 문학 작품이 없던 18세기 영국의 문학계에 새로운 문학의 세계를 연 대표적인 소설이다. 이 작품은 그 후 팬터마임으로, 오페라로 그리고 영화로 제작되는 등 약 200년 동안 중판, 번역, 번안되어 적어도 700여 종의 새로운 창작물로 재생산되었다. 아후벨이 선택한 새로운 방식은 원작이 소설인 그 작품에서 글을 제거하는 것이다. 단 한 줄의 글도 없는 『로빈슨 크루소』, 그 대신 자리 잡은 것은 눈부신 색채의 언어이다. 아후벨만의 시각 언어는 일반 언어가 줄 수 없는 즐거움으로 소설 속 강렬한 이미지를 더 증폭시켰다. 소설 한 줄 한 줄이 전하는 감정과 심상이 아후벨이 그려 낸 섬세한 선 하나하나에 속속 숨어 있다. 그의 그림은 매우 직접적이고 직감적이다.



알베르토 아후벨 화가이자 그림책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1956년 쿠바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그는 미학을 공부한 뒤 쿠바 일간지의 풍자 문화가로 활동했다. 1991년 스페인에 아트 스튜디오를 열고 그림책, 일러스트, 디자인, 사진, 만화 등 다방면에 걸친 예술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독특한 그림책 작품 『로빈슨 크루소』, 『자유로운 새』 등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스페인 아동 문학 최고 삽화상(2003), 발렌시아 시립 문화상 최고 삽화 부문(2007),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 최우수상(2009), CJ그림책상(2009) 등 전 세계 유수의 상을 50개 이상 수상했다. 쿠바, 불가리아, 폴란드,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100회 이상의 전시를 연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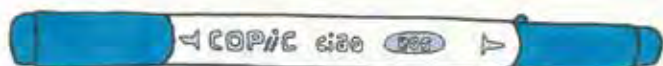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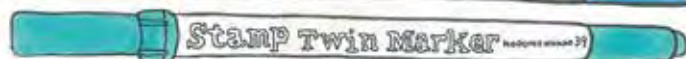
● 오연경: 『일러스트레이터의 물건』 원화전

수집광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오연경, 그의 섬세한 그림을 만나다.

700여 개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담긴 오연경의 컬렉션 『일러스트레이터의 물건』.

오연경이 15년 동안 수집광으로 살면서 모았던 물건들과 이를 형상화한 일러스트레이션 원화를 함께 전시한다. 일본의 자연 양조 간장인 기코망부터 마트에서 산 추파춥스 캔, 판콜에이 약통까지 흔히 보는 일상 속 물건들이 그 대상이다. 일상에서 무심히 사용하던 물건들이 그녀만의 특별한 일러스트 작품으로 재탄생한다.

오연경 일러스트레이터. 7년간 패션지 기자일을 하다 일본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웠다. 도쿄 오차노미즈 미술 전문학교에서 3년을 보내고 돌아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한 지 7년이 넘었다. 다수의 기업과 협업하였고, 『일러스트레이터의 물건』은 그녀의 첫 번째 책이다.



Hong Soun

홍순명전: 스펙터클의 여백

2014.6.28-8.28

홍순명은 2004년부터 <사이드스케이프sidescape> 즉 곁에 있는 풍경이라 이름 지은 풍경화 연작을 선보이고 있다. 사이드스케이프는 전통적 풍경화와 태도를 달리한다. 작가는 사이드스케이프의 소재를 보도 사진에서 택한다. 한 장의 보도 사진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는 부분들을 캔버스의 중심으로 가져온다. 보도 사진은 전쟁과 재해, 정치와 테러, 사건과 사고 등의 무거운 사회적 내용을 담지만, 사이드스케이프는 무거운 사회 배경에 있는 풍경, 주목받지 못한 채 존재하는 자연을 담는다.

사이드스케이프는 주제가 되지 못한 주제 곁 풍경이다.

「홍순명전: 스펙터클의 여백」 전시는 <메모리스케이프memoriscap>라는 타이틀의 신작들도 함께 한다. 밀양의 송전탑 건설이나 여수의 기름 유출 사고, 포천의 포격 연습장 폭발 사고 등의 현장에서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는 물건들을 수집하여 일련의 오브제로 만든 것이다. 어설픔게 서 있는 유기적 형태의 조각물 내부는 매스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은 소소한 사연이 담긴 사물들로 채워진다. 관객은 물체 고유의 쓰임이 사라진 또 하나의 구조물을 전시장에서 위태롭게 마주한다.

홍순명의 이번 전시는 매스 미디어가 일상을 점령한 현대 사회에서 스펙터클한 이미지의 이면을 담는다. 작가는 매스 미디어가 전달하는 <객관적 사실>이란 실은 재구성된 가공 현실임을 폭로한다. 홍순명의 <메타-풍경>은 허위적 진실을 시각화하여, 객관적 사실이 갖는 환상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문하게 한다.

글: 양지윤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홍순명 부산대학교 미술교육학과를 졸업 후 파리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하였다. 1989년 이후 사비나 미술관, 스페이스 캔, 씬지 스페이스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그룹전으로는 「문화유전자」(송장 미술관, 베이징, 2008), 「Tina B. 현대 미술 페스티벌」(세인트 살바타르 교회, 프라하, 2012), 「국제 케이지 100 페스티벌」(아이젠반, 라이프치히, 2012), 「빛으로 가는 길」(영은 미술관, 경기, 2012) 등에 참여하였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피날레 갤러리, 마닐라, 2014), 「네오산수」(대구 미술관, 2014),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II」(사비나 미술관, 서울, 2015),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 대법원, 미국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경기도 미술관, 호암 미술관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Min Byung-Hun

민병헌 흑백사진전

2014.9.6-12.14

민병헌의 풍경 사진은 거의 추상에 가깝다. 그것은 멋지고 미묘한 흑색과 회색이 거의 단색조로 전개된 평면이다. 불현듯 나타나는 한 점의 빛, 나무 잎새 혹은 파도의 가장자리, 다리, 제방, 언덕 위의 경계선 등이 풍경의 추상적 면을 구성한다. 이제 화면은 생기를 띠고, 문자 그대로 생명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가능하는 장소의 이미지가 된다. 안개나 어둠 속에 슬쩍 모습을 감추지만 그것은 우리의 장소, 우리의 공간이며, 또한 우리의 시각, 우리의 호흡을 위한 지평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풍경은 단지 회색 또는 거의 검은 색조로 펼쳐진, 아무 의미도 없는 어떤 해변의 풍경일 따름이다. 그런 풍경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풍경으로 바뀌었다. 이 감동은 해변의 풍경이 우리 일상 세계의 모습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일상으로부터 변신한 그의 사진들을 관조하며, 미묘한 신비감을 느끼고 진지한 유희에 빠져든다. 마치 무의미한 일상이 갑작스레 의미 있는 장소로 거듭날 때의 신비감을 생각해 보자. 이렇듯 민병헌의 이미지는 우리를 환대하며, 일상적인 만큼 더욱 더 혼돈스럽고 감동적이다. 그러나 거꾸로 이미지의 실체를 인식하는 경험, 즉 사진 혹은 그림의 대상을 확인할 때는 차라리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현듯 <이게 그거였어?>라며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병헌의 작품에서는 이미지의 수수께끼가 사라지며 우리를 기꺼이 환영하고 스스로를 열어 보이며, 우리에게 다가온다.

글: 이브 미쇼 / 평론가



민병현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84년 동아살롱에서 「25시」로 은상을 받았으며, 같은 해 파인 힐에서 열린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서울 가인화랑, 금호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카이스 갤러리를 비롯하여 파리의 보두앵 르봉 갤러리, 산타모니카의 피터 페트만 갤러리 등 국내외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단체전으로는 서울시립미술관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1993), 국립현대미술관 「사진의 시각적 확장」(1998), 오스트레일리아 사진센터 「Awakening」(2001), 하와이 현대미술관 「Crossing 2003」(2003) 등이 있으며, 최근 서울의 갤러리 플래닛에서 잡초 시리즈를 모은 「모놀로그」(2015) 개인전을 열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을 비롯하여 미국 휴스턴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산타바바라 미술관, 시카고 현대사진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Lee Seulgi

이슬기전: 분화석!

2015.3.7-5.5

작가는 전시 공간을 두 개의 날개로 나눠 오른쪽 날개를 <안>이라 붙이고 10개의 누비이불 작품을 놓았으며, 왼쪽 날개는 <밖>이라 이름 붙이고 진흙으로 만든 분화석 조각을 세웠다. <이불 프로젝트 U>라 이름 붙인 <안>은 10개의 한국 속담 의미를 기하학적 무늬로 도상화한 누비이불 작업이다. 10개의 이불에 새겨진 도형들은 음양오행 사상에 기반한 한국의 오방색과 누비의 결을 통해 그 의미를 드러낸다. <밖>은 이슬기의 신작 「분화석!」이다. 미술관이 위치한 파주의 강가에서 퍼온 진흙으로 사람 남짓한 크기의 공룡똥을 형상화한 분화석, 즉 똥 화석이다. 작가는 똥Merde이라는 프랑스 욕에서 착상하여 분화석Coprolithe이란 새로운 <욕>을 제안한다. 분화석은 똥의 화석이자 욕의 화석인 것이다. 분화석은 이미 오래 전 멸종한 한 동물의 생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의 의미와 땅의 역사를 담은 진지한 개체이지만, 역시 똥이라는 현재적 해석성을 갖는다. 이슬기는 미술관에 똥 화석을 세움으로써 고급 예술의 가치 체계에 질문을 던지고, 극적 대비를 이루는 <안>과 <밖>은 일상의 사물들이 스스로 놀이하게 함으로써 이들과 내밀하고 유희적인 소통을 시도했던 이슬기의 이전 작업들과 맞닿아 있다.

글: 양지윤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이슬기 1972년 서울 출생. 1992년부터 파리에서 거주하며 활동 중이다. 「유연성의 금기Elastic Taboo」(비엔나 쿤스트할레, 2007), 「애뉴얼리포트」(광주 비엔날레, 2007), 「이벤토Evento」(보르도 비엔날레, 2009), 「강렬한 근접Intense Proximity」(라 트리에니얼, 팔레 드 도쿄, 2012), 「터전을 불태우라」(광주 비엔날레, 2014) 등 주요한 국제 전시에 참여하였다. 멜버른의 빅토리아 내셔널 갤러리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고, 2001년 대안공간 파리 프로젝트룸Paris Project Room을 설립하고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2004년 씬지아트스페이스에서의 개인전 「무형경제」 이후 국내 첫 개인전이다.



seok ho kang

강석호전: 독백

2015.8.8-9.29

강석호는 1999년 뒤셀도르프 유학 시절부터 정사각형에 가까운 캔버스에 토르소를 반복적으로 그려 왔다. 얼굴과 팔다리가 트리밍된 인물의 몸통을 반복해서 그리는 형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그린 200여 점의 토르소 그림에서 작가는 어떤 미학을 가시화하려는, 혹은 찾으려는 것일까.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날개를 이루는 두 공간에 각각 흑백 토르소 연작과 컬러 토르소 연작을 건다. 흑백 토르소 연작들은 TV 시사 프로그램이나 신문 속 인물들의 상반신 사진에서 얼굴과 그 일부를 잘라 내어 그린 작품이다. 캔버스 속 얼굴 없는 정치인이나 스포츠맨들은 목걸이나 권투 글러브, 무궁화나 넥타이 같은 액세서리들과 함께 웅변적이거나 서사적인 손동작으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직업을 드러낸다. 토르소가 그리스 시대에 뚜렷한 입체감과 완벽한 미를 가진 인체를 구현한 조각 작품에서 유래한다면, 강석호의 토르소는 평평한 신체를 감싼 물결치듯 이어지는 체크무늬 셔츠의 패턴이나 속옷의 주름이 드러나는 청바지의 질감을 말한다. 몸 자체를 인식하기보다는 그 몸을 감싼 의복의 무늬나 질감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체의 입체감이 희미해진 복장의 패턴들은 모더니즘 추상화를 보는 듯한 감흥을 준다. 스스로를 <미학 탐구자>라 부르는 강석호는 캔버스를 매개로 대상과 자신, 구상과 추상 사이를 복잡하게 가로지는 모종의 회로를 끊임없이 탐구한다.

글: 양지윤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강석호 1971년에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 전공 학사 학위, 독일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에서 서양화 전공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금호미술관, 브레인팩토리, 인사미술공간 등에서 10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석남미술상과 UBS 아트 어워드(스위스, 바젤)를 수상한 바 있다.



Yuna Park

박은하전: 완전한 유물

2015.8.8-8.30

박은하는 <플라나리아 패턴>이라 이름 붙인 독특한 기법, 마블링으로 생겨난 형상을 활용한 작품들로 주목받았으며, 이는 굳어져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 내재된 힘을 분출시켜 가시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작품 소재는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다. 작가는 자신의 내면화를 통해 일상의 이면을 캔버스 위에 구현하고 있다. 박은하의 캔버스 위의 이미지는 그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순간들의 부유하는 감정들이다. 박은하표 패턴 작업은 월 페이팅을 선택하며 역동적으로 발전한다. 그의 회화는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캔버스로부터 녹아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각 캔버스 사이의 공간을 따라 전시장 전체로 확장된다. 이는 바라보는 관객과 작품 속에 표현된 대상을 같은 상황에 위치시킴으로써 작품 속으로 관객을 끌어들인다.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작품을 캔버스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격하게 표현된 감정들이 캔버스로 돌아왔을 땐 그의 이야기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펼쳐진다. 그러나 인물이나 풍경 같은 평범한 광경에서 요동치는 불안과 권태와 공포가 극적인 장면으로 변모하는 것은 여전하다.

글: 성소윤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박은하 고려대학교 서양화와 졸업. 「2009 식민지-코스트코」(갤러리현대, 2009), 「이 사람을 보라」(가나컨템포러리, 2010), 「안과 밤」(자하 미술관, 2011), 「모르는 얼굴」(GYM 프로젝트, 2012), 「제4회 광주아트비전-고백의 정원」(광주비엔날레 전시관, 2013), 「적재적소」(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2014), 「2014 완전한 유물」(Treasure Hill Artist Village, 2014), 등 국내외 주요 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작품 활동을 했다. 한국 현대미술을 이끌어가는 신진 작가로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 시립 미술관, 광주 시립 미술관, 백공 미술관, 대전 대덕연구단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Mirai Jeon

전미래전: 삼합, 발효의 연식술

2015.9.5-9.29

발효, 흥어, 씹어 가는 시체, 만두, 만두피, 싸개, 탕고, 안무 등등 일련의 키워드는 전미래 작가가 자신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그래서 더욱 강하게 의식하는 <전미래 시제>와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 작가는 프랑스 유학 시절 익힌 불어 문법 중에서 전미래 시제에 유독 꽂힌 상태였다. 이 시제는 데리다의 <내가 외출에서 돌아오기 전에 내 여자 친구는 뜨개질을 모두 마쳤을 것이다>라는 문장 속에서 <했던 게 될 것이다>라는 일반형의 유예이자 평가로서 정평이 나 있다. 불어 문법에서는 이것이 미래가 도래하기 전에, 그보다 한 발 앞선 템포에서 이미 완료된 것이다. 데리다는 거기에 현재가 된 미래 시점에서 이제 과거가 된 전미래 시점을 사후 재구성하는 셈이다. 즉 미완의 혁명으로 만드는, 메시아적 조감의 행위이다. 전미래 작가는 <발효>라는 <삭히는 시간> 인식의 불가능성을 강하게 의식한다. 동시에 그 시간의 객관적 도래를 정확히 수확한다. <파국을 맞이하기 전에 <발효>는 이미 완성되었을 것이다>라는 문장이 주관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흥어는 덜 삭혀졌거나 더 삭혀져 있으며, 만두피의 효모는 어제 떼어내져 대갓집 불씨처럼 보관되어 있거나 이미 만두피 끓인 물이나 익힌 만두로 존재하고 있다. 싸개 역시 에로티즘의 촉감을 발휘하는 강도나 타이밍이 지나갔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탕고는 늘 복수하고 있거나 이미 죽은 상태이다. 전미래 작가는 안무가였거나 아직 안무가로 입문하지 못한 상태이다. 발효는 기준이나 중심의 부재에서 나오는 시간적 카오스이다.

글: 양지윤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전미래 2004년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크리스티앙 볼탄스키와 장 뤼크 빌무스, 다카시 가와마타의 아틀리에를 거쳐 2009년 석사 학위를 받고, 1년간 포스트 디플롬 과정을 동 대학에서 이수했다.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 퍼포먼스 프로젝트, 과천국립현대미술관 「무브MOVE」, 〈37회 중앙미술대전〉, 프랑스 브장송 국제 퍼포먼스 페스티벌 「익센트리시티즈Excentricities」,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기념 전시 「예술의 이익」 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고, 국립현대미술단이 기획한 「이미아직」의 무대 미술을 맡았다.



Lee Sea-Hyun

이세현전: 레드-개꿈

2015.10.10-12.20

산수화는 종종 자연 그 자체를 그리는 풍경화라고 오해되지만, 유가와 도가 등 철학적 사유에 근거하여 그리는 이의 관념 속 세상을 담는 것이다. 이번 전시 「레드-개꿈」은 도가적 의미의 〈일장춘몽〉을 담았다. 부귀영화는 덧없고 세상살이는 한바탕 봄날 꿈과 같으니, 야심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 바깥에서 초연하게 인생을 보내겠다는 작가적 의지의 표현이다. 2006년 런던 첼시 예술대학 대학원 졸업 전시 두 달 전부터 이세현은 한국의 산천을 붉은색 하나로 캔버스에 담은 연작 「붉은 산수」를 시작했다. 유학 시절 내내 유럽의 유화라는 거대한 미술사적 전통을 극복하는 창작 방법을 고민하던 작가는 겸재 정선이나 표암 강세황을 비롯한 조선 시대의 대가들의 작품에서 그 근원을 찾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해를 뿌린 섬이 부동산 개발로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에서 출발하여, 분별없는 건설로 사라지는 섬과 바다, 산들을 기록하기로 한다.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군에 복무할 때 야간 투시경을 쓰고 바라 본 비무장지대의 풍경은 붉은색이었다.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비현실적인 풍경이며, 그 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풍경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화면 곳곳 배치된 군함과 포탄 그리고 쓰러져 가는 건물 등은 분단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정체와 편린들을 역력히 드러낸다.

글: 양지윤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이세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런던 첼시 예술대학 대학원에서 유학하며 「붉은 산수」 연작을 시작했다. 이후 런던(유니온 갤러리, 2008), 포트마우스(아스펙스 컨템포러리 아트 갤러리, 2009), 리즈(해어우드 하우스, 2009), 밀라노(존카&존카 갤러리, 2009), 뉴욕(니콜라스 로빈슨 갤러리, 2011), 서울(학교재, 2012), 암스테르담(부제트이시 갤러리, 2014) 등 유럽 및 아시아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을 가졌다. 그의 작품들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아트 컬렉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로레인배릭 컬렉션, 스위스 버거 컬렉션, 영국 올 비주얼 아트, 중국 제임스 리 컬렉션, 서울 시립 미술관, 하나은행 등 유명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다.



Je Yeo Ran

제여란전: 그리기에 관하여
2016.8.20-10.3

제여란의 예술 세계는 <물감>과 더불어 시작된다. 제여란은 모티브를 좇아 그리지 않으며, 현실이나 상상의 그 어떤 주제로부터 출발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소재나 주제들은 그녀의 창작 행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에 그녀는 캔버스와 붓, 그리고 물감으로 <회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포착해야 하거나 모방하거나 혹은 표현해야 하는 외부 세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녀의 유일한 무기인 물감으로 캔버스에 창작해야 하는 회화적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작업대 위에 여러 가지 물감 색들을 분류하고 그것들을 단조로운 색상의 캔버스 밑바닥에 칠해 올리고 섞은 후, 섞인 물감 덩어리들을 한데 굽어모아 결과적으로 아직 채색되지 않은 흰 캔버스 여백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러한 물감으로 자리 잡기하는 과정은 재빠르면서도 완벽하게 숙달된, 흡사 안무가 짜여진 듯한 제스처, 그리고 아주 순간적으로 짧게 일어나는 생각에 이어 준비되는 동작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의 발상은 작가가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것일까? 예술가와 바닥에 눕혀진 캔버스가 몸과 몸이 정면으로 맞붙는 이 한 판 대결은 기이하고도 멋진 안무술이다. 예술가는 몸의 좋은 컨디션과 냉정한 몸적 평정심을 필요로 한다. 이 회화적 몸짓의 안무술은, 예를 들어 머스 커닝햄의 즉흥 안무 기법과도 같은 포스트모던 무용의 <즉흥>을 연상시킨다.

글: 파트리스 파비스 / 평론가

제여란 1985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1988년 동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88년 윤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2016년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14번째 개인전 「그리기에 관하여」를 개최했다. 198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획한 「양태팡당」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싱가포르현대미술관, 금호미술관, 토탈미술관에서의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다. 주요 작품 소장처로는 루드비히 파운데이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포스코센터, 토탈미술관, 코오롱, 바이엘, 인당미술관 등이 있다.



Lee Jae Sam

이재삼전: 달빛

2017.6.17- 8.27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달이 밝게 보이는 것은 태양에서 나온 빛이 달 표면에 반사되기 때문이다. 이재삼은 그 달빛에 되비친 자연의 정경들을 그린다. 폭포, 물안개, 대나무, 옥수수밭 등. 배경은 검은 공간이다. 회색이라는 중립적 공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색의 광목천이 드러난 지점이 달빛이 닿은 공간이고 목탄으로 뒤덮인 지점이 달빛이 닿지 않은 공간이다. 달빛에 비친 반짝이는 자연과 검은 배경이 주는 명확한 콘트라스트에서 밤의 분위기가 들끓는다.

이재삼은 30여 년간 <나무를 태워서 숲을 환생시킨 영혼>이라고 스스로 명명한 목탄만으로 달빛에 비친 자연을 그린다. 버드나무나 포도나무를 태워서 생긴 목탄 입자는 광목천 위에 끊임없이 쌓아 올려져 검은 그림으로 완성된다. 대부분 1,000호가 넘는 그의 작품에는 서구식 원근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가 개발한 <공기 원근법>을 통해 생략되거나 번지는 부분이 없는, 중심과 주변이 존재하지 않는 전경이 펼쳐진다. 작품 속 모든 구석이 중요해진다. 목탄의 완전히 균질하지 않은 검정의 차이와 함께, 깊이를 알 수 없는 무한대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림 속 시간은 시간이 사라진 비동시적 순간과 같다.

글: 양지윤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이재삼 1984년 강원대학교 서양화과와 1989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1983년 청년미술대상과 1988년 중앙미술대전에서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양대광당」, 스페인 Palau Marc 「한국현대미술작가」, 박수근미술관 「심층에서 표면으로」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고, 홍콩 크리스티 아시아 컨템포러리아트, 아트 타이페이, 두바이아트페어 등 여러 해외 아트페어에서 소개되었다. 2017년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의 전시를 비롯해 29번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주요 작품 소장처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하나은행, 한샘, 나이키청도연구소 등이 있다.



Kim Tai 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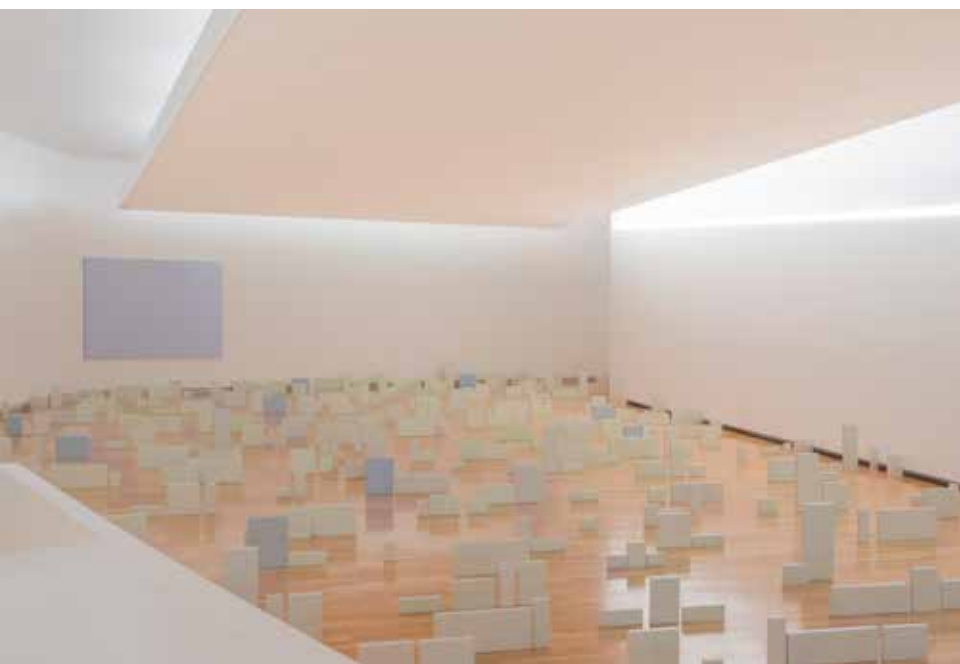
김태호전: 사라진 풍경

2017.10.21-12.17

김태호는 다양한 크기의 캔버스 혹은 나무 입방체에 아크릴 물감을 수십 번 덧칠했다. 은은한 광택을 머금은 입체이자 평면인 작품은 제각기 다른 크기를 지니며, 방향이나 보는 시간의 빛에 따라 다른 색감으로 나타난다. 어떠한 형상도 담고 있지 않지만 풍경화이다. 그는 덧칠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사건, 인상으로 남은 이미지를 층층이 쌓아 올렸다. 오히려 수많은 형상을 겹쳐 결국에는 색면이 된 풍경은 기억 속의 대상이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는 점을 일러 준다. 이미지는 기억을 되살릴 때마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대규모 설치 작품을 선보이며 전시 공간을 드로잉하듯이 채웠다. 넓은 공간은 그의 작품으로 조금씩 여백이 지워져 갔다. 전시 공간 속의 작은 풍경화들은 여럿이 모여 다시 하나의 커다란 풍경을 이룬다. 그 안에는 안개가 자욱한 날의 아침도, 햇살이 반짝이는 날의 오후도 담겨 있다. 사라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라 작가는 말한다.

글: 현민혜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김태호 1953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김태호는 서울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였고, 파리 제8대학에서 조형 미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모호함과 사라짐을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시각화한다. 중첩된 이미지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풍경화이지만 여럿이 모여 커다란 풍경을 이룬다. 김태호는 위안을 주는 풍경을 통해 사라지는 것은 두렵기보단 아름다운 것이라는 점을 환기한다. 리안갤러리, 금호미술관, 학교재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2016년에 김종영 미술상을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선재현대미술관, OCI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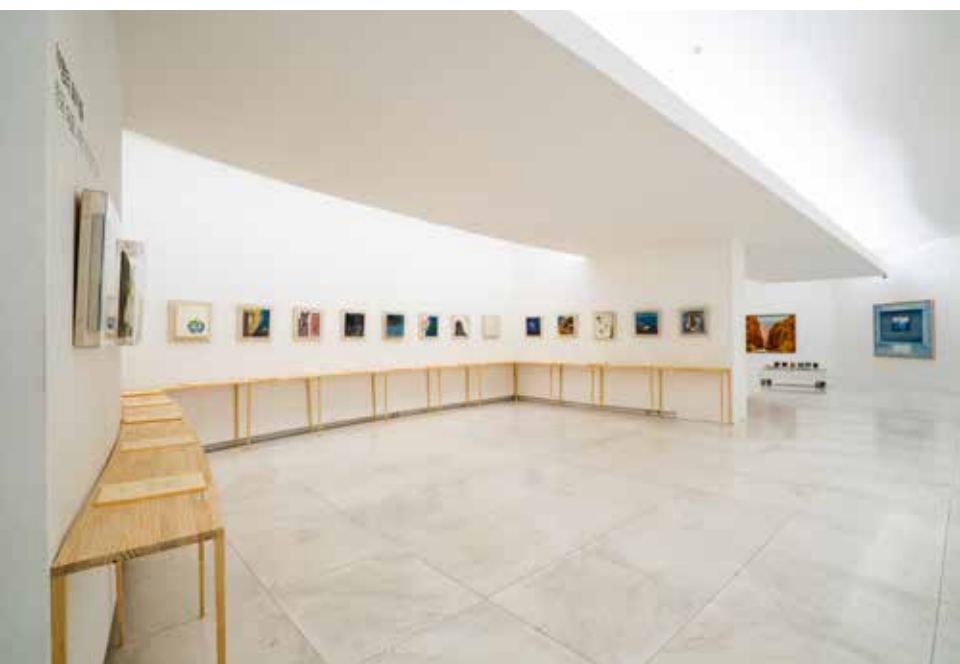
BOOK+IMAGE 5

다이얼로그: 북 앤 아트

2018.4.13-6.24

열린책들의 철학을 살펴볼 수 있는 「BOOK+IMAGE 5 다이얼로그: 북 앤 아트」는 예술의 범주 안에서 책을 매개로 한 협업 작가들의 작업 과정과 결과물을 만날 수 있다. 〈Part 1. Behind the Cover〉에서는 순수 회화 영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현대 화가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전집 표지의 원화가 소개되며, 〈Part 2. Publishing Place〉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담은 포르투갈의 건축가 알바루 시자의 스케치와 작업 과정의 이미지를, 〈Part 3. Design for Publication〉에서는 카림 라시드와 알렉산드로 멘디니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아트 상품의 디자인 시안과 완제품을, 〈Part 4. Publishing Art〉에서는 해외 일러스트레이터 및 국내 디자이너와의 협업이 빛나는 북 디자인과 아트 북을 선보인다. 한 작가를 소개할 때 그의 모든 작품을 출간함으로써 저자의 세계를 완전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열린책들의 〈전작 출간〉 방침은 한국 출판 역사에 획을 긋는 새로운 출판의 태도로 기록된다. 그리고 이들 저자의 작품 세계와 저작의 특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이미지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내외 유수한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적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또한 열린책들은 책뿐 아니라 상품에서도 디자이너와 협업한 사례가 있다. 바로 카림 라시드와 알렉산드로 멘디니와의 작업이다. 카림 라시드는 열린책들 〈미스터 노 Mr. Know 세계문학〉 발간에 맞춰 책꽃이를, 알렉산드로 멘디니는 미메시스만을 위한 〈멘디니 타이드〉를 디자인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들의 디자인 시안과 그 완제품이 소개된다. 그동안 열린책들은 한국 북 디자인의 중요한 흐름을 이끄는 역할을 하며 항상 새롭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독자를 만나 왔다. 열린책들의 성과 중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인 움베르토 에코의 전집 디자인 작업과 해외 일러스트레이터 및 국내 디자이너와 협업한 결과물들도 함께 선보인다.

글: 정희라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BOOK+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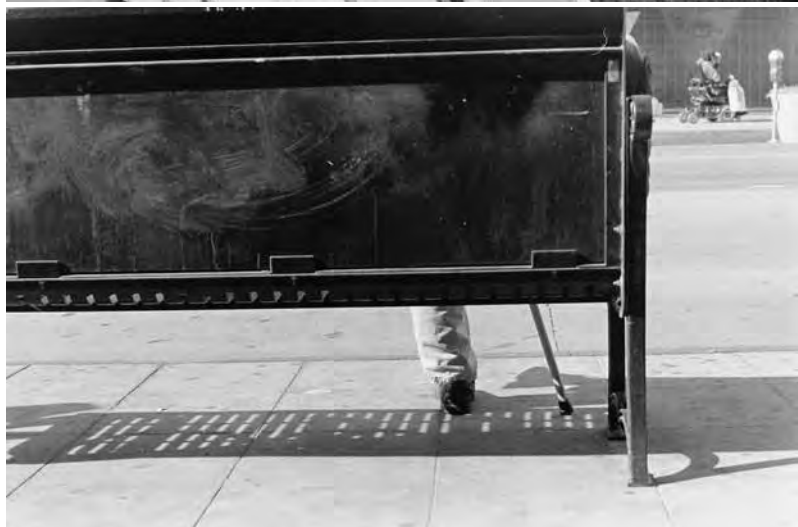
임수민: 무심한 거리가 좋아서

2018.9.15-11.11

「BOOK+IMAGE 6 임수민: 무심한 거리가 좋아서」는 길거리 사진가 임수민이 세계 곳곳의 길에서 찍은 흑백 사진과 함께 글과 영상을 담는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풍경을 카메라에 담은 임수민은, 소소하고 일상적 장면들에서 세상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 <제대로 걷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러 나라를 누볐다. 낯선 곳을 무작정 걸으면서, 모든 길을 이어져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물리적으로 <길이 아닌 곳>으로 호기심을 쏟으며 자신의 모험을 확장했다. 임수민은 바다로 향했고 그곳의 풍경을 담으며 또 다른 차원의 <길>을 탐색했다. 5개월 동안 태평양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항해 일기 『무심한 바다가 좋아서』에서 <바다 위의 길을 건넜지만 그보다 더 험하고 고독한 내면의 항로를 스스로 개척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한다. 이번 전시는 그가 좁은 거리에서 시작해 바다를 통과하며 결국 자신의 내면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여정을 담았다. 작가는 길을 걷는다는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는 과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글: 김미정 / 미메시스 편집자

임수민 대학에서 국제학을 전공했다. 졸업을 바로 앞두고 사진을 시작해 2014년, 아프리카(세네갈, 모로코)로 여행을 한 이후 서울에 기반을 두고 매년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을 다니며 다양한 도시에서 사람들의 온기를 흑백 사진에 담고 있다. 2015년 연세대학교 중앙 도서관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2016년 LA에서 첫 해외 개인전을 가졌고, 2017년에는 「Room to Think」(라이카 카메라 코리아), 「Salty Diary of a Girl at Sea」(캐논 갤러리) 등의 전시를 했다.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KBS 「온드림스쿨」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했고, 라이카, 캐논, 반스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사진 프로젝트도 하고 있다.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요트로 태평양을 건너며 기록으로 남긴 글과 사진으로 『무심한 바다가 좋아서』를 펴냈다. 2018년 직접 구입한 요트를 타고 여러 바다로 항해를 하며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MIMESIS AP1: REALITY SHOW

미메시스 아티스트 프로젝트 1: 리얼리티 쇼

이지영, 우정수, 박기일

2018.11.28 - 2019.1.13

MIMESIS AP는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며 도발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아티스트를 선정하여 소개하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아티스트 프로젝트이다. 그 첫 번째 전시인 「MIMESIS AP1: REALITY SHOW」는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재고하며, 실재하지 않는 판타지를 통해 현실 세계를 말하는 세 명의 젊은 작가인 이지영, 우정수, 박기일을 소개한다. 이들은 어둡고 부조리한 사회의 이슈들과 무거운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가볍게 풀어낸다. 이지영은 사회 제도에 길들여진 인간상을 동물원에 비유해 세밀한 연필화 연작을 2008년부터 그려 왔다. 자신의 본능을 잃어버리고 길들여진 삶을 살아가는 동물원의 동물과 같이, 사회 속에서 사회가 원하는 인간으로 교육되고 길러지는 인간 삶의 단면을 표현한다. 우정수는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을 문학과 성경, 신화와 민담과 같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서브 컬처(하위문화)를 통해 표현한다. 만화적 기법이나 영화적 연출의 드로잉으로 불가항력적인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럴 듯하게 구축된 현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박기일의 작품에는 사각 프레임이 주로 등장하는데, 모두 캔버스이다. 캔버스 안의 캔버스, 그리고 그림 속의 캔버스에는 캔버스 밖만큼이나 리얼한 풍경이 담겨 있다.

글: 정희라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이지영 1980년에 태어난 이지영은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6년 진흥아트홀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2008년 미술공간 현 「인물원」, 2010년, 2013년 아트스페이스H 「검은 인물원」, 2017년 갤러리 맘에서 「인물원-first apple」과 같은 개인전을 가졌으며 2006년 소마 드로잉센터 아카이브 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헬로우 뮤지엄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우정수 1986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 예술과 예술사 및 전문사를 졸업했다. 2014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아티스트로 선정되었고 이후 OCI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금호미술관에서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5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불한당의 그림들」, 2016년 OCI미술관 「책의 무덤」, 2018년 금호미술관 「Calm the Storm」등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박기일 1981년생으로 계원조형예술대학교 매체 예술과 및 국민대학교 회화과를 각각 졸업했다. 2005년 윈도우 갤러리 현대에서 선보인 첫 개인전 이후로 2009년, 2011년 갤러리 포월스 「Sealed Box」, 2014년 The Gallery D 「Plastic Memory」, 2016년 더 트리니티&메트로갤러리 「Flashback」, 2017년 올미아트스페이스 「Matte Shot」의 개인전을 가졌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과 경기도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BOOK+IMAGE 7

before reading

2019.4.28-6.23

「BOOK+IMAGE 7 before reading」 전시는 텍스트로 전해지는 이야기뿐 아니라 이미지로 표현된 이야기를 주제로 한다. 미메시스에서 출간한 대표적인 <그래픽노블> 이미지와 <테이크아웃> 시리즈의 포스터 이미지들이 소개되며,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를 넘어 예술로 승화된 책도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테이크아웃은 2030세대를 대표하는 소설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만남을 기획하여 출판된 단편 소설 시리즈이다. 이야기의 순수한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독특한 발상과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이야기 세계를 구축해 가는 젊은 소설가 20인을 선정했고, 이들의 소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지로 대중과 성실히 소통하는 일러스트레이터 20인을 매치해 새로운 이미지를 탄생시켰다. 자유로운 선과 색의 형용과 디테일한 감정 묘사, 문학적이고 순수한 대사로 어우러진 그래픽노블은 단순한 문자로써 전달되는 이야기를 넘어 그림으로 표현된 서사를 생각하게 한다. <읽기|reading>라는 행위에 선행하는 <보기|seeing>라는 보다 직관적인 감각에서 발생하는 의미에 주목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글: 정희라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테이크아웃 시리즈 일러스트레이터 권신흥, 김혜리, 노상호, 람한, 무나씨, 박혜미, 변영근, 성립, 소냐리, 손은경, 신모래, 아방, 오혜진, 유지현, 이빈소연, 최지수, 최지욱, 키미앤일리, 한예를, 훗한나

그래픽노블 아티스트 바스티앙 비베스, 브레흐트 에번스, 크레이그 톰슨, 리처드 맥과이어



MIMESIS AP2: FLAT, NOT FLAT

미메시스 아티스트 프로젝트 2: 플랫, 낫 플랫

김성국, 장재민, 최윤희

2019.6.27-2019.8.11

MIMESIS AP의 두 번째 전시인 「FLAT, NOT FLAT」은 평면적이고 물질적인 캔버스를 대하는 작가적 태도에 주목하여, 회화의 방법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며 캔버스 안에 다중적 구조의 내용을 담는 세 명의 젊은 작가 김성국, 장재민, 최윤희를 소개한다. 그리는 것이 좋아서, 당연하게 그리게 되어서, 그리는 것을 잘해서 회화라는 장르를 선택하거나 선택받은 작가들은 자연스럽게 <재현>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역설적이게도 눈으로 본 것을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의미에서의 재현의 영역에서 보다 자유로워진다. 김성국은 2009년부터 사실적으로 인물을 그리는 데 집중해 왔다. 극사실적으로 주변인들을 그리기 시작한 작가는 그들의 배경에 (인물과 마찬가지로) 극사실적으로 그려진 허구의 상황을 연출하는 시도를 한다. 이후 김성국에게 <사실적으로 그려진 허구의 상황>은 작가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장재민은 최근작을 통해 <풍경이 기억하는 사건>이라는 주제로 풍경화를 선보인다. 정지된 풍경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의 작품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을 때 작가가 기억하는 그 장소가 몸으로 느껴진다. 최윤희의 작업은 작가의 사적 경험을 시각적 기록으로 그려 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작가는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모퉁이의 흙더미, 공사장에 널려 있는 쇠조각들, 전봇대의 불빛으로 드러나는 찰나를 포착하고 그 잔상을 잊지 않기 위해 기억에 의존하여 종이 위에 작은 드로잉으로 그려 내고 그 이미지를 캔버스 위에 빠르게 그려 낸다.

글: 정희라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김성국 1982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왕립학교 서양화과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10년 엘비스 갤러리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2013년 살롱 드 에이치「금기의 시대」, 2014년 엘비스 갤러리의「Hiatus」, 2018년 런던 더 피츠로비아 갤러리에서「Mercury_Dark Knight」의 개인전을 가졌다. 신한영 아티스트 페스타 공모 선정을 비롯하여 런던의 Shortlisted for the Ashurst Emerging Artist Prize, Shortlisted for Valerie Beston Artists' Trust Prize 등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 아림산업, LG 생활건강, DLA Piper Global Law Firm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장재민 1984년생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14년 중앙미술대전과 종근당 예술지상 2015에 선정되었으며, 2014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시간을 잃어버린 풍경」, 2015년 포스코미술관「이중의 불구」, 2016년 금호미술관「비린 곳 -Fishy Scene」, 2018년 A-Lounge 갤러리「아.무.일.도」, PNC갤러리「길의 끝」 등의 개인전을 가졌다. 한국은행,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부산현대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최윤희 1986년생으로 2010년 가천대학교 회화과를 거쳐, 2014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학과 전문사를 졸업하였다. 2017년 갤러리175「반짝하는 밤」 개인전을 시작으로, 2018년 이목갤러리「빛을 세는 밤」, 2019 OCI YOUNG CREATIVES에 선정되어 oci미술관「Recording Pattern」의 개인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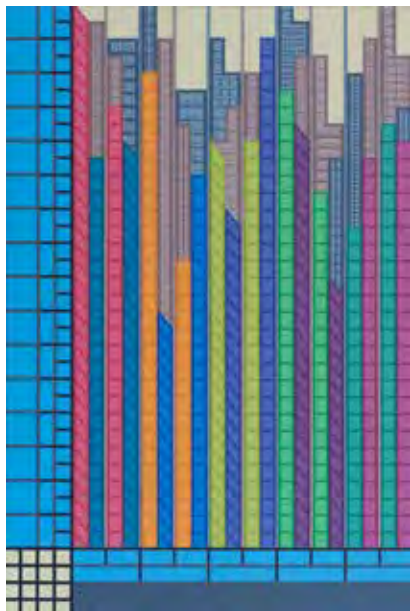
MIMESIS AP3: Picturesque City

미메시스 아티스트 프로젝트 3: 픽처레스크 시티
권영성, 김효숙, 최은정

2019.11.28 - 2020.1.27

MIMESIS AP의 세 번째 전시인 「MIMESIS AP3: Picturesque City」는 인간과 자연의 미적 관계를 나타내는 픽처레스크의 관점으로 바라본 도시를 표현하는 권영성, 김효숙, 최은정 작가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관계 그래프>, <부유하는 도시>, <익명의 풍경>과 같은 주제로 작업을 해왔고, 각기 다른 소재를 모티브로 차용하여 공간을 표현하며 환상, 욕망, 비물질, 제도의 개념들을 얹히고설킨 <선>으로 해체하거나 명료하게 정리된 도시의 풍경으로 그려 낸다. 이번 전시는 현실 재현에 반하는 가공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세 명의 작가들의 회화적 표현법에 주목하여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공간을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게 한다. 권영성은 작업 초기에 지도를 그려 왔다. 실재하는 지도가 아닌, 주변의 사물들을 소재로 만들어 낸 가상의 지도 작업이다. 작가는 복잡한 세계를 <사물의 기호>라는 맥락에서 재구성하고 단순화시켜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의 풍경과는 또 다른 풍경화를 창조한다. 기호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최근에는 지도에서 그래프로 전환되었다. 김효숙의 작업은 완성된 구조물이 아닌 부유하는 도시의 구조물들을 중첩된 유기적인 공간으로 표현하며 여러 프레임을 겹겹이 쌓아 형상화하는 복잡한 것들이 얹힌 도시 풍경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최은정의 작품은 현실 재현을 가장한 비현실적인 인공의 풍경화이다. 언뜻 보면 도시 설계 같기도 한, 나무와 식물이 다채로운 구조물과 어우러진 익명의 풍경으로 작업을 풀어낸다.

글: 정희라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권영성 1981년생으로 목원대학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10년 서울의화봉갤러리「길 잃은 지도」개인전을 시작으로 2013년 갤러리이안「IMAGE VS TEXT」, 2015년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가+미/시적 풍경」, 2017년 대전예술가의집「이것과 저곳」, 2018년 이응노미술관 m2 프로젝트 룸「아트랩」, 2019년 청주창작스튜디오「높고 짧고 낮고 긴 무언가」 등 8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김호숙 1981년생으로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11년 OCI미술관「부유하는 나의 도시 II」, 2014년 관훈갤러리「꿈의 도시」, 2018년 갤러리마크「파란 방」 등 개인전을 가졌다. 2010년 32회 중앙미술대전, 2010년 10회 송은미술대전, 2010년 제1회 송암문화재단 OCI미술관 신진 작가, 2014년 3회 종근당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에 선정된 바 있다. 작품은 송암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주)종근당 등에 소장되어 있다.

최은정 1980년생으로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과를 거쳐,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와 동 대학원에서 미술학과 박사를 수료하였다. 2013년 한전아트센터갤러리「Ecotopia: Unfamiliar Landscape」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2015년 아트컴퍼니「THIS SIDE OF PARADISE」, 2017년 포네티브스페이스「Subtle Scape」, 2019년 수림문화재단「Virtual Facade」 전시를 가졌다. 또한 제36회 중앙미술대전, 제5회 가송예술상 대상, 제19회 단원미술상, 수림미술상, SOMA Drawing Center 아카이브 작가에 선정된 바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동화약품, 신한화구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BOOK+IMAGE 8

예술가의 삶

2020.8.16-10.25

책과 그림의 만남으로 시작된 시리즈 전시 「BOOK+IMAGE 8 예술가의 삶」은 미메시스에서 출간한 빈센트 반 고흐와 프리다 칼로의 그래픽노블을 중점적으로 보여 준다. 두 예술가의 삶을 개성 넘치는 그림으로 구성된 『반 고흐』와 『프리다 칼로』는 〈그래픽 자서전〉이라는 장르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네덜란드 만화가 바바라 스톡이 3년여의 고증을 거쳐 재현한 『반 고흐』는 자신의 작품에 넘치는 열정을 쏟아낸 한 화가의 위대한 삶을 독특한 그림체로 선보인다. 이탈리아 일러스트레이터 반나 빈치가 그려 낸 『프리다 칼로』는 대중 예술의 아이콘이 된 한 화가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다. 반 고흐와 프리다 칼로, 두 화가의 작품 속에는 그들만의 감정과 예술적 철학이 담겨 있으며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까지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그들의 삶에는 늘 예술이 함께했기에 자신만의 예술 표현 방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들의 삶을 그린 그래픽노블 이미지를 통해 마치 되살아난 듯한 작가의 삶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어른과 아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글: 김지원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MIMESIS AP4: MI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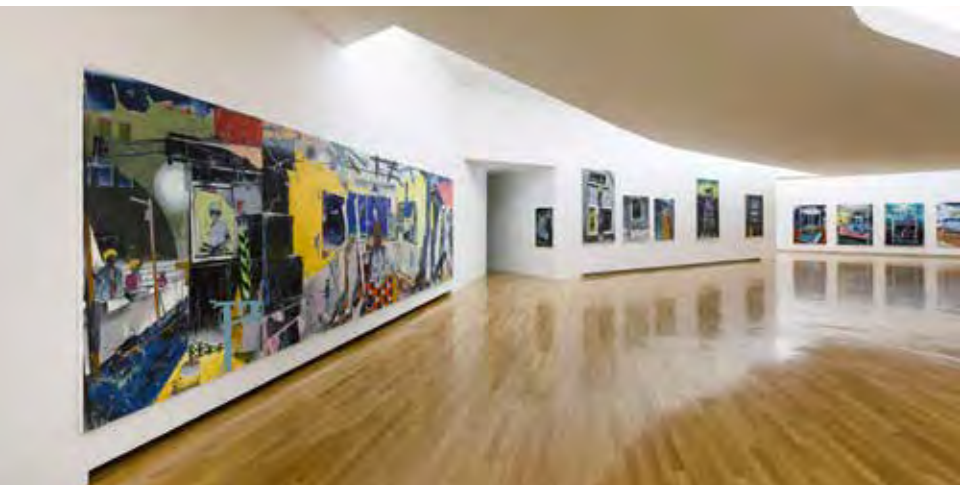
미메시스 아티스트 프로젝트 4: 밉글 혼재

김윤섭, 박석민, 유현경

2020.11.19 - 2021.2.14

MIMESIS AP의 네 번째 프로젝트인 「MIMESIS AP 4: MINGLE 혼재」는 <바라보는 자>의 시선에 대면하는 다양한 시공간의 사물과 사람, 혹은 풍경을 표현하는 작가 김윤섭, 박석민, 유현경을 소개한다. 이들의 작품은 찰나의 상황과 작가의 시선에 압도된 소재들이 한 화면에 집결된다. 이것들은 전시의 부제인 <MINGLE 혼재>라는 개념과 함께 회화의 여러 방식으로 내포되어 드러난다. 김윤섭의 작업은 디지털의 매끄러운 면과 캔버스의 거칠거칠한 면의 대비를 시작으로 회화의 정통성을 연구하며, 박석민의 작업 세계는 물리적 관념적으로 거대한 것과 사소한 것, 먼 것과 가까운 것이 복합적인 응시로 이어진다. 그리고 유현경의 작품은 붓이 캔버스 위에 닿기 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보이는 것을 표현하려는 작가의 의도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작가의 내면이 충돌하면서 어우러지는 풍경으로 표현된다. 이들의 회화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감정과 시선이 혼재된 시공간이 드러난 화면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글: 정희라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김윤섭 1983년생으로 국립공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를 졸업하였다. 2009년 부산 다대포 예술공장에서 첫 개인전 「마계, 근방위」를 시작으로 2010년 퍼블릭에어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무의미를 목표로 한 접속」, 2016년 설미재미술관, 갤러리조션 「순례자-순교자, 이세상은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게 없어요」, 2017년 쉼미술관, 인디프레스서울 「PERORT」, 2020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마계인魔界人」 등 지금까지 14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박석민 1982년생으로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2016년 OCI미술관 「NEW SATELLITE-모형계도」를 시작으로, 2017년 세움아트스페이스 「달린 방-closed scene」, 2018년 갤러리 압센트 「화이트홀다이어리」, 2019년 63아트미술관 「GRACE」, 2020년 통의동 보안여관 「설탕을 녹인 공기-Melting a Lump Sugar」 등 매년 신작을 통한 개인전을 선보여 왔다. 이외에 더 페이지 갤러리 「EVERY WHERE & HERE-The Soft Surreal」, 프로젝트스페이스 플랜비 「Trivia」(2인전), 대안공간 오픈스페이스배 「Diploia」 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가하였다.

유현경 198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수료하였다. 최근 2016년 뉴욕, 두산갤러리 「갈 곳 없어요 1」, 2017년 서울대학교 우석갤러리 「갈 곳 없어요 2」, 2018년 갤러리 투 「기분이 좋지 않아」, 갤러리 세인 「저의 비극이 당신에게 위로를」, 스페이스 몸 「행복한 일만 남았어요」, 2020년 갤러리 나무 「호우시절 好雨時節 It Was Beautiful Days」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다.

BOOK+IMAGE 9

앤디 워홀 & 장미셸 바스키아

2021.4.30 - 2021.6.30

팝 아트의 황제라 불리는 앤디 워홀과 낙서를 예술로 승화시킨 또 다른 천재 화가 장미셸 바스키아를 다룬 이번 전시는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자신만의 예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던 이들의 흔적을 면밀히 살핀다. 네덜란드 일러스트레이터 타이펙스의 『앤디 워홀』은 미국 팝 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의 독자적 예술 세계와 복잡다단했던 삶을 그가 살았던 시대에 비추어 유쾌하고 인간적으로 풀어낸다. 이탈리아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가 파올로 파리시의 『바스키아』는 뉴욕 거리의 그래피티 예술가에서 앤디 워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스타가 되기까지, 불꽃 같은 생을 산 바스키아의 일대기를 그가 창조한 예술 작품만큼이나 선명하고 역동적인 색감으로 표현한다. 워홀과 바스키아는 「두 사람」(1982), 「알바의 아침 식사」(1984) 등 다양한 공동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들의 관계성을 함께 조망한다. 세밀한 연구와 고증이 뒷받침된 두 권의 그래픽노블은 각기 개성적인 화풍으로 20세기 팝 아트를 대표하는 두 아티스트의 생애를 더욱더 감각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한다.

글: 김지원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토니 사프라치와 브루노 비쇼프베르거 기획.

워홀 / 바스키아
회화전

1985년 9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뉴욕 머서 스트리트 163.

VISIBLE, INVISIBLE

보이는, 보이지 않는
강현선, 김현수, 정우재, 정중원
2021.7.14-9.12

디지털 매체의 대중화로 복제 이미지의 범람과 가상 현실 체험이 익숙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매체가 복제한 이미지로 기억되거나 왜곡된다.

강현선은 아파트와 같은 획일화된 주거공간을 가상의 3D 영상으로 재현하고
그 공간 속에 인간의 심리와 욕망을 투사한다. 김현수는 사실적으로 묘사한
인간의 형상에 신화나 동화적 요소를 부여하고 자신의 내면과 성장 이야기를
담아낸다. 정우재는 도시 풍경 속에 거대한 반려견과 소녀를
극사실적이면서도 판타지로 가득한 이미지로 그려 내어 불안을 치유하고
위로를 전한다. 정중원은 위인이나 영화배우의 얼굴을 재현하기 위해
유사인물들을 합성하고 묘사하여 원본을 알 수 없는 시뮬라시옹으로
재탄생시킨다.

글: 김미금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강현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센트럴 세인트 마틴 대학과 미술섹스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6년 서울 SADI 원도우 갤러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밀아르테 갤러리 전시를 시작으로 10여 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김현수 홍익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2005년 관훈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break」를 시작으로 2008년 두산갤러리 「Solitary Meditation」, 2009년 사비나미술관 「Transformation in Art: 변신」, 2018년 갤러리코사 「Don Quixote」 등 국내외 다수의 그룹전과 개인전을 개최했다.

정우재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화과와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2013년 런던 샤인 아티스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시작으로 이랜드스페이스, YTN 아트스퀘어, 더 증로 아트 스페이스, 스페이스 아트마인 등 국내 및 상하이와 런던 등 해외에서 개인전을 20여 회 개최하였다.

정종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와 동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2012년 갤러리 미엘 「FACES」를 시작으로 2017년 홍익아트센터 「의문스러운 형상」과 YTN 아트스퀘어 초대전, 2018년 갤러리 D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BOOK+IMAGE 10

도스토옙스키, 영혼의 탐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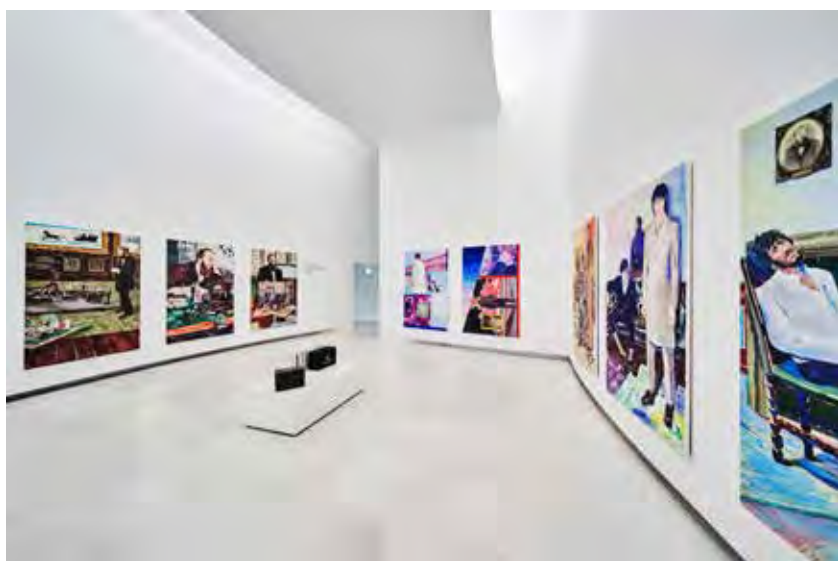
2021.11.4 - 2022.2.6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2021년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을 맞아, 책과 예술을 잇는 시리즈 전시 「BOOK+IMAGE10 도스토옙스키, 영혼의 탐험가」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창립 35주년을 맞은 열린책들이 그간 펴낸 도스토옙스키 전집과 관련 도서들, 그리고 200주년 기념으로 출간되는 리커버 시리즈뿐 아니라 표지 원화를 중심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는 시대를 넘어 인간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치열하게 그려 낸 작가로 평가된다.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등 그의 작품들은 탐욕, 회의, 좌절, 그리고 신, 구원, 이성 등 인간의 영혼에 깊게 파고들어 내면을 섬세하고도 예리하게 해부한다. 일생을 괴롭힌 뇌전증, 사형 집행 직전의 감형, 기나긴 시베리아에서의 유형 생활, 광적인 도박벽, 그리고 끝없는 궁핍과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반영하듯 그의 작품들은 격정적이고 논쟁적이다.

언젠가는 꼭 읽어야 할 작가, 가장 문제적인 작가, 영감을 주는 작가 제1순위로 꼽히는 도스토옙스키. 그의 문학이 그리는 영혼의 지도를 따라 200년이 지난 지금도 변치 않는 삶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글: 김미금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SHIM WOO HYUN

심우현전: 심연의 리듬 2022.2.12-5.8

심우현의 회화는 유년 시절 자주 뛰어 놀았던 숲속에서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숲속의 기운과 그 속에서 느낀 묘한 공포와 신비로움은 캔버스 위에서 춤추는 붓질과 어지러운 원색의 향연으로 표출되었다. 중첩된 이미지의 혼돈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죽음과 공포 등 감추어진 세계를 들추어내려는 비밀스런 충동, 역동적인 드로잉이 구현하는 몽환적 세계에서 감각으로 충만한 본성이 지배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이번 개인전은 심우현의 진지한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고 대외적으로 알려냄으로써 본인 작품의 위치를 평가받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고자 한다.

글: 김미금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심우현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페인팅과 드로잉을 전공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원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와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2010년 미국 시카고에서 개인전 「Transformative Realms」을 시작으로 2011년 미국 오마하 The Art Loft에서 「The Story Ends in the Same Place Where the Story Begins」, 국내는 2014년 아트스페이스 휴와 스페이스15번지에서 「Eros-scape 에로스 정경」, 2018년 서울 리안갤러리에서 「Enchanting Forest」를 개최하였다. 이외 2인전으로 2015년 대구 리안갤러리 「Weaved Land」, 과천 스페이스K 「LAND.IN.SIGHT」에 참여하였다. 2007년부터 미국 시카고, 뉴욕, 필라델피아, 오마하 등지에서 활동하였으며, 2012년 휴 네트워크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작가, 2013년 이후 대구예술발전소, 아트스페이스 휴, 블루메미술관에서 기획한 전시에 참여하였고, 2013년 종근당예술지상 신진 작가 3인에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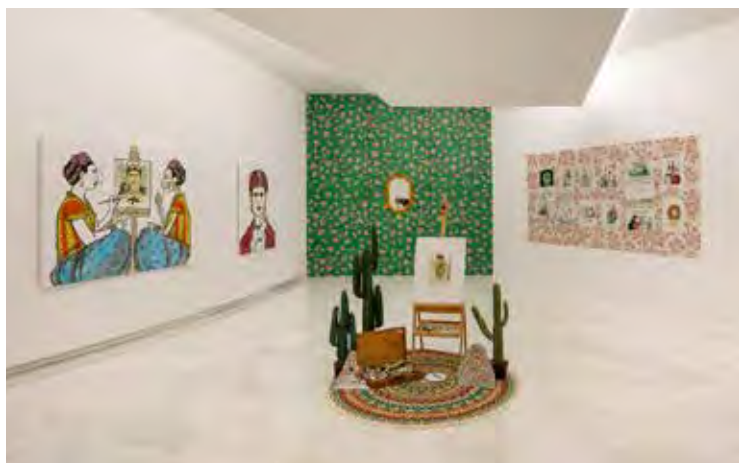


BOOK+IMAGE 11

강박과 사랑, 그리고 예술: 버지니아 울프, 프리다 칼로, 쿠사마 야요이 그래픽노블 2022.5.13-7.3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책과 예술을 잇는 시리즈 BOOK+IMAGE의 11번째 전시로 「강박과 사랑, 그리고 예술: 버지니아 울프, 프리다 칼로, 쿠사마 야요이 그래픽노블」전을 선보인다. 문학과 미술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버지니아 울프, 프리다 칼로, 쿠사마 야요이, 그들은 불타오르는 예술적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 자신의 욕망과 현실의 고통, 사회의 고정 관념과 맞선 여성 예술가들이다. 또한 20세기 페미니스트 아이콘이기도 한 그들의 불안정한 내면세계, 그리고 성공과 좌절의 순간들이 각각 그래픽노블에 매력적으로 펼쳐진다. 리우바 가브리엘레, 반나 빈치, 엘리사 마첼라리. 세 여성 그래픽노블 작가들은 예술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여성 예술가들의 열정 넘치는 삶, 이에 대한 감동과 찬사를 독창적인 필체로 그려 내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불안과 강박을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사랑과 예술적 행위, 그리고 불안정한 내면세계가 새로운 예술 형식을 창조하는 데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글: 김미금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Yoon SaeRom

윤새롬전: 어느 날의 조각들 03

2022.8.12-10.16

윤새롬은 구름의 상호 작용, 잔물결 치는 파도, 얼어붙은 풍경과 나무껍질의 표면 등 자연의 흐름과 질감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리고 그 영감은 필리핀에 거주했던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만난 〈어느 날의〉 서정적 경험에서부터 출발한다. 그의 기억에 남은 아름다운 자연의 색은 평범한 소재인 아크릴을 영롱한 빛을 머금은 크리스털의 물성으로 변신하게 한다.

윤새롬의 작업은 아크릴 표면을 염색하여 서로 다른 색상 간의 자연스러운 혼합,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빚어내는데, 이들은 빛의 굴절과 반사 현상을 통해 왜곡과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섬세한 설계로 빚어진 조각의 단면들은 철저한 계산으로 염색되지만, 우연히 얻게 되는 빛과 색채의 미묘한 변화는 시적 감성마저 자아낸다. 신소재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소재 개발과 기술을 확립해 나가는 윤새롬은 고도의 기술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제작 과정을 통해 테크니션뿐 아니라 아티스트로서의 영역도 확보하고 있다.

글: 김미금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윤새롬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목조형가구학과를 수료했다. 2022년 서울 무목적에서 개인전 「어느 날의 조각들 01」을, 얼터사이트계선에서 「어느 날의 조각들 02」를 각각 개최했다. 서울 DDP, 대구 대구예술발전소, 청주 한국공예관, 여수 아쿠아플라넷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가했으며, 2017년 서울 디자인 아트 페어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2021년 시카고 SOFA와 서울 공예트렌드페어 주제관-형형색색 등 여러 비엔날레에 작품을 선보였다. 2016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뽑은 〈올해의 작가〉, 2018년 「월페이퍼」 디자인어워드에 〈파네라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디자이너〉로 각각 선정되었다. 온지음, 루이 뷔통, 테이크호텔, 크라운호텔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MIMESIS AP5: between, behind, beyond

미메시스 아티스트 프로젝트 5: 틈의 풍경
김세은, 라선영, 송수민, 황원해
2022.10.19-2023.1.24

젊은 작가들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미메시스 아트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기획전 「MIMESIS AP5: 틈의 풍경 between, behind, beyond」는 복잡하게 얽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갈라진 틈 사이로 소외된 인간과 공간의 풍경을 만난다. 김세은은 계획 이후에 남겨진 자투리 공간의 틈을 경험하는 자신의 신체적 감각을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 붓질 등 에너지 넘치는 회화적 언어로 표현한다. 라선영은 현대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투박한 나무와 세라믹으로 조형하여 그 속에 있는 개별적 욕망과 집단의 익명성을 들추어낸다. 송수민은 자연 풍경과 재난의 광경을 수집하고 재현한 후 각각의 이미지를 결합, 분산시킴으로써 일상의 고요 속에 스며든 불안을 패턴화시킨다. 황원해는 수없이 재개발되는 도시 풍경을 다층 이미지로 파편화하고 평면화하여 환영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들이 연출하는 이미지들은 모두 틈과 균열에서 꼬집어낸 불편하고도 생경한 풍경들이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펼쳐지는 네 개의 〈틈의 풍경〉 그 사이와 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이 시대의 이미지를 새롭게 그려 보길 바란다.

글: 김미금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김세은 1989년생.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에서 학사, 영국 왕립예술대학에서 페인팅 석사를 졸업하였다. 2019년 원앤제이 갤러리 「핏맨의 선택」, 2020년 금호미술관 「잠수교 Submersible」, 2022년 두산갤러리 「Pit Stop」 등 6회의 개인전을 가졌고, 2017년 영국 〈Valerie Beston Prize〉 수상, 2020년 〈금호 영아트리스트〉와 영국 〈Travers Smith Art Programme〉에 선정되었다.

라선영 1987년생. 이화여자대학교 조소과 졸업, 영국 왕립예술대학 조소과 석사 졸업 후 현재는 경희대학교 영미문화전공 박사 과정 중이다. 2014년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사람」을 시작으로 2017년 갤러리마크 「사람들」, 2021년 갤러리마크 「Skin and Flesh」 등 5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Skylon Restarurant, LMS 주식회사, 호텔프리마, 히지노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송수민 1993년생.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18년 예술공간 서:로 「膜막: 가려진 풍경」을 시작으로 SPACE55에서 「플라스틱 이파리」, 2020년 OCI미술관 「○ ○ 이 머문 자리」, 2021년 보안여관 「고요한 소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예기치 못한 상황」 등 총 6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2020년 〈OCI YOUNG CREATIVES〉,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에 선정되었다.

황원해 1989년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18년 팔레드 서울에서 「Chaotic Structure」를 시작으로 2018년 보안여관 「Phantasmagoria」, 2020년 공간 형 「제4의벽」, 2021년 OCI미술관 「막의막」, 2021년 소마미술관 「Modular Vision」 등 총 5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2013년 제15회 단원미술제 최우수상 수상, 2020년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선정, 2021년 〈OCI YOUNG CREATIVES〉 등 여러 수상 경력을 쌓았다.

Exhibitions

전시 관람 안내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자연광의 향연과 함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빛으로 미술관〉으로, 계절에 따라 관람 시간이 변합니다.

Mimesis Art Museum is a 〈Museum with Light〉, which offers a unique experience to view the artworks under natural lighting.



수 - 일 **Wed - Sun**

11월부터 4월까지 **November-April** (11.1-4.30) 10:00-18:00

5월부터 10월까지 **May-October** (5.1-10.31) 10:00-19:00



mimesis art museum

Educations

뮤지엄 프로그램 안내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출판과 건축, 예술의 만남을 통해 문화 공간으로의 미술관을 지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Education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지역 아동과 학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의 일정과 내용은 웹 사이트를 통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Lecture

건축, 예술,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와 작가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강연을 제공합니다.



Café, Book & Art Shop

카페, 북앤아트숍



수 - 일 **Wed - Sun**

11월부터 4월까지 **November-April (11.1-4.30) 10:00-18:00**

5월부터 10월까지 **May-October (5.1-10.31) 10:00-19:00**

카페와 북앤아트숍은 뮤지엄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페와 테라스에서는 커피, 제철 과일로 만든 생과일 주스, 팥빙수 등 다양한 식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북앤아트숍에서는 열린책들/미메시스에서 출간되는 책들과 미메시스디자인에서 선보이는 고급 디자인 문구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The café and the Book & Art Shop in the museum are open regardless of the official closing day of the museum. You can enjoy various kinds of food and beverages such as coffee, fresh fruit juice, iced milk with red beans. The books and stationery in the Book & Art Shop in the museum are on sale at discounted price.

도서 판매

열린책들: 문학, 인문

미메시스: 예술, 그래픽노블, 건축, 실용

사람의집: 평전, 회고록, 건강, 의학

미메시스디자인 문구 30퍼센트 할인

Visit

이용 안내

상업적인 용도를 위한 사진 촬영은 뮤지엄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Taking pictures is allowed only for personal use. Commercial use of images of the interior or exterior of the building is strictly prohibited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뮤지엄 휴관일입니다. 행사 일정에 따라 임시 휴관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museum is closed on Monday and Tuesday. Opening days and hours are subject to changes depending on seasons or special events. Please check the museum's website or call us to make sure the museum is open when you are planning your visit. Thank you.

문의 **Contact**

웹 사이트 **mimesisartmuseum.co.kr**

이메일 **info@mimesisartmuseum.co.kr**

뮤지엄 **Museum** T 031-955-4100

카페 **Café** T 031-955-4108

오시는 길 **Directions**

자가용: 파주출판도시 장월IC로 진입 혹은 <열린책들> 검색.

버스: <심학교> 정류장에서 하차, 2200(합정), 200(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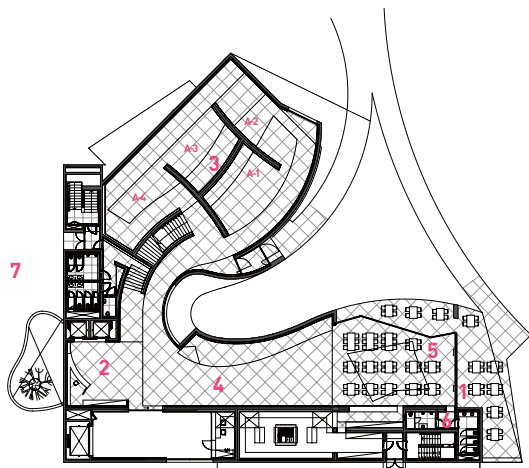
By Car: Enter Jangwol IC for Paju Book City, Enter Jangwol IC for Paju Book City, or search Mimesis art museum in navigation system.

By Bus: Stop at Simhakgyo, Paju Book City from Seoul(Hapjeong St., bus 2200), from Ilsan(bus 200).



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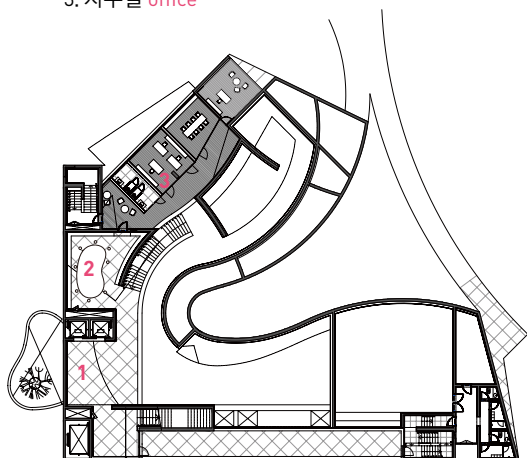
1. 출입구 entrance
2. 안내, 북앤아트숍 information / ticket, book & art shop
3. 전시실 A exhibition hall A
4. 전시실 B exhibition hall B
5. 카페 café
6. 화장실 toilet
7. 주차장 parking lot



mimesis art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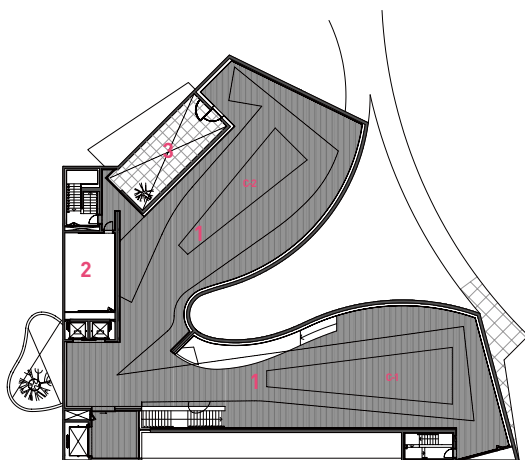
2F

1. 로비 mezzanine foyer
2. 회의실 meeting room
3. 사무실 office



3F

1. 전시실 C exhibition hall C
2. 세미나실 seminar room
3. 중정 courtyard



MIMESIS

에딧 다이어리

북시리즈

디자이너스 시리즈

데스크 에디터 시리즈

작가 시리즈

기타

B2B

DESIGN

미메시스디자인은 미메시스에서 선보이는 디자인 문구입니다.

미메시스는 문학과 예술을 담는 책 역시 문학이 되고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순수 회화와 디자인을 만나게 하는 독창적 접근으로 미술 작품과 디자인을 동시에 탄생시켜 온 것도, 건축의 세계적 거장 알바루 시자와 함께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이라는 결정체를 빚어낸 것도 바로 그 믿음의 소산입니다. 그 믿음으로, 열린책들이 디자인 문구를 선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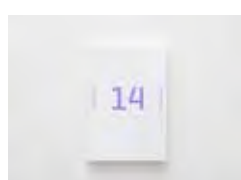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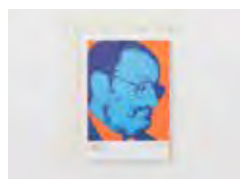
미메시스디자인은 출판 정신이 담긴 문구를 만듭니다.

정교한 지적 작업과 창조적 콘텐츠 생산의 도구인 문구를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출판과 다를 수 없습니다. 출판의 본질은 지적인 자극과 창조적 영감의 전달이기 때문입니다. 미메시스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도 실로 꿰매는 정통 제작 방식으로 책의 속살을 만드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책을 만드는 바로 그 정신으로, 미메시스디자인은 문구를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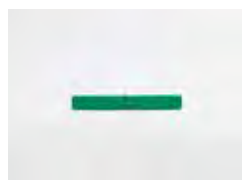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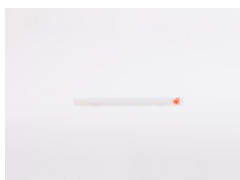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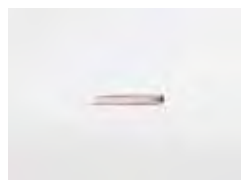
미메시스디자인은 <고가>가 아니라 <고급> 문화 상품을 만듭니다.

<고급>은 <고가>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열린책들과 미메시스가 더 좋은 책을 더 많은 독자에게 전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 정책을 고수해 온 것처럼, 미메시스디자인도 더 훌륭한 문구를 더 많은 창조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메시스디자인은 높은 품질과 정교한 디자인, 그러나 합리적 가격으로 지적 창조자들의 벗이 될 것입니다.

MIMESISDESIGN is part of the publishing company Mimesis, a member of the Open Books family. Mimesis specializes in art, architecture and design, and has also been very active over the past few years in introducing foreign graphic novels to Korean readers. The idea to extend from books to stationery came naturally from the desire to engage in new ways and forms of embodying the values of publishing. The philosophy that Open Books has been seeking to convey through its publishing activities over the years is <Intellectual Stimulus and Creative Inspiration>. Open Books and Mimesis are doing so through books, and MIMESISDESIGN is taking the spirit one step further by exhibiting art and creating great stationery. We expect that interactions between these three areas will have interesting creative synergy effects. Ultimately, it is the spirit that matters. MIMESISDESIGN makes stationery with the mind of a publisher and a passion for art.













edit 2023 diary

에딧 2023 다이어리

미메시스디자인에서는 총 6종의 새로운 <에딧 2023 다이어리>를 선보인다. 내지에도 표지와 같은 색을 입혀 특별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위클리 미니, 단순하고 실용적인 미색 내지의 먼슬리 미디로 용도에 따라 일정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뒷부분은 라인 노트로 구성되어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기록하기 좋다. 사철 제본 방식으로 제작되어 180도로 젖히며 메모 시 유연하게 펼쳐져 사용하기 편리하다.

● 에딧 위클리 미니 다이어리 (3종)

95×164mm | 종이 | 10,000원 | 옐로, 블루, 베이지



● 에딧 먼슬리 미디 다이어리 (3종)

120×175mm | 종이 | 15,000원 | 그린, 블랙, 오렌지





book series

북 시리즈

테마 노트 시리즈로, 한 주제에 대한 노트, 편집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편집할 수 있다.

● 북북: 독서 기록 노트

B6 변형 | 클로스, 종이 | 15,000원 | 플럼



● 필름북: 영화 기록 노트

B6 변형 | 클로스, 종이 | 15,000원 | 브라운



● 카북: 10년간의 차량 관리 노트

B6 변형 | PU, 종이 | 19,500원 | 그레이, 레드



● 파이낸스북: 1년간의 자산 관리 노트

B6 변형 | PU, 종이 | 15,500원 | 그레이, 레드





designers' series

디자이너스 시리즈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협업하는 디자이너스 시리즈의 첫 번째로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멘디니 타이디〉를 선보인다. 멘디니가

미메시스디자인만을 위해 디자인한 새로운 형태의 필기구 정리함. 다양한 크기의 필기구를 실용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리듬감 있는 곡선의 디자인으로 책상 위에 재미있는 풍경을 선사한다.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

세계 3대 디자인 거장으로 손꼽히는 이탈리아의 국보급 디자이너.

스와로브스키, 알레시, 까르띠에, 필립스, 에르메스, 스와치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제품을 디자인했으며, 전 세계 1000만 개 이상 판매된 와인 오프너

〈안나 G.〉가 바로 그의 대표작이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포스코, 롯데카드,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 등을 디자인해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 멘디니 타이디

ABS | 25,000원 | 에코그린, 퓨어화이트, 오렌지·블랙





desk editor series

데스크 에디터 시리즈

미메시스디자인에서 선보이는 최초의 잡화 시리즈로, 직장인을 위한 제품들로 구성된 <데스크 에디터 시리즈>이다. 미메시스디자인만의 비비드한 컬러감과 다양한 컬러 배색으로 고급스럽고 심플한, 그러면서도 기능적인 시리즈가 탄생했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이 매력적이다.

● 메모 패드 (속지 리필 가능)

PU, 클로스 | 21,000원 | 브라운, 베이지, 그린



● 명함 지갑 (속지 포함)

PU, PVC | 8,500원 | 블랙, 실버, 다홍, 네이비, 겨자, 터키



● 카드 지갑

PU | 26,000원 | 블랙, 실버, 다홍, 네이비, 겨자, 터키



● 스마트폰 케이스 (모든 기종 가능)

PU | 18,000원 | 블랙, 레드, 그린, 옐로우, 스카이블루, 오렌지



● 태블릿 PC 케이스

PU, 샤무드 | 40,000원 |

핑크, 옐로우, 그린, 오렌지, 스카이블루, 블랙



● 노트북 케이스

PU, 샤무드 | 46,000원 |

레드, 그린, 옐로우, 오렌지, 네이비, 스카이블루



● 노트북 케이스 - 옴므

PU, 샤무드 | 46,000원 | 블랙, 실버





writers' series

작가 시리즈

미메시스디자인은 미메시스의 출판 정신을 이어 받아, 출간된 도서의 표지를 차용하거나 열린책들/미메시스의 작가와 연계한 상품을 제작하고 있다.

● 1st. 장자크 상페 캘린더

A5 변형 | 종이 | 스프링 제본 | 12,000원 | 탁상용, 벽걸이용

● 2nd. 프로이트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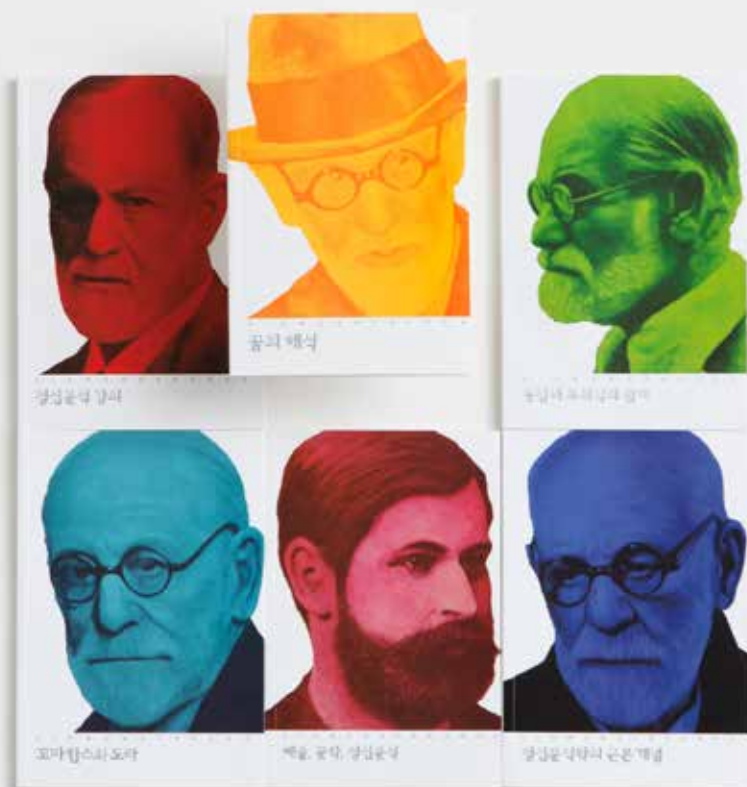
A5 변형 | 종이 | 2,800원 | 6종

● 3rd. 도스토옙스키 노트

A5 변형 | 종이 | 2,800원 | 6종

● 4th. 움베르토 에코 노트

A5 변형 | 종이 | 4,500원(2권 세트) | 6종



Misc.

● 오픈 노트 1st.

미니, 미디, 맥시, 맥시 버티컬 | 종이, 클로스 | 9,000원, 11,000원, 13,000원

블랙, 네이비, 오렌지, 레드, 옐로우그린



● 오픈 노트 2nd.

미니, 미디, 맥시, 맥시 버티컬 | 종이, 클로스 | 8,000원, 10,000원, 12,000원

월넛, 그린, 브라운



● 미메시스 노트

A5 변형 | 종이 | 4,500원(2권 세트)

바이올로우, 오란블루, 플럼그린, 팝



● 프로젝트 플래너

A5 변형, A4 | 클로스, 종이, PU | 12,000원, 16,000원

그린, 오렌지, 블루



● 스트링 노트

70×160 | 드라이보드, 종이 | 스프링 제본 | 6,000원

● 앵글 노트

130×130 | 드라이보드, 종이 | 스프링 제본 | 9,700원

● A5 파일

A5 | 종이 | 5,000원 | 옐로우, 바이올렛



● A4 파일

A4 | 종이 | 7,000원 | 옐로우, 바이올렛, 블루 플라워





B2B

아시아나항공

DAELIM MUSEUM



ktb 투자증권

국립현대미술관

아르코미술관
Arko Art Center

KYOBO 교보문고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한국출판인회의
Korea Publishers Society

푸른숲



한국만화영상진흥원

ARARIO



hp KMM

Interbrand



KEPCO E&C

samL ALLERGAN
Eye Care

JWP
Jwinpartners

efusioni

국립민속박물관 · 아시아나 항공 · 한국거래소 · CJ E&M · 국립현대미술관 · KTB투자증권 ·
국립국악원 ·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서울연구원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행복한 도서관 · 아라리오 · 인터브랜드 · 트라이씨클 · 소디움 파트너스 · 열린책들 · 교보문고 ·
푸른숲 · 한국출판인회의 · 해비치호텔 · 한양여자대학교 · 아이에스팩토리 · 신안정보통신 ·

mimesisdesign



WQoil
WOOLCHY.COM

KRX
KOREA EXCHANGE

INNO
CONSULTING

TRICYCLE

 **국립국악원**
National Gugak Center

Kim & Choi
t . 0 2 5 1 4 6 0 6 7

 **Haevichi**
hotel & resort

NYC **HITACHI**
HAENGTECH.CO.LTD. Inspire the Next
ENVIRONMENTAL TESTING APPARATUS

J'DEECUBRIC (주)디이큐브릭

 **국사편찬위원회**

HANYANG WOMEN'S UNIVERSITY

Sodiumpartners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Eden Marketing Corp.**

 **OEDO BOTANIA**
OEDO BOTANIC GARDEN
피드 보타니아

Hansol
한솔PNS

TJ international

HYUNDAI
MOTOR GROUP

공공프리즘
COMMUNITY DESIGN PRISM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Big Hit
Entertainment

 **NEXON**



슬티패밀리 · 한국엠코칭 · 크리스피바바 · SPC · 키미데이터 · JDEE CUBRIC · 제이원파트너스 · kesson ·
김앤초이 · 냉열 · 레오폴 · 이노컨설팅 · 이퓨전아이 · 907리버 · 에먼 마케팅 · 지오스 · 리니트코리아 ·
에스크모어 · 러비앙 · CNI 컨설팅 · 한솔PNS · 태진인터내셔널 · 현대자동차그룹 · 공공미술프리즘 · 외도
보타니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 넥슨 · 서울시립미술관

22

- 2월, 「심우현전: 심연의 리듬」(2.12-5.8)
- 5월, 「BOOK+IMAGE 11 감박과 사랑, 그리고 예술: 버지니아 울프, 프리다 칼로, 쿠사마 야요이 그래픽노블」, 전시 개최(5.13-7.3)
- 7월, 「고낙범 Color Code: 미메시스 컬렉션」, 전시 개최(7.6-8.7)
- 8월, 「윤재룡전: 어느 날의 조각들 03」(8.12-10.16)
- 9월, 「2022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삼성전자는 왜 반도체 공장마다 빼놓지 않고 몬드리안 벽화를 그렸을까?」, 강연 진행
- 10월, 미메시스 건축 강좌 「건축가 알바루 시자가 그린 시적 상상력」, 강연 진행
- 10월, 「MIMESIS AP5: 틈의 풍경 between, behind, beyond」, 개최(10.19-2023.1.24.)
- 12월, 「2022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세계는 왜 지금 한국 현대 미술에 주목하는가?」, 강연 진행
- 12월, MIMESIS AP5 전시 연계 라운드 토크 프로그램, 「시대의 수집과 탐구에서 예술로」, 토크쇼 진행
- 신간 총 18권, 총 263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고양이

포그, 나이스 캣 | 김희진 옮김
2022.12.20 | 144면 | B5 변형 | 22,000원

앙겔라 메르켈

우르줄라 바이덴펠트 | 박종대 옮김
2022.10.15 | 376면 | A5 변형 | 25,000원

경이감을 느끼는 아이로 키우기 (신판)

카트린 레퀴에 | 김유경 옮김
2022.10.1 | 192면 | A5 변형 | 15,800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신판)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2022.9.15 | 288면 | A5 변형 | 18,000원

안녕하세요, 성령님! (신판)

베니 힌 | 안준호 옮김
2022.9.15 | 304면 | A5 변형 | 18,000원

주식회사 르브론 제임스

브라이언 윈드호르스트 | 대니얼 김 옮김
2022.8.15 | 264면 | A5 변형 | 20,000원

뮤지엄 건축 기행

최우용
2022.7.10 | 304면 | 크라운판 변형 | 24,000원

트라우마 (신판)

주디스 루이스 허먼 | 최현정 옮김
2022.6.30 | 544면 | A5 변형 | 24,000원

식욕의 비밀

데이비드 로벤하이머, 스티븐 J. 심프슨 | 이한음 지음
2022.6.15 | 312면 | A5 변형 | 18,000원

버지니아 울프

리우바 가브리엘레 | 천지은 옮김
2022.6.15 | 128면 | B5 변형 | 16,800원

재생력

조성한
2022.5.15 | 264면 | B5 변형 | 24,000원

불안은 날마다 나를 찾아온다 (신판)

앤드리아 피터스 | 박다솔 옮김
2022.5.10 | 408면 | A5 변형 | 18,000원

저탄고지 바이블

아이버 커민스, 제프리 거버 | 이문영 옮김
2022.4.20 | 656면 | A5 변형 | 28,000원

사소하지만 쓸모 있는 건강법 (신판)

미셸 시메스, 파트리스 토크텐 | 이세진 옮김
2022.4.1 | 296면 | B6 변형 | 17,000원

코코넛 오일의 기적 (신판)

브루스 파이프 | 이원경 옮김
2022.3.15 | 368면 | A5 변형 | 18,000원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과 음식 (신판)

김경철, 김해영
2022.3.15 | 400면 | A5 변형 | 18,000원

필립 K. 딕

에마누엘 카레르 | 임호경 옮김
2022.2.25 | 520면 | A5 변형 | 25,000원

유령 이야기

세레빌라 콰엘로, 마우리치오 콰엘로 | 박세형 옮김
2022.1.5 | 136면 | B6 변형 | 12,800원

21

- 4월, 『BOOK+IMAGE 9 앤디 워홀 & 장미셀 바스키아』
개최(4.30~6.30)
- 6월, 『뎀 프로젝트 1: 김로와, 바다도 그림자가 있나요?』
전시 개최(6.30~7.11)
- 7월, 『뎀 프로젝트 2: 정해민, 수영장』 전시
개최(7.14~7.25)
- 7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전시 개최(7.14~9.12)
- 7월, 『뎀 프로젝트 3: 김수현, 오늘은 잘 모르겠어』 전시
개최(7.28~8.8)
- 8월, 『뎀 프로젝트 4: 조미형, 언타이를 플랜트』 전시
개최(8.11~8.22)
- 10월, 2022년 다이어리 10종 출시
- 11월, 열린책들의 새 브랜드
사람의집(전기/자서전/의학) 론칭, 『송해 1927』 첫 출간
- 11월, 『BOOK+IMAGE 10 도스토옙스키, 영혼의 탐험가』
개최(2021.11.4~2022.1.30)
- 12월, 『7월 14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1 우수 만화
도시) 선정
- 신간 총 9권, 총 245권 발행

1일無식

안드레아스 미할젠, 주잔 키르슈너 브라운스
박종대 옮김 | 2021.12.1 | 480면 | A5 변형 | 22,000원

송해 1927

송해, 이기남
2021.11.15 | 312면 | A5 변형 | 15,800원

죄와 벌

바스티앙 루키아 | 김희진 옮김
2021.11.10 | 176면 | A4 변형 | 18,800원

쿠사마 야요이

엘리사 마첼라리 | 김희진 옮김
2021.9.20 | 136면 | A5 변형 | 14,800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렌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 김수현 옮김
2021.8.5 | 256면 | B6 변형 | 13,800원

7월 14일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2021.7.10 | 256면 | B5 변형 | 20,000원

앤디 워홀

타이팩스 | 김마림 옮김
2021.3.15 | 564면 | B5 변형 | 35,000원

나 혼자

데이비드 스몰 | 김승일 옮김
2021.2.15 | 416면 | 크라운판 변형 | 22,000원

돈키호테

로페 데이비스 | 김마림 옮김
2021.1.15 | 296면 | B5 변형 | 22,000원

20

- 8월, 『BOOK+IMAGE 8 예술가의 삶』 개최(8.26~10.25)
- 10월, 『반 고흐,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아티스트 인 박스』 전시(10.9~11.29)
- 11월, 2021년 다이어리 8종 출시
- 11월, 『미메시스 아트 프로젝트 4: MINGLE 혼재』 전시 개최(2020.11.19~2021.2.14)
- **시간 총 8권, 총 236권 발행**

바스키아

파울로 파리시 | 김마림 옮김
2020.11.15 | 136면 | B5 변형 | 17,800원

상페의 음악

장자크 상페 | 양영란 옮김
2020.10.15 | 232면 | B5 변형 | 22,000원

나의 미녀 인생

프랑수아 베고도, 세실 기아르 | 김희진 옮김
2020.8.15 | 200면 | B5 변형 | 18,000원

우주 만두

크레이그 톨슨 | 박중서 옮김
2020.6.30 | 320면 | 크라운판 변형 | 22,000원

하찮은 취향

김기열
2020.3.10 | 200면 | B6 변형 | 16,800원

Reality, No Reality

리아 킴
2020.3.5 | 460면 | A5 변형 | 25,000원

앵무새 죽이기

프레드 포드햄 | 이상원 옮김
2020.2.20 | 288면 | B5 변형 | 22,000원

문래 금속가공 공장들의 문장 디자인

강수경
2020.1.20 | 408면 | 크라운판 변형 | 16,800원

19

- 1월, 주식회사 열린책들과 미메시스 정식 합병
- 4월, 주한 스위스 대사관 주축 건축 프로그램으로 『토레 다비드, 알프레도 브릴렘버그 내한 강연』(4.3)
- 4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BOOK+IMAGE 7 before reading』 전시 개최(4.28~6.23)
- 6월, 『미메시스 아트 프로젝트 2: 플랫폼, 낮 플랫폼』 전시 개최(6.27~8.11)
- 7월, 강릉아트센터 『다이얼로그: 북 앤 아트』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특별 초청전 개최(7.23~8.23)
- 9월, 용산 대원 콘텐츠 라이브에서 『오늘의 퀴즈』 유세윤, 유민하 북 콘서트(9.20)
- 10월, 열린책들 홍지웅 대표 〈은관문화훈장〉 서훈(10.11)
- 11월, 『프리다 칼로, 와 『재운의 삶』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9 우수 만화 도서〉 선정
- 11월, 2020년 다이어리 4종 출시
- 11월, 『미메시스 아트 프로젝트 3: 픽처레스크 시티』 전시 개최(2019.11.28~2020.1.27)
- 12월, 문화공간 피크닉 〈열린책들 겨울책방〉 개최(2019.12.6~2020.2.2)
- **시간 총 16권, 총 228권 발행**

은돌아, 산책 갈까?

라미
2019.12.25 | 224면 | A5 | 14,800원

드라큘라 치료

조성민
2019.12.10 | 400면 | A5 변형 | 13,800원

공간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WGNB, 윤형택
2019.11.25 | 280면 | 크라운판 변형 | 16,800원

반 고흐와 나

바바라 스톡 | 유동익 옮김
2019.11.10 | 160면 | B5 변형 | 14,800원

아는 척에 딱 좋은 단위 원소 수식

나이스크 | 위정훈 옮김
2019.11.5 | 360면 | A5 | 16,800원

오늘의 퀴즈

유세윤, 유민하
2019.8.25 | 320면 | B6 변형 | 12,000원

호텔 하데스

카타리나 그레베 | 박종대 옮김
2019.8.20 | 136면 | B5 변형 | 13,800원

재운의 삶

정재운
2019.7.11 | 144면 | A5 변형 | 13,800원

곰라벨

유정민
2019.4.30 | 304면 | B6 | 14,800원

프리다 칼로

반나 빈치 | 이현경 옮김
2019.4.25 | 160면 | B5 변형 | 15,800원

파더 판다

훗한나
2019.4.20 | 200면 | B5 변형 | 14,800원

도스토옙스키

비탈리 콘스탄티노프 | 박종대 옮김
2019.3.30 | 72면 | 크라운판 변형 | 12,800원

지금, 여기, 프랑스

김선미
2019.3.25 | 368면 | A5 변형 | 14,800원

삶이 예술이 되는 공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은영
2019.2.28 | 432면 | 크라운판 변형 | 22,000원

살갓

그자비에 위사 | 윤진 옮김
2019.1.20 | 256면 | B5 변형 | 25,000원

큐레이팅을 말하다

송미숙 외 28인
2019.1.15 | 448면 | B6 변형 | 22,000원

● 4월, 『BOOK+IMAGE 5 다이얼로그: 북 앤 아트』 전시
개최(4.13~6.24)

● 5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수상한 미술관-미메시스 어린이 건축가〉
진행(4.28~10.27)

● 5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인문학당 〈문제적 건축:
한국 건축 이대로 괜찮은가〉 강연 개최(5.19~6.24)

● 6월, 테이크아웃 시리즈 20권 발행

● 6월, 미메시스 아트 앤 칠드런 마켓 개최

● 6월, 유아 문화예술교육 〈건축놀이: 너만의 공간
만들기〉 사업 진행(6.1~11.30)

● 6월, 『시각서사: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컬렉션』 전시
개최(6.30~11.11)

● 8월, 『피카소』 클레망 우브르리 부천국제만화축제
참가

● 8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 갤러리

『다이얼로그: 북 앤 아트』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특별
초청전 개최(8.10~8.28)

● 9월, 『BOOK+IMAGE 6 인수만: 무심한 거리』
출아서, 사진전 개최(9.15~11.11)

● 10월, 『블랙박스』 이토 시오리 방한, 『한겨레』 단독
인터뷰

● 10월, 파주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미메시스 아트 스쿨〉 교육 프로그램 진행(10.13~11.24)

● 11월, 2019년 다이어리 6종 출시

● 11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인문학당 〈문제적 건축:
한국 건축 이대로 괜찮은가〉 강연 개최(11.3~11.24)

● 12월, 테이크아웃 시리즈(총 20권) 완료

● 12월, 『미메시스 아트 프로젝트 1: 리얼리티 쇼』 전시
개최(2018.11.28~2019.1.13)

● 12월, 『출판사를 만들다 열린책들을 만들다』 제24회
한국 출판 평론상 대상 수상(12.28)

● 시간 총 35권, 총 212권 발행

사소하지만 쓸모 있는 뇌 사용법
미셀 시메스, 파트리스 룬덴 | 이세진 옮김
2018.12.15 | 344면 | B6 변형 | 17,000원

아무도 없는 숲
김이환, 박혜미
2018.12.1 | 96면 | A6 변형 | 8,800원

부케를 발견했다
최정화, 이빈소연
2018.12.1 | 80면 | A6 변형 | 7,800원

이코
정용준, 무나씨
2018.12.1 | 96면 | A6 변형 | 8,800원

목격
김엄지, 람한
2018.11.1 | 80면 | A6 변형 | 7,800원

꿈은, 미니멀리즘
은모든, 아방
2018.11.1 | 88면 | A6 변형 | 7,800원

목견
임현, 김혜리
2018.11.1 | 72면 | A6 변형 | 6,800원

누나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2018.10.10 | 216면 | B5 변형 | 19,800원

끓인 콩의 도시에서
한유주, 오혜진
2018.10.1 | 80면 | A6 변형 | 7,800원

팬텀 이미지
정지돈, 최지수
2018.10.1 | 80면 | A6 변형 | 7,800원

문학의 새로운 세대
손아람, 성립
2018.10.1 | 88면 | A6 변형 | 7,800원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다
체스터 브라운 | 이원경 옮김
2018.9.15 | 320면 | B6 변형 | 16,800원

박찬용: 조각가로 산다는 것
2018.9.1 | 200면 | 크라운판 변형 | 20,000원

몫
최은영, 손은경
2018.9.1 | 80면 | A6 변형 | 7,800원

비상문
최진영, 변영근
2018.9.1 | 88면 | A6 변형 | 7,800원

사랑하는 토끼 머리에게
오한기, 이소냐
2018.9.1 | 80면 | A6 변형 | 7,800원

무심한 바다가 좋아서
임수민
2018.8.10 | 424면 | B6 변형 | 14,800원

부산 이후부터
황현진, 신모래
2018.8.1 | 80면 | A6 변형 | 7,800원

뷰티-풀
박민정, 유지현
2018.8.1 | 76면 | A6 변형 | 6,800원

오늘 내 기분은요
황정하
2018.7.20 | 520면 | B6 | 12,800원

정선

최은미, 최지옥
2018.7.1 | 72면 | A6 변형 | 6,800원

우리는 사랑했다

강화길, 키미앤일이
2018.7.1 | 88면 | A6 변형 | 7,800원

밤이 아홉이라도

전석순, 훗한나
2018.7.1 | 148면 | A6 변형 | 9,800원

사소하지만 쓸모 있는 건강법

미셸 시메스, 파트리스 롱덴 | 이세진 옮김
2018.6.20 | 296면 | B6 변형 | 15,000원

우리집 강아지

김학찬, 권신희
2018.6.1 | 80면 | A6 변형 | 7,800원

춤추는 사진

배명훈, 노상호
2018.6.1 | 80면 | A6 변형 | 7,800원

섬의 애슬리

정세랑, 한예를
2018.6.1 | 96면 | A6 변형 | 7,800원

블랙박스

이토 시오리 | 김수현 옮김
2018.5.25 | 252면 | A5 변형 | 13,800원

개념에서 건축으로

김준성
2018.5.1 | 432면 | 크라운판 변형 | 26,000원

표범

브레흐트 에번스 | 임영주 옮김
2018.4.20 | 132면 | A4 변형 | 22,000원

식물 그리고 사람

손정민
2018.3.30 | 176면 | A5 | 15,800원

미술을 알아야 산다

정장진
2018.3.20 | 432면 | B6 변형 | 22,000원

오르부아르

피에르 르메트르, 크리스티앙 드 메테르 | 임호경 옮김
2018.2.25 | 176면 | B5 변형 | 16,800원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박은영
2018.1.25 | 384면 | B6 변형 | 16,800원

한국 동시대 미술 1998-2009

반이정
2018.1.10 | 224면 | B6 변형 | 25,000원

17

● 5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미메시스 어린이 건축가 진행(5.13-11.18)

● 5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인문학당: 예술 인문학〉

강연 개최

● 6월, 서울국제도서전 참가

● 6월, 『이재삼전: 달빛』(6.17-8.27)

● 8월, 크레이그 톰슨 부천국제만화축제 참가

● 8월, 『피카소』 부천국제만화축제 해외 작품상 수상

● 10월, 『김태훈전: 사라진 풍경』(10.21-12.17)

● 11월, 2018년 다이어리 총 4종 출시

● 신간 18권, 총 177권 발행

출판사를 만들다 열린책들을 만들다

홍지웅, 열린책들 편집부

2017.12.1 | 576면 | B6 변형 | 12,500원

나를 발견한 순간

제프 베스파, 로빈 브론크 | 김마림 옮김

2017.11.20 | 224면 | A5 변형 | 22,000원

한국 건축의 정체성

이상현

2017.11.15 | 512면 | A5 변형 | 22,000원

건축의 색

이선민

2017.10.25 | 256면 | A5 신판 | 19,800원

수상한 레스토랑 세컨즈

브라이언 리 오말리 | 박종서 옮김

2017.10.10 | 328면 | A5 변형 | 25,000원

내가 말해 줄게요

강주은

2017.8.25 | 416면 | A5 변형 | 13,800원

코메프리마: 예전처럼

알프레드 | 이상해 옮김

2017.7.15 | 232면 | B5 변형 | 19,800원

여기서

리처드 맥과이어 | 홍유진 옮김

2017.6.30 | 304면 | B5 변형 | 16,800원

조각가

스콧 맥클라우드 | 김마림 옮김

2017.6.10 | 496면 | 크라운판 변형 | 25,000원

스노우캣의 내가 운전을 한다

스노우캣

2017.5.20 | 256면 | B6 변형 | 13,800원

미술과 문학의 파타피지컬리즘

이광래

2017.4.25 | 624면 | A5 신판 변형 | 29,800원

우리의 미니멀 생활 일기

SE 편집부 | 오연경 옮김

2017.3.20 | 280면 | B6 변형 | 13,800원

이비쿠스

파스칼 라바테 | 이상해 옮김

2017.3.20 | 536면 | 크라운판 변형 | 25,000원

제여란: 그리기에 관하여

제여란

2017.3.10 | 216면 | 크라운판 변형 | 20,000원

일상 속의 성차별

로라 베이츠 | 안진이 옮김

2017.2.15 | 424면 | A5 변형 | 16,800원

바스티앙 비베스 블로그 2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2017.1.20 | 592면 | B5 변형 | 18,000원

온라인 걸, 투어를 떠나다

조이 서그 | 허원 옮김

2017.1.15 | 480면 | B6 변형 | 13,800원

온라인 걸, 사랑에 빠지다

조이 서그 | 허원 옮김

2017.1.15 | 492면 | B6 변형 | 13,800원

16

- 2월, 미메시스 신사옥 완공
- 2월, 미메시스 물류 센터 오픈
- 3월, 『예술 판독기』 반이정 강연회
- 4월, 2016 인문학당 <예술 속 인문학> 강연 기획
- 5월, 『싱글로 산다』 출간 기념, 발리로 간다 이벤트
- 5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교육 프로그램 진행(5.7-10.29)

- 6월, 미메시스 문화 공간 (M314) 오픈
- 6월, 미메시스 아트 플리마켓 개최
- 7월, <M314> 키즈 아트 클래스 기획
- 8월, 『재여란전: 그리기에 대하여』 (8.20-10.3)
- 8월, <M314> 파트너, 키즈 패션 브랜드 The Animal

Observatory 소름 개최

- 10월, <M314> 2016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 <히트예감브랜드> 선정

- 12월, 석윤이 디자이너 한국출판인회의 2016

<올해의 출판인상> 디자인상 수상

- 12월, 석윤이 디자이너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

그래픽 부문상 수상

- 신간 17권, 총 159권 발행

한국의 촬영 감독들

(사)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2016.12.25 | 496면 | 크라운판 변형 | 28,000원

디자인의 예술

도미니크 포레스트 외 6인 | 문경자, 이원경, 임명주 옮김

2016.11.20 | 928면 | 크라운판 변형 | 58,000원

파카소의 파리

젤리 비르망, 클레망 우브르리, 네빌 로울리 | 임명주 옮김

2016.10.25 | 144면 | B5 변형 | 14,800원

파카소

젤리 비르망, 클레망 우브르리 | 임명주 옮김

2016.10.25 | 364면 | B5 변형 | 25,000원

모터사이클로 유라시아

손현

2016.9.10 | 496면 | B6 변형 | 15,800원

건축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비톨트 랍친스키 | 서경욱 옮김

2016.7.15 | 416면 | 크라운판 변형 | 28,000원

글로벌 아트마켓 크리틱

정연심 외 8인

2016.6.30 | 240면 | A5 | 18,000원

시호와 러스티

백수현

2016.6.20 | 240면 | B6 변형 | 13,800원

비우

이대미

2016.5.30 | 220면 | 크라운판 변형 | 14,800원

싱글로 산다

리즈 투칠로 | 김마림 옮김

2016.5.30 | 630면 | A6 변형 | 14,800원

콩고

크리스티앙 페리생, 톰 티라보스코 | 양영란 옮김

2016.3.30 | 184면 | B5 변형 | 16,800원

광고로 읽는 미술사

정창진

2016.3.20 | 340면 | 크라운판 변형 | 16,800원

예술 판독기

반이정

2016.2.20 | 360면 | A5신판 변형 | 22,000원

미술 철학사 3

이광래

2016.2.15 | 832면 | A5신판 변형 | 28,000원

미술 철학사 2

이광래

2016.2.15 | 832면 | A5신판 변형 | 28,000원

미술 철학사 1

이광래

2016.2.15 | 992면 | A5신판 변형 | 28,000원

스트리트 페인터

수신지

2016.1.30 | 592면 | B5 | 14,800원

15

- 3월, 『미술기전』 (3.7-5.5)
- 4월, 미메시스 신사옥 착공
- 5월, 『Paint It, 전/ 강영민의 〈만국기 그리기〉와 오연경의 〈컬러링 놀이〉』 (5.1-5.31)
- 5월, 미메시스 아트 플리마켓 〈M, Market〉 개최
- 8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교육 프로그램 기획 〈미메시스 키즈룸〉
- 8월, 『박은하전: 완전한 유물』 (8.8-8.30)
- 8월, 『강석호전: 독백』 (8.8-9.29)
- 9월, 『전미래전: 삼합, 발효의 연식술』 (9.5-9.29)
- 10월, 미메시스 아트 플리마켓 〈M, Market〉 개최
- 10월, 『이세현전: 레드-개공』 (10.10-12.20)
- 11월, 『최초의 인간 일러스트』, 〈올해의 청소년 교양 도서〉 가을 분기 선정
- 12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건축 프로그램 〈미메시스 강의실〉 기획
- 12월, 『데일리 픽션』과 아이폰6/6s 케이스 세트 발매
- 12월, 미메시스 신사옥 준공
- 신간 26권, 총 142권 발행
- 문구 총 31종 발매

내 친구 다미

더프 백더프 | 강수정 옮김
2015.12.30 | 224면 | 크라운판 변형 | 16,800원

여장 남자와 살인자

클로에 크뤼소데 | 김희진 옮김
2015.12.25 | 168면 | 크라운판 변형 | 18,000원

데일리 픽션

노상호
2015.11.30 | 248면 | A5 변형 | 17,000원

부자들의 폭력

미셸 랑송, 모니크 랑송-샤를로 | 이상해 옮김
2015.11.25 | 280면 | B5 변형 | 19,800원

리얼리스트

아사프 하누카 | 이예원 옮김
2015.10.25 | 128면 | 크라운판 변형 | 13,800원

토레 다비드

알프레도 브릴렘버그, 후베르트 클롬프너,
여반 싱크 탱크, 이반 반 | 김마림 옮김
2015.10.10 | 480면 | 크라운판 변형 | 28,000원

유료 서비스

체스터 브라운 | 이원경 옮김
2015.9.30 | 304면 | A5 변형 | 19,800원

거대한 수염을 가진 남자

스티븐 콜린스 | 이경아 옮김
2015.8.25 | 240면 | 크라운판 변형 | 16,800원

요령 있게 삼시다

덴 마셜 | 안진이 옮김
2015.8.20 | 304면 | B6 변형 | 12,000원

앤디 워홀의 철학 (신판)

앤디 워홀 | 김정신 옮김
2015.8.15 | 288면 | A5 변형 | 16,800원

일러스트 공산당 선언 · 공산주의 원리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페르난도 비센테 | 박종대 옮김
2015.8.10 | 184면 | B6 변형 | 11,800원

자꾸 생각나

송아람
2015.7.15 | 620면 | B6 변형 | 15,800원

파리의 스노우캣

스노우캣
2015.6.20 | 176면 | 크라운판 변형 | 13,800원

뉴욕의 스노우캣

스노우캣
2015.6.20 | 204면 | 크라운판 변형 | 13,800원

스노우캣의 혼자 놀기

스노우캣
2015.6.20 | 112면 | 크라운판 변형 | 12,800원

스노우캣의 지우개

스노우캣
2015.6.20 | 164면 | 크라운판 변형 | 13,800원

자살 특공대 피자 가게

에트가르 케레트, 아사프 하누카 | 이원경 옮김
2015.6.10 | 104면 | AB판 변형 | 13,800원

스칸디나

헬레나 슈츠 | 홍유진 옮김
2015.5.20 | B5 변형 | 16,800원

대면

마누엘레 피오르 | 김희진 옮김
2015.5.10 | 176면 | 크라운판 변형 | 14,800원

라스트맨 2

발락, 상라빌, 비베스 | 김희진 옮김
2015.4.10 | 216면 | A5 | 9,800원

라스트맨 1

발락, 상라빌, 비베스 | 김희진 옮김
2015.4.10 | 216면 | A5 | 9,800원

세계 영화 대사전

제프리 노웰 스미스 외 | 이순호 외 옮김
2015.3.20 | 1000면 | A4 변형 | 32,000원

프린트 & 패턴 키즈

보위 스타일 | 안진이 옮김
2015.3.5 | 304면 | 크라운판 변형 | 19,800원

하우스와이프 2.0

에밀리 맷차 | 허원 옮김
2015.3.5 | 432면 | B5 변형 | 16,800원

뮤지컬 (신판)

스티븐 시트론 | 정재왈, 정영주 옮김
2015.2.25 | 411면 | 크라운판 변형 | 28,000원

인티사르의 자동차

페드로 리에라, 나초 카사노바 | 엄지영 옮김
2015.2.10 | 208면 | 크라운판 변형 | 16,800원

수중 용접공

제프 르미어 | 박중서 옮김
2015.1.15 | 224면 | 크라운판 변형 | 15,800원

나를 디자인하라

카림 라시드 | 이종인 옮김
2015.1.10 | 312면 | 크라운판 변형 | 16,800원

일러스트레이터의 컬러링북

오연경
2015.1.1 | 192면 | B6 | 7,500원

14

- 3월, 『박찬용 조각전』 (3.1-5.11)
- 5월, 『BOOK+IMAGE 4 알베르토 아후벨 그림전 / 오연경: 『일러스트레이터의 물건』 원화전』 (5.17-6.15)
- 6월, 『홍순명전: 스펙터클의 여백』 (6.28-8.28)
- 9월, 『민병현전』 (9.6-12.14)
- 10월, 2015년 다이어리 31종 출시
- 11월, 미메시스 첫 e-book 『최초의 인간 일러스트』
- 신간 25권, 총 116권 발행
- 문구 총 31종 출시

달리

보두앵 | 윤진 옮김
2014.12.1 | 168면 | A4 변형 | 16,800원

가을

존 맥노트 | 홍유진 옮김
2014.11.20 | 64면 | A4 변형 | 12,800원

반 고흐

바바라 스톡 | 이예원 옮김
2014.11.10 | 144면 | 크라운판 변형 | 13,800원

최초의 인간 일러스트

알베르 카뮈, 호세 무노스 | 김화영 옮김
2014.10.20 | 400면 | 크라운판 변형 | 14,800원

포르투갈

시릴 페드로사 | 배영란 옮김
2014.10.10 | 264면 | A4 변형 | 22,800원

타인들의 드라마 #04: 삶이 좀 엉켰어

토마 고슬랭 외 | 김희진 옮김
2014.10.10 | 224면 | B5 변형 | 16,800원

일본의 제품 디자인

나오미 토크 | 객재은 옮김
2014.9.15 | 304면 | 크라운판 변형 | 28,000원

몽크

스테판 크베넬란 | 권세훈 옮김
2014.9.15 | 288면 | A4 변형 | 22,000원

방사성

로렌 레드니스 | 이경아 옮김
2014.8.20 | 208면 | A4 변형 | 17,800원

버스

폴 커시너 | 이예원 옮김
2014.8.4 | 208면 | A4 변형 | 10,800원

다운타운

노엘 랑, 로드리고 가르시아 | 엄지영 옮김
2014.7.30 | 136면 | AB판 변형 | 12,800원

코코넛 오일의 기적

브루스 파이프 | 이원경 옮김
2014.7.15 | 320면 | B6 변형 | 14,500원

건축적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서경옥 외
2014.7.5 | 512면 | 크라운판 변형 | 28,000원

예쁜 여자

권용득
2014.6.30 | 192면 | 크라운판 변형 | 12,800원

안녕, 청키 라이스

크레이그 톰슨 | 박중서 옮김
2014.6.5 | 128면 | A5신판 변형 | 9,800원

브라보, 나의 삶

보두앵, 트롭스 | 정혜용 옮김
2014.5.25 | 136면 | 크라운판 변형 | 12,800원

일러스트레이터의 물건

오연경
2014.5.10 | 496면 | B5 변형 | 20,000원

늑대 인간

리차드 아피나네시, 스와바 하라시모비치 | 이예원 옮김
2014.4.25 | 176면 | 크라운판 변형 | 15,000원

아이웨이웨이 블로그

아이웨이웨이, 리 엠브로지 | 오숙은 옮김
2014.4.15 | 250면 | B6 변형 | 25,000원

13

봄꽃도 한때

노영미, 서윤아, 박문영, 이지나, 심홍아
2014.4.5 | 240면 | 크라운판 변형 | 9,800원

상페의 어린 시절

장자크 상페 | 양영란 옮김
2014.3.25 | 288면 | B5 변형 | 22,000원

에펠 스타일

마르틴 뱅상, 브리짓 뒤리외 | 배영란 옮김
2014.2.25 | 280면 | B5 변형 | 26,000원

늑대의 꼬리

마리노 네리 | 천지는 옮김
2014.2.20 | 144면 | A5 변형 | 9,800원

왜 책을 만드는가

맥스 위니스 편집부 | 박중서, 곽재은 옮김
2014.1.22 | 408면 | 크라운판 변형 | 26,800원

예술 애호가들

브레흐트 에번스 | 박중서 옮김
2014.1.20 | 224면 | A4 변형 | 22,000원

● [미메시스 통합 홈페이지 www.mimesisart.co.kr](http://mimesisart.co.kr) 오픈

● 2월, 『타인들의 드라마』 시리즈 출간 시작

● 2월, 미메시스 그래픽노블 홍보 매체 『리트머스』 2호 발행

● 4월, 『BOOK+IMAGE 3 이혜순: 니코스 카잔차키스 전집 원화전』 (4.9-6.9), 『박지화전: 시아Horizon』 (4.9-6.30)

● 10월, 『정지성전』 (10.5-11.17)

● 11월 18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으로 미술관 정식 등록

● 11월, 『불안: 포르투갈적 표현 양식들』 (2013.11.26-2014.2.9)

● 12월, 『정지성전』, 『중앙일보』 선정 <올해의 전시> 3위

● 신간 18권, 총 91권 발행

● 문구 총 34종 출시

아버지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

유디트 바니스텐달 | 이원경 옮김
2013.12.20 | 280면 | 크라운판 변형 | 16,800원

짜 이론 남녀는 서로 사랑한다

프레데릭 파작, 레아 룬트 | 정혜용 옮김
2013.12.15 | 388면 | A5 변형 | 13,800원

그래픽 모비 딕

맷 키시 | 강수정 옮김
2013.11.30 | 608면 | 크라운판 변형 | 32,000원

센티멘탈 포르노그래피

지미 불리외 | 이상해 옮김
2013.11.15 | 292면 | A5 변형 | 16,800원

프린트&패턴

보위 스타일 | 안진이 옮김
2013.10.28 | 624면 | 크라운판 변형 | 35,000원

타인들의 드라마 #03: 들통 날 거짓말

뱅상 소렐 외 | 김희진 옮김
2013.10.15 | 224면 | B5 변형 | 16,800원

파란색은 따뜻하다

켈리 마로 | 정혜용 옮김
2013.9.9 | 160면 | A5 | 14,800원

바스티앙 비베스 블로그

바스티앙 비베스 | 김희진 옮김
2013.8.15 | 144면 | B5 변형 | 12,800원

12

내 눈 안의 너

바스티앙 비베스 | 그레고리 림펜스 옮김
2013.8.5 | 136면 | B5 변형 | 14,800원

하비비

크레이그 톰슨 | 박중서 옮김
2013.7.20 | 672면 | 크라운판 변형 | 24,800원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4: 생기론

장용순
2013.5.20 | 256면 | 크라운판 변형 | 15,000원

위털루와 트라팔가르

올리비에 탈레코
2013.5.25 | 64면 | B5 변형 | 13,000원

한 사람

레이 폭스 | 이원경 옮김
2013.5.25 | 176면 | A4 변형 | 14,800원

미술관이 된 시자의 고양이

홍지웅
2013.5.11 | 640면 | 크라운판 변형 | 18,000원

만화가의 여행

크레이그 톰슨 | 박중서 옮김
2013.4.30 | 228면 | A5 신판 | 12,800원

타인들의 드라마 #02: 수상한 친구들

마누엘레 피오르 외 | 김희진 옮김
2013.4.30 | 224면 | B5 변형 | 16,800원

최악의 동반자

장피에르 필리유, 다비드 베 | 임순정 옮김
2013.3.30 | 128면 | B5 변형 | 14,800원

타인들의 드라마 #01: 로또 맞은 여대생

바스티앙 비베스 외 | 김희진 옮김
2013.2.25 | 224면 | B5 변형 | 16,800원

● 4월, 미메시스 그래픽노블 홍보 매체 『리트머스』 1호 발행

● 5월, 주식회사 미메시스 법인 설립, 미메시스 출판사 / 미메시스디자인 /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독립 운영 체제로 통합

● 5월, 『BOOK+IMAGE 2 석유아: 움베르토 에코, 마니아 컬렉션 원화전』(5.4-11.25)

● 6월, <미메시스디자인> 첫 문구 디자인 공모전 「Designed By」 1회 개최

● 11월, 『담요』로 크레이그 톰슨의 그래픽노블 출간 시작

● 신간 15권, 총 73권 발행

● 문구 총 82종 출시

출

스티븐 홀 | 이원경 옮김
2012.12.5 | 416면 | 크라운판 변형 | 25,000원

담요

크레이그 톰슨 | 박여영 옮김
2012.11.20 | 592면 | B5 변형 | 24,800원

좌충우돌 뽀글의 북 디자인 이야기

폴 버클리 | 박중서 옮김
2012.10.15 | 376면 | B5 변형 | 24,000원

그해 여름

다비데 레비아티 | 임순정 옮김
2012.9.20 | 352면 | B5 변형 | 19,800원

너 좋아한 적 없어

체스터 브라운 | 김영준 옮김
2012.8.15 | 196면 | A5신판 | 13,000원

똑똑, 리틀 맨

체스터 브라운 | 김희진 옮김
2012.8.15 | 192면 | A5신판 | 13,000원

여임

이화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 대학원
2012.8.15 | 548면 | B5 변형 | 19,800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거장들

데이비드 다운턴 | 안진이 옮김
2012.6.25 | 224면 | A4 변형 | 28,000원

11

3그램

수신지
2012.5.20 | 184면 | B6 변형 | 12,800원

세 개의 그림자

시릴 페드로사 | 배영란 옮김
2012.4.25 | 280면 | B5 변형 | 15,000원

디스코 하렘

브레흐트 에번스 | 최현아 옮김
2012.3.20 | 192면 | A4 변형 | 19,800원

뉴욕의 상폐

장자크 상페 | 허지은 옮김
2012.3.5 | 344면 | B5 변형 | 24,000원

바늘땀

데이비드 스몰 | 이에원 옮김
2012.1.30 | 328면 | 크라운판 변형 | 16,800원

유혹하는 자전거

미하엘 엠바허 | 남영성 옮김
2012.1.30 | 224면 | A4 변형 | 28,000원

초현실주의 선언

앙드레 브르통 | 황현산 옮김
2012.1.20 | 296면 | 크라운판 변형 | 18,000원

● 1월, 70년 전통의 이탈리아 건축 전문지 『카사벨라』에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14면에 걸쳐 소개

● 10월, 『BOOK+IMAGE 1 고낙범: 지그문트 프로이트

표지화전』(2011.10.1-2012.4.29)

● 시간 16권, 총 58권 발행

● 문구 총 57종 출시

위대한 전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플라 마린콜라 | 조주현 옮김
2011.12.30 | 256면 | 크라운판 변형 | 16,000원

플리나

바스티앙 비베스 | 임순정 옮김
2011.12.20 | 208면 | A4 변형 | 18,000원

이탈리아 일기 1

다비드 베 | 임미경 옮김
2011.11.25 | 160면 | B5 변형 | 13,000원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3: 용해와 내재성

장용순
2011.11.15 | 264면 | 크라운판 변형 | 15,000원

건축은 왜 중요한가

폴 골드버거 | 윤길순 옮김
2011.10.15 | 304면 | 크라운판 변형 | 18,000원

엘제 양

마누엘레 피오르 | 김희진 옮김
2011.10.10 | 88면 | B5 변형 | 12,500원

아이웨이웨이

한스 올리히 오브리스트 | 윤길순 옮김
2011. 9. 25 | 288면 | B6 | 9,800원

유리의 도시

폴 카라식, 데이비드 마추켈리 | 황보석 옮김
2011.9.10 | 152면 | B5 변형 | 10,800원

10

파스타의 기하학

제이콥 케네디, 카즈 윌드브란트 | 차유진 옮김
2011.8.20 | 288면 | B5 변형 | 18,000원

사랑은 혈투

바스티앙 비베스 | 그레고리 림펜스, 이해정 옮김
2011.8.5 | 96면 | A5 변형 | 9,800원

초속 5000킬로미터

마누엘레 피오리 | 김희진 옮김
2011.8.5 | 148면 | B5 변형 | 12,500원

곰

뱅상 소렐 | 김희진 옮김
2011.4.30 | 128면 | B5 변형 | 9,800원

메즈 예게른

파울로 코시 | 이현경 옮김
2011.4.25 | 144면 | B5 변형 | 9,800원

안도 다다오

안도 다다오 | 송태욱 옮김
2011.4.25 | 400면 | 크라운판 변형 | 25,000원

논쟁이 있는 사진의 역사

다니엘 지라르맹, 크리스티앙 피르케르 | 정진국 옮김
2011.4.10 | 320면 | A3 | 39,000원

에식스 카운티

제프 르미에 | 박중서 옮김
2011.1.15 | 512면 | B5 변형 | 26,800원

- 1월, 『게리』를 시작으로 <건축가 시리즈> 출간
- 2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월페이퍼』에 서울의 뛰어난 건축물의 하나로 소개
- 3월, 바스티앙 비베스의 『염소의 맛』으로 첫 그래픽노블 출간
- 5월 8일, 문구 회사 <미메시스디자인> 설립
- 8월, <미메시스디자인>의 첫 시리즈 <오픈 노트 시리즈> 출시
- 10월, 알레산드로 멘디니와의 콜라보레이션 제품 <멘디니 타이디> 출시
- 11월, 미메시스 아트 하우스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
- 12월 17일, 출판사업부 공간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지하층으로 통합
- 시간 9권, 총 42권 발행
- 문구 총 37종 출시

아스테리오스 폴립

데이비드 마추켈리 | 박중서 옮김
2010.12.15 | 344면 | A4 | 26,800원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2: 은유와 생성

장용순
2010.11.25 | 280면 | 크라운판 변형 | 15,000원

강의 왕

마리노 네리 | 이현경 옮김
2010.11.25 | 80면 | B5 | 6,800원

누드 사진

파스칼 바텐스 | 김문호 옮김
2010.10.30 | 256면 | A4 | 38,000원

칸

데이비드 B. 브라운리, 데이비드 G. 드 롱 | 김희진 옮김
2010.7.10 | 288면 | 크라운판 변형 | 18,000원

라이트

브루스 브룩스 파이프 | 이종인 옮김
2010.5.10 | 256면 | 크라운판 변형 | 18,000원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1: 위상학

장용순
2010.4.30 | 288면 | 크라운판 변형 | 15,000원

염소의 맛

바스티앙 비베스 | 그레고리 림펜스, 이해정 옮김
2010.3.31 | 144면 | B5 | 12,800원

게리

밀드레드 프리드먼 | 이종인 옮김
2010.1.15 | 240면 | 크라운판 변형 | 15,000원

09

- 5월, 미메시스 아트 하우스 오픈
- 6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완공
- 『앤디 워홀 일기』 제50회 『한국일보』 출판문화상 편집상 수상
- 〈아르코 시리즈〉 총 4권 완간
- 신간 4권, 총 33권 발행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영범
2009.12.1 | 376면 | B5 변형 | 18,000원

앤디 워홀 일기

앤디 워홀, 팻 해켓 | 홍예빈 옮김
2009.8.10 | 980면 | A4 변형 | 45,000원

건축을 말한다

에이드리언 포트 | 이종인 옮김
2009. 5. 10 | 552면 | B5 변형 | 30,000원

한국의 예술 지원사

류주희 외
2009. 2. 28 | 392면 | B5 변형 | 15,000원

08

- 8월, 『지역 예술 운동』을 시작으로 〈아르코 시리즈〉 출간
- 신간 3권, 총 29권 발행

나를 디자인하라

카림 라시드 | 이종인 옮김
2008.12.30 | 272면 | A5신판 | 12,800원

공공성

현진권 외
2008.12.10 | 300면 | A5신판 | 12,000원

지역 예술 운동

젠 코언 크루즈 | 권영진 옮김
2008.8.22 | 328면 | A5신판 | 12,000원

07

- 12월, <테마와 운동 시리즈>의 『미술과 페미니즘』, 『예술가의 몸』 출간
- 신간 11권, 총 26권 발행

예술가의 몸

아멜리아 존스 | 심철웅 옮김
2007.12.31 | 304면 | 규격외 | 68,000원

레제르 2

레제르 | 이재형 옮김
2007.12.30 | 308면 | A4 | 22,000원

레제르 1

레제르 | 최영선 옮김
2007.12.30 | 248면 | A4 | 18,000원

미술과 페미니즘

헬레나 레킷, 페기 펄런 | 오숙은 옮김
2007.8.30 | 304면 | 규격외 | 68,000원

예술사란 무엇인가

다니엘 라구트 | 정창진 옮김
2007.8.20 | 288면 | B5 변형 | 12,000원

앤디 워홀의 철학

앤디 워홀 | 김정신 옮김
2007.5.10 | 280면 | A5 변형 | 15,000원

뮤지컬

스티븐 시트론 | 정재철, 정명주 옮김
2007.4.20 | 416면 | 크라운판 변형 | 25,000원

미치광이 사촌들

에드워드 고리 | 박수진 옮김
2007.1.30 | 32면 | A5 변형 | 6,500원

독이 든 사탕

에드워드 고리 | 이예원 옮김
2007.1.30 | 56면 | A5 변형 | 6,500원

오래전의 방문

에드워드 고리 | 이예원 옮김
2007.1.30 | 64면 | A5 변형 | 6,500원

비밀 다락방

에드워드 고리 | 이예원 옮김
2007.1.30 | 124면 | A5 변형 | 6,500원

06

- 9월 30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공사 시작
- 『불운한 아이』를 시작으로 에드워드 고리 만화 출간 시작
- 신간 12권, 총 15권 발행

이상한 소파

에드워드 고리 | 윤희기 옮김
2006.12.30 | 64면 | A5 변형 | 6,500원

불운한 아이

에드워드 고리 | 이형식 옮김
2006.12.30 | 64면 | A5 변형 | 6,500원

쓸모 있는 조언

에드워드 고리 | 이형식 옮김
2006.12.30 | 64면 | A5 변형 | 6,500원

월로데일 핸드카

에드워드 고리 | 이예원 옮김
2006.12.30 | 64면 | A5 변형 | 6,500원

말의 색깔

마르그리트 뒤라스 | 유지나 옮김
2006.9.10 | 264면 | B5 변형 | 15,000원

섹슈얼리 이노션트

김종만
2006.7.25 | 112면 | B4 변형 | 50,000원

성서의 역사

크리스토퍼드 하멜 | 이종인 옮김
2006.6.20 | 352면 | A5 변형 | 45,000원

제로

마쓰다 유카마사 | 고현진 옮김
2006.6.5 | 288면 | A5 변형 | 18,000원

조르조 바사리

롤랑 르 몰레 | 임호경 옮김
2006.4.25 | 688면 | A5 변형 | 28,000원

유리의 도시

폴 카라식, 데이비드 마추켈리 | 황보석 옮김
2006.3.20 | 152면 | B5 변형 | 7,500원

스탁

콘웨이 로이드 모건 | 오숙은 옮김
2006.3.10 | 240면 | B5 변형 | 18,000원

자서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 이종인 옮김
2006.1.15 | 632면 | B5 변형 | 28,000원

05

● 7월, 열린책들에서 <미메시스> 브랜드로 도서 출간

시작

● 11월, 알바루 시자,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설계 시작

● 신간 3권, 총 3권 발행

가구의 책

우치다 시게루 | 고현진 옮김

2005.12.25 | 280면 | B5 변형 | 18,000원

나는 Dada다

만 레이 | 김우룡 옮김

2005.7.30 | 512면 | B5 변형 | 25,000원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카림 라시드 | 김승욱 옮김

2005.7.30 | 252면 | A4 | 35,000원

직거래 서점

교보문고 (41자점, 바로드림센터/교내서점 포함) 1544-1900

광화문점 02-397-3400
강남점 02-530-0304
잠실점 02-2140-8800
목동점 02-2062-8801
영등포점 02-2678-3501
합정점 02-335-1901
천호점 02-472-3501
부천점 032-663-3501
인천점 032-455-1000
일산점 031-936-7546
천안점 041-558-3501
분당점 031-702-3501
평촌점 031-466-3501
광교점 031-214-3501
광교 월드컵센터
031-212-9961
대전점 042-488-3501
대구점 053-425-3501
부산점 051-806-3501
창원점 055-284-3501
울산점 052-227-3501
센텀시티점 051-743-3501
디큐브시티 바로드림센터
02-2210-9028
수유 바로드림센터 02-999-3501
청량리 바로드림센터 02-959-3501
가든파인 바로드림센터
02-2157-3401
세종 바로드림센터 044-862-8401
동대문 바로드림센터 02-2283-2131
판교 바로드림센터 031-5170-2424
송도 바로드림센터 032-727-2807
전주 바로드림센터 063-717-3501

반월당 바로드림센터 053-426-3501
은평 바로드림센터 02-6975-5000
해운대 바로드림센터 051-731-3601
칠곡 센터 053-322-3501
광주 상무 센터 062-373-3501
경성대·부경대 센터 051-624-9961
서울대 교내서점 02-880-8581
이화여대 교내서점 02-393-1641
성균관대 교내서점 031-292-3501
포항공대 교내서점 054-279-3715
전북대 교내서점 063-270-4436

영풍문고 (42자점) 1544-9020

종각 종로본점 02-1522-2776
스타필드 코엑스몰점 02-6002-2718
강남역점 02-569-9070
여의도 IFC몰점 02-6137-5254
김포공항 롯데점 02-6116-5544
홍대점 02-2250-7733
가산 마리오점 02-2067-3820
강남 포스코점 02-3452-3112
용산아이파크몰점 02-2012-0828
왕십리역점 02-2200-1600
신림 포도몰점 02-889-9675
미아롯데점 02-944-2651
사당역점 02-3487-6213
인천 터미널점 032-422-5900
수원 NC점 031-267-5555
의정부 신세계점 031-8082-0743
죽전 이마트점 031-898-1293
분당 서현점 031-8017-9162
스타필드 하남점 031-8072-8450
스타필드 고양점 031-5173-3065
스타필드 안성점 031-8092-1610

구리 롯데아울렛점 031-8034-2171
위례점 031-758-5060
인천 스퀘어원점 032-456-4021
스타필드시티 위례점
031-8097-1291
대전 터미널점 042-623-4914
청주점 043-716-0002
세종점 044-867-0358
유성점 042-384-4400
천안 불당점 041-566-9009
포항 남구점 054-274-5670
경산 이마트점 053-815-0451
구미 롯데마트점 054-462-9050
광주 터미널점 062-364-0210
목포 터미널점 061-273-9555
전주 터미널점 063-252-9161
군산 롯데아울렛점 063-447-0372
광복 롯데점 051-678-4100
부산대점 051-590-8300
부산 하단점 051-999-7122
마산 롯데점 055-240-5690
부산 남포점 051-255-9744

은라인 서점

교보문고 1544-1900
예스24 1255-3800
알라딘 1544-2514

도매 서점

(주)복선 031-955-6777
(주)복플러스 070-4726-2900
한국출판협동조합 02-716-5616
여린소나무 02-766-2631

주식회사 책이랑 02-2677-3879
(주)가람서적 02-835-6872
(주)베스트비 070-4849-5121
자유서적 031-955-3522
(주)워드북 031-946-4721
(주)가인플러스 1577-2245
(주)위즈덤샐러 070-4070-4026
스피드북스 031-922-0109
주식회사 북채널 070-4821-3340
한결문고 032-325-4755
주식회사 태양 031-407-6368
주식회사 북스북스 031-942-0420

소매 서점

노원문고 02-951-0633
홍익문고 02-392-2020
한양문고 화점점 031-978-7330
맹스북스 02-325-0321
어쩌다 책방 070-5121-5629
인덱스컴퍼니 02-2122-1259

지방 서점

중부서적판매(대전) 042-224-7755
학문당(창원) 055-246-2925
대신서적(창원) 055-256-6031
학원사(포항) 054-249-5617
영광도서(부산) 051-816-9500
남포문고(부산) 051-245-8911
(주)한성서적(부산) 051-312-8383
한일서적(대구) 053-423-0781
세원출판유통(대구) 053-422-5441
G&GO 말글터(강릉) 033-641-3000

제작처

종이

- 두성종이(이해원 대표)
02-3470-0001
원방드라이보드(조재우 대표)
031-955-3800
진영지업(김동국 대표)
02-468-0671
한솔피엔에스(강준석 대표)
02-772-5100

인쇄

- 상지사피앤비(김종하 대표)
031-955-3636
영신사(홍사희 대표)
031-580-3700
한승문화사(임한준 대표)
031-904-5155

제본

- 경일제책사(이선재 대표)
031-945-8238
상지사피앤비(김종하 대표)
031-955-3636
영신사(홍사희 대표)
031-580-3700

라미네이팅

- 북웨어(강희제 대표)
031-955-0400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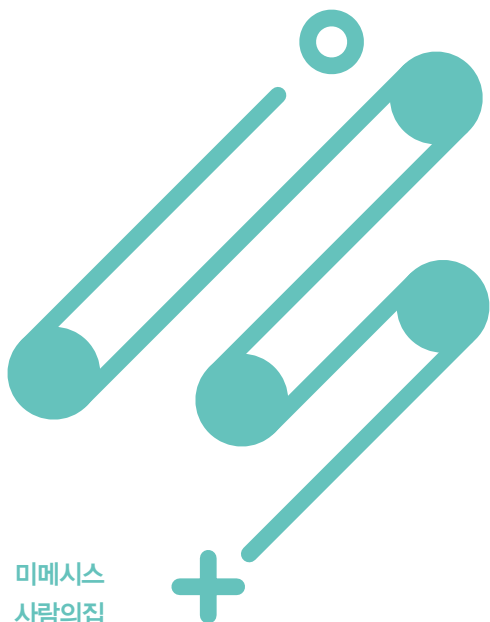
- 이레(박경우 대표)
031-903-2366

래핑

- 희망(김희종 대표)
031-955-2222

박스 제작

- 나성지기(정만수 대표)
031-944-6971



23

미메시스
사람의집

발행인 홍예빈·홍유진 **발행처** 미메시스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53 파주출판도시

대표 전화 031-955-4000 **팩스** 031-955-4004 **홈페이지** www.openbooks.co.kr

email webmaster@openbooks.co.kr **발행일** 2023년 2월 1일 초판 1쇄

Copyright (C) 미메시스, 2023, Printed in Korea.

미메시스는 열린책들의 예술서 전문 브랜드입니다.
사람의집은 자서전과 평전, 그리고 의학 분야의 책을 펴냅니다.

